

하

2017

오 펜

작 품 집

O'PEN
CJ E&M

2017 오픈 작품집

하권

웹용 2017 오픈 작품집은

서울 한강체, KoPob 폰움체·바탕체, 어도비 본명조·본고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7

오픈

작품집

2017 오픈 드라마 스토리텔러 작품집 하권

2017 오픈 작품집 하권

1판 1쇄 인쇄 | 2017. 12. 26.

1판 1쇄 발행 | 2017. 12. 30.

발행처 씨제이엔엠(CJ E&M)(주)

발행인 김성수

제작 오픈

편집디자인 디자인 몽클

등록번호 제 2008-000114호 | 등록일자 2008. 7. 10.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66 CJ E&M CENTER

전화 02-371-5501

글 강민수, 강유미, 강원영, 김동경, 노민경, 박주연, 박윤서, 신수림, 신하은, 유영주,

윤조, 이소영, 이정민, 장아미, 전영선, 차연수, 최성욱, 최수현, 최지훈, 하수정

일러스트 신슬기, 최진아

교정 정지희

사진 스완 스튜디오 김승완

이미지 셔터스톡

인쇄 민언프린텍

ISBN 979-11-87565-23-9 04680

ISBN 979-11-87565-21-5(세트)

© 2017 CJ E&M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M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무단배포 금지)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34872)

상권

- 목차 004
- 작품집을 출간하며 006
- 2017 오픈의 활동 009

오픈 작품집

- 가해자...들 / 강유미 작가 후기 035
- 오늘도 탬버린을 모십니다 / 김동경 작가 후기 099
- 세탁소와 향수 / 박윤서 작가 후기 169
- 삼시도 그날 밤 / 이소영 작가 후기 235
- 야생의 울자 / 전영선 작가 후기 297
- 골든 걸스 / 장아미 작가 후기 351
- 무사의 깔창 / 차연수 작가 후기 413
- 문집 / 신하은 작가 후기 485
- 직립 보행의 역사 / 최성욱 작가 후기 547
-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 박주연 작가 후기 611

하권

- 목차 004
- 드라마 제작기 007

오픈 작품집

- 낫 플레이드 / 강민수 작가 후기 051
- B주임과 러브레터 / 신수림 작가 후기 107
- 박과장의 은밀한 사생활 / 최지훈 작가 후기 177
- 소풍 가는 날 / 이정민 작가 후기 243
- 덤벼! / 노민경 작가 후기 307
- 우리 집은 맛나 된장 맛나 / 윤조 작가 후기 367
- 파이터 김봉숙 / 유영주 작가 후기 441
- 질투는 나의 힘 / 최수현 작가 후기 503
- 미운 사투리 소녀 / 하수정 작가 후기 567
- 오 마이 시스터 / 강원영 작가 후기 625

tvN 단막극 <드라마 스테이지> 제작기

하권

■ B주임과 러브레터 009

- 감독 인터뷰 012
- 작가 인터뷰 014
- 주연 배우 인터뷰 - 송지호 018
- 주연 배우 인터뷰 - 조우진 022
- 제작 프로듀서 인터뷰 026

■ 낮 플레이드 029

- 감독 인터뷰 032
- 작가 인터뷰 034
- 주연 배우 인터뷰 - 원미경 038
- 주연 배우 인터뷰 - 이희준 042
- 제작 프로듀서 인터뷰 046

B주임과 러브레터





<B주임과 러브레터> 제작기

‘어쩌다 보니 솔로’인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 <B주임과 러브레터>

“한 번의 명랑한 당신의 웃음 소리가 찢어주었어. 내 생의 가면을. 나 해철 님의 웃음 소리란 시예요. 가영 씨 웃는 거 보니까 생각나서...”
20썸. 노래방 앞 거리. 만취한 가영을 따라 나온 병선이 무심하게 내 뺏는다. 가영은 이 남자가 러브레터를 보낸 장본인인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평범하고, 멋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남자가...
<B주임과 러브레터>는 모태솔로 방가영이 의문의 러브레터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가영은 러브레터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마음 깊이 숨겨둔 ‘자신’을 만나게 된다. <B주임과 러브레터>를 만든 사람들에게 제작 과정 비하인드를 들어보자.

사진 김승완 (스완 스튜디오)



처음이지만 낯설지 않은 <B주임과 러브레터> 윤현기 감독

9회차 촬영을 마친 윤현기 감독은 수척했지만 시종일관 웃었다. 그가 현장에서 느끼던 흥분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고스란히 전해졌다. 처음으로 연출하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B주임과 러브레터>의 연출 후기를 들어보자.

첫 연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작품을 고를 때 기준이 있어요. 밝은 느낌의 이야기, 여자 이야기, 성장 포인트가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B주임과 러브레터>를 보았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었어요.

작가는 감독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엄지척! 했습니다만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 작업은 어땠나요?

희로애락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소통하며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작가, 연출 모두 신인이었기 때문에 겪는 상황이었죠. 전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토론을 거듭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어 더욱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글로는 정서가 전달되더라도 보는 입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표현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만히 있는 장면과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장면은 화면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작은 디테일이 결국 감정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연출자는 계속 요구를 하죠. 하지만 그런 요구가 작가가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와 조금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으면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설득 작업 시 작가가님이 마음을 잘 열어주었고 그 덕에 어려웠던 지점들이 많이 풀려나갔죠. 신수림 작가님께 감사합니다.

초고하고 수정고는 어떤 면에서 달라졌나요?

처음의 대본은 진정성이 있었지만 좀 담백했어요. 극에 에너지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캐릭터를 구축하고 감정을 응축하는 데에 많은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한 시청자들이 가영의 감정선에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가영과 병선의 상황에 몰입도를 높여려 힘썼죠.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궁금해 하길 바랐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 비록 앞부분의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중심만 놓치지 않는다면 잘 완성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송지호 배우가 분한 가영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B주임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여자 주인공 가영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영은 보통 여자입니다. 평범하지만 외로운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시청자들이 공감대를 느낄 것 같았죠. 배우에게 캐릭터의 이미지를 입히는 작업이 제일 어렵지만, 저는 그게 연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본 보면, 46선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병선,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듯 감정적으로 디테일한 지문들이 많은데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는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46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46선 이전에 어떤 감정들이 쌓여 있는가가 중요하죠. 만약 작가가님이 보기에 그런 미묘한 감정을 씬에 넣어야 한다고 하면, 이전 씬들을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은 배우와 소통을 해서 만들어 갑니다. 이걸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교나 장치에 의지하지 않고 배우를 믿고 가야 합니다.

이번이 연출 데뷔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할 지 기대가 됩니다.

처음 하는 일이어도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이번 것은 풋풋하고 담백한 이야기로 공감을 얻는 이야기였다면 다음에는 진한 여운으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멜로를 하고 싶어요.

코미디와 스릴러의 변주곡

<B주임과 러브레터> 신수림 작가

날 것의 생생함이 살아 있는 캐릭터. 웃픈 현실을 담은 리얼한 묘사. <B주임과 러브레터>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다. <B주임과 러브레터>를 쓴 신수림 작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모태솔로' 캐릭터를 만들고자 했다. 작가에게 <B주임과 러브레터>의 탄생 과정을 들어보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 발화점이 어딘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는 언니가 모태솔로였는데 모태솔로라고 딱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살다보니 노처녀가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언젠가 그 언니가 동창회를 갔는데 학창 시절에 좋아하던 남자 동창이 그 언니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랬대요. “키스 한번 해볼래? 너 연애 못 해봐서 키스도 못해봤을 거 아냐.”라는 식으로. 그 남자는 결혼도 했는데... 그 순간 당연히 화가 났고 모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두근거렸고 설렘대요. 그런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자존심 상했고, 순간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거 같다고 씩씩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상 기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람임에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어느샌가 그 사람한테 빚장이 풀리고... 그 언니를 보면서 누구에게나 빚장이 풀리는 순간이 오긴 하는구나... 느꼈어요. 그 일화를 듣고 이야기를 쓰고자 결심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노처녀와 좀 다른 느낌을 주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대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코미디를 더 강화시키고 싶었는데, 감독님은 누구나 공감하는 외로운 사람들 이야기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 토론을 거치다가 '공감대'로 합의가 됐죠. 딱히 히스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에 목을 매는 것도 아닌, 어쩌다 보니 나이를 먹게 됐고, 어쩌다 보니 연애 기회를 잡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결혼 시기는 점점 늦어져만 가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에 대한 촉박함을 갖는 것은 아닌, 하지만 너무나 외로운. 어쩌면 나일지도 모르고, 내 친구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옆집 여자일지도 모를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직한 이미지의 노처녀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극 중 병선이 회식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장면.
병선 역을 맡은 조우진 배우.



극 중 병선과 가영의 외근 장면.
병선의 따뜻한 면을 발견하고 감동하는 가영

감독님과 대본 수정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 캐릭터가 없다.” 작가분들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기승전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캐릭터 디테일에서 놓치는 것들도 있죠.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는 받지만 한편으로는 수긍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의 틀은 그대로 가고 감독님과는 캐릭터 연구를 주로 같이 하며 그 위주로 수정했습니다. 이를테면, 가영이는 왜 모쏨인가? 병선이는 태희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꼈으며 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가? 규리는 왜 가영이한테 얹혀사는가? 등등 세세한 것까지 같이 이야기하며 씬 바이 씬 별로 캐릭터 일관성이라든지, 캐릭터와 캐릭터가 부딪혔을 때 어떤 반응과 상황이 나와야 할 것인지 등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모여서 캐릭터 색깔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단막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작업을 하면 노하우가 쌓이지 않나요?

2015년에 KBS 드라마 스페셜 <낮선 동화>를 작업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수정을 할 때 감독님과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유연하게 반영하는게 좋다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감독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수정 방향들이 나올 텐데, 그런 모든 아이디어와 방향들을 다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개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자 했는가, 왜 이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잡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중심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양질의 수정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본 원고가 나오고, 후련했나요? 혹시 시간이 있다면 고쳐보고 싶은,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네, 후련했습니다. 감독님이 막상 찍다 보니 멜로 그림이 너무 잘 나온 것 같다고 하시던데. 상상 씬으로도 남, 녀 주인공을 더 붙였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전 크게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다음 작품이 궁금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작품을 쓰고 계신가요?

제가 말로는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글을 쓰면 정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쓰면서 글로도 어떻게 웃게 만들지에 대한 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미스터리와 약간의 스릴러가 들어간 청춘물을 구상 중인데 그 안에 코믹감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친절해가지고 <B주임과 러브레터> 배우 송지 효

<B주임과 러브레터>에서 30대 모태솔로 가영 역을 맡은 배우 송지효를 만났다. 우리 시대 싱글들이 싱글인 이유는 못생겨서도 아니요, 엄청 별나서도 아니다. 사람에 부대끼고, 일에 지쳤을 뿐이다. 배우 송지효가 표현하고 싶었던 '가영'은 바로 우리처럼 지치고 외로운 사람이 아닐까.

“물론 상대에게 거절을 당하는 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경험을 해봤기에 그 아픔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가영을 만나는 기회가 온 게 아닐까요.”



어떤 점에 끌려서 이 캐릭터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지효님은 미모의 연기자입니다. 반면에 극중 가영은 소개팅에서 보자마자 차이는 스타일입니다. 간극이 꽤 있어서 힘들었을 거 같습니다.

가영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시지요.

감정선을 이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을까요?

연기를 하는 연기자로서 저는 주로 대본과 캐릭터를 보고 선택해요. <B주임과 러브레터>의 윤현기 PD님과 오랜 친분과, 대본과 상황이 비슷했던 윤현기 PD님의 정성 어린 손편지가 선택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손편지를 보고 감독님에 대한 진심과 믿음이 더 생겨 의심없이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살면서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라 생각해요. 그 상대가 사랑과 연관된 것이건, 일과 연관된 것이건, 일상생활에 연관된 것이건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경험 덕분에 누군가에게 차이는 연기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웃음) 물론 사랑을 하고 있는 상대에게 거절을 당하는 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경험을 해봤기에 그 아픔을 마음껏 재미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영’이를 만나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결말도 아니고, 같이 사랑을 하다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결말도 아니었다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그 덕분에 주변에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요. 특별히 ‘가영’이에게 무언가를 첨가하기보다는, 저에게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했습니다.

‘가영’이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여자이자 회사원이예요. 하지만 남자를 보는 눈이 높다고 해야 하나?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남자(이성)의 조건이 뚜렷하게 있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좋고 싫음이 분명한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죠. ‘병선’과 서서히 물 들어가는 감정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대사가 없는 부분의 감정을 몸과 표정으로 표현해야 하는 장면들과 조우진 선배님과의 호흡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가영’과 ‘병선’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의 기승전결을 제일 많이 신경 썼고, 무언가를 하기 보다는 조우진 선배님과 호흡을 느끼고 생각하려 했어요.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기 전에 나오는 버스 정류장 씬이 가장 신경 쓰이고 힘들었어요. 그날의 감정을 여러가지로 표현해야 했는데, 2%로의 모자람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영’과 감독님이 생각하는 ‘가영’이가 같으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힘들었죠. 또한 그날의 흐름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주변의 환경이 예민하게 다가왔어요. 많이 아쉽고, 많이 속상하고... 병선과의 클라이맥스에서 여러 번의 테이크를 가서 속상 했어요. 조우진 선배님이 마무리를 잘 해주셨지만 제가 저의 100%를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에 슬을 좀 마셨던 기억이... (웃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흔하고 뻔한 대본이 아닌 것을 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느끼지만 누군가는 생각하지 못하는, 누구는 경험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멋지고 환상적인 상황과 글들을 많이 만들어 연기자들이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장 표현하기 힘들었고, 그만큼 노력했던 씬이 있다면 어떤 씬이었나요?

작가님에게 한마디해주세요.

시집을 찢고 나온 남자

<B주임과 러브레터> 배우 조우진

‘정리가 안 된 덩수룩한 머리, 후줄근한 셔츠, 긴 손톱... 뭐 하나 가영의 마음에 드는게 없는 병선. 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너저분한 책상까지.’ 지문 속에 나온 병선에 대한 첫 묘사는 이렇다. 그러나 드라마가 거듭되면서 그는 사랑스러운 남자 주인공이 된다. 조우진 배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B주임과 러브레터>에서 병선 역을 맡은 조우진 배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작가가 작품 전체를 바라본다면,
그 시선이 놓칠 만한 세심한 구석의 숨은 재미를 찾는 것은
배우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 끌려서 이 캐릭터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병선은 '시짚남'이에요. 시집을 찢고 나온 남자. 뭔가 슴슴하고 여백이 많아 보이지만, 그 속에 그만의 순수함과 진중함이 나름 적잖이 채워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사람에 대한, 이성에 대한 표현력이 지금보다 다소 부족하던 시절의 제 모습을 담아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처음 연기해보는 호흡이라 제 속에서 도전 의식도 피어난 것 같고요.

캐스팅 소식을 듣고 기대가 됐습니다.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대본상에 표현된 대로 준비했어요. 지문과 대사를 통해 떠올린 이 캐릭터에 관한 키워드는 '평범함'과 '실속'이었어요. 병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외모와 꾸밈 없고, 감정에 솔직하며 상처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여린 감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본질에서 오는 특징들을 고민해 말투와 행동에 담아보려 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씬이 있다면 어떤 씬입니까?

병실에서 가영의 손을 잡고서 술 기운과 잠 기운에 취해 고백하는 장면이요. 대본을 봤을 때 병선의 진심이 가장 잘 묻어나는 장면이라 생각했거든요. 공을 들였다기보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말하자는 각오로 임했던 기억이 있어요.

배우의 기지를 발휘해서 풍성하게 만든 씬이 있나요?

가영의 꿈에 잘생기고 멋진 재현이 등장하는데 서서히 병선으로 바뀌면서 악몽으로 돌변하는 장면이 있어요. 대본상에는 가영에게 도시락을 내밀면서 "같이 먹어요. 평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파두부'를 추가해봤어요. 이전에 사무실에서 병선이 먹다 남은 마파두부 냄새 때문에 가영과 여직원 모두 엄청 싫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파두부를 평생 같이 먹자고 한다면 가영의 악몽도 작품의 재미도 좀 더 극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었답니다.

또 하나는 가영이 병선에게 병문안 오는 장면인데요. 대본상에는 병선이 침대에서 시집을 읽다가 가영을 맞이하는데, 현장에서는 잠들어 있다가 본인 코 고는 소리에 깨는 걸로 바뀌었어요. 연기를 하다 보니 그 전후 장면에서 병선과 가영의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청자들

에게 '숨통'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 현장에서 감독님께 제안 드려 봤어요.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작가가 작품 전체를 바라본다면, 세심한 구석의 숨은 재미를 찾는 것은 배우의 몫이라 생각한다"구요. 예전엔 그런 부분을 지양했는데 이젠 작품을 훼손하지 않고 극적인 재미를 더할 수 있다면 배우의 아이디어는 분명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본 감독님 같았어요. 장면·인물에 대한 목표점이 명확해졌고, 사전에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었기에 현장에선 즐기면서 작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막극이라 여러모로 아쉬워요. 좀 더 긴 호흡으로 협업하길 바랍니다. 지효 씨와도 마찬가지로요.

작가님 덕분에 연기자로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실로 뜻깊은 기회였답니다. 감사 드리고요. 작가님의 펜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글들과 많은 연기자의 호흡이 빛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작가님께 당기를 빌겠습니다. 건필하세요. 늘.

감독님과 작업은 어땠나요?

작가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9일간의 전투를 치르고

안녕하세요. <B주임과 러브레터>의 제작을 맡은 이세희 피디입니다. 저희가 만든 <B주임과 러브레터>는 9일간의 촬영을 마치고 이제 후반 작업에 들어갑니다. 겨우 9일 찍었는데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지네요.

특히, 가영이 고백 받으러 가던 장면이 있어요. 감독님이 그 장면을 뮤지컬처럼 꾸미자고 하셨어요. 무지 신나는 느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댄스 팀 30명 정도가 와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고, 송지호 선배도 같이 안무하는 분과 함께 연습을 했어요. 야외에서 그런 몹씬들은 촬영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촬영이 수월했어요. 다들 연습하는 과정에서 애를 써 주셔서 촬영이 잘 마무리된 거 같아요.

저희는 작가님의 상상력에 더해서 그 씬이 더 잘 표현될 수 있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대본 보다 그 느낌을 더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연출하시는 분의 고민을 실현하려고 많은 스태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했어요.

아! 재미있던 일화가 생각나네요. 가영의 상상 씬에서 백마 탄 왕자와 공주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갑옷을 미국에서 공수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촬영을 해서 그런지 도중에 칼이 부러졌거든요. 수리비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황당한데 동시에 코믹한 거예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9일차에 어떻게 했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촬영장에서는 송지호 선배가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워낙 정의감도 투철하고, 씩씩하고 털털한 느낌이다 보니 현장에서 힘이 되어주셨어요. 여자 주인공이니까 모든 씬에 다 걸리잖아요.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내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스태프들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조우진 선배님도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분이 연기를 하면 주변 사람을 몰입하게 하는 매력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런지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고마운 분이 정말 많네요. 모든 스태프가 자기 일처럼 나서주지 않았다면 힘든 일정이었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단막극 찍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연출 제작팀에게 정말 정말 고맙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을 함께 해줘서 더욱 고마움을 느껴요.

<B주임과 러브레터>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가 고생한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고생하셨고, 많이 많이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이세희



노래방
회식 씬.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해준 촬영팀



스태프가 처음 한 자리에 모인 대본 리딩



미국에서 공수해온 그 갑옷.
상상 속 갑옷 결투 씬

낫 플레이드





<낮 플레이드> 제작기

누구도 유예할 수 없는 시간 <낮 플레이드>

“낮.플.레.이.드. 자기 차례가 오고 공을 치기까지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기면 규칙 위반으로 상대에게 차례가 넘어가버려요... 시간 내에 무슨 길이든 쳐야 경기가 됩니다.” (<낮 플레이드> 극중 성욱 대사)

인숙은 누구의 어머니이자, 부인이자, 할머니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 60대 여성이다. 그녀는 우연히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다 당구에 취미를 붙이게 된다. 당구장 사장 성욱은 인숙의 빠른 습득 능력에 놀라 그녀를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고, 소문을 듣고 몰려든 도전자들은 그녀의 실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나자빠진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러나 가족들은 인숙이 엄마, 부인, 할머니로 존재하길 바라는데... 자기답게 사는 것을 유예할 수 있는가? <낮 플레이드>는 인숙, 성욱뿐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사진 김승완 (스완 스튜디오)



누군가의 변곡점을 지켜보며 <낮 플레이드> 유종선 감독

<낮 플레이드>를 연출한 유종선 감독을 만났다. 그는 지난 해 <빨간 선생님>으로 서울드라마어워즈에서 우수작품상을 받았다. 그가 만든 두 번째 단막극 <낮 플레이드>가 궁금했다. 작가와 작업은 어떠했는지, 실제로 촬영 현장은 어떠했는지.

<낮 플레이드>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6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맞벌이 상황을 버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실제로 내 옆에서 드라마와 유사한 인물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된 거잖아요. <낮 플레이드>는 그런 지점에서 끌렸어요.

작가와의 작업은 어땠나요? 원고 수정을 위해 동해까지 작가를 찾아가기도 하셨다고요.

동해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본을 더 좋게 고쳐보자고 간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시각 차를 좁힌다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더구나 작가 분이 소설만 써오셨던 분이예요. 저는 긴 시간을 습작했으며 버텨낸 작가의 강단과 단단한 자존감이 좋았어요. 또 진솔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 동력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도 잘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처음에는 인숙의 이야기였다가 수정된 원고에서는 성욱의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선택에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인숙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숙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욱의 존재가 처음부터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의 관계가 큰 의미에서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서로 변곡점에서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큰 의미로 사랑이겠죠. 사랑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본 리딩 할 때, 당구거나 친다는 사람들이 인숙에게 패배하는 장면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꽤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연출이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연출로서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당구라는 스포츠는 사실 룰을 알아야 재미있는 거죠. 공이 공을 치고, 쿠션을 치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해 보이죠. 마치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바둑TV를 보면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경기 상에서 이기고 지고를 화면에 나타내야 하는 거죠. 당구 치는 모습을 화면에 담을 때, 실제 공은 속도감이 없어요. 자칫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긴장도 있고, 승리의 쾌감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촬영을 마치면서 소감을 얘기해주세요.

원미경 선생님이 미국에 계셔서 원고만 보내고 설득을 해야 했어요. 그 사이에 전화로, 메일로 소통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방식으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선생님이 오시면서 기우였다는 걸 알았어요. 힘든 내색 하나 안 하시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니까, 너무 고맙게 잘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 KBS에서 나온 뒤 처음 하는 프로라 촬영팀을 비롯해 다들 처음인 분들이 많았어요. 완성도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1인극과 2인극의 사이에서 <낮 플레이드> 강민수 작가

강민수 작가는 원래 하드보일드 소설을 썼다. 오픈 공모전에 단막극을 내면서 처음으로 드라마에 도전했다. 장르가 바뀌니 많은 것이 바뀌었다. 무엇보다 공동 작업이 낯설었다. 치열한 수정 과정을 겪으면서 작가는 유연해지고, 한편으로 단단해졌다. 이제 드라마를 알 것 같다고 한다. 작가에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원래 소설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드라마를 쓰고자 했을 때에는 나름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하드보일드 소설을 썼는데, 소설을 써 놓고 나면 동료 작가들이 단막극 같은 거 하면 잘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운 좋게 당선이 됐네요. 잘 만든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드라마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낮 플레이드>는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옛날에는 공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크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요. 근데 그게 부질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미래에 뭐가 있다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는 남을 의식했다면 지금은 내가 몰입하는 거,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낮 플레이드>의 얘기와 닿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출자와 함께 작업한 적은 처음일 텐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 작품을 이렇게 의논하면서 작업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작업은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기본 골자를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 논의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작업입니다. 유종선 감독님과 대본 작업을 하면서 성욱의 역할이 커졌어요. 초고는 1인극이고, 수정고는 2인극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실제 삶은 1인극에 더 가깝고, 2인극은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보편적 설득력이 있는 2인극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정을 하며 당구장 사장인 성욱의 비중을 더 키웠어요.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극 중 오늘을 유예하지 않는 자들, 거리의 인디 밴드로 분한 잔나비



아내를 데리러 온
분노의 봉철



극 중 재야의 도장 깨기 고수
'코털'을 연기한 조재운 배우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달랐던 거 같기도 합니다. 인숙이 나중 에 식구들을 뿌리치고 대회장으로 가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나요?

유대감이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죠. 저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이 저를 그렇게 바꿔 놓았는데, 그 부분을 녹이고 싶었어요. 극중에선 그런 설정이 인숙의 ‘형님’인데, 그 배역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 찰나의 깨달음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감독님은 옆에서 꾸준히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에 의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옥의 역할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나는 내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를 바랐어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겪은 삶의 방식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는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대본 수정 후기에 봉철을 가부장적인 남편에서 역할론자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역할론자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웃음)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토론하면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봉철은 자기희생을 하고,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가치관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당신은 엄마, 할머니, 부인으로 성실해라 나도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남편 역할을 하지 않느냐. 가족을 위해서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에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인물에게 당위성을 넣었어요. 그걸 역할론자라고 우리는 불렀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유종선 감독님이 동해로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설득은 안되었나 봐요. 그 후로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어떤 지점에서 감독님과 합의점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참... (웃음) 그렇죠. 몇 번을 얘기해도 타협이 안되는 건 안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하면, 설득되는 부분도 있고, 설득 당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작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감독님이 좋은 사람이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작가님 다음 작품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신가요?

장르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릴러를 써보려고요. 인간적인 이야기가 바탕이 된 스릴러를 써보고 싶습니다.



연기는 살아 있다

<낮 플레이드> 배우 원미경

연기는 생물체처럼 살아 있다. 상대방의 연기에 따라 톤을 고르고, 호흡을 골라야 한다. 상황에 따라 리액션도 달라진다. <낮 플레이드>의 감독 유종선은 여자주인공을 맡은 배우 원미경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떤 공이 와도 이제 길이 보이는 경지에 다다른 게 아닐까. <낮 플레이드>에서 인숙 역을 맡은 원미경 배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낮 플레이드 (제한된 시간 내에 공을 쳐야 하는 당구 용어)

“그 얘기가 지금의 나에게도 주는 울림이 있어요. 주인공은 자신이 진짜 원하던 걸 하러 가는 거죠. 인숙은 나와 닮은 데가 있는데, 그 지점을 연기할 때 흥미로웠어요.”

**촬영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8회차였나? (웃음) 짧은 촬영기간이었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즐거웠어요. 65세를 연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흰머리도 만들어봤고, 현장에 나가니까 스태프들이 정말 젊더라고요. 모두가 30대 초·중반 정도의 젊은 스태프들이었는데, 뭐랄까, 어떤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인숙은
어떤 사람인가?
캐릭터의
어떤 점에 끌려서
출연을 결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대본을 봤는데 인숙이 나 같았어요. 뭔가 하고 싶어 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면에서 저랑 닮은 게 있어요. 늘 도전하는 점이 좋았고요.

요즘은 집에서 엄마의 파워가 세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엄마의 기본 조건은 비슷한 거 같아요. 그 나이 대 엄마들은 뭐든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자기 희생을 하죠. 그런 지점에서 요즘 어머니들이 공감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또 자기 자신 보다 구성원으로서 희생을 해야만 하는 위치의 누군가라면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가 쓰긴 하지만,
캐릭터를 구체화하는 것은
결국 연기자의 몫입니다.
'인숙'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대본을 받아서 연습을 했는데, 당구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탁구대를 놓고 폼을 연습했어요. 남편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원미경 배우의 남편은 이창순 피디로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소싯적에 좀 쳤기에(웃음) 코치를 해줬어요. 재미있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봤고요. 연습을 할수록 내가 직접 당구를 제대로 쳐서 그 긴박감과 박진감이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짧은 시간에 욕심이죠. 그런데 연기자는 그런 욕심이 들어요.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싶다는.

**촬영을 마치고
가장 인상에 남는
씬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마지막 인숙이 당구대회에 나갔을 때 계단을 올라가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이 기억에 남아요. 그것이 클라이맥스고 인숙의 감정이 가장 응축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나는 아직 편집본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하네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호흡이 있어요. 대본을 읽을 때는 상상으로 어떨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거든요. 감정의 톤이 조금 높거나 낮거나 할 수 있고, 연기자라면 그 지점을 잡아서 연기를 하게 되죠. 또 상대 배우가 있잖아요. 상대 배우가 어떤 톤으로 대사를 치느냐에 따라 내가 받는 게 달라지죠. 대본이 살아 있는 거란 얘기가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보고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게 연기자의 역할이죠.

짧은 시간인데 무지 깊은 작업을 한 거 같아요. 스태프들이 예전과 달리 정말 젊은 분들이 현장을 누비고 있어요. 감독님은 참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랑 좋았고, 명계남 씨나 이희준 씨도 참 좋았어요. 다들 감사해요.

지금 탁구를 배우고 있어요. 폼은 엉망인데, 이상하게 공이 맞네요. (웃음) 청평 쪽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는데... 혹시 아냐요, 내가 60대에 탁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웃음)

나는 엄마가 50대 때 그냥 엄마, 또는 중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어머니 부인, 그걸로만 표현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나 자신이 오롯이 있는데, 어떤 역할로 특징 지워지는 게 아쉽다고 할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귀로에 선 느낌이 들어요. 단풍은 떨어지기 직전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해도 떨어지기 직전에 아름답고요. 사람을 깊게 들여다보는 작품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걸 그리는 작가의 작품이 나오면 반가울 거 같아요.

**대본으로 볼 때와
현장에서 연기할 때
다른 지점이 있나요?**

**감독, 다른 스태프들과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실격 인생! 그에게도 사연이 있으니 <낮 플레이드> 배우 이희준

“당구는요, 무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공을 어떤 길로 보낼지를 계산하고, 공의 어디를 어떻게 쳐야 할지를 가능해야 하죠. 하지만 영원히 계산하고 가능만 할 순 없어요. 시간 내에 치지 않으면 실격이거든요.”

술만 마시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뻔했던 과거를 줄줄이 늘어놓는 남자, 성욱. 어느 날 당구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이는 할머니를 만나 열정적으로 기술을 전수해주지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은 뒤로 미루고 있다. 과거에 매여서 지금 용기 내지 못하는 사람. <낮 플레이드>의 성욱 역을 맡은 이희준 배우를 만났다.

**성욱의 어떤 점에 끌려서
출연을 결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욱이란 인물은 한때 잘 나갈 뻔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어 있는 인물이지만 예전의 실패로 인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욱이란 인물도 '낫 플레이드' (당구용어- 제한 내에 공격을 하지 못하면 공격권이 넘어가는 룰)라는 말에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성욱이란 인물에 끌렸죠.

**'성욱'이란 인물을
구체화할 때,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작가님은 대본 전체의 큰 흐름을 생각해서 쓰지만 배우는 큰 스토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자신의 스토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욱이란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에 대한 빈칸을 상상력으로 많이 채우게 됩니다. 이 남자는 왜 낮에 알바를 고용했을까? 이 남자가 알바를 고용하면서까지 가고자 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지요. 특별히 당구를 잘 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제한된 제작 여건 안에서 많은 씬을 찍다 보니 당구장 씬은 어려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같이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감독님과 많은 분들이 상황을 배려해주셔서 잘 찍을 수 있었어요.

**원미경 배우와의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후배로서 감히 얘기하자면 참 아름다운 분이세요. 연기를 한참 쉬었다가 오셔서 현장이 힘들게 느껴지실 법한데도 그 열정이 대단하시죠. 배역을 대하는 그분의 마음도 참 고우시고, 그 역에 그분의 순수함이 더해지면서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미경 선배님이 좋아서 이번에 노희경 작가님의 <세상에 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리메이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욱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성욱의 스토리 라인이 지금 대본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성욱은 왜 알바를 고용하고, 자신은 정작 당구장을 비우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배우는 딛고 설 땅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전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들이 구체화가 된다면 좀 더 입체감 있는 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소질을 발견하고, 그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응원해주지만, 정작 자신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유예하고 있는 인물일 수 있겠다. 이런 지점을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는 의견을 드렸는데, 고맙게도 대본에 그런 점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성욱이란 인물이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감독님과 작가님이 대본에 잘 녹여주셨어요. 배우로서는 참 고맙죠.

제가 당구 씬을 연습하면서 자세 교정을 받았는데, 코치가 자세를 잡아줄 때 통하는 교감이 있어요. 아주 슬라이스한 터치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몸을 스치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온 인숙에게 그렇게 자세를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이게 잘 살면 아주 좋은 느낌을 주겠다 생각했어요. 영향을 주고받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교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씬이 잘 나오면 아주 근사할 거 같아요.

대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성욱이 그저 인숙에게 당구를 가르쳐주고, 당구대회에 나가는 이야기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거기에서 그치기보다는 인숙이 당구를 순수하게 좋아하고, 그녀가 당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면서 성욱이 변화하는 지점, 그 변곡점이 나타나야 성욱의 성장기가 완성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느끼는 한 커트가 있어야 성욱의 이야기가 완성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구장 씬 찍으면서 엄청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도 감독님이 꼭 찍어주시기를 바랐어요. 감독님이 찍어주셨고요. 겨우 한 커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배우에겐 그 한 커트가 큼니다.

남들이 다루지 않는 소재를 소중하게 잘 다루주셔서 좋았고, 연기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뿐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운이
남았던 씬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대본에서 가장
노력을 기울인
씬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작가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낮 플레이드> 제작 현장에서 보내온 편지

<낮 플레이드>는 60대의 노년 여성이 당구를 통해 자아를 찾는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60대 여성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낄 때 60대의 여성은 뭔가 슈퍼파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이야 조금 변했지만, 한때 여성은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기억될 뿐이지, 본인 누구로 기억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누군가의 무언가에 익숙한 한 여성에게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딸로 엄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한 여성으로 언젠가 나도 살아야 하는, 살 수도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관심과 애정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저희 드라마에 특별출연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코털 역의 조재윤 선배님이나, 가발 역의 김준배 선배님. 도움 정말 많이 주셨고, 현장에서 너무 유쾌하셔서 촬영하는 동안 내내 즐거웠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당구장 밖 공원에서 버스커 역을 맡아주신 밴드 잔나비와 촬영할 때는 제가 그분들의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가,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촬영이었습니다. 밴드 잔나비에게도 감사 말씀 드려요. 이 버스커의 노래가 이야기의 맥락, 분위기와 관계가 있으니,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생 많으셨고, 모두가 노력해주셨고, 모두가 완벽하셨습니다. 제작 여건상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열악하고 부족한 현장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 파트를 수행해주신 스태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너무 완벽한 스태프였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만나면 꼭 은혜 갚는 제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프로듀서 신예지

당구장을 살리기 위해
낮에는 택배 알바를 하는 성욱



훈훈한 첫미팅. 대본 리딩 현장에서



당구장을 살리기 위해 낮에는 택배 알바를 하는 성욱



재야의 고수, 코털 아저씨의 도전

2017
오 페
작 품 집

하권

일러두기

- 이 작품은 2017년 CJ E&M 스토리텔러 지원사업 <오픈>의 드라마 극본 공모전 당선작 20편의 원고입니다.
- 대사는 입맛을 살리기 위해 맞춤법에서 벗어난 표현도 최대한 살렸습니다.
- 본 작품 중 10편은 2017년 12월부터 tvN <드라마 스테이지>를 통해 방영됩니다. 아울러 대본은 방영된 드라마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낮 플레이드 / 강민수 작가 후기
- B주임과 러브레터 / 신수림 작가 후기
- 박과장의 은밀한 사생활 / 최지훈 작가 후기
- 소풍 가는 날 / 이정민 작가 후기
- 덤벼! / 노민경 작가 후기
- 우리 집은 맛나 된장 맛나 / 윤조 작가 후기
- 파이터 김봉숙 / 유영주 작가 후기
- 질투는 나의 힘 / 최수현 작가 후기
- 미운 사투리 소녀 / 하수정 작가 후기
- 오 마이 시스터 / 강원영 작가 후기

2017

오 펜

작 품 집

낮 플레이드(NOT PLAYED)

인생은 짧다. 그러니 지금 원하는 걸 하자.

강민수

작의

68세의 나이에 당구에 빠진 할머니와 이로 인해 벌어지는 가족들과의 갈등을 통해 진정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등장인물

인숙(여, 68) - 남편 때문에 기가 죽어 늘 눈치만 보고 사는 할머니. 직장 다니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지만 늦은 밤 거실에서 혼자 당구방송을 보는 낙으로 산다.

남편(남, 65) - 개인택시를 하는 고지식한 할아버지. 평생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채널 돌리는 것이 유일한 취미.

형님(여, 70) - 인숙과 비슷한 처지인데 불평불만 없이 소처럼 우직하게 일만 한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

아들(남, 37) - 중소기업 과장.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다.

며느리(여, 35) - 작은 회사의 직원. 수수하고 검소하다.

손녀(여, 4) - 엄마 말을 안 듣고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리는 귀염둥이.

사장(남, 43) - 인숙이 일하는 당구장 사장. 사람이 좋다.

그 외

빡빡, 감상, 코털, 젊은 커플, 기자, 고등학생1, 2, 3, 등등.

줄거리

“저기, 있어요. 그냥... 청소하는 거.”

평생 식구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인숙의 유일한 낙은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밤 거실에서 혼자 당구방송을 보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권유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일이 꼬여 당구장 알바 일을 얻게 되고, 인숙은 겁이 나서 남편에게 청소하는 일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저런 잡것들은 평생 콩밥을 처먹어야 돼.”

인숙은 손님 없이 혼자 연습구를 치면서 당구에 빠져든다. 요리를 하면 도마 위에서 공들이 굴러다니고, 자려고 누우면 천정에서 공들이 굴러다닌다. 몇 개월 후, 사장은 우연히 인숙이 당구치는 걸 보고 놀라며,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자기 대신 혼자 오는 손님들과 당구를 치게 해준다. 인숙은 사람들과 당구를 치면서 실력이 꽤 늘게 되지만 자기 키에 맞는 큐대가 없어 곧 한계에 부딪힌다. 개인 큐대를 사기 위해 비상금에다 형님한테 돈까지 빌리지만 남편이 비상금을 둘째 며느리를 위해 쓰자는 바람에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다른 방법이 없던 인숙은 손님들과 내기 당구를 치기 시작하고, 남편은 텔레비전에 주부도박단을 검거한 뉴스를 보고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광분한다.

“낙? 별거 있나? 자식들 잘 되는 게 낙이지.”

인숙은 식구들보다 형님이 더 편하다. 형님 역시 식구들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인숙과는 반대로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다. 인숙은 형님에게 이제 제사는

며느리들한테 맡기고 좀 재밌게 살자고 말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형님은 그저 살아온 대로 묵묵히 해 나갈 뿐이다.

‘도전하세요. 이번 대회 우승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인숙은 내기 당구로 돈을 마련해서 개인 큐대를 사고, 파마머리도 포스터 속 여자 모델의 머리처럼 바꾼다. 한편 사기 당구를 치는 코털이 등장하고 뽀뽀와 깜상이 그에게 속아 돈을 잃자, 인숙이 나서서 구경꾼들 앞에서 코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다. 이후 인숙은 당구장의 명물이 되어 많은 손님들이 인숙과 당구를 치거나 당구치는 것을 보기 위해 온다. 사람들은 아마추어 당구대회에 나가보라고 말하고 인숙은 포스터를 보며 설렌다.

“잠깐 즐겼다고? 우리 딸 잘못되면 전부 니 책임인 줄 알아!”

인숙이 당구에 빠질수록 집안일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당구 책을 보느라 늦잠을 자서 결혼 후 처음으로 아침상에 라면을 차리게 되고, 남편에게 양말을 짝짝이로 주는가 하면 아들이 회사 일로 부탁한 과메기를 잘못 보관해서 곤란하게 만든다. 그러다 내기 당구를 치다가 놀이방에 늦게 가게 되고, 하필 그날 손녀가 감전 사고를 당한다. 며느리가 교사의 뺨을 때리고 인숙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낫·플·레·이·드. 자기 차례가 오고 공을 치기까지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기면 규칙 위반으로... 제한 시간 안에 무조건 쳐야 됩니다.”

다행히 손녀는 별 이상이 없지만 식구들이 인숙을 쳐다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인숙은 목욕탕에서 막내 조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는 형님을 보면서 자신이 당구를 치는 것에 잠시 회의를 느낀다. 한편 사장은 신중하지만 느리게 치는 인숙의 습관을 보고 ‘낫 플레이드’ 룰에 대해 가르쳐준다.

“저 인간한테 물어봐!”

택시 운전수인 코털은 기사식당에서 당구 고수인 할머니에 대해 떠들지만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편은 그게 인숙의 이야기인 줄 모른다. 하지만 인숙이 코털과 당구를 칠 때 옆에서 구경하던 젊은 커플이 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고, 이 영상은 돌고 돌아 어느 스포츠 신문 기자의 손에 들어간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기사식당에서 스포츠 신문을 보다가 인숙이 당구를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곧장 택시를 몰고 당구장을 찾아가서 인숙의 뺨을 날리고 개인 큐대를 부숴버리고 이것으로 모자라 집에 와서 야구방망이로 텔레비전을 부숴버린다. 아들과 며느리는 영문을 몰라 당황해한다.

“암 판정을 받으면 항암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완치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인숙은 당구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식구들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죄인처럼 지낸다. 그리고 대회 전날, 시숙이 전화로 형님이 허리를 다쳐 입원했다고 알려며 인숙에게 이번 제사를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사장은 인숙에게 대회에 나갈 건지를 묻지만 인숙은 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큰집에 가기 전에 병원에 잠시 들렀다가 의사로부터 형님이 척추암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이럴 때일수록 제사를 더 잘 지내야 돼. 이봐. 어이!”

뒤늦게 나타난 큰집 식구들은 호들갑을 떨다가 암을 확진한 것도 아닌데 왜 암이라고 했냐며 오히려 인숙을 타박하고 시숙은 형님보다 제사 지내는 것을 더 걱정한다. 인숙은 그들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와 길을 걸으면서 오열한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그치고 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S#1. 거실(새벽)

어두운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 한 외국 선수가 초크 칠을 하며 진지하게 당구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인숙, 손은 며느리 속옷을 개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중계(F) 이번 빈쿠션에 성공하면 우승입니다.

해설(F) 근데, 수구의 위치가 좀 까다롭죠.

남편,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온다.
화면, 선수가 신중하게 자세를 잡는다.
눈도 깜빡이지 않는 인숙.
화면, 선수가 친 공이 쿠션 세 군데를 맞고 모여 있는 두 공을 향해 굴러가는데, 순간 채널이 바뀐다. 뉴스다.
인숙, 돌아보면 남편, 소파에 앉아 배를 굶고 있다.

남편 (채널을 계속 돌리며) 물.

인숙, 일어나 주방으로 가며 작게 한숨을 쉰다.

S#2. 주방(낮)

압력밥솥에서 빼익 하고 김이 새 나온다.
후라이팬에는 계란프라이가 지글거리고 그 옆에는 된장찌개가 부글거린다.
인숙, 그릇에 김이 나는 밥을 정성스레 담는다.

남편과 잠이 덜 깬 아들이 식탁에 앉는다.

남편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일자리는?

인숙 (아들의 밥 위에 계란프라이를 올리며) 점심 때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 수수한 차림에 낡은 서류가방을 들고 주방 앞을 지나간다. 머리로 아직 안 말랐다.

남편 오늘도 그냥 가냐?

며느리(E) 네, 시간이 없어서.

(E) 현관문 닫히는 소리

S#3. 거실(낮)

인숙, 서랍을 연다. 양말과 속옷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양말 하나를 꺼내 남편에게 주고 돌돌이로 아들의 양복 등판을 민다.

S#4. 지하철 역 안(낮)

형님, 밑대로 바닥을 닦고 있다.

인숙(E) 살살해요. 바닥 다 벗겨지겠네.

형님 (인숙을 보고) 아이고,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인숙 전화?
형님 아침에 갑자기 사람을 안 뵙는다잖아.
인숙 예? 갑자기 왜 그런대?
형님 미안해서 어째?
인숙 (손사래) 다른 데 알아보면 되지, 뭐. ...근데, 사람 안 구하면 한 사람 빠지는 건데 안 힘들겠소?
형님 (봉지에 가득 담긴 쓰레기를 우악스럽게 밟으며) 조금씩 나눠서 더 하면 되지.
인숙 무리하는 거 아니요? 널모래 칠순인데.
형님 (무릎 치며) 맞다. (지갑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가 봐. 소장이 사람이 괜찮어.

인숙, 받은 명함을 본다.

S#5. 건물 앞 도로(낮)

입을 살짝 벌리고 건물을 올려다보는 인숙의 얼굴.

소장(E) 원하시는 시간대에 하나 있기는 한데... (웃음) 하실랑가 모르겠네.

햇살에 반짝이는 이층 창문에 'XX 당구장'이라 쓰여 있다.

인숙, 계단을 오른다.

S#6. 당구장(낮)

어두운 실내. 아무도 없다.

인숙, 흘린 듯한 얼굴로 당구장을 둘러본다.

당구대와 세워져 있는 큐대들. 그리고 한쪽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 머리를 짧게 친 섹시한 외국 여자가 당구대에 걸터앉아 마세이를 치려는 사진이다.

인숙, 당구대 위에 올려진 초크를 집어 든다.

사장, 구석 소파에 드러누워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앉는다.

인숙, 그런 사장을 보고 놀라 초크를 떨어뜨린다.

사장 무슨 일로?

인숙 소장님이...

사장 부동산?

인숙 아니, 직업소개소.

사장 아. (소파에서 일어난다)

(E) 창밖에서 김광석의 <행복의 문>이 들려온다.

인숙, 창가 쪽을 본다.

사장 (혼잣말) 오늘은 안 나오나 했다.

S#7. 거실(밤)

남편, 선풍기를 자기 쪽으로 돌리고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 전날 당구경기를 재방송하고 있다.

남편 (혼잣말) 저런 것도 스포츠라고.

채널이 돌아간다.

인숙, 바닥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다.

남편 (채널을 돌리며) 만나봤어?

인숙 사람 안 구하기로 했대요.

남편 그럼 왜 오라 한 거야?

인숙 깜빡했다네요. (눈치 보며) 그래서...

남편 잘 됐어. 안 그래도 우리 회사 근처 세차장에 사람 구하더라고. 하루 5시간에 육십오만 원 준다니까 내일부터 나가 봐.

잠시 침묵.

인숙 사실, 형님이 다른 데 소개해줬어요.

남편 무슨 일?

인숙 저기, 있어요. 그냥... 청소하는 거.

남편 얼마 준대?

망설이는 인숙의 얼굴.

사장(E) 월급은 육십만 원입니다. 괜찮겠어요?

인숙 5시간에... (목소리 작아지며) 칠십이요.

남편 칠십? 언제부터?

인숙 내일요.

남편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고) 월급 받으면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잘 모아둬. 애들한테 이 집 주고 시골집으로 내려가면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 많으니까.

채널, 계속 돌아가다가 포스기 화면으로 바뀐다.

S#8. 당구장(낮)

인숙, 화면을 터치하자 '계산 완료'라고 뜬다.

사장 혼자 할 수 있겠죠?

인숙 예.

사장 병원에 잠깐 갔다 올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 (나간다)

몽타주. 청소하는 인숙

바닥을 쓸고 닦는다.

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당구대와 거치대 위에 먼지를 닦아낸다.

거울을 닦는다.

냉장고에 줄을 맞춰 음료를 채워 넣고 이마의 땀을 닦는다.

인숙, 청소를 다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다.

카운터 앞 당구대에 사장이 치던 공 세 개가 올려져 있다.

인숙, 그쪽을 힐끔 보고 나서 괜히 금고도 열어보고 통에 든 공도 색깔에 맞춰 정리한다. ...그리고 다시 가만히 앉아 있다.

잠시 후.

인숙, 당구대 앞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큐대 하나를 꺼내든다. 바닥에 세워보니 큐대가 인숙보다 조금 더 크다.

인숙, 당구대 위에서 자세를 잡고 공을 쳐보지만 빗맞는다.

다시 쳐도 계속 빗맞는다.

인숙, 고개를 가웃거리고 큐대를 거치대에 다시 꽂으려다가 문득 큐대를 들고 있는 자신의 두 손을 본다. 큐대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꿔 잡는다.

다시 쳐보니 마침내, 통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제대로 굴러간다.

S#9. 재래시장(낮)

번잡한 시장통. 인숙과 형님, 인파를 피해 지그재그로 걸어간다.

인숙 (손수건으로 목을 닦으며) 날도 더운데 한 그릇 하고 갑시다.

길거리에 콩국을 팔고 있다. 인숙과 형님, 빈자리에 앉는다.

인숙의 장바구니도 크데, 형님의 장바구니는 더 크다.

인숙 인자 제사는 며느리들한테 좀 맡기지?

형님 (손사래) 다들 일한다고 바빠.

인숙 형님도 남들처럼 놀러도 좀 다니고 해요. 맨날 소처럼 일만 하지 말고.

형님 (허허 웃으며) 놀면 뭐해? 놀면 지겹기만 하지.

인숙 사람이 낙이 있어야지.

형님 낙? 별거 있나? 자식들 잘 되는 게 낙이지. (인숙을 가만히 보고) 근데,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계속 실실대?

인숙 (콩국을 술처럼 마시고 나서) 예, 좋은 일 있죠.

형님 무슨 일?

인숙 그냥 있어요.(웃음)

형님 참, 사람도. (전화기로 시간 확인하고) 집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늦겠다. (콩국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일어난다)

S#10. 몽타주. 3개월 동안 혼자 당구에 빠져드는 인숙

(M) 김광석의 <변해가네>

차분하게 공을 치지만 아직 자세가 불안정하다.

카운터에서 당구교본을 보며 공을 닦는다.

빈 페트병 주둥이에 큐대를 집어넣는 연습을 한다.

당구대를 닦으면서 사장과 손님들의 자세를 유심히 본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선수의 자세와 거울 속 자신의 자세를 비교한다.

연습구를 치고, 치고, 또 친다. 갈수록 좋아지는 자세와 스트로크.

그리고 창밖에 낙엽이 하나둘 떨어진다.

S#11. 공원(낮)

S#10의 김광석 노래를 길거리 가수가 이어 부른다.

인숙, 서서 길거리 가수의 공연을 본다.

관객은 인숙과 한 노인뿐이다.

길거리 가수, 그래도 혼신을 다해 열창한다.

S#12. 당구장(낮)

사장, 설렁설렁 당구를 치지만 계속 공을 성공시킨다.

빡빡, 옆에서 못마땅한 얼굴로 보고 있다.

빡빡 쿠션이다. 한 번 봐줘라.

사장 (점수판을 보고) 왼손으로 칠게.

빡빡 너무하네. 형, 왼손이 150이잖아?

사장 그럼 어찌라고?

빡빡 (실실거리며) 할머니한테 한 큐 맡겨.

사장 (어이없는 얼굴로) 뭐?

인숙, 어색하게 큐대를 받아든다. 빡빡, 열심히 초크 칠을 한다.

인숙, 두 사람 눈치를 보다가 당구대 위로 몸을 숙여 자세를 잡는다.

사장, 인숙의 자세를 보고 마시던 음료수를 천천히 내린다.

인숙, 부드럽게 공을 친다.

공은 제1적구를 맞추고 쿠션을 세 번 맞춘 다음 천천히 굴러가서 제2적구를 맞춘다.

정적.

인숙, 쑥스러운 얼굴로 큐대를 사장에게 건네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서 공을 닦는다.

사장과 빡빡, 입을 벌리고 서로를 본다.

S#13. 주방(밤)

불 위에서 끓고 있는 매운탕.

인숙, 대파를 썰어서 매운탕 안에 넣어 넣는다.

도마 위에 둥그란 대파 조각이 세 개가 남아 있다.

인숙, 도마를 유심히 쳐다보다 손가락으로 대파 조각 하나를 밀어서 3쿠션을 친다.

남편 (옆에서 도마를 들여다보고 나서 큰소리로) 안 들려?

인숙 (놀라며) 깜짝이야.

남편 귀먹었어?

인숙 왜요?

남편 넘친다고.

불 위에 매운탕이 조금 넘치고 있다.

인숙, 황급히 가스 불을 줄인다.

남편 거, 사람 정신머리하고는. (헛기침)

S#14. 당구장(낮)

수구가 천천히 굴러가서 적구를 맞춘다.

사장(E) 나이스샷.

인숙, 큐대를 세워두고 미안한 얼굴로 뽀뽀를 본다.

뽀뽀 (얼굴을 붉히며) 삼판 갑시다.

사장 야, 할머니처럼 힘을 빼고 쳐야 공이 맞지.

계단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셋이 들어온다.

뽀뽀, 걸머이 든 자세로 선공을 힘껏 친다.

공이 키스가 난다.

뽀뽀 오늘 이상하게 공이 안 맞네. (큐대를 바꾼다)

사장, 공을 들고 고등학생들에게 간다.

뽀뽀 치세요.

인숙, 사장 눈치를 보며 공을 친다. 빗나간다.

사장, 쟁반에 음료수를 따른다.

인숙, 큐대를 내려놓고 사장에게 간다.

뽀뽀 어디 가요?

인숙 (쟁반을 잡으며) 제가 할게요.

사장 괜찮아요.

실랑이를 벌이다 쟁반이 옆질러져 사장의 바지에 음료가 쏟아진다.

사장 아, 차거!

인숙, 어쩔 줄 몰라 한다.

시간 경과.

사장, 반바지 차림으로 젖은 바지를 종이가방에 집어넣는다.

인숙 집에 가서 빨아오면 되는데...

사장 당구 치는 것도 일이니까 눈치 보고 할 필요 없어요.

인숙 ...

사장 (농담조) 자꾸 눈치 보면 자를 겁니다.

S#15. 개인택시조합 강당(낮)

조합장 (연단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운행을 거른 적이 없고, 서비스 마인드 또한 남달라 다른 기사들에게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하는 바입니다.

남편, 긴장한 얼굴로 넥타이를 매만진다. 그 옆에 나란히 앉은 인숙과 아들 내외.

조합장, 남편을 호명한다.

남편, 박수를 받으며 연단으로 올라간다.

조합장, 남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악수한다.

남편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예, 수상 소감에 앞서 올해도 협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조합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인숙, 남편 쪽을 보고 있지만 실은 남편 뒤에 있는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고 있다.

하얀 스크린 화면에 수구와 적구 두 개가 나타난다. 수구가 움직여 3쿠션으로 적구 두 개를 맞춘다.

남편 (인숙을 보며) ...그래서 가족들 뒤에서 묵묵히 희생한 저의 아내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멍한 인숙의 얼굴.

아들 뭐해요?

인숙, 자다 깬 사람처럼 놀란다.

남편, 인숙에게 턱으로 신호를 준다.

아들 (다급하게 속삭인다) 빨리 일어나요.

인숙,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나서 주위에 머리를 숙인다.

사람들, 인숙을 향해 박수를 친다.

남편, 연단을 내려오며 그런 인숙을 못마땅하게 쳐다본다.

S#16. 동네 미용실(낮)

미용사, 형님의 머리를 맡고 있고 인숙, 옆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인숙 왔다 갔다 7시간?

형님 그 절 소개해준 할멈 손주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잖아?

인숙 그래도 매주 가면 힘들지 않겠소?

형님 버스가 실어주는데, 뭘.

인숙 하여간 형님을 봐서라도 막내 조카가 이번에는 합격해야겠네.

미용사 (형님 머리에 비닐 캡을 씌우고 인숙에게 와서) 하시던 대로?

인숙 아니. (폰을 꺼내 보여주며) 이렇게.

폰 화면에 당구장 벽에 붙어 있던 머리를 짧게 친 섹시한 여자 모델의 사진이 있다.

S#17. 당구장(낮)

S#.16의 사진에서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 모델처럼 머리를 짧게 자른 인숙이 공을 치려고 자세를 잡고 있다. 적구가 멀리 있다.

인숙의 상대인 고등학생1과 옆에서 구경하는 고등학생2와 3, 숨죽이고 보고 있다.

큐대에 맞은 공이 굴러가서 제1적구를 맞추지만 너무 얇게 맞아서 제2적구를 맞추지 못한다.

고등학생1, 신중하게 공을 친다. 성공.

고등학생2, 시간 버튼을 누른다. 띠리링.

인숙, 아쉬운 얼굴로 큐대를 꽂는다.

사장 (카운터에서 공을 닦으며) 멀리 있으면 잘 안 맞죠?

인숙 예. 멀면 잘 안 맞네요.

사장 큐대가 길어서 그래요.
인숙 예?
사장 자기 키에 맞는 걸 써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건 전부 할머니한테 크죠.
 할머니는 아마 맞춤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인숙 (조심스럽게) 그런 건 얼마나 해요?
사장 그래도 쓸 만한 걸로 하면 한, 삼십만 원대?

S#18. 거실(밤)

불이 꺼진 거실. 폰 불빛이 통장을 비추고 있다.
 잔고 250,000원.
 고민하는 인숙의 얼굴.

S#19. 고기 집(밤)

남편, 커다란 씹을 입에 집어넣고 찹찹 씹는다.
 아들, 남편과 술을 주고받고 며느리, 손녀에게 고기를 먹고 있다.
 고기는 인숙이 굶고 있다.

며느리 빨리 안 먹을래?
손녀 (울먹이며) 놀이방에서 놀고 싶어~.
며느리 혼날까?
인숙 그러지 말고 좀 놀다오라고 해. 억지로 먹는 것도 안 좋다더라.
며느리 (머쓱해한다)

손녀, 신나서 놀이방으로 달려간다.
 (E) 문자 메시지 알림 소리
 인숙, 호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탁자 밑에서 열어본다.
 형님한테 온 문자다.
 ‘10만 원만 있으면 돼?’

남편 (기웃거리며) 뭘데?
인숙 (재빨리 닫으며) 아니에요. 그냥... 대출 광고.
남편 에이, 미친 것들.
인숙 (괜히 며느리 보고) 너도 좀 먹어.
며느리 (어색한 미소) 괜찮아요. 드세요.
남편 맨날 야근인데 고기 좀 먹어야 힘이 나지.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본다.

인숙 왜?
아들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이 사람 3개월이래요.
인숙 3개월?
남편 뭐래?
아들 (머리 긁적이며) 아들요.
남편 (환하게 웃으며) 그래?

S#20. 택시 안(밤)

남편 (들떠서) 저기 말이야. 며늘애가 첫째 때도 입덧 때문에 고생이 많

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생 안 하게 영양제 좋은 걸로 좀 해주자고.

인숙 (창밖을 보며) 해주면 좋죠.

남편 그래서 말인데, 당신 통장에 있는 돈 말이야.

인숙 (놀람) 무슨 돈요?

남편 사람 놀래기는. 당신 통장 하나밖에 더 있어? 거, 왜, 인터넷 설치하고 현금 받은 거 말이야.

인숙 (시선을 피하며) 아. 그거...

S#21. 당구장(낮)

잔고 100,000원.

인숙, 카운터에 앉아 통장을 보고 있다.

지갑을 열면 형님한테 빌린 현금 십만 원이 들어 있다.

인숙, 한숨을 쉰다.

박박 오판.

깜상 됐어.

박박 왜? 가자.

깜상 (기지개를 켜며) 지겨워.

박박 그럼, 죽방 칠까?

깜상 둘이서 무슨.

박박 할머니, 죽방 어때요?

인숙 죽방?

박박 돈내기요.

인숙 돈내기?

깜상 야야, 할머니 돈 따는 건 좀 아니다.

시간 경과.

인숙, 공을 성공시킨다.

빹빹과 깜상, 굳은 얼굴로 당구대 위에 지폐를 올린다. 이미 지폐가 쌓여 있다.

인숙, 다시 공을 성공시킨다.

박박 (지갑을 열어보고) 할머니, 그만 쳐요. 다 잃었어. (깜상 보고) 넌?

깜상 나도 차비만 달랑 남았다, 야.

인숙, 당구대 위의 돈을 주섬주섬 모은다.

S#22. 거실(밤)

인숙, 바닥에 앉아 과일을 먹기 좋게 자르고 있다.

남편과 아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텔레비전, 주부도박단 검거에 대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 중이다. 경찰서 테이블 위에 증거물로 화투 몇 벌과 현금 봉치들과 귀금속들이 올려져 있다.

아들 (과일을 먹으며) 저게 다 얼마야?

화면, 진행자가 있는 세트장으로 화면으로 넘어간다.

진행자 판돈으로 수백만 원이 오고 간 이번 사건에서 용의자들 대부분이 가정 월수입이 삼백 이하의 평범한 가정주부들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의자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 쓰는 등, 판에 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한 템포 쉬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용의자 (모자이크와 목소리 변조)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 재미로 동네 아줌마들하고 짬 백으로 한 판씩 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남편 저런 잡것들은 평생 콩밥을 처먹어야 돼.

인숙 (중얼거리며) 콩밥까지는...

남편 뭐?

인숙 (과일을 깎으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하나까...

남편 심심? 밖에 나가서 일들 해보라고. 심심할 겨를이 있나?

인숙 그래도 콩밥은...

남편 아니, 근데, 이 여편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인숙 그게 아니라...

남편 (고함) 미쳤어?

인숙, 기가 죽어 아무 대꾸도 못한다.

S#23. 당구장 앞(낮)

코트를 입은 한 사내의 뒷모습. 찬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코트를 펄럭이고 지나간다.

당구장을 올려다보는 콧수염이 인상적인 얼굴. 앓실한 미소.

S#24. 당구장(낮)

코털, 당구장 안으로 들어선다.

손님이 좀 있다.

인숙 (설거지를 하다가 코털을 보고) 몇 분이세요?

코털 혼자. 쿠션 볼 하나 줘요.

인숙, 고무장갑을 벗고 공과 음료수를 갖다 준다.

코털, 혼자 공을 치면서 손님들을 걸눈으로 살핀다.

단골 고등학생들 한 팀, 포켓볼을 치는 젊은 커플, 그리고 죽방을 치는 세 남자.

빹빹과 감상과 똥보다.

(E) 전화 벨소리

동보 (전화 받고) 그래? 알았어. 바로 갈게.

빹빹 뭔데?

동보 (외투를 서둘러 걸치며) 가 봐야 돼.

감상 야, 돈 따고 이렇게 빠지는 게 어디 있어?

동보 장모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대. 가 봐야겠어. 전화할게. (나간다)

빹빹 어쩔래?

감상 뭘 어째? 그만 처야지.

코털(E) (사근사근한 말투) 저기, 빈자리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빹빹 (위아래를 훑으며) 얼마 치시는데요?

코털 150입니다.

빹빹 (감상을 보고) 한 시간만 칠까?

코털 (장난스럽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짹짹 비비며 큐대 하나를 골라든다)

코털, 엉성하게 자세를 잡는다.

빹빹과 감상, 그런 코털을 보고 살짝 비웃는다.

시간 경과.

코털 어이구, 이걸 재수다. 미안합니다.(웃음)

당구대 위에 지폐가 쌓여 있다. 코털, 자세는 이상하지만 잘 친다.

빹빹, 고개를 가웃거린다.

코털 (지폐를 걷으며) 한 시간 다 뒀는데, 어떻게?

빹빹 얘기 좀 해보고요.

코털 그럼, 난 화장실 좀.

빹빹 150 아니지?

감상 자세는 50인데, 이상하게 잘 먹네.

빹빹 얼마 남았냐?

감상 조금. 넌?

빹빹 나도.

감상 더 칠 거야?

고민하는 빹빹의 얼굴.

코털, 화장실 갔다가 돌아온다.

빹빹 딱 한 시간만 더 치죠.

코털 좋죠.

빹빹 (갑자기 허리를 잡고) 아아.

감상 왜?

빹빹 아니, 어제 뭐 좀 들다가 삐끗 했거든.

코털 그럼 그만 치실라고?

빹빹 아니요. 좀만 쉬고 칠게요. 대타 좀 써도 되죠?

코털 누구?

빹빹 할머니.

인숙, 큐대를 정리하다가 돌아본다.

빹빹 잠깐 대타 좀 쳐 줘요.

코털 (인숙 보고 웃으며) 이 사장님, 부잔가 보네.

인숙, 카운터로 들어가서 기다란 케이스를 들고 나온다.

케이스를 열면 손잡이가 분홍색인 큐대가 분리되어 들어 있다.

인숙, 큐대를 꺼내 조립한다.

코털, 실소한다.

시간 경과.

코털, 공을 치려고 자세를 잡지만 표정이 어둡다. 이마에서 식은땀 한줄기가 흘러내린다.

인숙과 빹빹과 감상, 옆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다.

빹빹 역시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최고야. (코털 미스를 낸다) 완전

좋아.

인숙, 먹던 짜장면을 내려놓고 당구대로 가서 공을 친다.
수구가 절묘하게 제1적구와 키스를 피하고 제2적구를 맞춘다.
손님인 고등학생들과 젊은 커플이 와서 구경한다.

커플 (서로를 보고) 대박.

코털 (신경질) 그만 쳐요. 개털이니까.

사장, 손에 둘둘 말린 종이를 들고 입구로 들어오다가 코털과 어깨를 부딪친다.
코털, 씩씩거리며 당구장을 나간다.
사장, 인숙과 뽀뽀에게 어깨를 으쓱하고는 들고 온 종이를 펴서 벽에 붙인다.
전국아마추어당구대회 포스터다.

뽀뽀 할머니, 한번 나가봐요.

인숙 전국아마추어당구대회?

포스터에 ‘도전하세요. 이번 대회 우승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문
구가 적혀 있다.

인숙 (혼잣말) 주인공...

(E) 전화 진동음

소파에 벗어둔 인숙의 외투에서 진동음이 울린다.
인숙, 꺼내서 보면 액정에 ‘남편’이라고 떠 있다.

S#25. 당구장 화장실(낮)

인숙, 화장실 대변기 칸에 들어가 서둘러 문을 닫고 통화 버튼을 누른다.

남편(F) 왜 전화를 안 받아?

인숙 언제요? 전화했어요?

남편(F) (짜증) 열 통도 넘게 했어.

인숙 ...일한다고 몰랐어요. 왜요?

남편(F) 며늘애가 당신이 안 받으니까 나한테 전화 왔는데, 일이 많아서 당분
간 늦게 퇴근한다니까 당신이 집에 올 때 놀이방에 들르라고.

인숙 알았어요.

고등학생1(E) 할머니, 완전 잘 치는데.

고등학생2(E) 넌 이제 상대도 안 되겠다.

남편(F) 뭘 소리야? 옆에 누구 있어?

인숙 (당황) 화,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바쁘니까 끊어요.

남편(F) 이 봐...

인숙,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쉰다.

S#26. 버스 안(낮)

다정히 앉아 있는 젊은 커플. S#24의 그 커플이다. 여자, 폰을 하고 있고 남자,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

폰 화면, 인숙이 코털과 당구치는 영상이 SNS에 업로드 되고 있다.

S#27. 택시 안(낮)

남편,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다.

(E) 전화 진동소리

남편 (친절하게) 손님. 전화 좀 받겠습니다.

승객 (어색하게) 네네...

남편, 귀에 걸려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를 받는다.

동료(F) 간단에 삼계탕 어때?

남편 좋지. 전에 거기?

S#28. 삼계탕 집(낮)

오래된 삼계탕 집. 손님 중 절반 이상이 택시 기사들이다.

남편, 동료와 함께 삼계탕을 먹고 있다.

가게 문을 열고 기사 셋이 들어와서 옆 자리에 앉는다. 그중 한 사람, 코털이다.

코털 (물수건 비닐 뜯으며) 그래서 완전 개털 됐다니까. 마누라 알면 쫓겨 날 판이야.

일행1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직원을 보고) 저기요. 여기 탕 세 개.

코털 니들한테 거짓말을 왜 하나? 뭐 좋은 게 있다고?

일행2 진짜야?

일행1 야, 너까지 왜 그러냐? 당구 타짜인 할머니가 있으면 벌써 방송타고 했겠지.

코털 야, 미치겠네. 가볼래? 봐야 민겠냐?

일행2 어딘데?

코털 왜, 있잖아. XX시장. 거기 입구에 있다니까.

동료 (옆 테이블 슬쩍 보고 나서) 밥 먹고 당구나 한 게임 칠까?

남편 (닭다리를 뜯으며) 당구는 무슨? 경기가 안 좋아서 돈벌이도 시원찮구만.

S#29. 신문사 스포츠 부서(밤)

기자,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E) 카톡

기자, 책상 위에 있는 폰을 집어 든다.

여자 친구가 보낸 메시지다.

‘오빠 기삿거리임.’

링크를 누르자 영상으로 이어진다. 인숙이 코털과 당구를 치고 있고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S#30. 여성 맞춤 정장 전문점 앞(낮)

정장을 입고 맵시를 뽐내는 쇼윈도의 마네킹들.

인숙,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매장에서 나온다.

(E) 전화 벨소리

인숙 (전화 받는다) 어~.

아들(F) 점심쯤에 집에 택배 하나 올 건데, 과메기거든요. 바이어한테 선물할 거니까 받으면 냉장고에 바로 좀 넣어주세요.

인숙 어, 알았어.

아들(F) 깜빡하면 안 돼요, 꼭.

S#31. 당구장(낮)

사장, 공 세 개를 당구대 위에 이리저리 놓고 뒤로 물러선다.

인숙, 큐대를 들고 한참 고민하다가 자세를 잡고 공을 막 치려고 한다.

사장 (타이머를 누르며) 스톱.

인숙, 영문을 몰라 사장을 쳐다본다.

사장 대회 나가서 이렇게 치면 파울입니다.

이게 낫 플레이드(NOT PLAYED)라는 룰이거든요.

인숙 나, 낫 풀...

사장 낫·플·레·이·드. 자기 차례가 오고 공을 치기까지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기면 규칙 위반으로 상대에게 차례가 넘어가버린 다, 이 말입니다. 대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30초나 40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한 시간 안에 무조건 쳐야 됩니다. 못 먹어도.

인숙 (혼잣말로) 시간 안에 무조건 쳐야 한다.

사장 (인숙에게 영어 원서를 주며) 유명한 외국 선수가 난구를 풀이한 책 이에요. 틈날 때 한번 보세요.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인숙, 책을 펼쳐본다.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다음 씬으로 넘어간다.

S#32. 거실(밤)

인숙, 이불 속에서 폰 플래시로 원서를 보고 있다.

그림 속의 당구대와 공이 실제 당구대와 공으로 서서히 변하고 저자인 외국 선수가 당구대 위로 몸을 기울이고 공을 친다.

공의 궤적을 따라가는 인숙의 눈.

S#33. 거실(낮)

햇살이 곤히 잠든 인숙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인숙, 눈을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벽시계를 본다.

시계, 7시 5분이다.

인숙, 허겁지겁 일어서다가 베개 옆에 책을 발견하고 소파 쿠션 아래에 쑤셔 넣는다.

S#34. 주방(낮)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 굳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다.
 식탁 위에는 아침으로 라면이 올라와 있다.
 인숙, 눈치를 보고 옆에 서 있다.

남편 (인상 쓰고) 아침부터 웬 라면이야?

아들 아침부터 라면 먹으면 하루 종일 더부룩한데.

남편, 한 젓가락 먹고 일어나고 아들, 눈치 보고 따라 일어난다.

며느리 (손으로 배를 만지며) 죄송해요. 속이 좀.

S#35. 거실(낮)

남편 (기침을 하며) 이번 감기 진짜 지독하네. 너도 조심해라.

아들 (넥타이를 매며) 기침 심하신데 일 나가시겠어요?

남편 그래도 나가야지. (인숙에게) 양말 안 쥐?

아들 엄마, 과메기.

인숙 (서류를 열며) 김치냉장고에 봐봐.

아들, 김치냉장고에서 과메기를 꺼내 들고 출근한다.

김치냉장고 액정을 보면 전원이 꺼져 있다.

남편 (양말을 벗어던지며) 에이, 아침부터.

인숙, 의아한 얼굴로 양말을 주워서 보면 짹짹이다.

남편 집구석 자~알 돌아간다.

S#36. 당구장(낮)

수구가 쿠션을 세 번 맞추고 한구석에 몰려 있는 두 적구를 맞추자 주위에서 탄성이 터진다.

인숙, 겸연쩍은 얼굴로 큐대를 분리한다.

코털 (지폐를 당구대에 탁 올리고) 한 게임 더 쳐요.

인숙 (시계를 보고) 좀 있으면 퇴근인데...

코털 (정색하며) 돈 따고 그냥 가는 게 어딴어요?

인숙, 곤란한 얼굴로 다시 큐대를 잡는다.

인서트. 어린이집(동 시간)

손녀, 그림책을 보고 있고 젊은 교사, 옆에 앉아 있다. 모두 가고 두 사람뿐이다.

교사 (하품) 오늘은 좀 늦으시네.

코털, 신중하게 공을 친다.

인숙, 초조한 얼굴로 벽시계를 본다.

7시 10분.

인숙, 자기 차례가 오지만 터무니없이 실패한다.

인서트. 어린이집(동 시간)

교사, 꾸벅꾸벅 졸고 있다.

손녀, 놀이방 구석에서 벽을 보고 찌그리고 앉아 있다.

벽에 콘센트가 있다.

손에는 젓가락 하나를 들고 있다.

코털 (어깨에 힘을 주고) 이제 공이 좀 맞네.

벽시계, 7시 30분이다.

인숙 가야겠어요.

코털 뭐요?

인숙, 탄 돈을 당구대 위에 올리고 외투를 입는다.

그때 한 남자가 당구장 안으로 들어온다. S#29에 등장한 그 기자다.

기자 (나가는 인숙을 알아보고) 잠깐만요.

인숙, 무시하고 서둘러 나간다.

기자(E) 할머니!

S#37. 거리(밤)

쌀쌀한 거리.

인숙, 몸을 움츠리고 잔걸음으로 걷고 있다.

(E) 전화 벨소리

인숙 (혈떡이며 전화 받는다) 왜?

아들(F) (다급) 엄마, 과메기 제대로 보관한 거 맞아?

인숙 어. 택배 받자마자 김치냉장고에 바로 넣었지.

아들(F) 정말이지?

인숙 왜? 무슨 일인데?

아들(F) 바이어가 과메기 먹고 배탈 나서 지금 회사가 아주 난리 났어. 판매 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들은 여러 군데 배송했는데 우리 것만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고.

앞을 보고 놀라는 인숙의 얼굴.

어린이집 앞에 구급차가 적색등을 점멸하며 서 있다.

아들(F) 엄마? 듣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숙, 달려간다.

구급요원, 놀이방에서 의식을 잃은 손녀를 안고 나온다.

S#38. 응급실 복도(밤)

의료진과 손녀, 치료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

인숙, 치료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아들과 며느리, 뛰어 들어온다.

며느리 (인숙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숙 (떨리는 목소리) 젓가락으로 콘센트를 쑤신 거 같대.

아들 그래서? 괜찮대요?

인숙 몰라.

그때. 어린이집 교사, 들어온다.

며느리, 교사를 노려본다.

교사 죄송합니다. 잠깐 조는 사이에.

아들 (성내며) 뭐요?

인숙 (아들 팔을 잡으며) 그게...

며느리, 교사 뺨을 후려친다.

선생, 뺨을 잡고 운다.

며느리 잠깐 줄었다고? 우리 딸 잘못되면 전부 니 책임인 줄 알아!

교사 (흐느끼며) 하, 할머니가 너무 늦게 오셔서...

아들과 며느리, 인숙을 본다.

인숙, 두 사람을 외면하고 울먹인다.

S#39. 거실(밤)

인숙, 훌쩍이며 휴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남편 (호통) 뭐한다고 늦게 간 거야?

인숙 일이 늦게 마쳐서...

아들, 방에서 나온다.

남편 자?

아들 예, 막 잠 들었어요.

남편 병원에서는 정말 괜찮다고 했어?

아들 예, 의사 말로는 화상도 없고, 그냥 순간적으로 놀라서 기절한 것 같다고, 한 며칠 쉬면 괜찮을 거래요. (인숙 보고 한숨 쉬고) 내일 일찍 나가 봐야 해서 저도 들어갈게요.

남편 (약 봉지를 찢으며) 으이구. 물이나 가져와!

인숙, 일어나 물을 떠와서 남편에게 내민다.

남편, 약을 먹고 물을 마시다가 잔에 파란 얼룩이 묻은 걸 보고 얼굴을 찌푸린다.

인숙, 그걸 보고 자신의 손을 본다.

손에 지저분하게 초크 가루가 묻어 있다.

인숙, 손을 숨긴다.

S#40. 목욕탕(낮)

인숙과 형님, 온탕에 앉아 있다.

인숙 (기운 없이) 조카 시험 발표는 났어요?

형님 (싱글벙글) 어, 합격했어.

인숙 축하해요.

형님 이제 한시름 났지.

인숙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시무룩)

형님 근데, 왜 이리 기운이 없어?

인숙 그냥... 사는 게 좀 피곤하네요.

형님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인숙 (고개 젓는다)

형님 한턱 살게. 나가서 기운 나는 거 좀 먹자. (일어나며 허리를 잡고) 아야.

인숙 괜찮아요?

형님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담이 왔나보네.

S#41. 거실(낮)

남편, 기침을 하며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다.

화면, 당구 방송이 나온다.

남편, 리모컨을 누른다.

화면, 채널이 계속 돌아간다.

남편, 한 손으로 약봉지를 뜯다가 알약 하나를 떨어뜨린다.

알약이 소파 쿠션 사이로 들어간다.

남편, 쿠션 사이로 손을 쑤셔 넣고 알약 대신 책을 한 권 끄집어낸다.

당구 원서다.

남편, 책을 한번 주르르 넘겨보고 일어나서 아들의 방으로 가서 책장에 꽂는다.

S#42. 당구장(낮)

사람들이 당구대를 둘러싸고 있다.

코털, 투덜대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밖으로 나온다.

인숙, 큐대를 분리한다.

박박 와, 이제 상대가 없네.

사장, 카운터에서 금고의 돈을 세고 있다.

박박 형.

사장 어.

박박 할머니하고 한 번도 안 쳐봤지?

인숙, 사장을 본다.

박박 할머니, 형하고 한 게임 쳐 봐요.

사장 바빠, 임마.(돈 세다가 고개를 들면)

사람들 전부 사장을 보고 있다.

S#43. 기사식당(낮)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남편과 동료, 문을 열고 들어온다.
빈자리가 하나뿐이다.

남편 (자리에 앉으며) 국밥 둘.

아줌마 지금 주문이 밀려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동료 얼마나?

아줌마 한 15분?

동료 기다리지, 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옆 자리에 혼자 온 손님, 밥을 다 먹고 일어선다.

테이블 위에 신문이 놓여 있다.

남편, 신문을 가져와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멈춘다.

신문 스포츠 섹션 한쪽 구석에 ‘이 당구장이 잘 되는 이유’라는 기사 제목 아래에 사진이 하나 있다. 사람들이 둘러싼 당구대에서 공을 치려고 자세를 잡는 인숙의 뒷모습이다.

남편, 눈을 가늘게 뜨고 기사를 읽는다.

‘XX시장 입구에 위치한 한 당구장에는 요즘 날마다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근처에 있는 다른 당구장들이 폐업 직전의 상황인 것을 보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 사장 최 모 씨는 장사가 잘 되는 이유로 다른 당구장보다 아스트로 당구대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말한다. 아스트로 당구대가 고가라서 창업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투자 대비 수익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성업을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는 특별한 알바생을 꼽을 수 있다. 알바생은

올해로 68세인 할머니다. 본 기자가 업장을 찾았을 때는 아쉽게도 짧은 만남에 그쳤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손님 중에는 상대가 없을 정도의 당구 고수라고...’

남편, 눈을 깜빡이며 뭔가를 떠올린다.

인서트. 지나간 장면들

S#1에서 당구방송을 보는 인숙.

S#39에서 인숙의 손에 묻은 파란 얼룩.

S#41에서 소파 아래 있던 당구 원서.

남편, 황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다.

동료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런 남편을 보고) 어디 가?

S#44. 당구장 앞(낮)

택시가 급정지하고 남편, 차에서 내려 계단을 뛰어오른다.

S#45. 당구장(낮)

남편, 혈떡이며 당구장으로 들어온다.

당구대를 빙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안쪽이 보이지 않는다.

인숙, 자세가 나오지 않자 큐대를 허리 뒤로 돌려서 자세를 잡는다.

사람들, 환호성.
남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
인숙, 공을 치려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남편, 그런 인숙을 보며 이를 갈고 있다.
얼어버린 인숙의 얼굴.
남편, 씩씩거리며 인숙의 따귀를 날리고 인숙, 바닥에 쓰러진다.
사람들, 웅성거린다.
남편, 인숙의 큐대를 주워 바닥에 내리치다 소파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밟아서 부순다.

사장 아니, 이 영감이 돌았나?

남편 그래, 돌았다! 어쩔래?

남편과 사장, 먹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사람들, 이를 말리며 난장판.

S#46. 거실(밤)

꺼져 있는 텔레비전 화면.
난데없이 야구방망이가 텔레비전 화면을 박살낸다.

(E) 며느리의 비명
손녀, 며느리 품에 안겨 울음을 터트린다.
남편, 그런 손녀를 보고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린다.

아들 (남편을 잡으며) 대체 왜 이러세요?

남편 저 인간한테 물어봐!

아들과 며느리,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숙을 본다.

S#47. 주방(낮)

인숙, 퉁퉁 부운 눈으로 식구들 눈치를 본다.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 아침을 먹는다. 아무도 말이 없다.
인숙, 계란프라이를 아들의 밥 위에 올리려고 한다.

아들 (일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잘 먹었습니다.

아들, 나가자 며느리, 따라 일어선다.

S#48. 거실(낮)

인숙, 양말을 들고 가지만 남편, 이미 양말을 신고 있다.
며느리, 손녀에게 옷을 입히고 있다.
손녀, 징징 질다.

며느리 (옷을 거칠게 입히며) 자꾸 엄마 힘들게 할래?

손녀 (울며) 입기 싫어. (인숙을 보며) 할머니이이이.

인숙, 손녀를 쳐다볼 뿐 나서지 못한다.

아들 (양복을 입으며 통화한다) 김치냉장고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요. (짜증) 예? 또 넘긴다고요?

인숙, 돌돌이를 들고 아들에게 다가가지만.

아들 (버럭) 장난해요, 지금?

식구들, 모두 나가고 인숙, 혼자 멍뚱히 서 있다가 텔레비전 잔해를 담은 비닐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S#49. 쓰레기 버리는 곳(낮)

앞집 아줌마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인숙, 가져온 쓰레기를 버린다.

이웃 이거... 버리는 거 맞아요?

인숙, 코를 훌쩍이고 이웃을 쳐다본다.

이웃 (당구 원서를 내밀며) 아니, 좀 전에 아드님이 이것 버리고 가시드라고요. 요즘엔 이런 책도 팔면 다 돈인데. 진짜 버리시는 거면 제가 가져갈까 해서...

말없이 돌아서는 인숙의 얼굴.

S#50. 공원 앞(낮)

칼바람이 부는 얼어붙은 거리.

인숙, 장바구니를 들고 걷다가 공원 앞에서 멈춰 선다.

공원에 길거리 가수는 보이지 않고 벤치에 늘 나와 있는 노인만 앉아 있다.

인숙 (노인에게 다가가서) 안 나왔어요?

노인 누구? 노래하는 애?

인숙 네.

노인 안 나온 지 며칠 됐어.

인숙 그래요?

노인 동네 주민하고 치고받고 싸운 뒤로 안 나와.

인숙, 발길을 돌린다.

벽에 찢어진 포스터가 바람에 너덜거린다.

인숙, 벽보를 펴 본다.

전국아마추어당구대회 포스터다. 누가 당구 선수들 얼굴에 낙서를 해 놓았다.

인숙, 포스터를 떼서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S#51. 거실(밤)

남편, 소파에 앉아 신문을 집어 들고 인숙, 바닥에 앉아 양말을 개고 있다.

(E) 전화 벨소리

남편 (전화 받고) 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 뭐? 허리를 다쳐? 어쩌다가?

...그래? 그건 집사람이 가면 되지, 알았어.

인숙, 남편을 쳐다본다.

남편 (전화 끊고) 형수가 허리가 아파서 입원했대.

인숙 입원요?

남편 심각한 건 아니고 한 며칠 입원해야 되나 봐. 그래서 말인데, 내일 큰 집에 제사상 차릴 사람이 없다니까 당신이 가서 좀 도와주라고.

S#52. 지하철(낮)

(M)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인숙, 다른 노인들과 노약자 칸에 멍하게 앉아 있다.

(E) 문자 알림 소리

폰을 꺼내 보면 사장이 보낸 문자다.

‘할머니. 월급 한 달치로 계산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혹시 대회 나가실 마음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등록 취소는 대회 당일에도 되니까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잠시 들고 있다가 폰을 닫는다.

S#53. 병원 병실(낮)

인숙, 문을 열고 들어온다.

4인 병실이다. 빈 침대 하나에 형님이 자주 하는 스카프가 올려져 있다.

인숙,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간호사,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인숙 저, 여기 있는 환자...

간호사 가족분이세요?

인숙 동선데.

간호사 이쪽으로 따라 오세요.

S#54. 과장실(낮)

볼펜이 모니터에 뜬 CT 사진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의사 본인은 디스크로 알고 계셨는데 (볼펜으로 원을 그리며)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게 종양입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겠지만 제 소견상으로는 척추암으로 보입니다.

인숙 (놀라며) 암이요?

의사 암 판정을 받으면 항암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완치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S#55. 과장실 앞 벤치(낮)

인숙의 낮이 나간 듯한 얼굴.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고, 시숙과 조카들과 며느리들이 인숙이 앉아 있는 벤치 앞에 우르르 나타난다.

큰 조카 작은 엄마!

시숙 (꼬장꼬장) 이 사람 지금 어딴소?

인숙, 반응이 없다.

의사(E) 여기 종양이 누르고 있는 부분이 전부 신경망인데 통증이 심해서 가 죽분들이 모를 수가 없었을 텐데...

늦게 나타난 막내 조카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인다.

막내 조카 비켜!

간호사 술 드시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담당 의사가 나타난다.

형님네 식구들, 의사를 에워싼다.

의사, 상황을 설명한다.

시숙 그럼 아직 판정 난 것도 아니잖아.

막내 조카 그럼 엄마 안 죽는 거야? (혀 꼬부라진다)

큰 조카 작은 엄마, 무턱대고 암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식구들이 얼마나 놀

랐는데.

인숙,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지나쳐 터벅터벅 걸어간다.

시숙 어이 제수씨, 어디 가요?

인숙 ...

시숙 제수씨, 가고 나면 오늘 제사는 누가 지내라고?

조카며느리 (시숙 소매 잡으며) 아버님.

시숙 (뿌리치며) 아, 이거 봐. 이럴 때일수록 제사를 더 잘 지내야 돼. 이봐 요. 어이!

걸어가는 인숙의 뒷모습.

S#56. 거리(낮)

인숙, 서럽게 울며 걸어간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런 인숙을 보고 수군거린다.

S#57. 지하철(낮)

인숙, 출입문 유리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다.

눈물을 그친 인숙의 얼굴.

인숙, 전화를 꺼낸다.

S#58. 거실(낮)

남편, 거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고 아들과 며느리, 손녀 데리고 나들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인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다.

아들 어? 큰집 안 갔어?

인숙, 아들 말을 무시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는다.
남편, 광 소리에 놀라 어부부 하며 소파에서 굴러 떨어진다.
인숙, 방으로 들어간다.
아들과 며느리, 서로를 쳐다본다.

남편 (두리번거리며) 뭐야?

인숙, 검은 정장을 입고 방에서 나온다.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 그 모습에 할 말을 잃은 표정.

며느리 어디... 가세요? (조심스럽게)

인숙 (작지만 단호하게) 그래.

남편 (인숙 앞을 막아서며) 뭐하는 거야? 큰집에 안 갔어?

인숙 그래, 안 갔다.

아들 (놀람) 엄마?

남편 (당황) 아니, 이 할망구가 미쳤나?

인숙 그래, 미쳤다. 어쩔래?

남편 (황당) 뭐?

인숙, 남편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남편, 앞을 가로막는다.

남편 하라는 제사 준비는 안 하고 어디 가냐고?

인숙 당구대회 나간다, 왜?

남편 당구대회?

인숙 비켜.

남편 (양손을 허리에 척 걸치고) 못 비켜!

남편, 으르렁거리며 인숙을 노려본다.

인숙, 남편을 노려보지만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린다.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기세등등한 남편의 얼굴.

인숙 (중얼거림) 나...

며느리 어머니?

인숙 낮...

남편 뭐라는 거야?

인숙 (작게 혼잣말) 낮 플레이드.

인숙, 남편의 사타구니를 힘껏 걸어챈다.

남편, 헉 하고 숨을 들이켜고는 그대로 고꾸라진다.

인숙, 현관문을 광, 닫고 나간다.

S#59. 택시 안(낮)

인숙, 택시를 잡아탄다.

기사 어디로 모실까요?

인숙 XX체육관으로 가주세요.

인서트. 공원 (낮)

햇빛은 나무들에 새순이 돋아 있다.

노인, 벤치에 앉아 졸고 있다가 쿵, 소리에 눈을 뜬다.

길거리 가수, 공연 도구를 내려놓는다. 얼굴이 아직 엉망이다.

기사 (씩씩) 누가 당구대회에 나가시나 봐요. 아드님?

인숙 (정색) 아니요. 내가 나가는데요.

기사 (룸미러로 인숙의 얼굴을 보고) 아, 네...

S#60. 당구대회장으로 들어가는 복도(낮)

인숙, 어두운 복도를 걸어간다.

인서트. 공원(낮)

길거리 가수, 기타를 메고 코를 한 번 들이마신 후에 보란 듯이 힘차게 기타를

튀기며 김광석의 <일어나>를 부르기 시작한다.

(M) 김광석의 <일어나>

어두운 복도 끝에 문이 있다.

인숙, 문 앞에 도착해서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리자 문틈으로 환한 빛이 세어 나온다.

인숙, 눈부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에필로그. 거실(밤)

텔레비전이 없어 황한 벽.

남편, 소파에 앉아 신문을 계속 넘기고 있다.

며느리, 서툰게 과일을 깎고 있고 아들, 옆에서 폰으로 고스톱을 친다.

신문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 앉는다.

접시에 담긴 울퉁불퉁한 과일 조각들.

남편, 신문을 접어서 파리를 잡기 시작한다.

신문으로 전등을 때리자 불빛이 깜빡거린다.

아들,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전등을 만져보지만 계속 깜빡거린다.

남편, 비틀거리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전등을 만진다.

퍽, 소리와 함께 갑자기 (F.O)

끝.

2017
오 펜
작품집

B주임과 러브레터

신수림



작가 후기 **강민수**

주인공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초고에서는 68세의 가족은 초라한 할머니로 그려졌는데 수정고에서는 65세의 조금은 당당한 면이 있는 인물로 바뀌었다. 65세라는 설정은 노인들이 무임승차권이 발급되는 때라 초고의 주제와 더 잘 어울렸다. 하지만 할머니의 나약한 모습이 빠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초고의 인숙 대 가족의 갈등이 희석된 느낌이 있다. 대신 현실적인 65세 여성이 묘사된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작의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뻔한 말을 볼 때마다, ‘X병할... 말은 쉽지’ 남 얘기로 치부해버리는 한 여자가 있다. 언제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는지 모를 자존감을 꾸역꾸역 지켜내며 모태솔로 외길인생 34년을 살고 있는 여자. 이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이들에게 오늘 하루쯤은 거울 한번 보며 살며시 웃어보시라 권하고 싶었다.

등장인물

방가영(여, 34세) 구두 유통회사 총무팀 주임

‘당연히 서너 번 연애해봤다’고 거짓말하는 게 필수사항이 돼버린 모태솔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 어딜 가나 중간 이상은 간다’를 모토로 살아간다.

겉으론 일과 결혼한 완벽주의 커리어우먼인 척 살아가지만, 외롭다. 너무나 무외로워 길 가는 아무 남자나 붙잡고 사귀자고 할 지경인데 그럴만한 자신감은 또 없다.

서른 넘으면서 자존감이 하향곡선을 타더니 오늘 줄을 모른다. 언젠가부터 거울도 보기 싫어졌고, 가끔 히스테리도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어리고 예쁜 여자에 들한테.

심병선(남, 39세) 구두 유통회사 기획팀 과장

‘시’를 사랑하는 감성과 노총각. 사랑하는 여자에게만큼은 온 마음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는 남자.

은규리(여, 24세) 구두 유통회사 총무팀 사원

얄밋지만 미워할 수 없는 발랄함이 있다. 대출 빚 때문에 가영의 집에 얹혀산다.

김태희(여, 37세) 구두 유통회사 총무팀 대리

노처녀 히스테리와는 거리가 있는 온화한 성격. 남 보기엔 취미도 없고, 놀 줄도 모르고, 그저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지만,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다.

손재현(남, 28세) 구두 유통회사 기획팀 신입사원

흰칠한 키, 준수한 얼굴. 여사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눈웃음. ‘허당’이지만 귀엽다.

김명현(남, 35세) 가영의 대학 선배이자, 과거 짝사랑의 대상

한때 인기를 독차지했으나, 세월의 흐름을 타고 능글맞은 아저씨가 돼버렸다.

그 외

친구 미진, 아르바이트생 수진, 사장, 게임장 훈남, 옆집녀, 소개팅남 등

줄거리

‘자칭’ 일과 결혼한 서른네 살 가영은 오늘도 소개팅에서 퇴짜를 맞았다.

퇴짜로 다져진 34년 인생, ‘거절당하느니, 시도 자체를 앓는 게 삼팔광땡’이라는 모토를 지닌 가영인지라 ‘퇴짜’란 그저 감기 같은 것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원치 않던 깜짝 소개팅이기에 기분이 더러웠다. 마치 모르는 행인한테 뜬금없이 ‘당신은 제 타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라고 거절당한 기분일까.

‘어차피 인간은 외로운 섬. 용자 끼고 얻은 17평 스위트룸이 내 신랑이요 자식이

지! 스스로 위안하며, 외로울 시간에 지식을 늘리고 실력을 키워 '쿨'하고 '멋진' 골드미스가 되자고 다짐해보지만... 느는 것은 짜증ियो, 키우는 것은 히스테리 뿐이다.

'휴우...' 퇴근 후 집에 들어설 때면 습관처럼 내뱉는 무거운 한숨... 어느 때처럼 한숨을 내뱉는 그때... 우편함에 꽂혀 있는 편지 한 통이 시선을 끈다.

'방가영 씨 두 손에...' 익명으로 온 상서로운 기운의 핑크빛 손 편지.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가영 씨에 대한 마음, 오늘부터 고백하려 합니다. -S->

한 자, 한 자 손으로 성의껏 눌러쓴 글씨... '누굴까... 분명 나를 알고 있다.' 스토키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쯤으로 쿨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어느새 가영의 심장은 주책없게 뛰고 있었다. '두근 두근 두근...'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 그 뒤로도 몇 차례 주기적으로 오는 편지... '대체 누굴까?'

은밀하고도 적극적인 용의자 색출에 나선 가영... 엄중하고 집요한 추적 끝에 한 명의 유력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같은 회사 직원인 39세 노총각 심병선. 더벅머리에 발가락양말, 돈 아끼겠다고 늘 혼자 도시락을 싸와 점심때면 '오늘은 나 이거 먹었어요~' 냄새로 확인시켜주는 사람... 그와 유독 눈이 자주 마주쳤던 이유가 다 그런 거였던가... '아... 젠장, 빌어먹을...' 마음은 아니라고 하지만 측은 자꾸만 그를 가리킨다. '싫다, 싫다'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만 병선을 지켜보게 되는 가영, 어느덧 편지가 올 때면 자연스럽게 병선을 떠올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고...

<가영 씨, 내게는 보입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S->

거울을 보며 살며시 웃어보는 가영... 이렇게 웃어보는 게 얼마만이던가?

'심병선이란 사람에게 나는 아름답고 당당한 사람이었던가?'

어느새 가영의 마음속에 병선이 들어와 야금야금 지분을 넓혀가고 있는데...

인생에서 예상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라 했던가... 편지 발송자의 정체는 뜻하지 않은 시기에 드러나고, 가영은 참을 수 없는 대혼란을 느끼게 된다. 전혀 상상치 못했던 발송자, 편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게다가 완전 뜬금없는 인물을 짝사랑해왔던 병선, 그런 병선에게 어느새 빠져버린 가영...

서랍 속 차곡차곡 간직해두고 있는 편지들은 여전히 '핑크핑크'한데, 마음만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린 상황들... 이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부터 가영은 쿨하고 우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S#1. 멀티 게임장(초저녁)

검은 정장의 가영, 과녁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날카로운 눈빛, 백발백중인 듯 보이는데... 알고 보면 가영이 아닌 바로 옆 남자. 가영과 확연한 점수 차.

CUT TO. 인형교환대.

가영, 한 인형을 원하듯 빨리 바라보는데, 바로 그 인형을 가로채가는 남자.

그때 명현의 문자. <오빠 담담에 내려~ㅋ 어디암??^^ -명현->

가영, 출구로 향하려는데 인형 든 남자와 맞닥뜨린다. 서로 피하려 오락가락 인 상황.

가만히 서 있는 가영, 남자가 먼저 지나가자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S#2. 몽타주. 명현을 만나러 가는 가영

거리(초저녁)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땅 보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가영, 명현의 전화에 '거의 도착했다' 답변하며 조금 속도를 낸다.

소금구이집(저녁)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가영과 명현. 가영에게 고기도 구워주고 술도 따라 주는 명현. 명현이 간간이 농담을 건네면, 피식 웃으며 반응하는 가영, 다소 부담스러워 보인다.

S#3. 공원 길(저녁)

걸어가는 가영과 명현.

명현 (지그시 보며) 어땠어? 엇그제 침 내가 연락했을 때. 십 년 만인데...

가영 뭐 ... 깜짝 놀랐죠. 설마 저한테... .. 되게 반갑기도 했고...

명현 기억나? 동아리방에서 니가 MP3 음악 담아서 줬잖아. 귀여웠는데.

가영 그거 미진이야... 아니에요? 스읍... 혜선인가? 전 아닌 거 같은데...

명현 그, 그런가? 하하... 너두 나 좋아했잖아. ...아냐?

가영 뭐... 선배가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명현 여전히 소녀 같네... 이래서 연애편제대로 못해본 건가...

가영 네?? 누, 누가 그래요, 못해봤다고? 어머,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명현 딱 보면 알지, 말을 해야 아나. 설마 키스는... (눈치) 못...해봤나?

가영 에?? 아휴... 선배 왜 그래요 진짜...

명현 불쾌했음 미안. 그냥 궁금해서... (가영을 마주 세우고) 해볼래?

가영 !! 어머... (주변 살피곤) 왜, 왜 이래요... (긴장)

명현 알고 싶지 않아? 어떤 느낌인지. 해줄게, 내가.

가영 어머, 뭐래... 미, 미쳤나봐... (침 꿀꺽 / 주먹 짹)

가로등 일제히 켜지고, 가영과 명현을 밝혀준다. 명현을 바라보는 가영.

명현 (휴대폰 울리자 받으며) 어~ 우리 딸! 뭐해? 으응~ 아빠 이제 들어갈 거야. 엄만? 딸기케익? (하하 웃으며 통화에 집중)

미진(E) 미친놈. 제정신이야 그거?

S#4. 호프집(밤)

술을 마시는 가영과 미진.

미진 그래서 했냐?

가영 했겠냐?

미진 십 년 만에 불쑥 연락해서 노처녀 농락하는 새끼냐, 그런 새끼한테
암보험 두 개씩 쳐들어준 너나! 미친놈, 대학 때도 그 지랄이더니...

가영 불쌍해서 그냥 하나 들어줬다. 실적 좀 올려보겠다고 지도 오바한 거
겠지. 얼마나 안스럽냐.

미진 성자 나셨네! (시간 확인하며) 이 인간은 또 왜 안 와... 시간 개념이
없어... (시선) 어! (급 환하게 손 흔들며) 여기 여기!

가영 (덤달아 시선 / 환해지는 표정)

가영(N)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데는 불과 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멀리서 걸어오는 흰칠한 훈남, 마치 가영을 보는 듯하다. 가영, 설레는 눈빛...

가영(N) 7초 뒤, 과연 우린 인연이 될까? ...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훈남은 바로 앞 테이블 여자에게 손 인사하며 마주앉고, 바로 그 뒤로 푸
짐한 실루엣의 남자가 이쪽을 향해 손짓하며 다가온다. 걸음을 벗어재끼
고 땀 뚫으며 오는 남자, 허리까지 흥건한 겨드랑이 땀... 질색하며 일그러
지는 가영의 표정.

CUT TO. 저쪽에서 소개팅남을 붙들며 실랑이하는 미진. 싫다며 거부하는 소
개팅남,

결국 미진을 뿌리치곤 도망쳐버린다. 어이없는 가영. 제자리로 온 미진.

가영 간다는 놈 뭘 붙잡고 난리야. 누군 뭘 지가 맘에 드는 줄 아나...

미진 야, 개가 어떤 앤 줄 알아? 연봉이 억대야. 개네 집 재산이 얼마데!

가영 너무 아저씨 같잖아... 배 봤냐? 손은 또... 너 알잖아, 내 로망! 그런
술뚜껑 손으로 내 발에 구두 신겨주면서 프리포즈 한다고 생각해봐!

미진 그놈의 구두 드립... 왜, 아주 구두도 유리 구두로 하시지?

가영 ... 체. (맥주 마시는)

미진 아까 개가, 너 멀리서 딱 보구 껌눌렀대. 자기 은사님인 줄 알고. 노처
녀 학주였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여기 나오신 줄 알았댄다.

가영 말이 되는 소릴 해라! 그런 지는! 하... 어이없어.

미진 어이가 없지? 썸썸이야. 개도 드럽게 까다롭더라구, 너처럼.

가영 뭘 또 내가 까다롭냐?

미진 겁나 까다로워. 까다로울 거면 이빠지기라도 하든가. 아님, 당장 좀
맘에 안 드는 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든가.

가영 그래서, 내가 큰 거 바래? 연예인급 외모에 재벌 남자 원하냐고!
그냥 보통 남자 원한다구. 보통 체격에 보통 얼굴, 적당한 직업, 아저
씨 같지만 앓으면 돼, 그냥 깔끔한 스타일! 그게 큰 욕심이야?

미진 너한테 큰 욕심이야. 그런 사람 쉽게 만나질 거 같지? 개들도 눈이 있
어. 너처럼 노력도 앓고 꿈만 꾸고 사는 년은... 에휴 그래... 만남의기
본도 안 돼 있는 년한테 이놈 저놈 소개시켜준 내가 미친년이지.

가영 ... (울컥) 야, 됐어. 때려쳐!

미진 그... 가만 보니까, 첫사랑한테 암보험 두개 든 거 참 잘한 거 같아.
너로선 큰 의미가 있어. 평생 혼자 살지도 모르는데... 강 키스라도 썸
하게 해달라고 하지 그랬냐. 앞으로도 썸 못해볼 거 같은데...

가영 ... (맥주를 다 비우곤 멍하니 생각)

S#5. 상점가(밤)

걸어가는 가영, 그러다 문득 여성의류 매장 쇼윈도에 시선. 화려한 원피스의 마 네킹을 바라보다 그 옆에 비춰지는 자신의 추레한 모습을 본다.

S#6. 오피스텔 1층(밤)

캔맥주 한 묶음 들고 오는 가영, 지나치려던 우편함이 눈에 들어온다.
딱 찬 우편함.
옆집녀, 남자친구 손 붙든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옆집녀 (혀 짹은 소리로) 먼저 가아~ 차 끊기잖아...

남자 안 돼, 걱정돼서. 올라가는 거까지 보구.

옆집녀 아잉... 그렇게 내가 걱정돼?

남자 당연하지. 이렇게 여리고 이쁜데, 누가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가영 (어이없어 무심코 코웃음 치는데)

옆집녀/남자 ... (가영에 시선)

가영 ???!!! (괜히 우편물 확인)

옆집녀 그럼 자구가든가~

남자 그럴까?

‘노렸어 노렸어~’하며 남자에게 안기는 옆집녀. 서로 한 몸으로 키스하는 남녀. 우편물 확인하는 척 남녀를 힐끗거리는 가영, 입을 삐죽대면서도 부러워하는 눈빛. 그때 툭- 하고 핑크색 편지가 바닥에 떨어진다. <방가영 씨 두 손에...> 익 명의 편지.

대수롭잖게 편지를 주워드는 가영, 시선은 여전히 남녀에 가 있다. 부러운 한 숨 푹.

S#7. 가영의 집 / 거실(밤)

방 2개, 거실과 부엌이 콤팩트하게 구성된 20평 정도의 잘 정리된 집 내부. TV 홈쇼핑 광고 흐르고, 새로 산 시계를 중심으로 셀카 삼매경인 규리. 주변엔 각종 택배 박스와 잡지 등이 널브러져 있다.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규리. <이달의 핫딜! 꽤 오래 이 아이를 애정애정 할 것 같은 예감~ *^^*> 이내 ‘좋아요’ 수가 올라가자 흡족한 규리. 가영, 들어서자, 힐끗 눈치 보는 규리, 얼른 TV 채널을 뉴스로 바꿔버린다. <늘어나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급증>이란 헤드라인으로 흐르는 뉴스.

규리 오셨어요? (눈치) 아이고 우리 방주임님... 소개팅이 또 별로셨...

가영(O.L) 규리 씨. (일장연설 나오려는데)

규리(O.L) 언제 또 이렇게 어질러졌대... (주섬주섬 치우며) 빨리 짝을 찾으셔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 주임님 속상하게...

가영 ... 속상할 것도 많다. (우편물 테이블에 던져두곤 TV에 시선)

규리 (우편물 확인) 고독사도 나이가 없구나... 남 일 같지 않네... (힐끗) 그나마 저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가영 (TV 끄곤 리모컨 내던진다 / 분을 삭이곤 방으로 가려는데)

규리 (우편물 중 핑크편지 발견) 어, 이거 주임님 건데... 가영 씨...래요.

가영 ?! (얼른 뺏어보면)

<방가영 씨 두 손에...> 상서로운 기운의 핑크색 편지. 어디에도 발신자 주소

는 없다.

대뜸 편지를 뜯어보는 가영, 옆에 달라붙어 편지를 보는 규리.

규리 어머머 고백한대... 뭐지? 누구예요??

가영 !! (침착한 척 편지 접어버리며) 치우던 거나 마저 치워. (방으로)

S#8. 가영의 방(밤)

잘 정돈돼 있는 깔끔한 내부. 침대맡에 노호훈이 고개를 사랑살랑 흔든다.

방문에 기대 쪼그려 앉아 있는 가영, 캔맥주로 흥분을 가라앉히며 편지를 본다.

담백한 손 글씨...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가영 씨에 대한 마음, 오늘부터 고백하려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S- >

S#9. 편의점(아침)

‘쾌변’ 요구르트와 물티슈를 계산대에 올려두는 가영... 문득 편지 생각이 난다.

회상컷. <... 사랑하였습니다 ... 고백하려 합니다. -S->

점원 이름표를 살피는 가영, ‘박명호’ S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름...

S#10. 회사 엘리베이터 안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는 가영, 바닥 보며 서 있는데... 그때 속속 들어서는 회사원들.

사람들에 밀려 맨 뒤에 선 가영, 문득 또 편지 생각이 든다.

회상. <... 사랑하였습니다 ... 고백하려 합니다. -S->

순간 머리며 옷매무새를 신경 쓰는 가영, 사람들의 사원증을 기웃거리는데...

불명확한 사람은 얼굴 확인하려다 눈 마주치자 흠칫, 탄청 피우는 가영이다.

S#11. 회사 화장실(낮)

용변 칸에 앉아 있는 가영, 변비 때문에 괴로운 상황. 마지막 힘을 쥐보는데 힘 없는 방귀소리에 마감한다. 진이 다 빠져버린 가영, 물 내리고 나가려는데... 밖에서 화장품 꺼내는 소리와 함께 규리와 수진의 수다가 들린다. 선뜻 나가질 못하는 가영.

규리(E) 피부 다 일어난 거봐... 그래서, 남친하고는 아직 화해 못했어?

수진(E) 만나야 화해를 하든 말든 하죠... 아악!! 방가영 그년 진짜!!

규리(E) 왜 또...

수진(E) 그년 때문에 맨날 야근하느라 이 사달 난 거잖아요! 아니, 약속이 있다고 하면 봐줘야지, 알바가 무슨 지 하녀야? 꼴에 완벽주의 코스프레는.

규리(E) 좀만 참아 수진 씨. 친해지면 은근 챙겨준다? 나한테 방 내준 거 봐.

수진(E) 됐구요, 꼬누고 있어요, 지금. 오늘 걸렸단 봐, 가만 안 있어.

분노가 이는 가영, 차마 당장 나가지도 못하고... 수진과 규리가 수군대며 나가자, 문가에 귀를 대보곤 살며시 나오는 가영, 거울 앞에 선다. 옷매무새를 정돈

하곤 수진이 나간 쪽을 찌러보는 가영, 화장실을 나선다. 또각또각 구두소리.

S#12. 사무실(낮)

10인 남짓의 소규모 구두 유통회사. 곳곳에 각종 디자인의 구두 샘플이 진열
돼 있다.

팔짱 끼고 앉아 무게 잡고 있는 가영,

시선은 책상 위 영수증 묶음 공책에 있다.

가영 곁에 불만스레 서 있는 수진. 자리에 앉아 눈치 보는 규리. 업무 중인 태희.

가영 내가 뭐라고 했지? (답 없자 당황 / 좀 더 크게) 영수증 내가...

수진(O.L) 영수증은 날짜별 용도별로 나눠서 분류한다.

가영 또.

수진 (이 악물고) 풀칠은 영수증 뒷면 전체에 해서 꼼꼼하게 붙인다.

가영 봐봐, 해놓은 거. (펼쳐 보이며) 이게 뭐니, 이게... 너털너털...

수진 (꼭 참고) 저기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주셔야죠. 한꺼번에 잔뜩 몰아
주셔놓고, 단시간에 완벽하게 하길 바라시면... 좀 그렇죠.

가영 하... 뭐? 저기요? 지금 나한테 저기요라고 했니?

수진 제가 그랬나요?(잡아먹을 기세로 눈 부라리는) 그랬다면 죄송하구요.

가영 ... (기가 눌리지만 태연한 척) 다시 해 와. 완벽하게!

수진 (영수증 공책 챙겨 가며 콧방귀) 쉰 척 완벽한 척 오지구요...

가영 뭐오-저? 어머, 애 말하는 거 봐... 너 지금 (수진 무시하자) 저 제! 애!

수진 네? 뭐요? (똑바로 보며) 제가 뭐라고 했나요?

가영 니가 방금... 와... 나... (태희에게 동의 구하는) 애 말한 거 들었죠?

규리 저기 방주임님! 방주임님!

가영 뭐, 왜!

규리 심과장님 부르시는데... (병선 쪽으로 눈짓)

병선 (손짓하며 배시시 웃는)

가영 (미소로 응대 / 수진 노려보며) 성질머리 뺨에 남친하고 그 모양인 거
면서 야근 탔은...

수진 뭐라구요? (폭발 일보 직전)

가영 !! (내뺨듯 병선에게 향하는)

수진 저 씨... 두고 봐, 방가영...

CUT TO. 가영, 병선의 자리에서 엑셀 사용법을 알려준다.

가영 이렇게 셀을 전부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며) 이러면 함수 값이 적
용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실 필요 없구요.

병선 오, 그러네요. (화면 보며 마우스 잡으려는데 가영의 손이 닿고)

가영 (피하곤 미소로 무마하는 / 슬쩍 병선으로 시선)

정리 안 된 덩수룩한 머리, 후줄근한 셔츠, 길어난 손톱... 뭐 하나 가영의 마음
에 드는 게 없는 스타일의 병선. 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너저분한 책상까지...

병선 방주임은 모르는 게 뭐예요? 뭘 물어봐도 만능이네... 참 여기 있긴
아까운 분이예요.

가영 농담이라도 기분은 좋네요.

병선 농담 아닌데... 앓튼 번번이 미안해요, 고맙고.

가영 아닙니다. 하시다 잘 안 되면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가려는데)

가영, 책상 위 병선의 명함에 시선 멈춘다. 'Byung-Sun SHIM.' 'S'에 집중되

는데...
순간 병선의 시선이 느껴지는 가영, 미소로 응대하며 제자리로 향한다. '기우'
러니... 고개 젖는 가영. 이를 지켜보던 규리, 수상쩍은 표정.

CUT TO. 자리에 돌아온 가영, 수진의 빈자리 보이자 두리번거리다가

가영 김대리님, 애... 어디 갔어요?
태희 관두겠대.
가영 허! 그래서 그냥 보내셨어요?
태희 붙잡았지. 막무가내야. ... 방주임 힘든 거 아는데, 그래두 살살 달래
가며 일을 시켰어야지. 수진 씨 요 며칠 계속 야근해서 힘들었을 텐
데...
가영 ... (못마땅하고)
가영(E) 하여간 나만 제일 못됐지.

S#13. 탕비실(낮)

꽃꽂이 자세로 커피를 마시는 가영. 커피 타려는 규리, 병선에 묘한 시선.

가영 아니, 기왕 일 하는 거, 제대로 응? 완벽하게 하자는 게 잘못이야?
흥, 김대리... 혼자 사람 좋은 척 그런 식으로 감싸주다 맨날 뒤통수
나 맞지. 안 그래? (규리 보면)
규리 심과장님이 왜 자꾸 우리 쪽을 보시나 했는데... 오늘에서야 감이 딱
왔어요. 누구 때문인지! 심과장(님... 하려는데 가영의 눈빛에 멈칫)
가영 (사나운 눈빛) 비품 구매목록 완성했어?

규리 (모면하려 생수를 부으려는데) 물이 없네... (빈 생수통 내려놓는)

박스 들고 들어서는 재현, 새 생수통 굴러 오는 규리 보자 얼른 대신해 번쩍 들
어올린다. 흡족한 규리. 생수통을 갈아 끼우는 재현의 모습에 시선 사로잡히
는 가영...
걸어 올린 팔뚝 위로 우뚝 솟은 핏줄, 곧 이탈할 것 같은 가슴팍 단추, 탄탄한 허
벅지... 재현의 자태에 저도 모르게 침을 삼키는 가영.

규리 (재현 팔을 살짝 꼬집으며) 고마워요~ (물 한 모금) 크... 물맛 좋-고~
가영 ... (빈 컵 버리곤 나가려는데)
재현 (가영의 팔 잡으며) 주임님!
가영 !! (팔을 잡은 재현의 손부터 팔, 얼굴까지 시선) 예? 네... 재현 씨.
재현 저... 샘플 이미지 찍어 놓은 게 죄다 색감이 안 살아서 그러는데,
포샵 좀 도와주심 안 될까요? 프로급이시라던데.
가영 내가...요?
재현 예. 심과장님 칭찬이 아주 (쌍 엄지척!) 장난 아니시라던데...
가영 글썸, 그 정도까진 내가...
재현 많이 바쁘시죠? 혹시나 해서 여쭙봤어요. (웃으며 인사 / 가려는데)
가영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든가요.
재현 !! (활짝 웃는)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가영 뭐... 내가 좀 바쁘긴 한데... 한번 보죠 뭐. 점심 먹고...
재현 감사해요! 나중에 꼭 밥 살게요. (윙크) 점심 맛있게 드세요. (나간다)
가영 !!!
규리 어머머! 와... 저 끼돌이 저거!! 어디 신입이 윙크질이야 상사한테?
스읍... 우리 회사에 요물이 들어왔어... 하... 저걸 어떻게 꼬시지?
가영 꼬시긴... 여친 있대매.

규리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가영 (슬깃) 그래...? (재현에 시선) 어찌다 그랬대...
규리 이제 슬슬 박차를 가해야겠어. 두고 봐요, 한 달 안에 잘 거니까.
가영 뭐야!!! (애써 침착) ... 처녀가 못하는 말이 없어...
규리 헐... 할머니 오신 줄... (나가고)
가영 (규리를 껴려보다 재현에 흐뭇한 시선)

S#14. 사무실(낮)

점심 식사하고 속속 들어오는 직원들. 가영 일행도 들어선다.

규리 (코를 확 막으며) 아후 뭐야.
태희 쌀쌀해서 문을 안 열어놨더니... 창문 좀 열까? (병선의 빈자리 힐끗)
 태희, 열린 공기청정제로 병선 주변부터 뿌려두곤 규리와 창문을 연다.
 가영도 병선 주변 창문을 여는데... 병선의 빈자리, 책상 위에 도시락 통이 놓여 있다.
 이를 본 가영, 짜증나지만 애써 참는다.

병선 (자판기 커피 들고 오며) 점심 잘 드셨어요? (자리에 앉는데)
가영 (공손한 미소) 예, 과장님도 잘 드셨죠? 오늘은... 혹시 마파두부?
병선 어?! 어떻게 알았어요?
가영 맛있으셨겠다... 근데... 그... 심과장님...
병선 예?
가영 (슬쩍) 점심 드실 때 환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병선 아... 예, 미안해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래서... 주의할게요.
가영 부탁드립니다. (미소 유지하다 자리로 향하며 표정) 미세먼지는 씨... 냄새로 먼저 질식해 뉘지겠구만, 쫓. (병선을 힐끗)

커피를 훌쩍이며 트림도 살짝궁 하는 병선, 덩수룩한 머리를 굽적이며 슬그머니 신발을 벗자 발가락양말 속 발가락들이 발랄하게 움직인다. 허 차며 얼른 시선 거두려는 가영, 순간 병선과 눈 마주친다. 미소 짓는 병선. 예의상 웃어주는 가영.

규리(E) 도대체 누굴까요?

S#15. 가영의 집 / 거실(밤)

테이블에 펼쳐져 있는 새 편지...
 <당신 때문인가요? 가시밭길로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꽃밭으로 보여요. 제가 사랑에 빠진 것 맞지요? -S->
 소파에 앉아 자기계발서를 펼쳐든 가영, 책보는 척하지만 온 신경은 편지에 가 있다.
 곁에서 발톱 매니큐어를 말리며 탐정 모드로 편지를 보는 규리, 한 손엔 스마트폰.

규리 항상 지켜보고 있던 거네. 말랑말랑한 면도 있고, 근데 좀 소심해. 연세도 좀 있으시고... 거기에다 회사 동네 소인이라... 각이 딱 나오는데...
가영 (짜려보면)

규리 한번 물어나 볼까요? 쓰으.
가영 쓸데없는 짓 하기만 해! 쫓! (슬쩍 편지 챙겨 방으로 가려는데)
규리 피... (재현의 SNS 사진 보며) 어?! 손재현 애 뭐야! 또 누구 생겼나?!
가영 !! (슬그머니 다가가 SNS를 본다)

재현의 SNS. 가슴에 손 얹은 사진. <갑작이 찾아온 사랑, 다시 뛰는 내 심장>
 ‘갑작이’에 시선 고정되는 가영. 잠시 생각하다 씨익 웃는 규리.

규리 아아... 그래서 주임님한테 윙크질 했구만! 나 보라고. 질투 작전!
 앙큼하긴... 요물인 줄 알았더니 귀요미였네~
가영 (슬쩍 찌러보곤) 규리 씨도 하루 종일 그거만 붙들고 있지 말고, 시간
 있음 책을 좀 봐. 어떻게 책 한 권을 안 읽니? 예휴 (혀를 차는)

S#16. 가영의 방(밤)

슬쩍 방문 잠그는 가영, 자기계발서를 획 던져두곤 캔맥주 한 모금. 스마트폰
 으로 재현의 SNS를 찾아본다. 재현의 SNS를 스캔해가는 가영, 시선이 멈춘
 문구.
 <갑작이 찾아온 사랑...> 열린 편지를 펼쳐 대조해본다.
 <당신 때문인가요? 가시밭길로 보이던 세상이 갑작이 꽃밭으로 보여요...
 -S->
 ‘갑작이’를 뚫어져라 보는 가영, 손톱 물어뜯으며 집중하던 그때, 명현의
 문자.
 <보험심사 완료!! 오빠랑 밥먹자, 널 어때?ㅋ -김명현-> 바로 달아버리고...
 재현의 SNS를 연다. ‘손재현’ ‘손’... ‘S’ ... 노호흔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가영...

마치 ‘맞을까 아닐까?’ 하듯 고개 살랑대는 노호흔... 가영, ‘설마...’하며 고개
 젓는다.

침대 밑 서랍장을 열자 각종 연애서적, 남자심리서 등이 뽁뽁이 들어차 있고,
 곁에 둔 하트 상자 열면, S로부터 받은 편지가 보관돼 있다. 새 편지를 그 위에
 살포시 놓아두는 가영, 《사랑에 빠지는 7초의 법칙》을 꺼내 접어둔 페이지 펼
 친다.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불과 7초...》

S#17. 사무실(낮)

재현의 자리에서 포토샵 작업을 봐주는 가영,
 재현의 팔과 손으로 자꾸만 시선 간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섬세한 손가락... 잔 근육이 꿀렁이는 팔뚝...

재현 (이미지 선택) 이렇게 하고 색감은...(색감 조절하며) 됐나? 어때요?
가영 (팔뚝에 정신 팔려) 나야 좋죠... !! 톤 좋네. 혼자 해도 되겠는데요?
재현 설명을 워낙 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아, (가방에서 핸드크림 꺼내 주며) 이거...
가영 이걸 왜...
재현 손가락도 길고 참 예쁜 손인데, 넘 방치해두시는 거 같아서요.
가영 (손 얼른 감추며) ... 아후 됐어요.
재현 받아주세요, 별것두 아닌데. 저 좋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가영 ... 고마워요, 잘 쓸게요.
재현 참, 선배님... 저번 출장비요. (용도 메모한 영수증 묶음 건네며)
 ...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거, 괜찮죠? 주임님은 웬지 딱딱해서...

가영 네... 뭐... (재현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상상의 목소리 들린다)
재현(E) 당신 때문인가요, 가시밭길로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꽃밭으로 보여요.

가영 (미소)

CUT TO. 가영의 자리.

핸드크림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가영, 조심스레 크림을 짜 손에 바른다. 향기를 음미하며 재현을 힐끗하는데... 순간 눈 마주치자 당황, 급 시선 피하다 다시 슬쩍 본다. 주문을 걸어보는 가영.

가영(N) 7초 내로, 다시 이쪽을 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엷... (뜸 들이다) 일... (기침 한 번 하고) 일...고...오오오오오...

그때 사내 메신저 알림.

메신저 창.

재현 혹시 뮤지컬 좋아하세요?

흠칫하는 가영, 주변 의식하며 조심스레 답문하는.

가영 뮤지컬이요? 왜요?

재현 담주 공연 티켓 있는데, 보실래요?

설레는 가영, 대뜸 '좋아요!'하다 지우고, '생각 좀 해보고...' 지우고, 고민 고민...

가영 글썸... 뮤지컬을 좋아하긴 하는데...

재현 넵! 접수완료! ^^~*

벅차오르는 가영, 슬쩍 가방에서 문제의 편지를 꺼내 재현의 영수증 메모로 필체 대조해본다. 왠지 비슷해 보이는...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이 신경 쓰이는 가영, 생각난 듯 서랍을 뒤져 구석에 처박힌 매니큐어를 꺼내 열어보는데 굳어 있다.

S#18. 삼겹살집(밤)

회식 중인 가영과 직원들. 재현과 병선, 가영 팀은 한데 모여 앉아 있다. 혼자 취한 사장, 인원수대로 소맥을 마는데...

사장 자, 사장님이 손수 하사하시는 어주 나가신다! 각 2잔씩 의무 복용!

직원들에 의해 전달되는 소맥잔. 쫓! 허를 찌는 가영, 한숨 쉬는 규리, 푹 웃는 태희, 고기 굽는 병선, 해맑은 재현.

사장 사장이 소맥 맡아주는 회사 봤어? 얼마나 영광이야! 자, 위하여!

일제히 소맥을 마시는데, 가영만 안 마시려 미적거리고, 이를 본 재현, 얼른 제빈 잔과 맞바꿔준다. 고마운 눈빛의 가영, 윙크하는 재현, 이에 어이없는 규리, 태희에게 수군대고, 태희는 웃어준다. 병선, 구워진 고기를 각 직원들 앞접시에 놓아준다.

재현 주임님은 원래 술을 싫어하시나 봐요?
규리 (놀리듯 가영 보며) 그러세요~? (재현에게 술잔 내밀며) 한잔 주세요!
가영 (규리를 은근 밀어내곤 술잔 내밀며) 맥주 한두 잔은 마셔요.
재현 맥주 드릴까요? (잔 채워주곤) 짠~!
가영 ...기분이다, 원샷!

재현의 눈웃음에 내심 흡족한 가영, 원샷 하는데...
 가영이 맥주를 흘리자 얼른 냅킨을 건네주는 재현. 서로 주머니 받거니 하는 가영과 재현... 병선, 목이 타는지 맥주를 따라 원샷한다.
 재현과 가영의 행각에 짜증나는 규리, 웃어주던 태희, 앞접시의 수북한 고기 일부를 옆 테이블에 나눠준다. 병선, 소주를 잔에 따라 단숨에 비운다.

S#19. 노래방(밤)

다들 취기가 있는 상황. 병선의 지루한 노래 1절이 끝나고 간주가 이어지려는 순간 노래가 중단되고... 신나는 댄스리듬이 흐른다.
 멋쩍은 병선은 자리로 돌아가고, 다들 누구의 예약곡인가 둘러보는데... 만취해 신난 가영, 당당하게 리듬 타며 노래를 부른다.
 웬일인가 싶은 직원들. 흥이 더해지며 재현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가영, 재현을 유혹하듯 웨이브를 탄다.
 능수능란하게 받아주는 재현. '웬일이야... 왜 저래 오늘' 수군대는 태희와 규리. 병선, 담배 챙겨 슬쩍 나간다.

S#20. 노래방 건물 앞(밤)

쏟아낸 듯 힘겹게 입을 닦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가영, 한껏 취한 걸음새. 지척에서 담배 피우던 병선, 담배꽂초를 얼른 담뱃갑에 챙겨 넣곤 가영 부축하며...

병선 괜찮아요?
가영 예, 예... (휘청하며 벽 잡는)
병선 웬일이에요, 안 먹던 술을 다 마시고.

CUT TO. 건물 입구 모퉁이에 기대 앉아 정신없이 휘청대는 가영.

병선이 얼음물 건네자 벌컥벌컥 들이켜는 가영, 이내 배시시 웃는다.

병선 (가영 옆에 앉으며 물끄러미 보는) 기분 좋아 보여요.
가영 그래요?
병선 평소에도 그렇게 좀 웃어 봐요. 참 보기 좋은데.
가영 에-이 고깃말... 뭘 해도 칙칙한 거 다 알아요. 제가 그렇죠 뭐...
병선 아네요! 거울 보고 확인해 봐요, 내 말이 틀렸나.
가영 과장님도 차암 좋으신 분이예요.
병선 제가 뭘... 형편없죠.
가영 아니예요. 과장님같은 분이야말로 진국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병선 이 나이에 모아둔 돈도 없고,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데 무슨...
가영 사람이 중요하지! 안 그래요? 쫄 거 없어요!! (휘청휘청 정신이 없다)
병선 한 번의 명량한 당신의 웃음소리가 찢어주었어. 내 생의 가면을...
가영 에?

병선 나해철님의 <웃음소리>란 시예요. 가영 씨 웃는 거 보니까 생각나서.
가영 시도 외우고 다니세요? 완전 감성적이지다~
병선 정말, 사람이 중요한 걸까요?
가영 예? 예, 당연하죠! 돈보단 사람!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병선 가영 씨가 보기엔, 어떤 거 같아요, 제가?
가영 (영혼 없는) 굿이죠 굿. 완전 구우우웃!
병선 남자로서 말이에요.
가영 ... (똥하니 보다가 순간 구역질이 나 앞으로 숙인다)
병선 !! (등 두드려주며) 괜찮아요?
가영 ... (그대로 똥아떨어진)

S#21. 가영의 꿈. 어느 바닷가(낮)

모래성에서 장난감 칼로 혈전을 벌이고 있는 병선과 재현, 눈빛은 매우 심각하다.
 멀리서 걱정스레 지켜보는 빨간 드레스의 가영, 핸드크림을 품고 있다.
 드디어 싸움에서 이겨 달려오는 남자. 누굴까... 누굴까 조마조마한 가영...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남자, 병선이다. 머리엔 종이왕관을 빼딱하게 쓴 병선,
 가영 앞에 멈춰 서며 환히 웃는다. 웃을 듯 찡그릴 듯 병선을 바라보는 가영.

병선 한 번의 명랑한 당신의 웃음소리가 찢어주었어. 내 생의 가면을...
 (도시락을 내밀며) 우리, 같이 먹을래요?
가영 예?
병선 같이 먹어요, 평생. 함께! 주-욱! (해맑게 웃는)
가영 (표정 일그러지며 핸드크림을 떨어뜨린다)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래성.

S#22. 가영의 방(아침)

이리저리 뒤척이는 가영, ‘아니야, 아냐, 넌 안 돼!!’ 소리치며 눈을 뜬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기 방이다. 곁에 구겨져 있는 편지가 눈에 들어오고, 펼쳐보면... <기쁜 일이 한두 가지이겠냐마는 그중의 제일은 맑은 물 한잔 따라주는 일,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 맑은 물 한잔 건네주며 가영 씨 얼굴 보고픈데요. -S-> 기억에 없어 혼란스러운데... 울려오는 명현의 문자.
 <오늘 시간 어때? 너한테 딱인 상품 있는데 -명현-> 짜증스레 바로 삭제.

S#23. 사무실(아침)

출근 상황. 들어서는 가영, 왠지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다. 뭔가 자신을 향해 수군대고, 안타까운 미소로 맞아주는 것 같은 회사 사람들... 규리만 보통처럼 대할 뿐이다.
 기분 탓이려니 하는 가영, 비품 체크 파일을 챙겨 창고로 향한다.

S#24. 창고 검 샘플실(아침)

들어서는 가영, 샘플 체크하고 있는 재현과 맞닥뜨린다. 왠지 경직된 웃음으로 맞는 재현. 가영, 웃어주곤 파일 열어 비품을 체크하는데...

가영 어젠 잘 들어갔어요?
재현 예? 아, 예! 잘 들어갔습니다. (눈치) '방주임님'도 잘... 들어가셨죠?
가영 (방주임??) 네... 어제 너무 마셨죠? 머리가 아직도 울리는 거 같네.
재현 아... 예, 그러시죠... 어제... (은근 눈치 보는)
가영 ... (눈치) 왜...요? 어제 내가... 뭐...
재현 아, 아닙니다! 하하... (냅다 자리로 향한다)
가영 (웬지 꺼림칙해 고개 가우퐁)
병선 (샘플 박스 들고 들어서며 가영과 목례) ... 속은 괜찮아요?
가영 예? 예... (열른 모면하러 나가려는데)
병선 (박스 한쪽에 놓아두며) 저... 가영 씨.
가영 ??
병선 고마워요.
가영 예?? ... 뭐가...
병선 어제 가영 씨가 했던 말이요. 덕분에 조금은 용기가 났어요.
가영 ???
병선 취중진담이라고, 평소 잘 표현 않던 방주임한테 그런 얘길 들으니까 더 와 닿고 기분 좋더라고요. (수줍은)
가영 아... 예... (잘 모르겠고) 저... 어제 말인데요... 제가...
병선(O.L) 아, 어제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난 오히려 방주임이랑 좀더 가까워진 거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부끄러운 듯 간다)
가영 ????? (제 머리를 마구 때리며) 뭘 짓거릴 한 거야 대체...!!!

S#25. 사무실(낮)

가영, 눈치 살피며 자리에 앉으려는데... 규리, 재현이 준 핸드크림을 손에 바르

고 있다! 가영, 냅다 핸드크림을 빼앗자 놀란 규리.

가영 멋대루야 아주. 왜 허락도 없이 발라, 남의 거를!
규리 뭐예요? 재현 씨가 준건데. (다시 빼앗으며) 왜 이러실까?
가영 ...
태희(E) 향 좋다, 이거.
가영 !! (태희 쪽 보면)
태희 (역시 같은 핸드크림을 바르며) 싹 스며드는 게 끈적거리지도 않고... 여기 꺼 은근 유명하던데, 재현 씨 아버지네 회사였구나...
규리 압튼 얘기하면 반값 디씨해 준대요.
가영 ... (뭉야... 무안해져 자리로 가는데)

CUT TO. 가영의 자리. 재현이 준 핸드크림을 슝슝하게 바라보는 가영...
 그때 규리의 사내 메신저.

규리 주임님. 손재현은 아니에요.
가영 ???
규리 편지남이요. 걀 줄 알잖아요 지금.

흠칫하는 가영, 애써 침착하게 <아니거든! 미쳤니?> 답문하려는데...

규리 손재현 페이스북에 새 여친 땀어요.

(잠시 뜸 들이다)

가영 관심 없거든! 뭘 상관?

규리 어젯밤이요... 어디까지 기억하세요?

가영 ???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왜??

왠지 불안해지는 가영, 규리 대꾸 없자

가영 뭔데?? 빨리말해

규리 그게... 하....

S#26. 회상. 노래방 거리(밤)

취기가 흥건한 회사 사람들. 넥타이를 머리에 두른 사장은 혼자 우왕좌왕하고. 병선은 그런 사장 챙기며 택시 잡기에 바쁘다. 만취한 가영은 규리와 재현의 부축을 뿌리치고 바닥에 누워버린 상황인데... 태희, 가영을 흔들어 깨우며

태희 일어나봐, 응? 버티지도 못할 술을... 가만, 물 좀 사 올게. (뛰어간다)

재현 주임님, (일으켜 세우려) 집에 가셔야죠.

가영 (으흥~웃으며) 재현 씨, 나 집 있다. 그거 내 집이야. 대출이 끼긴 했지만.

재현 예예. 좀 일어나 보세요, 네?

가영 규리 씨 내쫓을 거야. 그럼 방 베풀... (긋속말) 재현 씨가 와서 살래?

재현 ... 하하... 일단 택으로 가셔야죠, 네? 너무 늦었어요.

가영 누나가 다아- 해줄게. 재현 씨는 몸만 오면 돼. 누나한테 와... 응? (재현에게 안기며) 응? 재현 씨... 나 좋아하잖아... 난 다- 알아...

재현이 슬쩍 몸을 빼자 그대로 자빠져 잠드는 가영. 재현과 규리, 난처한데...

사장을 보낸 병선, 뒤늦게 다가온다. 그제야 슬그머니 뒷걸음치는 재현.

규리 (재현을 붙잡으며) 집까지 좀 같이 가줘요. 나 혼자 못가.

재현 에? (난처한 웃음) 아... 전 완전 반대 방향인데...

병선 ... (가영을 바라보는)

가영 외로워... (코 골며 뒤척이는)

S#27. 회사 / 건물 옥상(낮)

손톱 물어뜯으며 난간에 기대 있던 가영, 창피해 와르르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S#28. 사무실 앞(낮)

업무 중인 규리, 전화 울리자 보면 <방주임> 가영의 빈자리 힐끗, 의아해하며 받는

규리 여보세('요'도 채 하기 전에)

가영(E)(O.L) 티내지 말고 들어.

규리 ... 네.

가영(E) 저기...내가 지금 회사 사람들 보기가... 사무실로 가기가 좀 그렇거덩?

규리 네... (가만 듣다가 퐁-) 죄송해요 / 네 /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S#29. 회사 / 건물 옥상(낮)

가영에게 가방을 건네는 규리, 안타깝기도 왠지 미안하기도 한 시선.

가영 뭐라고 얘기했어?

규리 위경련 나서 급히 병원 가져야 된다고... 잘 얘기해 봤어요.

가영 ... 고마워.

규리 (안타깝게 보다)아, 거기, 가방 속에 재현 씨가 준 거 뭐 있을 거예요.

가영 뭐...?

CUT TO. 혼자 남은 가영, 손에 쥔 두 장의 뮤지컬 티켓과 짧은 메모를 바라본다.

<즐감하시고, 기운 내세요! 주임님의 솔로탈출을 기원하며... -손재현>

가영 주책이지 내가... (울상) 이런 미친년...

창피하고 허탈한 가영, 갑자기 삭신이 쑤셔오는 듯 허리를 통통 친다.

먹구름으로 가득한 하늘.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다.

S#30. 회사 / 건물 옥상 / 엘리베이터 앞(낮)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가영,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선다.

S#31. 엘리베이터 안

홀로 서 있는 가영, 아래로 향하는 층수를 멍하니 보는데... 회사 층에서 멈춘다.

흠칫, 긴장하는 가영. 문이 열리자 외근 차림의 병선이 서 있다.

당황하는 가영, '엇! 방주임' 놀라며 들어서는 병선...

문 닫히고, 단 둘뿐인 공간.

병선의 눈치를 보며 좌불안석인 가영.

병선 괜찮아요? 위경련이라면서요? 병원은요?

가영 아... 네... 요 위층 내과 갔다 이제 집에... (괜히 아픈 척)

병선 아휴 어찌나... 어제 너무 무리했나 보네...

가영 ... (어색한 침묵)

병선 어제...

가영 (동시에) 외근... 가시나 봐요?

병선 예, 요 사거리 매장에...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혼자 갈 수 있겠어요?

가영 아후 그럼요, 그럼요... (1층 '땡' 소리에 안도하는)

S#32. 회사 / 건물 입구(낮)

나란히 서 있는 가영과 병선. 한창 내리고 있는 비. 당황스러운 가영인데...

가방 속에서 우산을 꺼내 펼쳐드는 병선.

병선 버스 타시죠? 가요.

가영 ... 아... (머뭇대다 슬쩍 우산 안으로 들어선다)

S#33. 상점가(낮)

한 우산 아래 나란히 걸어가는 병선과 가영,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린다.

말없이 있자니 어색한 가영, 괜히 주변으로 시선 돌리는데... 바로 근처 여성의 류 매장 쇼윈도. 빨간 원피스에 시선이 멈추는 가영. 신호등 보던 병선, 파란불이 뜨자 가려는데... 가영에 시선, 멍하니 원피스를 바라보는 모습에 그대로 우산을 받쳐준다.

병선 맘에 드시나 봐요?

가영 네?

병선 (시선으로 원피스 가리키는)

가영 아... 에이... (고개 절레절레) 아뇨. 저런 건 아무나 소화하나요.

병선 왜요, 가영 씨한테 참 잘 어울릴 거 같은데...

가영 아휴... 제가 입으면 테러죠. 안구테러.

병선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가영 씨...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가영 ...

깜빡이던 파란 신호가 빨간 등으로 바뀐다.

그대로 나란히 서 있는 가영과 병선.

S#34. 버스 정류장(낮)

나란히 버스를 기다리는 가영과 병선. 멈출 줄 모르는 비. 버스가 온다.

가영 먼저 갈게요.

병선 그래요. 몸조리 잘해요.

가영, 버스에 올라타는데 손에 덥석 쥐어지는 우산... 돌아보려는 순간 문이 닫힌다.

좌석으로 들어서는 가영, 창밖으로 병선을 본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병선.

S#35. 가영의 오피스텔 1층(낮)

들어서는 가영, 우체통을 그냥 지나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곤 멈칫, 다시 우체통으로 되돌아가 확인하는데... 편지가 있다. 잠시 뜬 들이다 편지를 집어 드는 가영.

S#36. 가영의 집 / 거실(초저녁)

소파에 앉아 재테크 책을 보는 가영, 펼쳐진 책 위엔 네 번째 편지가 있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가영 씨, 내게는 보입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S->
발가락을 꼼지락대며 생각에 잠긴 가영. 방에서 나오는 규리, 클럽용 원피스에 짙은 화장. 가영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단추 채워지지 않은 등을 내보이며 배시시 웃는...

가영 ... (단추를 채워주며) 열쇠 갖고 나가. 벨 누르지 말고.

규리 근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실 거예요? 그냥 답판 지으시죠?

가영 (묵묵히 단추를 다 채우곤 등짝 밀어내며) 어여 가.
규리 저 같음 씩 그리 기분 나쁘지만은 았을 거 같은데...
가영 무슨 뜻이야?
규리 누가 날 좋아한다는 건 좋은 거 아녜요? 상대가 누구냐를 떠나서.
 그 사람만큼은 나만의 매력을 알아준 거잖아요. 그건 고마운 거죠.
가영 비웃는 거야?
규리 뭘 또 파서 들어요? 전 방주임님한테도 나름의 충분한...
가영(O.L) 주제파악 하고 좋아해주면 감지덕지하라, 이거 아냐!
규리 (하...) 방주임님은 본인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가영 뭐야?! 계속 받아주니까 한도 끝도 없지?!
규리 또 흥분하신다. 주임님은 매사 너무 심각해. 머리 안 아파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가요 같이. 기분 전환!! 연하남 소개시켜드릴게요.
가영 너나 많이 만나세요! (방으로)
규리 다녀올게요~ (고개 절레절레)

S#37. 가영의 방(밤)

침대에 벌렁 누워버리는 가영.

규리(E) 방주임님은 본인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가영 (허공 하이킥)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야, 나두 니 나이 팬... (멈칫)

회상컷.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방.
 음악CD와 쪽지를 손에 쥔 채, 문 앞에 서성이는 가영, 방 안을 힐끗거린다.
 방 안에는 세련된 여학생들에 둘러싸인 명현, 웃고 떠드는 모습.

망설이는 가영, 전해줄까 말까... 그때 가영을 툭 치고 방으로 들어서는 여학생.
 그 길에 CD가 떨어져 케이스가 깨져버린다. 가영을 힐끗 보는 명현. 깨진 조각을 주섬주섬 줍는 가영, 힐끗 명현을 보면... 가영을 치고 들어간 여학생에게 MP3를 선물로 받은 명현,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음악을 같이 들어본다. 씩씩하게 웃으며 음악CD와 쪽지를 가방에 넣어버리는 가영.

CUT TO. 누운 채 노호훈을 바라보는 가영, 유유자적 살랑대는 노호훈... 심술 난 듯 태양열판을 손으로 가리자 노호훈이 멈춘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가영...

규리(E) 누가 날 좋아한다는 건 좋은 거 아녜요?

벌떡 일어나는 가영, 노호훈을 놔두고 방 나선다. 다시 고개를 살랑대는 노호훈.

S#38. 가영의 집 / 현관(밤)

현관으로 나서는 가영, 병선의 우산을 집어 든다. 물기가 거의 말라가는 우산. 우산을 펼쳐보다 다시 접어두곤 돌아서려는데... 나란히 놓인 규리의 화려한 구두와 자신의 검정 단화에 시선, 규리의 구두를 살짝 신어보곤 두 발을 내려 다본다.

S#39. 사무실(아침)

출근 상황. 검정 단화를 신고 들어선 가영, 자리로 와 슬리퍼로 갈아 신는데...

병선(E) 저... 방주임.
가영 (보면) 아, 예. 과장님...
병선 저... 실례지만, 신발 몇 신으세요?
가영 예? 왜...

CUT TO. 병선의 자리. 어색한 듯 서 있는 가영. 곧 신발 샘플을 가져오는 병선.

병선 착화 컷이 급히 좀 필요해서... 미안해요.
가영 괜찮아요.
병선 (무릎 꿇고 앉아 가영 앞에 신발을 두며) 신어보시겠어요?

유리 구두 신듯 구두를 신어보는 가영, 알 수 없는 설렘... 순간 병선과 눈 마주 치자 책상 쪽으로 시선 돌리는데, 병선의 메모가 보인다. 편지와 유사해 보이는 필체.

병선 (사진 찍고는) 혹시, 오늘 퇴근하고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가영 네? 왜...요?
병선 (머뭇대다) 얘길 좀 하고 싶은데... 약속 있으세요?
가영 (올 것이 왔구나) ... 아뇨, 시간 괜찮아요.
병선 그럼, 저녁에 잠깐 뵈요.
가영 네...

CUT TO. 가영의 자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영, 병선을 힐끗, 다시 제 두 발에 시선, 멍하니 응시하곤 이내 정신 차리려는 듯 고개를 젓는다. 업무에 집중.

S#40. 전통주점(저녁)

파전에 막걸리를 두고 마주 앉아 있는 가영과 병선. 긴장한 가영, 물 마시다 사례들린다.

병선 (냅킨 건네며) 괜찮아요?
가영 예? 에에... (냅킨으로 닦으며 병선을 힐끗)
병선 얼굴 좀 펴요, 꼭 빛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가영 ... (술 한 모금) 하실 말씀이... 뭐예요?
병선 ... 가영 씨가 전에 그랬잖아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 들은 순간엔 그래, 맞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역시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영(N)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버릴까?
병선 물론 결혼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순리대로 해야죠. 근데...
가영(N) 그럼 또 회사 다니기 껄끄러울 텐데. 아니지, 희망고문을 쥐신 안 돼. 말 나오기 전에 선수 치자. 서로 어색하지 않게... 그래... 말하자.
병선 내 인생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는 데까진 해보고 싶거든요, 후회할 때 하더라도... (머뭇대다) 가영 씨...
가영(O.L) 과장님 저요, 과장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병선 ... ?
가영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해요, 과장님은 적어도 처자식 굶길 사람은 아니라고. 참 괜찮은 분이라고.
병선 ... (넓은 미소)
가영 오죽하면 제 친언니라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니까요. 이미 시집갔지만...
 과장님은 저보다 훨씬, 정말 괜찮은 여자분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

요. 전 되게 철딱서니 없고, 꿈만 꾸고 산단 얘기 종종 듣거든요.

병선 ... 아...

가영 저하곤 그냥... 좋은 회사 선후배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했는데, 확실하게 답변드리는 게 예의인 거 같아서...

병선 (이 상황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 물 한 모금)

가영 ... (눈치) 저... 제가 먼저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죠?

병선 예? 아...

가영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며) 널 배요. (가고)

병선 저기... (쫓아가려다 자리에 앉는) ...

가영 잘했어. 잘한 거야.

S#41. 가영의 방(밤)

침대에 기대 앉아 캔 맥주를 마시는 가영, 그간 받아온 편지를 한 장 한 장 본다. 그리고 새로운 편지. <나의 삶에서 너를 만남이 행복하다.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제 저는 가영 씨 앞에 서려 합니다. 곧 만나요. -S->

꼭꼭 눌러쓴 글자 위로, 뜻하지 않게 병선의 수줍은 얼굴이 떠오르는 가영.

그때 휴대폰 울린다. 병선의 전화. 잠시 망설이다 수신 거부하는 가영.

다시 울리는 문자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심병선->

S#42. 포장마차(밤)

홀로 소주를 마시는 병선, 묵묵부답인 가영에 답답한...

다시 문자 보내려다 관둔다.

S#43. 사무실(낮)

사장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사장의 고함소리. 한데 모여 귀 기울이는 직원들. 사장실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살짝 보이는 병선, 사장 곁에 주눅 든 채 서 있다. 병선의 우산을 슬그머니 병선 자리에 놓아두는 가영, 뭘 일인가 싶은데...

사장(E) 정신을 대체 어따 팔아먹은 거야?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말야!

가영 (직원들 무리로 다가서며) 뭘 일이야?

재현 00슈즈 샘플작업 지시서를 다른 공장에 보내셨대요.

태희 그거 디자인 독점 건이라, 매장 사장님 알면 완전 난리 날 텐데...

규리 과장님 저러시는 거 참 보네... 실연이라도 당하셨나?

가영 (규리를 톡 치고)

재현 뭘 일이 있긴 하신 거 같아요, 표정도 계속 안 좋으시고...

가영 ...

사장(E) 지금 당장 성남 공장 가서 사정 얘기하고 직접 파일 싹 다 걷어 와.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그리고 바로 매장 가서 사과드려. 알았어?!

병선, 사장실에서 나오자 일제히 병선에게 꽃히는 직원들의 조용한 시선. 병선, 자리에서 서류파일을 주섬주섬 가방에 넣는데... 튀어나오는 사장.

사장 김대리나 누구 하나 따라붙어! 그 정신에 수습이나 제대로 하겠어?

태희 예...

사장 에잇!! (사장실로 문 쿵-)

태희 미안한데, 방주임이 대신 좀 가주면 안 돼? 전표 입력할 게 산더미라...

가영 !! 제가요?

규리/재현 (각자 바쁜 척 내뱉는)

태희 부탁 좀 하자, 방주임. 대신, 끝나는 대로 바로 퇴근해, 응? (자리로)
부탁해~ (괜히 부산스러운 척하면서도 병선을 힐끗)

가영 ...

S#44. 구두매장(저녁)

각종 디자인의 여성구두 매장. 병선과 가영이 공손하게 여사장과 마주하고 있다.

병선 디자인 독점 건은 문제 생기지 않게 제가 끝까지 꼭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굽실 인사하고)

가영 (팅달아 90도 인사)

여사장 우리가 한두 해도 아니고... 책임감 하난 또 우리 과장님이 짱이니까. 믿어요! 아, 그리구 부탁하셨던 거 구했어요. 잠시... (창고로 이끌고)

병선 아 예... 가영 씨, 잠시만요. (여사장 따라가고)

가영 예...

여사장은 창고 안으로 잠시 들어가고, 서성이는 병선. 지켜보는 가영.
잠시 후 구두상자 들고 나오는 여사장, 병선에게 상자를 열어 확인시켜주자 표정 밝아지는 병선. 그런 병선을 살피는 가영.

여사장 다행히 이 사이즈로 재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찾느라 힘들었어~

병선 애쓰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사장 (쇼핑백에 담아주며) 누구 거예요, 근데? 애인?

병선 아노, 그냥... (지갑 꺼내며) 저... 얼마...

여사장 됐네요! 선물이에요. 우리 과장님 꼭 장가가시라구...

가영 ...

S#45. 샵샤브집(저녁)

마주 앉아 식사하는 가영과 병선. 가영의 앞접시에 야채며 해물 등을 놓아주는 병선.
푸짐해진 앞접시를 가만히 응시하는 가영.

병선 드세요 얼른.

가영 예? 예...

S#46. 차 안(밤)

샵샤브집 주차장. 막 차에 타는 가영과 병선, 각자 안전벨트를 매는 상황.
가영 쪽 벨트가 고장인지 잘 채워지지 않는데... 병선의 전화 울린다.

병선 (통화) 어, 상식아. (가영이 신경 쓰이는)

상식(E) (가영에게 들릴 정도) 어디야? 왜 안 와!

병선 어... 야, 나 오늘 좀 힘들 거 같다. 그냥 니들끼리 놀아.

상식(E) 왜? 어딘데? 늦게라도 와!
병선 오늘은... 좀 그래... (가영 도와주며) 이게 고장이라...
가영 아, 예... 됐어요 이제.
상식(E) 응? 뭐야, 여자랑 있어? 고백녀???
병선 어? (가영을 의식) 그런 거 아냐.
상식(E) 오... 될 때까지 한다더니 잘 됐나보네! (친구들) 오오오! 드려 장가
 가냐!? 데려와 이리!! 얼굴 좀 보자!
가영 ...
병선 아냐...인마. 야야, 내가 다시 전화할게. (끊고 눈치 / 얼른 시동 건다)

CUT TO. 달리는 차 안. 나란히 앉아 있는 가영과 병선. 어색한 침묵.

어색함을 무마하려 '후.' 내뿜는 가영의 숨소리에 병선, 얇은 미소로 음악 켜다.

병선 오늘 고생 많았어요. 괜히 나 때문에...
가영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좌불안석이고)
병선 ... 미안해요.

새 음악이 시작되자 잠시 듣고 있던 병선, 볼륨을 조금 더 키운다. 그런 병선의 손길을 의식하곤 음악에 집중해보는 가영, 듣다 보니 왠지 병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외면하려 창밖을 바라보는 가영... 그런데 왠지 기시감이 느껴지는 음악이다. 불연속적으로 희미하게 상기되는 남자의 허밍... 지금 흐르는 이 음악을 흥얼대는 남자의 목소리...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어렴풋이 다가온다.

회상컷. 누군가의 등에 업혀 있는 가영,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 나긋한 음성...

S#47. 회상. 가영의 동네(밤)

만취한 가영을 업고 집으로 향하는 병선,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고...
 눈치 보며 따라가는 규리, 내심 웃는.

병선 저, 규리 씨.
규리 네?
병선 혹시라도 가영 씨가 물으면, 업혀 왔다 뭐 이런 애긴 하지 마요.
 괜히 맘 불편해지니까. 알았죠?
규리 네...
가영 노래 더 불러 봐요.
병선 예?
가영 노래 좀 더 불러 보라구요. 등에서 울리는 소리가 참 좋아요.
병선 아... (허허 웃곤)

규리, 눈치껏 앞서 가고. 병선, 잠시 고민하다 노래를 흥얼거린다. 등에서 전달되는 병선의 허밍에 행복한 가영. 잠시 그러다가...

가영 좋다... 나긋나긋... 어릴 때 엄마가 업어주곤 처음이에요.
병선 그래요?
가영 네. 근데 있잖아요... 나... (귓가에 속삭이듯) 오줌 마려워요...
병선 그, 그래요? 다 왔으니까 좀만 참아요, 빨리 갈게요. (서두른다)

병선의 등에 기대 미소 짓는 가영, 병선이 부르던 노래를 흥얼댄다.

S#48. 차 안(밤)

어느덧 음악이 절정으로 흐르고... 창밖만을 응시하던 가영의 시선이 조금씩 병선에게로 옮겨간다. 고요한 병선의 옆모습... 운전대를 잡고 있는 병선의 침착한 두 손, 아득한 시선, 굳게 다문 입, 그 안에 애써 감추고 있을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가 가영의 마음까지 흔드는 듯하다. 조금씩 동요하는 가영의 눈동자.

가영(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순간 코끝이 찡해지는 가영,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린다.

S#49. 도로(밤)

음악을 타며 멀어지는 병선의 차.

S#50. 탕비실(아침)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상황.

커피를 타는 가영, 빈 사무실에 시선... 병선의 자리로 시선 멈춘다.

S#51. 사무실(아침)

커피를 든 가영, 병선의 자리로 살며시 향한다. 병선의 책상을 보니, 시집과 산문집들이 꽂혀 있다. 나름 페트병에 꽃도 꺾어놓고. 한켠에 놓인 이면지 묶음엔 자작시인 듯 문구들도 보인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시집 한 권. 나해철 시인의 《긴 사랑》. 이끌리듯 그 책을 집어 드는 가영, 한 장 한 장 읽어나간다.

병선(E) 시 좋죠?

가영 !! 오, 오셨어요...

병선 일찍 왔네요.

가영 예... (시집을 열린 제자리에 두려는데)

병선 (시집 건네며) 가져요. 선물.

가영 예? 아... 아니에요. 그냥 본 건데...

병선 읽어봐요. 꽤 좋은 시들이 많아요.

가영 ...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 (커피 건네며) 드실래요? 새 건데...

병선 (미소) 잘 마실게요.

가영 ... (시집을 바라본다)

S#52. 회사 주변 공원(낮)

점심시간. 식사를 하러 오가는 회사원들. 홀로 벤치에 앉아 있는 가영, 샌드위치와 커피를 곁에 놓아둔 채 병선의 시집을 펼쳐 병선이 읊던 시구를 본다.

병선(E) 명량한 당신의 웃음소리가 찢어버렸어.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찢어부수고 보여주었어. 하늘을, 푸른 하늘을, 시간과 공간이

바람처럼 떠도는 푸르른 하늘로 된 세상을 열어주었어.

같은 시구를 가만히 바라보는 가영.

병선(E)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가영 씨...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가영의 얼굴에 서서히 번지는 미소.

S#53. 오피스텔 복도(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가영, 집으로 걸어오는데...

가영의 집 앞에 퀵 기사가 ‘방가영 씨~’ 부르며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다.

가영 (얼른 다가서며) 예. 전데요?

퀵기사 아. (쇼핑백 건네며) 퀵입니다. (PDA 기기 내밀며) 여기 싸인 좀.

가영 (사인 후 쇼핑백 살피면, 보내는 이가 없다) 누가 보낸 건데요?

퀵기사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전해달라는데요...

가영 ??

S#54. 가영의 방(밤)

추리닝의 가영, 침대 위에 놓인 빨간 원피스를 곰곰이 바라본다.

회상컷. 상점가. 우산을 나란히 쓰고 여성의류 매장 쇼윈도를 보던 가영과 병선.

편지상자를 열어 편지 하나를 꺼내드는 가영.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가영 씨, 내게는 보입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S->

가영, 거울 앞에서 빨간 원피스를 대어본다. 머리를 매만지며 예뻐 보이는 표정을 이리저리 지어보는데, 뭔가 아쉽다. 원피스에 어울릴 만한 액세서리나 립스틱이 없나 화장대 서랍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마땅한 게 없다.

S#55. 규리의 방(밤)

팩을 하고 누워서 패션잡지를 보는 규리. 그때 열린 문틈으로 기웃대는 가영, 다채롭고 화사한 옷가지와 화장품, 가방 등으로 꽉 들어차 있는 방 안을 살핀다.

화장품이며 행거에 걸린 옷들을 힐끗거리는 가영. 그때 낚새 차린 규리.

규리 왜여?

가영 응? (슬그머니 들어서며) 아니... 뭐하나 해서.

규리 우와! 처음이에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거!

가영 ... 처음은 무슨... 무슨 팩이야, 그건?

규리 석류팩이요. 1일 1팩 하면 고보습크림 따로 필요 없거든요.

가영 그래...? (행거 옷들을 무심한 척 살피며) 이런 건 어디서 사?

규리 (씩 웃으며 가영을 끌어당기는) 누워 봐요.

가영 아후 왜에...

규리 누워 봐요~ 이왕이면 이쁘게 보여야죠. 고백 받으시는 분이...

가영 고백?

규리 (팩을 꺼내오며 당연한 듯) 네, 심과장님이요.

S#56. 가영의 집 화장실(밤)

팩을 덮은 채 거울을 바라보는 가영.

규리(E) 재현 씨가 ‘심과장님 여자 있는 거 같다. 널 고백할 각이던데?’ 하길래 저도 그냥 말해버렸죠 뭐. 그 여자가 주임님이라고.

팩을 떼는 가영, 손으로 천천히 얼굴 마사지를 하며 거울을 본다. 번지는 웃음.

S#57. 몽타주. 가영의 출근

가영의 집 현관. 빨간 원피스의 가영, 규리의 구두에 시선... 슬쩍 규리 보면... 아직 화장대 앞에서 출근 준비 중인 규리. 잠시 고민하다 그냥 검정 단화를 신는 가영.

엘리베이터 안. 혼자 탄 가영, 문이 닫히려는데 옆집녀가 달려온다. 열린 문을 잡아주는 가영. 숙취에 절은 듯 괴로워 보이는 옆집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가영.

동네. 조심하지만 가벼운 발걸음의 가영, 더 이상 땅을 보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간다. 왠지 지나치는 사람마다 자신을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것 같아 신난다.

상점가. 회사 건물로 향하는 가영, 여성의류 매장 쇼윈도에 비친 자신을 본다. 이제는 화려한 마네킹과 왠지 동등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우쭐해진다.

‘터벅터벅’이 아닌 ‘사뿐사뿐’... 곧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가영의 가벼운 발걸음...

S#58. 사무실(아침)

사무실 앞에 선 가영,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들어서는데... 회사 사람들의 환호. 규리는 이미 재현에게 가영과 병선의 관계를 이야기한 듯 웃으면서 소곤대고, 재현은 가영에게 엄지 척! 부끄러워 얼른 자리로 가 앉는 가영. 가영과 눈 마주친 태희, ‘예뻐, 진짜!’ 말해주고. 기분 좋은 가영, 병선의 자리를 힐끗하면 아직 비어 있다.

가영, 가방에서 거울 꺼내 화장 상태를 체크하고, 파일 챙겨 샘플실로 향하는데...

들어서는 병선과 맞닥뜨린다. 가영, 태연한 척 병선에게 목례하면...

병선 (놀란 웃음) 가영 씨...

가영 (부끄러운) ... 생각보다 이게 좀 타이트해가지구... 안 어울리죠?

병선 아뇨. 와... 허허... 잘 어울려요. 우와... 좋네요.

가영 그래요...? (병선이 뭔가 더 말해주길 바라는 눈빛)

병선 네. (환히 웃어줄 뿐 / 자리로)

가영 ...

CUT TO. 저녁 6시 무렵의 시각. 병선의 빈자리를 슬쩍 보며 지나가는 가영,

병선의 PC 화면에 레스토랑 사이트, 예약 안내 페이지가 열려 있다. 피식 웃는 가영, 탕비실로 향하는데... 탕비실 안에서 들려오는 병선의 목소리. 이에 멈춰하는 가영.

병선(E) 아 그래요? 그러면... 8시 반은요? / 됩니까? / 예, 두 명이요. / 예.
가영 (내심 흐뭇)

S#59. 사무실 앞(저녁)

가영, 화장실을 나와 사무실로 향하려는데... 퇴근하려는 병선과 마주친다.
수줍은 가영, 병선의 한 손에 들려 있는 쇼핑백을 슬쩍 본다.
그때 그 구두상자...

가영 퇴근...이세요?
병선 네. 퇴근 안하세요?
가영 아... 저도 곧 해야죠. 곧.
병선 네.
가영 (미소로 응대 / 병선이 뭔가 말하길 뻔히 기다리는)
병선 (그저 웃다가 엘리베이터 열리자) 그럼, 내일 봐요.
가영 ?? 예? 내, 내일...요?

닫혀버린 엘리베이터. 당황한 가영.

S#60. 사무실(저녁)

퇴근시간. 가영의 팀과 재현만 남아 있는 상황. 태희는 여전히 업무에 빠져 있고, 자리에 앉아 휴대폰만 뻔히 보는 가영. 결국 병선에게 보낼 문자 창을 연다.
<연락이 없으시네요...>라고 작성하다 닫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영의 상황을 살피는 규리와 재현.
CUT TO. 8시 30분이 임박한 시각.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영, 결국 가방을 챙겨든다.

가영 먼저 가볼게요.
태희 어. 참, 널 간담회 준비 알지? 30분 일찍 와. 늦지 말고!
가영 네!! (후다닥 사무실 나선다)
규리 가세요... (재현 향해 손짓 '빨리 가자!')
재현 (O.K!)

S#61. 레스토랑 앞(밤)

레스토랑 간판을 확인한 가영, 쇼윈도로 병선을 찾아보는데... 찾았다!
홀로 앉아 있는 병선... 몰래 뒤쫓아 온 규리와 재현,
숨어서 가영을 지켜보는데...

가영 뭐야...? (휴대폰 확인하며) 왜 연락을 안 해?

가영, 시간 확인하면 8시 45분... 망설이다 결국 안으로 들어선다.

S#62. 레스토랑(밤)

가영, 몰래 병선의 눈을 피해 자리를 잡으려는데... 병선의 시야에 잡히고 만다.

병선 어, 방주임?
가영 ... (머뭇대다가) 과, 과장님.
병선 여긴...
가영 그, 그게... 그러니까... (병선의 눈을 읽으려는데)
병선 ... (가영 너머로 시선을 옮긴다)
가영 ?? (병선의 시선 따라 뒤돌아보면)
태희 (당황, 의아하게 가영을 바라보고 서 있다) 방주임...
가영 대, 대리님... (병선과 태희 눈빛을 캐치하곤 분위기 파악)
태희 어쩐 일이야?
가영 아... 전, 여기 약속이 있어가지구. 아직 안 왔나보네... 그럼...

애써 웃으며 뒷걸음치던 가영, 의자에 발이 걸려 빠깍! 굽이 부러지고 그 곁에 우당탕-뒤로 자빠진다. 병선과 태희, 부축하려 가영에게 다가가며

태희 괜찮아, 가영 씨?
병선 (가영을 일으켜주며) 안 다쳤어요?
가영 예, 예. 꽤, 괜찮아요. 널 배요. (가려는데 다리 삐걱)
병선·태희 (가영을 다시 부축하려)
가영 (됐다고 막아서며) 괜찮아요. (애써 웃으며) 진짜 괜찮아요.
 부러진 굽으로 절뚝거리며 입구로 향하는 가영, 이대로 순간이동하고 싶은 심정.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규리와 재현, 얼른 가영을 피해 몸을 숨긴다.

S#63. 레스토랑 앞(밤)

유리벽으로 마주 앉은 태희와 병선의 모습이 보인다. 몰래 지켜보는 가영, 얼굴에 땀은 질질 흐르고, 인조눈썹은 반쯤 팔랑거린다.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가영, 씩씩한... 그때, 저쪽에서 남자친구와 걸어오던 수진, 가영을 발견한다.

수진 하! 저게 누구야... 뭘 도둑고양이처럼 엿보시나... (남자친구에게) 오빠, 여기 잠깐만 있어. (가영에게 몰래 접근한다)

남친 어디가?

은밀하면서도 빠르게 가영을 향해 돌진하는 수진, 가영의 양 무릎 안쪽을 가방으로 강타한다. 절하듯 무릎이 굽혀지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가영, 쿵- 하며 레스토랑 유리벽에 부딪힌다. 일제히 가영에게 시선 집중하는 레스토랑 손님들, 병선, 태희...

놀란 규리와 재현. ‘오빠 튀어!’ 하며 남자친구를 끌고 쟁쟁하게 달아나는 수진. 창피함이 앞서는 가영, 애써 몸을 일으켜 달아난다. 그런 가영을 보는 병선.

S#64. 버스 정류장(밤)

의자에 앉아 부러진 굽을 바라보는 가영. 구두 쇼핑백을 들고 다가오는 병선, 가영을 부르려다 조용히 곁에 앉는다. 무심코 보는 가영, 병선임을 알자 흠칫.

병선 (눈치) 넘어진 텐... 괜찮아요?

가영 (얼른 발을 가리며) 예... (창피해 눈을 질끈)

병선 ... (구두상자 꺼내 열어 보인다) 신으실래요? 굽 나간 거 같던데...

가영 아뇨, 괜찮아요. (힐끗 보면 파란 단화) ...

병선 그래도 일단 바꿔 신으시고

가영(O.L) 괜찮다구요! ... 괜찮아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병선 ... 미안해요.

가영 (시선 돌리며 '제발 그만하길...')

병선 그때 바로 사실대로 얘기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이...

가영 ...

병선 실은... 그날, 가영 씨하고 테희 씨 얘길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방주임이 저보단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상담을 좀 하고 싶었는데...

가영 규리 씨도 있고, 재현 씨도 있잖아요. 근데... (울컥) 왜 하필 저예요?

병선 가영 씨, 웬지 내 얘길 잘 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드러내지 않아도 속 깊고 진중한 사람이란 걸 제가 아니까.

가영 아니거든요?! 저 하나도 안 진중하고, 하나도 속 안 깊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울컥) 왜 함부로 친절해가지고... (애써 꺾꺾 누르는)

병선 미안해요. 가영 씨 기분도 모르고... 참 주책이죠, 제가.

가영 (다가오는 버스를 보곤 벌떡 일어서며) 먼저 갈게요. (버스에 탄다)

병선 가영 씨!

S#65. 거리(밤)

절뚝절뚝 걸어오는 가영, 팔랑거리던 한쪽 인조눈썹이 거슬러 눈을 비빈다.
그대로 볼에 살포시 내려앉은 인조눈썹. 그때, 미진의 전화. 가영, 전화 받으면.

미진(E) 어디야?

가영 왜.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미진(E) 주말에 시간 좀 내. 소개팅 잡아놨어. 교육청 공무원인데, 사람이 야무져. 아파트가 두 채야. 나인 딱 서른일곱. 머리숱이 좀 섭섭한데, 그런 건 문제도 아냐 너. 머리카락 뜯어먹고 살 거 아니잖아. 암튼...

가영(O.L) 명현 선배 말이야.

미진(E) 응? 그 자식 왜?

가영 그때 나한테 키스해주겠다고 했을 때, 나 솔직히 설렘? 해보면 어떨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비참하더라. (울컥) 아닌 거 알면서, 내 껴 아닌 거 뻔히 알면서, 그 구두를 보는데... 신어 보면 어떨까... 신어버릴까. 그랬다. 난 맨날 왜 이 모양이냐...

미진(E)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휴대폰 왼 손 내려뜨리는 가영, 눈물 찼끔. 그때... 비가 한두 줄기 떨어지더니
썩 내린다. 퍼펙트 하다는 듯 어이없게 웃는 가영...

S#66. 가영의 오피스텔 앞(밤)

부러진 굽을 끌고 절뚝거리며 오는 가영, 멀리 누군가의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온다.
연신 휴대폰을 열어보며 서성이는 남자... 명현이다. 가영을 보자 환하게 웃는 명현.

가영 선배...

명현 왜 이렇게 늦었어? 설마, 데이트라도 한 거야?

가영 여긴 왜...

명현 그냥... 씨프라-이즈! (가영을 아래위로 쓱 훑으며) 이야...
사이즈 딱이네! 역시 내 눈대중은... 근데 왜 이렇게 젖었냐?

가영 (멍한)

명현 (이리저리 살피며) 색상 죽이고... 넌 인마, 이런 걸 입어줘야 돼. 맨날
칙칙하게 말야. 어때, 내 씨프라이즈 선물! 맘에 쏙 들어?

가영 에?? ... 이, 이걸 선배가 보냈다고요? 선배가 왜...

명현 짠 거야. 부담 갖지 마. 속옷을 살까 하다 니가 쌍욕 할까봐. 하하...

가영 ... 그니까 왜...

명현 그냥 고맙기도 하고... 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두리번거리며)
어디 조용한 데가... 집에 누구 있냐? 없으면, 우리 일단 들어가서...

가영 (인상 팍)

명현 아니! 얘기 좀 하자고 얘기! 뭘 상상한 거야!! 아...나...
실은 이번에 너한테 딱인 상품 하나 나왔거든, 너도 서른넷인데, 원
래 서른다섯 되기 전부터 재무설계를 시작해야 되거든. (가방에서 상
품 소개서 꺼내며) 진짜 너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말야...

가영 이런 개 똥구멍 같은 새끼가 (가방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며) 뭐가 어
찌고 어째?! 넌 내가 우습냐? (버럭) 우스워!!!!!!

명현 (속수무책으로 방어하며) 왜 이래! 술 먹었냐! 아야, 아아... 미쳤어!

가영 미쳤다. 미쳤다 이 새끼야! (때리고 발로 차며) 재활용도 못할 쓰레기
새끼, 너 같은 놈하고 살아주는 니 마누라가 불쌍하다 이 새끼야!

행인들 (명현을 향한 한심한 시선 / 혀를 차며 나쁜 놈 보듯 바라보는)

명현 아 나 진짜, 왜 이래 정말!! (행인들 향해) 아네요, 그런 거!

오가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난처한 명현, 틈을 노려 냅다 줄행랑친다.
원피스를 북- 뜯어내 '가져가 이 새끼야!' 소리치며 명현을 향해 집어 던지는

가영. 명현이 사라지고 나자 털썩 주저앉는 가영, 복받치는 감정... 결국 대성
통곡한다.

S#67. 사무실(아침)

업무 중인 척 멍한 가영. 샘플 정리 중인 규리와 재현, 시계와 가영을 번갈아
힐끗.

태희 (급히 다가서며) 참, 방주임. (반응 없자) ... 방주임?
가영 !! 에? 아... 예... (눈은 못 마주치고)
태희 간담회 자료 말이야, 한 열다섯 부만... 아니다. 내가... (가려는데)
가영 공유 폴더에 있죠? (자료 열어 프린트 하는)
태희 ... (머뭇대다) 저, 방주임. 어제... 말인데...
가영(O.L) (시선은 PC 화면에 그대로) 걱정 마세요. 암말 안 해요.
태희 어... 고마워. (괜히 가영 어깨 한번 주물러주곤 간다)
가영 (무념무상)

CUT TO. 프린터가 뱉어내는 자료들. 멍하니 바라보는 가영,

두툼한 자료를 정돈해 태희의 빈자리에 가져가는데...
태희의 책상에 업무파일들 사이로 얼핏 보이는 핑크색 편지봉투.
가영, 주변을 살피고 몰래 편지를 끄집어낸다. <김태희 씨 두 손에...>
대체 뭔가 싶은 가영, 찹싸게 뜯어보면
<당신의 목소리와 당신의 미소를 매일 아침 기다립니다, 태희 씨... -S->

태희 (급한 듯 달려오며) 다 됐어?
가영 (채 편지를 숨기지 못하고) 저, 저기... (편지 내밀며) 이거...
태희 응? (확인하고) 아...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사장(E) 김대리!
태희 예! (사장실로 가려는데)
가영 (다시 편지를 주워들곤) 왜 버려요?
태희 응?
가영 대리님한테 온 편지잖아요. 근데 왜 버리세요?
태희 ?? ... (당황스러운 미소로) ... 스팸이잖아.
가영 에???
태희 ... 저거... (창밖을 가리킨다)
가영 (시선)
규리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편지 뺏어보며) 어머! 뭐야 이거??

태희가 가리키는 창밖 너머... 대형 광고판이 화면을 채운다.
 미모의 S라인 모델이 우~ 키스를 날리는 포즈, 모델 주변으로 핑크빛 고백편지
 들이 퍼레이드 식으로 날아다니고, 그 중앙으로 광고문구가 두드러진다.
 <S 다이어트가 당신에게 드리는 ‘깜짝’ 사랑의 손 편지!>
 1000명의 3040 여성에게 보내드리는 깜짝 설렘 이벤트!
 어이없이 바라보는 가영, 편지들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만 같다.
 모델이 가영을 향해 씩 웃으며 진하게 윙크를 날리자 징글징글한 핑크빛 편
 지 물결이 가영을 압도하는 상상 컷... 휘청하는 가영, 정신 차리려 고개 젓고...

규리 어머머... 왜 우리만 못 봤지? 하... (애처롭게 가영을 보는)
가영 ...

S#68. 게임장(밤)

과녁을 향해 총을 겨누는 가영, 단 한 발도 못 맞춘다. 한편 전에 봤던 그 남자,
 옆 자리에서 사격게임을 시작하는데 역시 백발백중이다. 이를 악물고 발사하
 는 가영, 또 헛발... 아무리 싸도 허사다. 순간 울컥해오는 가영, 울분의 숨을 내
 쉬더니 포기한 듯 총을 내려둔다. 그리고 잠시 정적... 울컥하는 걸 애써 참는
 가영.

그런 가영을 힐끗하는 옆 남자. 가영, 낮이 나간 듯 공차기 게임으로 향한다.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는 가영, 짜증 가득 힘껏 차보는데 헛발질이다. 하마
 터면 자빠질 뻔한 가영, 힐끗 돌아보는데 좀 전의 그 남자가 큰 인형을 안고 웃
 음 참으며 구경 중... 열불 난 가영, 온 힘을 다해 마지막 공차기를 한다. 뻑! 게
 임기가 부서져라 불꽃 슛을 날리는 가영... 점수 폭발. ‘오오’ 환호해주는 남자.
 가영, 남자를 밀치고 지나치려는데... 빠삭아!!! 분노 어린 기합을 하고 간다.
 흠칫 놀라는 남자, 씩씩 걸어 나가는 가영의 모습에 ‘재밌는 여자네’ 하는 표정.

S#69. 가영의 집 앞 + 현관(밤)

을씨년스런 그림자를 이끌고 걸어오는 가영,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아래를 보면, 현관문 앞을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는 다이어트 음료 두 박스와
 얇은 시 모음집. 이글거리는 눈으로 시집을 보는 가영. 펼쳐 보면 편지에 발체
 됐던 시들...
 음료박스를 발로 광- 차곤 킁킁대며 밀어놓고 문을 연다. 들어서며 그대로 문
 광 달아버리는데... 다시 문 열리며 시집과 음료박스를 공공 책거 안으로 들어
 놓는 가영...
 현관 등만 켜진 어두운 집안. 바닥에 주저앉은 가영, 들여놓은 음료박스를 바

라본다.

웃음이 나오는 가영. 그때, 병선에게 전화가 온다.

가영 (잠시 망설이다 전화 받는) 여보세요.

병선(E) 가영 씨! 방바라방방 방방~ 방가영 씨!

가영 술 드셨어요?

병선(E) 예! 쪼-끔 마셨습다! 아아~ 가영 씨. 나는 분명히 괜찮았거든요?
덤덤했는데... 아... 이게 또 아니네. 하... 난 진짜 왜 이럴까요...

가영 ...

병선(E) (넘어진 듯 우당탕탕 소리) 에잇!

가영 여보세요?

규리(E) 어머 과장님! 어디 가세요. (짝 소리 지르며) 과장님! (뚝- 끊긴다)

가영 (뭔가 싶어 다시 병선에게 전화하는데 계속 전원이 꺼졌다는 멘트
뿐)

뭐야... (규리에게 전화 건다. 받으면) 규리 씨?

규리(E) 주임님 큰일 났어요!

가영 왜!?

S#70. 병원 응급실(밤)

목 보호대와 다리에 붓대를 감은 채 잠들어 있는 병선.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병선을 바라보는 가영, 긴 한숨. 곁에 함께 서 있는 규리와 재현.

비몽사몽으로 잠시 눈 떴다 감는 병선, 병선의 눈엔 가영이 태희로 보인다...

규리 재현 씨랑 술 한잔 하려고 들어갔는데, 혼술하고 계시더라고요.

재현 진창 드시고 차도로 갑자기 돌진하시는데... 완전 깜놀해가지구...

병선 (눈 감은 채로 가영의 손을 탁- 잡는다)

가영 !! (난감한) 저, 저기... (손을 빼려는데)

병선 (가영의 손을 더 꼭 잡는다)

규리 아후 목마르네... 물 좀 사올게요. (재현을 데리고 자리 피한다)

가영 저기 심과장님...

병선(O.I) (술기운 / 잠꼬대) 그 시 알아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가영 ...

병선 뭘 바라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더 늦기 전에 내 마
음을 고백해보고 싶었어요. 바로 지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까...

가영 (병선에게 꼭 잡힌 손 보며)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병선 나랑 참 비슷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동질감이랄까... 싫은 내색 한
번 못하고 그냥 묵묵히 끌어안으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지켜
주고 싶기도 하고, 웬지 나 같은 놈 잘 이해해줄 것 같기도 하고...

가영 ...

S#71. 탕비실(낮)

멍하니 커피 마시는 가영. 들어서는 태희, 녹차 티백 포장을 뜯어 컵에 담는다.

태희 ... 심과장님... 많이... 다쳤대?
 가영 크겐 아니구요. 가보셔야죠, 병원.
 태희 어, 그래야지. (생수를 부으려는데 물이 없다. 새 생수통을 굴러 오며)
 이번 주말 어때? 재현 씨랑은 시간 괜찮다는데...
 가영 같이요?
 태희 왜, 시간 안 돼? 그럼 평일로 맞춰보구. 언제가 좋아?
 가영 그냥 혼자 한번 갔다 오시죠.
 태희 다 같이 가면 되지, 뭘 굳이...
 가영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태희 응?
 가영 뭔가 속에서 막 뭉클... 그런 거 없어요?
 태희 (애써 웃으며) 왜 그래...
 가영 앗튼, 전 시간 안 돼요. 주말도, 평일도. (간다)
 태희 (생수통을 냉온수기에 킁킁대며 콧으려는데)
 가영 (다시 되돌아오며) 참,
 태희 (도와주려는 줄 알고 웃으며) 이거 좀...
 가영 그 스텝 말이에요.
 태희 ?(무릎으로 생수통을 받친다)
 가영 전 그거 받고 되게 설렸어요. 진짜 누가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누
 군가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쓱쓱한) ... 웃기죠? (가버린다)
 태희 (힘겨워 쿵- 하고 생수통을 놓친다)

S#72. 서점(낮)

산문, 시집 코너를 둘러보는 가영, 병선이 읊었던 시집이 눈에 들어온다.

S#73. 가영의 방(저녁)

사온 시집을 펼쳐보는 가영. <지금 하십시오 - 찰스 스펀전>
 제목을 잠시 바라보더니 옷장을 열어본다. 칙칙한 옷들 사이로 눈에 띄는 화
 사한 카디건. 카디건을 꺼내 거울 앞에 대어보는 가영, 시계를 본다. 9시를 향
 하는 시각.

S#74. 거리(저녁)

화사한 카디건의 가영, 생각에 잠겨 있지만 땅을 보고 걷지는 않는다. 환한 불
 빛과 사람들... 그때 지척의 꽃집에서 나오는 칙칙한 정장에 답답한 안경의
 (가영을 연상케 하는) 남자, 무표정으로 꽃을 들고 있는데... 꽃향기를 맡고는 이
 내 미소 지으며 걸어간다. 행복해 보이는 남자의 뒷모습... 바라보던 가영, 꽃집
 으로 다가간다.

S#75. 병실 + 병실 복도(저녁)

침상에서 홀로 책 보고 있는 병선. 꽃을 든 가영이 들어선다.

병선 어! 가영 씨.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가영 ... 그냥, 어쩌신가 해서... 아, (꽃 건네며) 이거...

병선 고마워요.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 앉아요. 냉장고에 마실 거 있는데.

가영 괜찮아요. (앉고) ... 회사 사람, 아무도 안 왔나 봐요?

병선 재현 씨 전화 왔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는 사람끼리 온다고.

가영 ... 김대리님은요?

병선 ... 그렇죠 뭐. 후련해요. 후회도 없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제 진심을 보여줬으니까.

가영 참 불공평한 거 같아요. 먼저 진심을 내보이는 쪽이, 꼭 하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맞는데 아닌 척, 괜찮은 척, 포커페이스를 해야 중간은 가더라구요.

병선 하수가 될망정, 그 사람한테 내 진심을 보였으면, 난 그걸로 됐다고 봐요. 포커페이스로 백날 중간 이상 가면 뭐해요. 그런 만큼 마음은 공허하고, 후회는 늘어날 텐데.

가영 ... 그렇게 생각해요?

병선 네.

가영 (잠시 생각) 침에 과장님 말이에요, 진짜 제 스타일 아녘어요.

병선 허허... 그래요...?

가영 근데 어느 순간엔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란 걸 느끼겠구나. 심병선이란 사람의 진심을 받는 사람은, 참 좋겠다.

병선 ...

가영 제가, 만약 김대리님이었다면... 그 구두, 저는 신었을 거예요.

병선 ... 고마워요.

가영 진짠데... 저, 김대리님이 부러워요. 과장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병선 ... 가영 씨...

가영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저도 후회 없으려구, 과장님한테 제 진심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가 될망정... (미소)

그때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태희. 태희에게 시선 두는 가영과 병선.

병선 태희 씨...

가영 ...

CUT TO. 문을 열고 병실을 나오는 가영, 병선 곁에 앉아 있는 태희를 바라 본다.

문을 닫는 가영. 스르르 문이 닫히며 병선과 태희의 모습이 가려진다.

닫혀버린 문을 잠시 바라보다 발걸음 옮기는 가영, 병실로부터 한발 한발 멀 어진다.

S#76. 가영의 집 / 거실 + 가영 방(낮)

사방 문 활짝 열고 규리와 함께 대청소 중인 가영. 규리가 청소기로 밀고, 가영 이 대걸레로 닦고...

거실을 닦은 가영, 쓰레기봉투와 대걸레 들고 방에 들어선다.

구석구석 걸레질하는데 침대 밑 서랍이 뭔가에 물려 있는 게 눈에 띈다.

발로 대충 닫으려 해도 닫히지 않자 급기야 바닥에 앉아 서랍을 여는 가영.

《사랑에 빠지는 7초의 마법》 책표지가 서랍에 물려 있다.

책을 꺼내 접어두었던 페이지를 펼쳐 보는 가영,

책을 다시 넣어두곤 곁의 편지상자에 시선. 상자를 꺼내 열어본다.

그간 모아뒀던 핑크편지들... 피식 웃곤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린다.

서랍을 닫고 다시 씩씩하게 걸레질 하는 가영,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자 기분 좋게 바람을 맞는다.

그 위로 번지는 평온한 미소. 사랑대는 노호호...

S#77. 게임장(낮)

사격게임 중인 가영, 결혼식 하객 복장에 곁에는 부케가 놓여 있다. 여전히 시원찮은 실력,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 옆에 게임 중인 그 남자를 힐끗, 몰래 관찰하곤 따라해 본다. 명중. 환호성 치는 가영, 남자와 눈 마주치자 얼른 게임에 집중하는데...

쏟 때마다 명중이다. 제법이다 싶은 듯 보는 남자.

CUT TO. 만족스레 인형을 안고 가는 가영. 그런 가영이 귀엽다는 듯 피식 웃는 남자.

S#78. 거리(낮)

걸어가는 가영, 한 손엔 부케, 다른 한 손엔 인형이 쥐어져 있다. 맑고 청명한 하늘. 햇살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쉬는 가영, 스르르 눈을 감는 그때... 갑작스레 세찬 바람이 불더니 먼지와 함께 S다이어트 편지광고가 날아와 가영의 얼굴에 들러붙는다.

광고지를 떼어내려 우왕좌왕하는 가영, 보도블록 사이에 굽이 끼어 나자빠지려는데... 가영을 붙들어주는 누군가... 게임장의 그 남자다.

얼떨결에 남자의 팔에 의지하는 가영, 서로 알아보는 듯 목례를 건넨다.

중심잡고 서는 가영, 보도블록에 낀 구두를 빼내려는데 잘 안 된다. 머뭇대던 남자, 얼른 구두를 빼 가영 앞에 놓아둔다.

구두를 신는 가영, 저도 모르게 풋-웃고 남자를 보면, 남자도 미소 짓는다. 고 개인사로 감사인사 후 돌아서는 가영, 한발 한발 걸어가는데... 문득 남자 쪽을 돌아보고픈 마음이 든다.

얼굴에 퍼지는 장난어린 미소... 한발 한발 걸어 나갈 때마다 숫자를 세어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때,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S다이어트 광고지... <꽃길을 향한 발걸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S->

끝.

박과장의 은밀한 사생활

최지훈



작가 후기 **신수림**

주제 및 구성면에서 크게 바뀐 점은 없고, 캐릭터를 더 입체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단지 '작가의 피조물'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인물로서 극을 생동감 있게 이끌어가도록 각 인물을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가 본 작업의 주된 고민 지점이자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캐릭터는 주인공인 가영인데, 초고에서의 가영은 다소 거칠고 히스테릭한 노처녀로 그려졌다면, 수정고에서의 가영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노처녀'로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에 극 전반의 톤도 날것의 코믹함을 지향하려 했던 초고에 비해 좀 더 발랄하고 아기자기한 톤으로 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고민됐던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기존의 노처녀 드라마와 차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변화를 주어야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는데, 감독님과 오랜 의논 끝에 캐릭터의 현실감, 이를 살리기 위한 디테일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에 각 캐릭터를 더 현실감 있게 만드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본 작업을 통해, 캐릭터란 단순히 작가의 설정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성격에 따른 상황 대처, 시선, 말투 등의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작의

평범하지 못한 나. 숨기는 게 최선이겠죠?

평범함.

우리는 평범함보다 나아지길 원하면서도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두려워한다.

평범함이란 다수와 같아짐과 동시에 그들과 같은 부류임을 증명하곤 한다. 같은 부류임은 누군가에게 거북하지 않게 사랑받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범하지 못한 것과 평범함을 넘어선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그 '개성'을 통해 우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하지 못한 개성 있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등장인물

박과장(박종혁, 39세, 남, 필명:미향)

불혹을 앞둔 만년 과장. 불룩 나온 배. 벗겨지는 이마, 조금의 자비 없이 세월을 먹어가는 남자.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지만 그 간판도 이젠 나이 앞에서 시들해져 간다. 유일한 취미생활이자 제2의 생업이 된 로맨스 소설 작가 생활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조마조마하다.

최보민(27세, 여)

유쾌, 명랑, 활발. 문학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격 삼박자를 갖춘 27세의 L포털 웹소설 담당자. 언제나 적극적인 그녀의 성격 탓에 연재 작가들은 그녀를 꺼려하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긍정 낙관 순수함으로 부담스럽게 들어낸다.

그래도 그녀의 행동이 순수한 열정에 바탕하기에 작가들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녀의 말을 곧잘 듣는다.

이유린(30세, 여)

10년 전, 대학교의 남학생들은 어찌나 지갑에 돈이 넘쳐나는지 그녀만 보면 그렇게도 밥을 사줬다고 난리였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위의 남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지갑을 벌리며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버지의 유언인 양 달라붙는다. 이젠 영양가 없는 연애 따위엔 관심 없지만 자신의 미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

김부장(39세, 남)

박과장과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 같은 기수의 동기지만 박과장과는 다른 엘리트 샐러리맨. 동기들 중 누구보다 빠른 승진 가도를 걸었으나, 어느 날부터 문학적 감성이 폭발해 순수문학지에 글을 투고하기를 몇 번, 명실 공히 엘리트를 자부하듯 얼마 안 가 신춘문에 당선에 자기계발서까지 냈다. 빈틈없는 엘리트.

그 외

총무과장, 엄마, 형, 소설 주인공(남주, 여주), 배우 신혜선

줄거리

여심을 사로잡은 최고의 웹소설 작가 '미향'의 존재를 밝혀라.

L포털에 인기리에 연재 중인 웹소설 <떠돌이 부장과 나쁜 야근일기>가 드라마화되면서 원작 작가인 '미향'에 대한 관심 또한 불같이 타올랐다. 이미 전작 <사랑노예>가 영화화, 연극화, 뮤지컬화되면서 베스트셀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작가 '미향'의 존재는 뽀뽀 숨겨져 있던 것.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미향'에게 집중될수록 불안한 이가 있었으니, 필명 '미향'을 쓰고 있는 박과장이다.

노총각 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님의 희망이 되어버린 박과장은 엄마의 성화에 어떻게든 허울뿐인 대기업에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높아져가는 대중들의 관심은 박과장을 '미모의' 여인으로 만들거나 풋풋한 여고생으로 만들어 더더욱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는 지경이다.

반면 박과장의 담당자인 최보민은 자신의 첫 담당 작품이 드라마화되면서 격한 흥분에 도취되었고, 대중매체를 동원해 박과장을 자사 포털 최고의 웹소설 작가로 만들고자 하지만 박과장은 언제나 냉랭한 거절뿐이다.

자신을 퐁퐁 감춰야 하는 박과장과 어떻게든 작가를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최보민의 대환장 파티가 시작된다.

S#1. <띠등갑...> 소설 속 / 회사 일각(늦은 오후)

텅 빈 사무실, 한쪽의 통유리 밖으로 노을이 가득 비친다.

여주, 책상 앞에서 심심한 듯 볼펜을 돌리고, 발을 까닥인다.

여주, 사무실 한편에서 일하고 있는 남주를 힐끔 본다.

남주, 노을을 등 뒤로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주, 멍하니 남주의 모습을 본다.

남주 (시선을 느끼지만, 고개 들지 않는다) 김소영씨. 신제품 관련 설문조사 정리는 끝났나?

여주 (급히 시선 돌린다) ...네? 네. 다 끝났습니다. (파일 하나 들고 남주에게 다가가 건네며) 저도 이제 들어가봐도 될까요?

남주 (시선은 여전히 서류에 고정. 파일 받으며) 신제품 컨설팅 보고서는?

여주 (남주의 책상 한쪽 가득 쌓인 서류더미를 가리키며) 오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남주 잘했어. (시선은 여전히 서류)

여주 부장님. 저... 퇴근해도 될까요?

남주 안 돼.

여주 왜죠? 다들 퇴근했구...

남주 (묵묵히 일하는) ...

여주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런 건 그 뭐냐... 부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안경을 벗으며 시선을 돌린다) 그 이유가 뭐냐고? (서서히 일어나 여주에게 다가간다)

여주 (움찔. 다가오는 남주를 피해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선다. 곧 사무실 기둥에 막히고 긴장한 듯 침을 꿀꺽. 피하려고 한다)

남주 (벽치기 하며 여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 정말 몰라?

극적인 음악과 함께 멈춘 화면. 화면이 그림체로 변하며 'to be continued' 뜬다.

S#2. 모니터 화면 내부 / 박과장 방(밤)

남주가 벽치기 하는 그림체 화면이 모니터에 보인다.
모니터 드래그 하듯 아래로 내려가면 댓글들 보인다.

- 댓글1** 그 이유가 뭐냐고요!
댓글2 이런 절단 신공이라니! 미리보기 결제하러 갑니다.
댓글3 스포... 요. 전 다음 주까지 기다리렵니다.
댓글4 작가님 진짜 여자 맘을 제대로 아시는 듯! 저런 상사님이라면 매일 야근하겠습니다.

박과장, 화면 안의 댓글들 보고 있다.

박과장(E) 그 이유 정말 모르겠어? ㅎㅎ

형의 발, 음침하게 웃는 박과장을 걸어치면 박과장 자빠진다.

- 박과장** 아~씨! 뭐하는 거야!
형 형님 컴퓨터 써야 하니까 좀 비켜라!
박과장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쓰고 있잖아. 형 꺼 써.
형 내 컴퓨터는 사업 구상을 하기엔 너무 느려.
박과장 (머리 감싸 쥐며) 제발 내 방에서 꺼져.

- 형** 엄마! 종혁이가 지 혼자 컴퓨터 하려고 해!
박과장 진짜? 제정신이야? 형 마흔셋이야!
형 엄마! 종혁이가 나 방해해!
엄마(E) 사이 좋게 나눠서 해. 니들이 애냐!
형 (이미 몸이 반쯤 박과장을 누르고 있다) 들었지?
박과장 아오! (짜증나는 듯 머리 벽벽 긁는다) 3만 원 줄게. PC방 가.
형 5만 원. 정액제 끊어놓을게.
박과장 (주며) 일주일간 건들지 마.
형 좋아! 이 돈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박과장 오지 마! 제발! 꺼져!

S#3. 박과장 집 / 내부(아침)

엄마,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다.
박과장, 식탁에 앉아 밥 먹고 있다.
형, 졸린 눈을 비비며 현관을 들어와 식탁에 앉는다.

- 엄마** (형 보며 밥그릇 하나 더 놓는다) 아무튼, 너는 박과장님 덕분에 밥 얻어먹는다는 것만 명심해.
박과장 ...
형 (졸린 눈으로 박과장에게 인사) 박과장님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팔자가 이런지.
박과장 나, 아침 안 먹어도 돼. 아침 차리지 마세요.
엄마 무슨 소리! 우리 박과장님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려면 아침 꼭 챙겨 먹어야지.

박과장 ... 엄마, 혹시 내가 다른 일 하면 어떨까? 가령 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 국그릇 식탁에 탁! 놓는다.

엄마 무슨 소리야.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박과장 아, 아냐.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너! 허튼 생각 말고 꼭 붙어 있어! 네가 회사 관두는 날이 엄마 죽는 날이라고 생각해!

엄마, 박과장의 뒷모습 보다가 게걸스레 밥 먹는 형 본다. 그리고 뒤통수 같긴다.

엄마 적당히 처먹어 인마, 쌀 아까워.

형, 우뚝 멈춰다가 다시 열심히 밥 먹는다.

S#4. 출근 풍경(아침)

박과장, 회사 입구를 들어가는데, 카드를 못 찾아 허우적거린다. 그러는 사이 직원들의 인사를 받느라 또 바쁘다.

경비원이 슬슬 수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쯤. 카드 찢고 들어서는 박과장.

엘리베이터 닫히려 할 때. 열심히 뛰는 박과장. ‘자, 잠깐만요!’

겨우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사람들 작게 야유 소리. 박과장, 비굴하게 웃으며 올라서면, 그 순간 뻘- 하는 경적음 울린다. 사람들 다시 야유하고.

로비에 홀로 남은 박과장.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경호원이 제지한다.

경호원 다음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강압적)

박과장 아... 네.

그 뒤로 회장이 이사진들과 함께 등장. 회장과 비서만 엘리베이터 타고, 나머지 이사들 고개 숙여 인사한다. 박과장도 얼결에 인사. 문 닫히려 하는데, 회장이 박과장에게 말 건다.

회장 자넨 안 타나?

박과장 저, 저요? 아, 아니요 전 다음에...(하는데 뒤에서 경호원이 민다)

박과장, 절망적인 표정에서 엘리베이터 문 닫힌다.

닫힌 엘리베이터 문에서 타이틀 뜬다.

‘박과장의 은밀한 사생활’

S#5. 기획 3팀(오전)

박과장, 힘없이 걸어 들어온다.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박과장, 그쪽으로 가면, 책상 위에 갓 나온 김부장의 책이 잔뜩 쌓여 있다.

김부장 인원수대로 가져왔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요.

이유린 부장님! 짜인해주세요.

김부장 맨날 보는 사람 짜인은 받아 뭐하게. (하면서 사인. 사인도 멋지다)

박과장, 무리를 벗어나 자신의 책상으로 간다.

김부장, 그런 박과장을 보고 아는 체한다.

김부장 박과장 이제 와?

박과장 (어색) 아, 네, 부장님.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박과장, 지나가면 김부장 찡그린 표정으로 박과장 본다.

박과장 책상 위엔 이미 김부장의 새 책이 놓여 있다. 제목 《그대, 다시 피는 꽃의 씨앗이 되어 준다면》 띠지에 자신감 넘치는 김부장의 모습과 대기업 과장 등의 타이틀.

박과장, 첫 장을 넘기면 ‘나의 오랜 친구. 박종혁에게’라고 쓰여 있는 사인.

이유린(E) 대단하신 거 같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신춘문예에 당선되시다니.

박과장 아, 유린씨. 그, 그치? 저 친구가 예전부터 문학 동아리 내에서도 필력이 좋았거든.

이유린 부장님 문학동아리셨어요? 어머. 저도 예전에 활동했었는데. 어쩐지.

박과장 그, 그래? 사실 나도...

총무과장(E) 어이 박과장.

총무과장, 싱글거리며 박과장과 이유린을 보고 있다.

총무과장 유린씨, 오랜만이야. 오늘 어디가? 얼굴에 빛이 나네.

이유린 어머! 과장님도.

총무과장 괜찮다면 내가 박과장 좀 먼저 빌려도 될까?

이유린 네. 전 자료만 받으면 되거든요.

총무과장 고마워 유린씨.

S#6. 회사 옥상(오후)

총무과장, 종이 내민다. 세금 내역서다.

박과장, 받아 들고 총무과장 얼굴 다시 본다.

총무과장 왜 네 종합소득세가 우리 총무부 부장님보다 많은 거냐?

박과장 어?!

총무과장 너 무슨 알바 하나?

박과장 그...그게...

총무과장 너 이거 문제 될 수도 있는 거 알지?

박과장 (그제야 알아챈) 야... 내가 한턱 크게 쓸게. 그러니까...

총무과장 인사차장님이 내 직속 상관이었던거 알지? 그분 판짓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박과장 ...두, 두 번 쏘면 될까??

총무과장 ...월 2회 참치나 그에 준하는 한턱이 있다면 조용히 다물지!

박과장 야이 도둑노...

총무과장 이 자식아! 이런 건수가 있었으면서 혼자 날름 하나! 김부장 그 재수 없는 놈이야 그렇다 쳐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같이 밀려난 사람들끼리. 안 그래?

박과장 ...딱히 말할 건도 아니었고 세금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

총무과장 이봐, 이봐.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암튼 뭐로 벌었냐? 나도 좀 해보자.

박과장 ...

총무과장 나 지금 인사과 갈까?

박과장 ... 글 써서.

총무과장 뭐?

박과장 웹소설...

총무과장 너도냐? 제목이 뭔데?
박과장 ... 그, 그건 밝히기가 그래.
총무과장 또 이상한 거 썼겠지. 네 취향이야 뻔하니까.
박과장 아, 아니야 새끼야!

박과장 핸드폰 트와이스 <TT> 벨소리 울린다.
박과장, 급히 핸드폰 전화 거절한다.

총무과장 아니긴 개뿔. 취향 확실하고만. 암튼, 조심해라. 너도 알지? 가끔 군
기 잡는다고 별 트집 잡아서 사람들 정리하는 거, 더군다나 네 그 취
향...

박과장 내 취향이 어때서! 요즘 같은 시대에...

총무과장 그니까. 그런 거 알아도 조심하라고. 요즘 사람들 실력 없어서 잘리
냐? 눈에 거슬리니까 잘리는 거지.

박과장 ...

다시 박과장 핸드폰 트와이스 <TT> 벨소리 울린다.

총무과장 그 벨소리도 좀 바꿔라. 나 별나요, 광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과장, 급하게 전화 거절한다.

S#7. L포털 웹소설 팀 / 내부(오전)

최보민, 박과장에게 전화 걸지만 받지 않는다.

최보민 (핸드폰 보며) 바쁘신가...

팀장 야! 최보민, 이번 주 미향 작가님 원고 받았어?

최보민 네. 최종본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팀장 그거 말인데. 캐릭터 조정 부탁드려.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 캐릭터
랑 너무 다르다고 하니까.

최보민 그게 무슨 상관이래요? 어차피 소재랑 모티브만 가져가는 건데.

팀장 상호 보완적 관계 때문이라고 하자. 드라마에 비해서 원작의 캐릭터
가 너무 적극적이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니까.

최보민 말씀은 들려볼게요. 근데 아마 거절하실 거예요. 한 번도 받아들이신
적 없으니까.

팀장 그걸 하는 게, 담당자로서의 일이야.

최보민 네~. 힘없는 사원이 뭘 어쩔 수 있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팀장 그리고 특집 인터뷰 '이 작가를 소개한다'는 어떻게 할 거야? 미향 작
가님만 남았어.

최보민 그건 저도 계속 말해보고 있는데, 절대 안 하신대요.

팀장 왜?

최보민 그냥 알려지는 게 싫으시대요.

팀장 다른 작가님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형평성 운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최보민 사정 좀 봐주세요. 대기업은 겸업이나 보안 문제로 민감해 하잖아요.

팀장 하긴, 대기업은 이상한 데서 고리타분하니까.

최보민 그럼 인터뷰는 캔슬 시켜도 되죠?

팀장 그래도 꼭 통과시켜. 미향 작가님은 우리 매출 1위 간판스타라 꼭꼭
숨기는 것도 이상하잖아. (놀리듯) 이참에 스타 작가로 만들어봐.

최보민 언젠는 일일이 관여하지 말라면서요. 일 커진다고!

팀장 그러니까! 일이 커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과시키라고!

최보민 어떡해요? 작가님께 가서 ‘회사에 영향이 안 가는 만큼만 인터뷰해주세요’라고 할까요?!

팀장 그건 담당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난 팀장인데. 꼬우면 네가 팀장을 하든지.

최보민 (서류 탁 던지며) ...내참 더러워서 팀장을 하든지 해야지!

팀장 뭐 인마!

최보민 그럼 ‘미향’ 작가님 미팅하고 오겠습니다.

팀장 전화해! 매번 무슨 미팅이야!

최보민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다녀올게요!

최보민 이미 사라지고 없다.

S#8. 구내식당(오후)

김부장, 이유린, 그리고 팀원들 사원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
 이유린, 김부장 앞에 앉아 밥 먹으면서 눈은 계속 휴대폰 속 원갈 찾고 있다.
 박과장, 물을 잔뜩 떠 와서 사람들 옆에 놓아준다.

김부장 유린씨, 밥 먹으면서 뭘 그렇게 찾아? 일이면 밥 먹고 해. 괜찮으니까.

유린 (씩 웃으며) 아녜요, 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찾고 있는 건데...

김부장 뭘 찾는데? 요즘 인터넷에 안 나오는 물건도 있나?

유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향순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동 집중)

유린(E) ‘머리카락 끝으로 풍기는 오렌지 향이 지나간 후에 부드러운 장미향이 풍겼고, 그녀의 모습이 사라진 후엔 부드러운 벚꽃 향기가 남아 걸

음을 멈추게 했다.’

인서트. <띠동갑...> 소설 속 한 장면

여자, 당당한 걸음으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남자를 향해 작게 미소 지으며 지나간다.

파일을 든 남자 천천히 지나가는 여자의 옆모습을 보다가 뒷모습에 눈을 떼지 못한다.

박과장,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다 사레들리고, 애써 덤덤한 척한다.

유린 이건데, 향수 이름을 안 밝혀줘서 정말 궁금해 죽겠어요.

여사원 어? 나도 그거 찾아봤는데.

남사원 그냥 소설에 써진 거라며? 작가가 만들어낸 거겠지.

유린 아녜요, 이 작가님, 웹상에서 되게 유명해요. 사실을 기반으로 쓰셔서 얼마나 리얼한데요. 다들 아실 걸요. 뮤지컬 <사랑>...

박과장 (밥 먹으며 무의식적으로) ‘자넷 추 밀리언 플라워 에디션’이야, 정식 매장에서만 팔고 있어. 한정 판매라 인터넷에선 안 팔더라고.

여사원 어?

남사원 예?

박과장 어?!(제일 깜짝 놀람)

일동, 깜짝 놀라 박과장 바라보고, 박과장 자신의 실수 깨닫는다.

남사원 과장님..., 그걸 어떻게?? 설마 로맨스 소설 읽으세요?

박과장 아, 아!! 그제 내가 자주 다니는 커뮤니티에서 봤어. 거기서도 그거 많이 찾더라고!

남사원 ??무슨 커뮤니티요?
박과장 응? 아... 그 건축인 모임 커뮤니티인데... 내가 일적으로...
여사원 건축인 모임에서 여자 향수를 찾아요? 그것도 소설에서 나온 향수를?

박과장, 당황할 때, 전화벨 소리 울린다. 볼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박과장 아이쿠, 아까부터 이렇게 전화가 오지, 나 먼저 가볼게. 이 사람은 점심시간도 없나 보네.

박과장, 후다닥 뛰쳐나간다.

유린, 그런 박과장의 뒷모습을 유심히 본다.

S#9. 회사 앞(오후)

최보민, 전화를 걸고 있다. 곧이어 박과장이 전화 받는다.

최보민 작가님. 자꾸 이렇게 피하시면 저 더 열심히 합니다.
박과장(E) 회사에 있는 동안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곤란해요.
최보민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나오실 수 있죠?

S#10. 회사 복도(오후)

박과장, 복도를 걸으며 전화 중에 사람들의 눈치 살피고.

박과장 아니요. 절대! 못 나갑니다.
최보민(E) 저 ◇◇고양이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아!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저번에 봤던 루비가 새끼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박과장 ... 누가요? ... 어디 고양이 카페라고요?

S#11. 고양이 카페 / 내부(오후)

작은 고양이가 최보민 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박과장, 고양이 만지려고 하면, 고양이 최보민의 품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박과장, 아쉽게 입맛 다신다.

최보민 급한 일이 있어서 뵙자고 했어요.
박과장 보민씨. 아무리 담당자라도 이렇게 찾아오면 곤란해요. 회사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큰일이고.
최보민 작가님이 매번 야근이다 뭐다 만날 수가 있어야지요! 암튼 제작사 측에서 캐릭터 조정 좀 부탁해 왔어요. 드라마 여주인공이랑 색깔이 너무 안 맞다고.
박과장 ...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전 안 바꿀 거니까.
최보민 작가님. 사정 좀 봐주세요. 안 그래도 다른 작품 여주인공들과 달리 너무 진취적이잖아요.
박과장 바꿀 수 없어요.
최보민 왜요? 무난하게 가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텐데요?
박과장 (잠시 보민 바라본다) 여주는 솔직하고 당당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여자답게 행동해라, 평범하게 행동해라,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한

거예요.

최보민 ...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박과장 ... 제가 뭐라고요. 다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당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은 멋있으니까.
최보민 ...
박과장 드라마화가 힘들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드라마화를 위해 쓴 글은 아니니까요. 전 제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단 한사람이라도 제 글로 인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길 듣는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최보민 (웬지 멋져 보인다)
박과장 ...(눈치 본다) 혹시 제 말이 언짢은 건 아니죠?
최보민 ... 정말 ... 작가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박과장 저어 ... 혹시 그거 (보민 가리키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최보민 냇? 필요? (당황)
박과장 그 야옹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인데 저한테 도무지 안 와서.
최보민 (고양이 보고, 박과장한테 내밀면)
박과장 히히 (고양이 안으려고 하는데)
최보민 (내밀었던 고양이 다시 치운다) ... 그럼 인터뷰라도 해주세요.
박과장 ... (괜히 핸드폰 들어 보며) 엇! 시간이 다 됐네요. 들어가 볼게요. 또 찾아오지 마요.

박과장, 후다닥 나간다.

최보민, 후다닥 따라 나간다.

S#12. 회사 앞(오후)

박과장, 최보민을 따돌리려 빠르게 걷지만, 최보민 뒤처지지 않는다.

박과장 어디까지 따라올 생각이예요?
최보민 어디까지 같까요? 작가님 일하는 곳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박과장 제발! 그 작가라는 단어도 쯤!
최보민 그러니까 인터뷰해주세요.
박과장 다음에 얘기해요! 제발!
이유린(E) 과장님!
 박과장, 화들짝 놀란다.
 이유린과 그 외 몇몇 여직원들 팔짱 끼고 회사로 복귀하고 있다.
박과장 아! 유린씨. 커피 마시고 오나 보네.
이유린 네. 근데 이분은?
최보민 (폴짝 뛰어 박과장에게 찰싹 붙는다) 안녕하세요. 박과장님과 아주 긴밀한 사이의 여자랍니다.
박과장 (사색 되며) 아, 아니야. 유린씨. 진짜 그런 사이 아니야. (작은 목소리로 보민에게) 왜 이래요 진짜?!
최보민 (똑같이 작은 목소리) 정체를 숨겨야 한다면서요!
이유린 아..., 네. 먼저 들어가 볼게요. (최보민에게) 그럼 안녕히 가세요.
최보민 (능청스럽게 인사 받는다) 네!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박과장 (최보민 떼어내며) 아, 유린씨 나도 같이 가요. 나도 지금 막 들어가려는 참이야.
최보민 과장님! 끝나면 연락하세요! 기다릴게요!

최보민, 과장되게 손 흔든다.

S#13. 기획 3팀(오후)

박과장, 서류 보면서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직원이 우편 네 개를 전달한다.
박과장, 편지들 보면, 통신사 요금, 광고 우편, HJ공연팀에서 온 편지 등등.
박과장, HJ공연팀 편지 열어 보면, <사랑노예> 뮤지컬 티켓과 편지 들어 있다.

공연팀(E)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가님의 원작 <사랑노예> 뮤지컬이 3차 공연을 끝내고 4차 재공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원작 작가이신...

이유린(OL) 웬 공연 티켓이에요?

박과장 아, 유, 유린씨. 이...진, 그러니까 말이지.

이유린 (의심스런 표정) ... 과장님 아까도 그렇고 혹시...

박과장, 침 꼴깍 삼키는 모습.

이유린 ... 미향 작가님 소설 독자세요?

박과장 어?... 어, 맞아. 근데 비밀로 해줘, 사람들이... (무언의 제스처) 알지?

이유린 알겠어요. 초대권도 응모하셨나 보네요? 전 떨어졌는데.

박과장 아, 아 그게 어찌다가... 유린씨, 혹시 이 공연 좋아해?

이유린 제가 <사랑 노예> 정말 좋아하거든요.

박과장 아, 그래? (좋아한다) 그럼 이 티켓...

이유린(OL) 그보다 과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파일 내밀며) 이걸 오늘까지 올리라는데.

박과장 어디? ...이건 내진설계 연구보고서를 참고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이유린 그 300쪽짜리요? 하아. 아직 검토도 못했는데...

박과장 내용은 얼마 없어.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야.

이유린 ...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요. 중요한 약속이라.

박과장 ... 그럼, 내가 해줄까?

이유린 아네요. 그럴 순 없어요. 과장님도 바쁘신데.

박과장 아냐. 중요한 약속이라며. 다음에 밥이나 한번 사.

이유린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과장, 유린의 뒷모습 쪽 보다가 티켓에 시선이 간다.

S#14. <띠동갑...> 소설 속 / 회사 일각(오후)

사무실은 또 텅 비었다. 사무실에는 또 노을이 비친다.

여주, 야근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남주, 일이 다 끝났는지 옷을 챙겨 입는다.

여주, 남주 보다가 더욱 힘없는 모습으로 일한다.

남주, 여주 옆을 지나가다 작은 봉투를 책상에 놔둔다.

여주 부장님?

남주 어찌다 생긴 표야. 오늘은 그만하고 나머지는 월요일에 하도록 해.

여주 (티켓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걸 제가 보고 싶었던...

남주 그럼 주말 잘 보내고.

남주, 단호하게 나가는 뒷모습에.

여주,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주 부장님!

남주 (천천히 돌아본다) 무슨 일이지?

여주 혹시 뮤지컬 좋아하세요? (싱긋 웃는다)

남주 상사에게 아부하지 않아도 돼. 좋아하는 공연은 좋아하는 사람과 보러 가.

여주 전 지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공연 보러 가자고 하는 건데요?

남주, 여주 우두커니 선 상황에서.

박과장(E) 훗... 그렇다면...

S#15. 기획 3팀(밤)

박과장, ‘...어쩔 수 없지’ 하고는 티켓 들고 크크 거리며 좋아한다.

박과장,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을 둘러보면 다행히 아무도 없다.

박과장, 휴대폰 올린다. 볼 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박과장 (놀라고) 여, 여보세요?

S#16. 회사 앞(밤)

최보민,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과장 찾는다.

최보민 작가님. 왜 안 나오세요? 저 계속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S#17. 기획 3팀(밤)

박과장 여태껏 기다렸어요? 얼른 들어가요. 나 오늘도 야근이니까.

최보민(E) 아니 무슨! 이 회사는 작가님 없으면 안 돌아가요! 왜 만날 작가님만 야근을 하는 건데요!

박과장 (귀 아픈지 휴대폰 잠시 멀리한다) 암튼, 사정이란 게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요. 얼른.

S#18. 회사 앞(밤)

최보민 작가님? 작가님?! (휴대폰 액정 보고) 지금 끊은 거야? 지금 해보자고 하시는 거죠? 제가 떠나간 전 남친도 돌아오게 한다는 돈암동 망부석 이라고요!

S#19. 기획 3팀(밤)

박과장, 휴대폰 보면서 잠시 걱정스런 표정 하다가 휴대폰 덮고 일한다.

그때, 구두 소리와 함께 이유린 들어온다.

박과장 어? 유린씨. 아직 퇴근 안 했어?

이유린 네. 이제 가려고요.

박과장 혹시 나 보러 온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이유린 네... 뭐, 겸사겸사. (어색한 웃음)

박과장 아참 유린씨 이거 (티켓 건넨다) 보러 가고 싶다고 했지?

이유린 네... 그렇긴 했죠.

박과장 그, 조, 좋아하는 사람하고 조... 좋아하는 고...공, 아니 뮤지컬 보러 가.

이유린 ... 죄송해요. 과장님. 직장 상사라곤 하지만 이런 선물을 쉽게 받을 수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박과장 (이게 아닌데) 아, 그,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때, 김부장 들어선다.

김부장 유린씨, 가지.

이유린 네. 부장님.

박과장 유린씨, 중요한 약속이... 부장님이었어?

김부장 넌 왜 아직도 남아 있어? 일 안 끝났어?

박과장 그제, 해야 할 일이 남아서요.

김부장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말하라니까. (박과장 책상 위 파일 보며) 이거 차이사님 프로젝트인데 왜 네가 하고 있어?

이유린 아! 부장님.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김부장 유린씨가?

이유린 네. 감사하게도, 과장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김부장 (쫓) 이거... 대충하고 넘겨. 내일 또 지각하지 말고.

박과장 어... 하는 데까지만...

이유린 부장님 지금 출발하셔야 해요. 늦었어요.

김부장 (박과장 보며) 빨리 들어가. 늦었어.

박과장 들어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박과장.

S#20. 회사 밖(밤)

박과장, 회사를 나오는 길에 뭔가를 보고 놀란다.
박과장의 시선에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최보민.

박과장 보민씨. 보민씨 맞아요? 왜 여기서 이려고 있어요!

최보민 (잠에서 깬다) 아우, 작가님? 지금 몇 시예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박과장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최보민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 다행이죠. (배시시 웃는다) 가죠! 뜨끈한 거라도 좀 먹어야겠어요. (앞장서서 간다)

박과장 (따라가며) 어, 어디 가세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데, 내가 아는데.

S#21. 고양이 컨셉 커피숍(밤)

박과장, 주변을 둘러보며 고양이 장식들에 눈을 땔 수가 없다.
최보민, 그런 박과장을 황당한 표정으로 본다.

최보민 작가님은 왜 저랑 이런 데만 오세요? 제가 말한 뜨끈한 건 설렁탕 같이 든든한 건데.

박과장 (우물쭈물) 아... 그제, 보민씨가 좋아할 것...

최보민 (노려보면)

박과장 (우물쭈물) 남자가 시키면 입체 고양이 안 해주거든요.

종업원이 카푸치노 두 잔 가지고 오면, 박과장 앞의 카푸치노는 나뭇잎 모양이고, 최보민 앞의 카푸치노는 입체적으로 고양이 얼굴이 튀어 나와 있다.

종업원 가고 나면, 박과장 최보민 보며 두 개를 바꿔도 되냐는 수신호.

최보민, 작게 한숨 쉬며 손짓 휘휘.

최보민 ... 그럼 앞으로 미팅은 계속 여기서 할 테니까. 인터뷰만이라도 해주
세요.

박과장 아... 보민씨, 봐요! 고양이가 손을 흔들어요. (카푸치노가 흔들흔들
한다)

최보민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걸 기회예요! 스타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
는 기회요! 마케팅만 잘하면 진짜 전업 작가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니
라니까요! 작가님은 부와 명예를 얻고 전 실적을 얻어서 팀장이 되고!
최고짱아요!

박과장 ... 이런 카페에 혼자 오는 저 같은 거예요.

최보민 네?!

박과장 이런 몰골의 아저씨가 이런 핑크한 가게에 와서 좋다고 꺾꺾거리는
거, 그런 거만큼 꼴볼견도 없거든요. 제가 <띠동갑...> 소설의 작가라
는 게 밝혀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최보민 무슨 소리예요! 작가님! 전 맨날 작가님 뵈러 오지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는걸요.

박과장 ...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보민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난 그냥 유명해
지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글을 쓰면 그걸로 만족해요.

최보민 ...

S#22. 거리 일각(밤)

박과장, 쌀쌀한 듯 몸을 움츠리며 걷는다.

최보민, 생각에 잠겨 걷다 멈춘다.

최보민 ... 작가님, 전 작가님과 생각이 달라요.

박과장 뭐가요?

최보민 평생 숨어서 살 순 없듯이 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신이 쓴
글을 좋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
다 보면 외모에 대한 선입견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
각해요. 제가 그런 것처럼.

박과장 ... 저도 보민씨처럼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과장, 이야기하는 도중에 시선이 한쪽으로 돌아간다.

최보민, 박과장의 시선을 쫓아가면, 이유린과 김부장이 걸어가고 있다.

최보민 저분 그때의...

박과장 (정신 차리고) 그만 가죠.

최보민 저번에도 그렇고... 작가님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박과장 ... 아녜요. 그런 거.

최보민 에~~ 맞는 거 같은데? 맞죠? 그죠?

박과장 ... 그냥 ... 좋은 사람인 거 같아서.

최보민 오~ 금방 고백하시네.

박과장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최보민 더 얘기해봐요.

박과장 뛰면서 도망가면, 최보민, 쫓아간다.

S#23. 기획 3팀(오후)

박과장, 일하다 김부장의 자리를 바라보면, 이유린이 김부장에게 붙어서 이야
기하고 있다.

이유린, 김부장의 어깨를 치며 웃기도 한다.

플래시 백 S#13.

유린 제가 〈사랑 노예〉 정말 좋아하거든요.

박과장, 시선 돌리고 일하려다가 머리를 긁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S#24. 회사 일각(오후)

박과장, 총무과장과 하나씩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

박과장 혹시 말이야, 겸업하고 있는 걸 밝힌다고 해서 꼭 잘리거나 하진 않
겠지?

총무과장 뭘 소리야? 인사과에 가서 이실직고하겠다고? 네가 무슨 피노키오
냐? 굶어 부스럼은 왜 만들게.

박과장 아니, 김부장도 그렇고, 신춘문예에 자기계발서 출판까지 대대적으
로 알려졌지만 별말 없잖아.

총무과장 그건 그렇지. 회사 분위기가 문화생활이나 자기계발을 추천하는 경
우도 있고, 창의력이나 창조적 인재니 하니까.

박과장 그치?

총무과장 하지만! 넌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박과장 왜?

총무과장 (한심한 눈빛) 너의 그 이상한 취향을 밝히는 건 자기 피알이 아니라
덕밍 아웃에 가까울 테니까 말이야.

박과장 뭘 소리야! 내 취향이 어때서?

총무과장 그럼, 네가 쓰는 책 제목이 뭘테?

박과장 그... 그건.

총무과장 아서라. 제목도 못 알려주면서 무슨...

박과장 아니, 그게 들어보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은데...

총무과장 그니까 그게 뭐냐고!

S#25. 박과장의 집 / 박과장의 방(밤)

모니터 화면 안에 L포털 ‘글 올리기’ 창 떠 있고, 제목 〈띠동갑 부장과 나른한
야근일기〉 쓰여 있다.

박과장, 깜빡이는 커서를 가만히 보고 있다.

형, 몰래 문 열고, 문 옆에 걸려 있는 박과장 재킷 속을 뒤진다.

박과장 (돌아보지도 않는다) 건들기만 해. 소리 지를 테니까.

형 야, 좀 봐줘라. 간만에 동창회 하는데 10만 원도 안 가져가면 되겠냐?

박과장 (돌아보다) 형이 거길 왜 가? ... 형은 안 쪽팔려? 그렇게 대대적으로
망해 놓고?

형 에이~ 쪽팔릴 것도 많다. 하고 싶은 거 하다 망한 건데. 오히려 남의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자기한테 더 쪽팔린
거지.

박과장 (생각하다 별말 않고, 돌아앉는다)

형 저기... 박과장님?
박과장 ... 5만 원만 가져가.
형 야! ... 형이 늘 고맙다. 형 갔다 올게.

박과장, 《사랑노예》 단행본을 보고 있다.

S#26. <띠동갑...> 소설 속 / 회사 일각(늦은 오후)

사무실은 여전히 텅 비었고, 노을이 짙게 졌다.
 여주, 남주의 책상 앞에서 서 있다.
 남주, 여주 앞으로 책 한 권을 내민다.

여주 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 작가님 팬이라고.
남주 알아, 하지만 작가가 직접 주는 건 아니었잖아.
여주 네? (책 커버를 열어보면, 남주의 멋진 사인) 설마 이 작품의 작가님이...
남주 비밀로 해줘, 그냥 내 개인적인 취미니까 말야.
여주 부장님...
남주 이만 퇴근하지. 오늘도 고생 많았어.
여주 이렇게 그냥 퇴근할 수 없어요! (팔짱 끼며) 비밀 지키는 대신 저녁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남주 나 참...
박과장(E) 할 수 없군.

S#27. 박과장의 집 / 박과장의 방(밤)

박과장, 자아도취 되어 인상을 찌푸리다가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박과장, 휴대폰 들어 최보민에게 전화 건다.

S#28. 시내 거리(오후)

박과장, 허름한 복장으로 거리를 걷고 있다.
 최보민에게 온 문자 화면에 쏘인다.

최보민(E) 인터뷰 잡았어요. 메이크업은 당일에 할 테니까. 옷만 멋지게 입고 오세요!

박과장, 화려해 보이는 편집샵에 들어간다.

S#29. 편집샵(오후)

직원1, 2 카운터에서 수다 떨다, 박과장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

직원1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여긴 아저씨가 올 곳이 아니야.
직원2 (웃으며) 왜 그래요, 손님한테.
직원1 하... 들어왔네. 네가 상대해라. 난 오늘 피곤해서 애쓸 맘이 들지 않아.

직원2, 박과장에게 다가간다.

직원2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박과장 어, 그게, 제가 잘 몰라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뭐가요?
직원2 마침 손님께 딱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2, 직원1이 있는 카운터를 지나치며 의미심장한 윈크 날린다.
 직원2, 한쪽에 모여 있는 옷들 위에 '이월 상품' 소간판 치워버린다.
 직원2, 손으로 자랑하듯 가리키는 곳에 강한 원색의 특이한 옷들이 있다.
 박과장, 당황하는 눈빛.

S#30. 편집샵 입구(오후) / 거리 일각(오후)

박과장, 우스꽝스런 원색 계열의 옷 입고 쇼핑백 잔뜩 들었다.
 직원1, 2 입구까지 나와서 마중한다.
 직원1, 2 박과장 뒤에서 비웃음 짓는다.

박과장 진짜 괜찮은 건가?
 박과장, 걸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이 느껴진다.
 점점 많아지는 시선들.
 길을 가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박과장, 뭔가 멋진 것 같기도 하고 어
 깨를 짝 펴니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다.

S#31. 미술관(오후)

사진 스텝들 조명 준비하고 있다.
 최보민, 잡지사 스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과장,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다.

최보민 어! 작가님!
박과장 보민씨!
기자 (깜짝 놀라 작게 보민에게 말한다) 미향 작가님이 저분이세요?
최보민 네! 무슨 문제 있나요?
기자 ... 그냥 멋진 분이라고만 하시면... (멘붕) 난 몰라...

기자 사색이 되고, 심각한 얼굴로 사진작가와 이야기한다.
 최보민, 박과장 웃 칭찬하고, 박과장은 기자와 사진작가에게 인사한다.

S#32. 동 미술관(오후)

박과장, 기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박과장,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기자는 어쩐지 대충하는 모습.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의 모티브는 특정 인물에서 나오
 는 건가요? 가령 사랑하는 연인이라던가?
박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로 주변에서 가져와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
 람이 있어서.

박과장, 최보민 슬쩍 보면, 최보민, 멀찍이 떨어져 뿌듯하게 박과장 보고 있다.

기자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터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독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박과장 네. 그럼 사진은 따로 찍나요?

기자 (당황) 네? 아, 아뇨. 아까 찍은 걸로 충분해요.

박과장 아, 메이크업도 안 받았는데.

기자 괜찮습니다.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기자 일어선다.

최보민, 다가오며 엄지 척.

S#33. 거리 일각(밤)

박과장과 최보민 걷고 있다.

박과장 긴장되네요. 악플 많이 달리면 나 상처받는데.

최보민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박과장 하하. 어떻게 책임지게요?

최보민 음. 같이 술도 마셔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리고 그렇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세상은 잔인하지 않아요.

박과장 내가 보민씨보다 몇 년은 더 살았는데.

최보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박과장 그거 지금 나 까는 얘기죠?

최보민 자! 가죠! (박과장의 팔짱 끼면) 든든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요!

박과장 (조금 당황해서) ... 으흠, 전 설렁탕보단 파스타가...

최보민 시끄러워요! 기다리느라 힘들었으니까. 설렁탕!!

최보민, 덩치 큰 박과장을 짝짝 끌고 간다.

S#34. 회사 앞(아침)

박과장, 회사 앞에서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박과장, 주먹 꽉 쥐고 들어선다.

S#35. 기획 3팀(아침)

박과장, 긴장한 듯 들어서는데.

직원들 인사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인사에 어리둥절하는 박과장.

이유린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과장 어! 유린씨. 좋은 아침. (하며 멈춰 서는데) 흑시...

이유린 (영문을 모르고)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과장 아, 아니야.

자리에 온 박과장은 어리둥절하다.

S#36. 구내식당(오후)

김부장과 이유린, 박과장과 사람들 밥 먹는다.

이유린 부장님, 그거 아세요? 이번에 드라마화하는 <띠동갑...> 원작 소설 작가요. 그 작가가 우리 회사 사람이래요.

김부장 그게 원작이 있었어?

이유린 잡지사와 인터뷰했는데, 얼굴은 끝내 밝히지 않겠다고 했대요.

박과장 !! (사레들린, 놀란다) 저기, 나 머, 먼저 올라가볼게요.

김부장 왜? 다 먹지도 않았는데.

박과장 아, 할 일이 생각나서요.

S#37. 기획 3팀(오후)

박과장, 인터넷에서 자신의 기사를 찾아보고 있다.

기사 타이틀 ‘얼굴 없는 작가 미향, 이대호가 더 편하다.’

미향(E) ... 독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요. 얼굴을 밝히지 않는 건 그런 이유가 가장 크죠.

허탈한 표정의 박과장.

총무과장, 들어온다.

총무과장 야, 나와 봐.

박과장 미안, 나 지금 기분이...

총무과장 얼른 나와라. 지금 네 기분 따질 때가 아냐.

박과장, 의아한 표정.

S#38. 복도 게시판 앞(오후)

박과장, 총무과장이 올린 게시판의 광고물을 보고 있다.

총무과장 ‘...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선 겸업 행위 등 건전한 회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사규에 위반되며...’ 이 타이밍에 이거 아무리 봐도 네 이야기이지?

박과장 ... 설마. 겨우 소설 쓰는 걸로.

총무과장 야, 조심해라. 진짜로.

박과장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S#39. L포털 웹소설 팀(오후)

최보민, 격앙되어 있다.

최보민 (벌떡 일어나) 기자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인터뷰 내용도 완전히 바꿔버리고 우리 작가님이 언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이런 짓을 해도 돼요?

기자(E) 미안해요. 그... 작가님 사진이랑 인터뷰본 편집팀에서 도저히 통과가 안 돼서 조금 바꿨어요. 그래도 반응 좋던데요?

최보민 (책상 내려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약속한 것과 완전히 다르니까!

기자(E) 미안해요! 다음번 인터뷰 때는 꼭 제대로 작성할게요. (뚝-!)

최보민 여보세요? 기자님! 기자님! 야!

팀장 너,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니?

최보민 아직요.

팀장 작가님한테나 먼저 말씀드려. 작가님 멘탈 흔들리지 않게.

최보민 ... 네.

S#40. 고양이 컨셉 카페(오후)

박과장, 힘없이 고양이 모양의 커피잔 만지작거린다.

최보민 죄송해요. 작가님.

박과장 괜찮아요. 보민씨 탓도 아닌데.

최보민 이런 식으로 풀릴 줄은 몰랐어요.

박과장 어차피 마음 편하게 글 쓰고 싶었어요.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쩐지 회사에서도 뭔가 알게 된 거 같고.

최보민 ... 아! 오늘 드라마 제작발표회 했다고 팀장님이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힘 나실 거라고.

최보민, 휴대폰으로 제작발표회 본다.

S#41. 제작발표회 / 휴대폰 속

배우들 일렬로 앉아 있고, 기자들 플래시 터진다.

진행 신혜선씨께서는 원작 소설의 팬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팬심이 드라마를 맡게 된 계기가 되었나요?

신혜선 네. 완전 큰 계기가 됐어요. 신인 때는 영화 오디션도 봤지만 떨어져서 아쉬웠는데, 지금 이렇게 여주인공을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진행 저희가 알기론 작가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

신혜선 네. 싸인회 하시면 꼭 가서 싸인을 받고 싶었는데, 작가님께서 끝까지 얼굴 없는 작가로 남고 싶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독자들이 엄청 아쉬워했죠.

진행 혹시 작가님도 신혜선씨가 보고 싶었다는 것을 아시면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신혜선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작가님은 되게 쿨하실 것 같아서...

S#42. 고양이 컨셉 카페(오후)

박과장 ... TV 속 저는 참 멋진 사람이네요.

최보민 아...그게 우리 팀장님이 눈치가 없어요. 참! 작가님. 오늘 술 한잔 어때세요?

박과장 그냥 들어갈게요. 신혜선씨가 제 작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려다 돌아서서) 그리고 오늘 고마웠어요. 위로해줘서. 술은 나중에 꼭 사요.

최보민 ...

S#43. 몽타주. 박과장의 회사

박과장, 일하고 있으면, 이유린 파일 들고 와서 박과장에게 물어본다.
박과장, 책상 한쪽에 일 쌓인다.
김부장, 그런 박과장 보며 고개 절레절레.
이유린, 다시 박과장 옆에 오는 모습.
박과장, 책상 한쪽에 파일들 계속 쌓인다.
김부장 퇴근하려는데 이유린 우연인 것처럼 다가간다.
박과장 그 모습 지켜본다.

S#44. 몽타주. L포털 웹소설 팀

팀장, 최보민 옆에 와서 소리 지르는 모습. 최보민 귀 막고 고개 쳐박는다.
최보민, 메일들 읽어보다가 박과장의 메일 본다.
메일 내용엔 '힘들죠? 매번 고마워요. 조금만 더 수고해줘요. 보민씨'라고 쓰여 있다.

S#45. L포털 웹소설 팀(오후)

최보민, 휴대폰 전화 울리지만, 이름 확인하곤 받지 않는다.

팀장 야! 최보민 너 전화 안 받냐!
최보민 (심드렁히 불량한 자세가 돼서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막 허구의 내용만을 보도하시는 기자님 아니십니까!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시고? 혹시 작가로 전업하고 싶으세요?
기자(E) 그때의 일은 미안해요. 사실 그때의 일을 보답할 만한 것 때문에 전화한 건데.
최보민 됐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기사를 쓰시려고...(무음) 네? 그래서요? (무음) 정말로요? 네네. (무음) 진짜죠? (무음) 그럼요. 무조건이죠. (무음) 알겠습니다. 그럼.

최보민, 전화 끊고선 좋아 어쩔 줄 몰라 한다

최보민 예쓰! 예쓰! 예에에쓰!!
팀장 왜? 무슨 일인데?
최보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외근 다녀올게요!
팀장 야! 또 무슨 외근을 나가! 네가 영업사원이야!
최보민 (이미 나가고 있다)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팀장 저 웬수 진짜!

S#46. 회사 앞(오후)

최보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박과장이 나오는 걸 보고 손을 흔든다.
박과장, 과도한 최보민 때문에 창피하다.

박과장 어쩐 일이에요? 마감 다 끝났는데.

최보민 작가님이 마감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상 드리려고요.
박과장 상이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최보민 가요! 맛있는 저녁 먹으러!
박과장 어디로 가게요? 내가 저번에 블로그에서 본 레스토랑 있는데.
최보민 오늘은 제가 원하는 데로 갈 거예요. 따라오세요.
박과장 예?! 내 상이라면서... 나 우거지탕 같은 거 못 먹는데...

S#47. 레스토랑 / 내부

사방이 막혀 있는 방.
 최보민, 비싼 메뉴판에 좋아하고, 박과장, 걱정스런 눈빛으로 최보민 본다.

박과장 그냥 내가 아는 데로 가자니까. 이런 데는 비싸기만 하고...
최보민 그럼 우거지탕 드시러 갈래요? 아님 선짓국이나.
박과장 ... (탄청) 근데, 으흠 ... 왜 옆에 앉아요? ... 누구 또 와요?
최보민 네! 깜짝 놀랄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박과장 아... 나 오늘 몰골 엉망인데.
최보민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와~ 내가 이런 걸 다 먹어보네, 최보민 출세했
 다.

또각또각 소리와 함께 고급스런 구두 클로즈업 된다.
 구두의 주인공 지나칠 때마다 다른 탁자의 사람들 구두 주인공 놀란 눈으로 바
 라본다.
 박과장 일행의 방으로 향하는 여인의 뒷모습.
 박과장 일행의 방문이 최악 열린다.

박과장 ... 엇!
신혜선 안녕하세요~

신혜선, 선글라스 벗으며 환하게 웃는다.

S#48. 동 레스토랑 / 내부

신혜선과 최보민 화기애애하게 식사 중.
 박과장, 잘 안 넘어간다.

신혜선 혹시 입맛에 안 맞으세요?
박과장 아뇨. 그게 아니라. 하하 괜찮습니다.
신혜선 저 때문에 불편하세요?
박과장 아뇨!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신혜선 영광은요... 제가 더 영광이죠. 이런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연기자가 된 뒤로 불편한 것들 투성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연
 기자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네요.
박과장 ... 왜요?
신혜선 이렇게 작가님도 만나 뵙고, 작가님 소설의 주인공도 되었잖아요. 전
 작가님 덕분에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박과장 아...

S#49. 레스토랑 앞(밤)

벤이 입구에 정차해 있다.

신혜선 또 봐요, 보민씨. 또 뵈요, 작가님.

최보민 안녕히 가세요! 언니!

벤 출발하고.

박과장 (팔꿈치로 툭 친다) 언제부터 언니였습니까?

최보민 (계속 손 흔들면서 맞받아친다) 예쁘면 다 언니예요.

박과장 하여간에...

최보민 (휙 돌아서며) 어떡했어요?

박과장 뭐가요?

최보민 신혜선씨랑 사진 찍은 기분이 어떡셨냐고요.

박과장 그냥... 뭐... (피식피식 웃는, 그러다 진지한 목소리) ... 더 좋아졌어요.

최보민 뭐가요?

박과장 제 작품이요. 이렇게 내 작품 덕분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독자도 있고, 그 작품을 항상 믿어주는 보민씨도 있고요.

최보민 (어쩐지 시선을 맞추기 힘들다) 뭐, 뭘요.

박과장 (보민의 손을 두 손으로 덥씩 잡으며) 늘 고마워요. 보민씨.

최보민 ... 으흠, 자, 작가님! 우리 또 파이팅해요! 신혜선씨 같은 독자들이 더 행복하게 또 파이팅 합시다! 알겠죠!!

박과장 사람들 많아요. 자중 좀 해요.

최보민 알겠죠!!!

박과장 아, 알았으니까 제발 좀.

지나가는 사람들 키득거린다.

사람들 가득한 거리 비춘다.

S#50. 회사(오전)

출근길, 박과장 헤매지 않고 입구 통과. 엘리베이터도 능숙하게 탄다.

박과장, 신나 보이는 모습.

기획 3팀 가는 길. 사람들 시선 박과장에게 모인다. 그리고 수군거린다.

박과장 뭐지?

S#51. 기획 3팀(오전)

박과장, 자리에 앉는데. 여직원들 수군거린다.

여직원 하나 다가온다.

여직원 과장님... 혹시요...

박과장 응?

여직원 이 책 쓰셨어요? (《사랑노예》 단행본 보여준다)

박과장 어? 이, 이걸 어떻게...

여직원 진짜 과장님 맞아요? 대박! 과장님 저 싸인 좀 해주세요.

여직원들 순식간에 다가와 사인 공세. 박과장 정신없다.

김부장, 벌떡 일어나 외친다.

김부장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야! 다들 업무 준비 안 해?
여직원 죄송합니다.

직원들 돌아가고, 박과장 옆자리 여직원에게 묻는다.

박과장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직원 (김부장 눈치 보고 말없이 인스타그램 창 띄운다) 맨날 입으시는 옷 이니까. 저희 회사란 것도 알려졌고, 풍채도...

인스타그램 속 신혜선 '#꿈에 그리던 작가님과 만남' '작가님은 부끄러우 시니까 나만'이란 멘션과 함께 얼굴만 스티커 처리된 박과장의 사진 떠 있다. 박과장,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인스타 속 사진이랑 번갈아 보는데, 똑같다.

S#52. 기획 3팀(오전)

이유린, 신혜선의 인스타그램에 떠 있는 박과장의 사진 보고 있다.

직원 유린씨는 좋겠어. 박과장님이 작가였다니.
이유린 ... 네, 그럼요.

이유린, 다시금 인스타그램에 떠 있는 박과장의 사진 본다.

팀장(E) 남자 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S#53. L포털 웹소설 팀(오후)

팀장, 전화 끊으며.

팀장 최보민! 너 일을 이따위로 처리할 거야!
최보민 어떡하죠? 밝히기도 안 밝히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팀장 일단, 작가님부터 챙겨. 전화드리고,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부터 물어봐.
최보민 네.

최보민, 박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S#54. 회사 식당(오후)

박과장, 밥을 앞에 두고 먹지 못한 채 사람들과 셀카 찍고 있다. 사람들 앞다퉈 사인 받아 간다. 박과장, 휴대폰 울리면 사람들에게 양해 구하고 전화 받는다.

박과장 보민씨. 어쩐 일이에요?
최보민(E) 과장님 괜찮으세요?
박과장 아... 보민씨도 인스타 보셨구나.

S#55. L포털 일각(오후)

최보민 여긴 난리예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예요. 그리고 댓글도...

박과장(E) 괜찮아요. 댓글이야 늘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익숙해지면 되겠죠.

최보민 ... 과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S#56. 회사 식당(오후)

박과장 네. 걱정 말아요.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박과장, 휴대폰 끊으면,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인.

S#57. 기획 3팀(오후)

박과장, 여사원들에게 둘러싸여 사무실로 돌아온다.

박과장 ... 스토리는 얘기해줄 수 없어요. 계약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사원들 어우~

박과장 하하, 진짜예요. 곤란하니까...

박과장의 책상 앞에 딱딱한 인상의 사내1, 2 서 있다.

사내1 박종혁 과장님 맞으시죠?

박과장 네...

사내1 인사과에서 왔습니다. 잠시 같이 가실까요?

김부장, 날카로운 눈빛이 되어 본다.

S#58. 인사과 사무실 / 내부

사방이 벽이고 문의 창문도 블라인드가 달린 공간.
박과장, 한쪽에 앉아 있고, 사내1, 2 반대편에서 서류 검토한다.

사내1 박종혁 과장님. 인터넷에 연재 중인 띠동갑 부장...하하 참, <띠동갑 부장과 나쁜 야근일기>의 저자 미향이 맞습니까?

사내2 (못 참겠다는 듯) 크흐흐

박과장 ...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업무 외 활동시간에 하는 문화생활은 회사 규범상 문제없지 않나요?

사내1 흐흐, 이런 것도 문화활동이라고 하나?

사내2 최근에 저희가 공지한 공문 보지 못하셨습니까?

박과장 봤습니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순한 취미생활이었...

사내2 (책상을 내려친다) 박종혁 과장! 당신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돼요?

박과장 여,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사내1 사내 고충처리위원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어요!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순한 저서 활동과 동시에 특정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등으로!

박과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내2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 회사 내부의 정보를 가져다 쓴 게 얼마나 됩니까? 혹시 내부 비밀도 차용했습니까?

박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썼을 뿐입니다.

사내2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여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회사 내의 특정 여직원을 차용했다는 말은 인정하는 겁니까?

박과장 그, 그런 일은...

사내1 똑바로 얘기하세요. 성희롱 및 성추행 규정 강화된 거 모릅니까? 자신은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박과장 아니요! 절대 한 치의 그런 불순한 생각으로 쓴 적 없습니다. 그냥 소설입니다.

사내1 그럼 묻겠습니다. 이 여주인공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적 있습니까?

박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사내2 참나, 이 친구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구먼.

사내1 그러게요.

박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사내2 박종혁씨, 당신이 쓴 이 이상한 책 때문에 당신 큰일 났단 말입니다.

박과장 하아.

S#59. 회사 옥상(오후)

총무과장, 박과장에게 음료수를 건넨다.

총무과장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박과장 징계위원회. 그다음엔 대기발령.

총무과장 하아..., 진짜. 조심 좀 하자니까.

박과장 ...

총무과장 근데, 진짜로 우리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이야?

박과장 뭐가?

총무과장 그 여주인공.

박과장 아니라고! 다른 사람 있어.

총무과장 회사랑 집 말곤 아무 데도 안 가는 네가 누가 있어?

박과장 ... 있어. 그런 사람.

총무과장 그럼 그 이야기는 왜 나온 건데?

박과장 몰라...

총무과장 너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관련 있는 거 아냐?

박과장 무,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좋아해.

총무과장 이유린씨?

박과장 ...! 어떻게...

총무과장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우리 과 신입도 알아, 네가 유린씨 좋아한다는 거.

박과장 ...

총무과장 걱정 마라, 인마. 유린씨 좋아하는 사원이 한둘이냐. 근데 대체 누구냐? 누가 신고를 넣은 거야?

박과장 혹시 뭐 들은 얘기 없어?

총무과장 나야 모르지. 하루 종일 엑셀만 두들기고 있는데. 혹시... 아니다, 아냐.

박과장 뭘데?

총무과장 사실, 네가 잘 되는 거. 제일 거슬리는 사람이 누구겠냐?

박과장 ...

총무과장 ... 이그 멧추야! 김부장 아냐! 김부장!
박과장 뭘 소리야. 김부장이 왜? 개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총무과장 짜샤! 정신 차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더 그런 거 아냐. 같은 동기 중
 에 제일 허접하다고 생각했던 네가! 자기 밑에서 기도 못 펴고 있는
 네가! 사람들에게 잘나가는 작가라고 떠받들려지는데 안 거슬리겠
 냐!
박과장 ... 설마.
총무과장 아니다. 내가 한 말은 그냥 잊어라. 나도 그냥 해본 말이야. 속상해서.

총무과장, 다 마신 음료 휴지통에 버리고 먼저 가버린다.

S#60. 회사 외경(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S#61. 화장실과 휴게실 사이 공간(아침)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에 빈 책상 하나 놓여 있다.

사내1 업무시간 동안 일체의 다른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박과장 ...
사내1 또한, 휴대폰 사용을 통한 인터넷 서핑이나 독서, 신문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박과장, 고개 돌려 다른 부서 사람들을 본다.
 컴퓨터로 쇼핑을 하고 있는 직원,
 컴퓨터 옆에 휴대폰을 두고 게임을 돌리고 있는 직원,
 책장에 꽂혀 있는 베스트셀러.

사내1 (박과장의 시선을 느끼고) 대기발령 상태는 다릅니다. 화장실 가실
 때도 부서 담당자님께 확인받고 가셔야 합니다.
박과장 (화장실 보며) ... 실수로 넘어지면 화장실에 닿을 것 같은데요?
사내1 회사 내 규범입니다.

박과장, 멀쩡이 떨어져 있는 기획 3팀을 본다.

S#62. 같은 장소(오후)

박과장, 책상 앞에 고개 숙이고 있다.
 화장실을 오가는 사람들, 지나가며 박과장을 보고 속덕거린다.

최보민(E) 말도 안 돼요!

S#63. 고양이 카페(오후)

최보민, 품 안에 고양이를 들고 분개하는데,
 박과장, 보민 품 안의 고양이가 떨어질까 불안하다.

최보민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금서라도 쓴데요? 21세기 회사 맞아요?

박과장 ...

최보민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거기 인사 담당자가 누구예요? 정식으로 항의하겠어요!

박과장 참아요. 아마 회사 규율에 어긋나는 것도 없어서 대기발령으로 끝날 거예요. 확실치 않지만...

최보민 작가님! 어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태평하세요! 이건 그냥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박과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웹상의 반응도 안 좋고 연재를 계속 이어 나갈지도...

최보민 걱정 마세요! 만약 작가님이 회사에서 쫓리시면 제가 전업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게 서포트 할 게요! 절대 절대 그런 걱정 마세요!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박과장 (최보민을 빤히 본다) 그거 알아요? 보민씨, 참 듬직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최보민 (좀 설레는) ... 난방이 썬가 덥네.

박과장 좀 안아봐도 될까요?

최보민 (놀랐지만 측은해서) ...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뭐... (팔을 벌리고 눈 감는)

박과장 (뭘 하나?) 그 고양이요.

최보민, 순순히 고양이 넘겨주면, 고양이 박과장 품 안에서 잠전하다.
 박과장, 힐링 되는 듯 얼굴에 미소 짓기 시작한다. 좋아하는 박과장.

S#64. 기획 3팀(오후)

박과장, 기획 3팀으로 조심스레 들어온다.
 박과장, 지나가는 자리에 자신의 자리였던 곳 비어 있는 걸 본다.
 박과장, 천천히 김부장에게 다가간다.

박과장 부장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김부장 ... (한숨) 나한테 말하지 말고 가. 그건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박과장 ... 감사합니다. (돌아서는데)
김부장 조심 좀 하지 그랬냐.
박과장 ... (말없이 주먹만 꼭 쥐다)

박과장, 나가는 길에 이유린 들어온다.

이유린 박과장님, 어떡해요.
박과장 괜찮아. 나 먼저 가볼게.
이유린 과장님 꼭 돌아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박과장, 대답 않고 간다.

S#65. 화장실과 휴게실 사이 공간(오후)

책 한 권이 박과장의 책상 위에 ‘탁’하고 올려진다. 김부장이 쓴 책.

사내1 기획 3팀의 김부장님이랑 동기시죠? 좋은 친구 분을 두셨네요. 화장

실은 편하게 가서도 좋습니다. 심심하면 이 책은 읽어도 되고요. 문화생활이나 자기계발이란 건 이런 겁니다. 어디 그따위 책을...

박과장, 사내1이 주고 간 책 펼치면, 첫 장에 '나의 오랜 친구. 박종혁에게' 라고 쓰여 있는 사인.

박과장,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의 사인 꾸깃꾸깃하고 종국엔 찢는다.

박과장, 벌떡 일어나 기획 3팀 쪽으로 향한다.

S#66. 기획 3팀(오후)

김부장, 직원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

박과장, 성큼 성큼 들어온다. 잔뜩 흥분한 모습.

박과장 김부장, 나랑 얘기 좀 하자.

사람들 (흥분한 박과장을 보며 멍하다)

김부장 뭐?

박과장 얘기 좀 하자고! 지금!

박과장, 먼저 나가버린다.

김부장, 차분하게 따라간다.

S#67. 회사 옥상(오후)

박과장, 뒤돌아 서 있고, 김부장, 천천히 다가간다.

김부장 무슨 일이야? 아직 업무시간인데.

박과장 ... 네가 그랬냐?

김부장 뭐가?

박과장 네가 그랬냐고!

김부장 지금 인사 조치 말하는 거야?

박과장 그래! 자꾸 시치미 뽀래?! 너 그렇게 비겁한 놈이야?!

김부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만 화내라. 그거 나 아니니까.

박과장 ... 뭐, 뭐라고?

김부장 너 신고한 사람. 나 아니라고.

박과장 ... 어?

김부장 (웃음 터트리며) 이제야 박종혁이 같네.

박과장 진짜 너 아냐?

김부장 너 나 의심하냐? 인마, 너랑 나랑 친구로 지낸 지 20년 가까이 된다. 대학교 때 네 자취방에서 얻어먹은 라면이 몇 개데 그딴 짓을 하겠냐.

박과장 ...

김부장 난 인마, 오히려 네 팬이야. 우리 조카 수정이 알지? 개도 니 팬이라 더라. 나중에 싸인이나 좀 해줘. 수정이가 가지고 싶대.

박과장 어... 물론. 그럼 대체 누가...

김부장 거야 알 수 없지. 회사라는 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곳이니까. 방금 너처럼.

박과장 미, 미안하다.

김부장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다.

S#68. 인사과 사무실(오후)

박과장, 결연한 표정.
사내1, 2 서로의 얼굴 바라보며.

사내1 방금 뭐라고 했죠?

박과장 퇴사 유도를 위한 부당한 대기발령과 업무배제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내2 박종혁씨 지금 사태 파악이...

박과장 근거 없는 소문과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는 사건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보이는데요. 더구나 글을 쓴 작가 본인이 그럴 의도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음에도 징계 위원회가 열린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내1 박과장님, 지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업무 복귀하실 수도 있어요.

박과장 ...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놓고, 다시 복귀시켜주겠다고 겁니까? 차라리 공인노무사를 찾아가는 게 낫겠네요.

사내2 지금 회사랑 해보자는 겁니까?

박과장 회사에 피해는 못 끼쳐도, 두 분께는 충분히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사내1, 2 서로 얼굴 바라보며.

사내2 원하는 게 뭐니까?

S#69. 같은 장소(오후)

사내1, 2 한쪽에서 박과장을 보고, 박과장도 지지 않고 노려본다.
그때 문 열리고 한 사람 들어온다.
박과장, 고개 돌리면, 이유린이다.

박과장 유린씨!

사내1 앉으세요.

이유린 (박과장과 눈 마주치지 않으며)

사내2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괜찮으시죠?

이유린 ...

박과장 ... 두 분 좀 나가 주시겠습니까?

사내1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은...

박과장 부탁드렸습니다. 나가주시죠!

사내2 (이유린을 보며) 괜찮으시겠어요?

이유린 (고개 끄덕인다)

사내1, 2 나간다.

이유린 ...

박과장 왜 그랬어? 유린씨?

이유린 ...

박과장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랬어? 내가 실수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왜 그런 거짓말한 거야?

이유린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박과장 ... 뭐?

이유린 미향 작가가 과장님이란 걸 안 뒤부터 사람들이 여주인공이 저랑 똑 같다고 그러면서 애길 하는데... (부르르 떴다)

플래시 백 S#52.

직원 유린씨는 좋겠어. 박과장님이 작가였다니. 어쩐지 여주인공이 유린 씨랑 많이 닮았다고 했지.

박과장 하지만 그건...

이유린 소름 끼쳤어요!

박과장 뭐?

이유린 박과장님이 미향 작가라는 것도 싫었고, 그 여주인공이 저라고 생각 하고 쓴 것도 정말 싫었어요. 진짜 생각할 때마다 으...

박과장 ... 그게 아냐, 유린씨 내 말 좀...

이유린 그래서 그랬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길 바란 건 아녜요.

박과장, 멍하다.

이유린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다른 분들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린, 회의실을 나간다.

S#70. 화장실과 휴게실 사이 공간(오후)

박과장, 멍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박과장, 가방에서 《사랑노예》 단행본을 꺼낸다. 첫 장을 보면 자신의 사인이 있다.

여직원(E) (작은 소리) 과장님.

박과장,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S#71. L포털 웹소설 팀

최보민, 황당한 표정.

최보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팀장 내가 물어봤어. 강압적으로 하진 않을 거래.

최보민 그걸 왜 그쪽 회사에서 정하는데요.

팀장 그만 좀 해! 작가님의 생업이 달린 거야. 작가님이 정하실 일이라고.

최보민 결국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무슨 선택인데요. 험박 이지.

팀장 너 어디 가?

최보민 작가님한테요. (나간다)

팀장 야! 그만해라... (털썩 앉으며) 나도 모르겠다.

S#72. 화장실과 휴게실 사이 공간(오후)

박과장, 돌아보면 여직원 몇몇이 우유나 빵 가지고 섰다.

여직원 이거 좀 드시고 힘내세요. 저흰 과장님 팬...

사내1 뭐하는 겁니까?

여직원들, 우유와 빵 박과장의 책상에 두고 도망치듯 사라진다.
박과장, 멀거니 여직원과 음식들을 본다.

사내1 가지죠.

박과장 ... 잠깐 가는 길에 들를 곳이 있습니다.

박과장, 《사랑노예》 단행본 들고 일어선다.

S#73. 기획 3팀(오후)

직원들 여럿 오간다.

이유린의 자리, 이유린은 없고 《사랑노예》 단행본만 남아 있다.

S#74. 인사과 / 회의실(오후)

박과장, 저작물 계약 해지서 본다.

사내1 곧 부장 진급하실 분이 그런 남사스런 글을 쓴다면 후배 사원들이 뭐
라 생각하겠습니까.

사내2 여기 부장님처럼 평범한 글을 쓰시는 건 언제든 OK입니다. 그러니까.

박과장 ... 제 글은 ... 이상한 글이 아닙니다.

김부장 종혁아...

박과장 누군가는 좋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궁금해하는 글입니다. 취미로
시작하긴 했지만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제 글을
다른 작품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그들에게 하루의
잠깐, 짧은 시간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인서트.

최보민, 전력을 다해 박과장에게 뛰어가고 있다.

이유린, 화장실에서 《사랑노예》 책과 사인 보고 있다.

신혜선, 차 안에서 《띠동갑...》 단행본 보고 있다.

여직원,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띠동갑...》 읽고 있다.

박과장 어떤 분들에게는 제 글이 불편하게 보일 수 있고, 보기도 싫을 수 있
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S#75. 회사 앞(오후)

최보민, 헉헉거리며 회사 앞에 당도한다.

박과장, 박스에 짐을 담은 채 킁킁거리며 회사 문 나오면.

최보민 작가님...

박과장 보민씨, 여긴 어떤 일이에요?

최보민 ... 이걸. (박과장의 짐들 보며)

S#76. 고양이 컨셉 카페(오전)

박과장, 고양이 모양의 커피잔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

최보민, 박과장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다.

- 최보민** 작가님,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 박과장** ... 그만하세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 최보민** 전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 박과장** 보민씨 말대로 전업 작가가 되면 수입도 나쁘지 않고, 신혜선씨 덕분에 책도 많이 팔렸으니까.
- 최보민** ... 혹시 그 유린씨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 박과장** 무슨 소리에요?
- 최보민** 그... 유린씨가 여주잖아요?
- 박과장** 무슨 소리에요. 애초에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주는.
- 최보민** 아... 그래요? 그게 누군데요?
- 박과장** ... 그나저나 앞으로 막막하네요. 회사도 관둬서, 연재도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고. 단편도 좀 준비하고 싶고.
- 최보민** 작가님!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할게요!
- 박과장** 그래요? ...아! 도와줄 거 있다.

S#77. 식당(오후)

엄마, 잔뜩 화난 모습.

박과장 물만 마시며 탄청. 최보민 안절부절못한다.

- 엄마** 너 그거 진짜야? 회사 관렸다는 거?
- 박과장** 어. 앞으로 글로 먹고살려고.
- 엄마** (어질하다) 너어! 내가! 너까지!
- 박과장** 내 잘못 아니야. 여기 보민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 엄마** (찌릿 최보민 본다) 아가씨! 아가씨가 우리 애 인생 망쳤어?
- 최보민** (당황하다 박과장 껴려보고) 어, 어머니! 작가님은요! 진짜 재능 있는 분이세요. 이미 전작들 판권도 다 팔렸고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널 모레 사십 가까운 애를 어떻게 ...
- 최보민** (엄마 손 꼭 잡으며)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작가님을 책임지겠습니다.
- 엄마** (엉뚱한 말에 당황) 채, 책임?
- 최보민** 네! 저만 믿으세요! 전 분명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엄마** 으흠. (손 빼며) ...그, 그래요? 근데 아가씨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핑장히 어려 보이는데.
- 최보민** 작가님과 동갑입니다. 띠동갑.

S#78. 회상. 카페(오후)

최보민, 조금 더 어려 보인다.

박과장, 좀 더 답답해 보인다.

- 최보민**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담당 최보민이라고 합니다.
- 박과장** (당황) 네. 초면에 죄송한데 혹시 나이가?
- 최보민** 저요? 작가님이랑 동갑이에요.

박과장 네?

최보민 띠동갑이요. 하하하하 (호탕)

박과장 (환하게 웃는 최보민의 모습 멍 때리며 본다)

최보민 자! 그럼 다음 작품 소재를 같이 생각해볼까요? 《사랑 노예》 이후에 계속 글을 안 쓰신다고 들었는데.

박과장 ... 아네요. 지금 생각났어요. 재밌는 이야기.

끝.



작가 후기 **최지훈**

작품집을 출간한다는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완성도가 높은 수정고를 내밀까 고민했지만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본래의 작품을 내기로 결정했다. 나 또한, 과거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의 원작을 찾아가며 읽었던 기억 탓이다. 다행히 이 점에 관해선 감독님도 흔쾌히 승낙 하셨기에 작품집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어 낼 수 있었다.

오픈 센터의 멘토 매칭으로 윤성호 감독님을 만나고 작품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딱히 어디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이 바뀐 이유는 감독님이 제시한 새로운 시각 덕분인 것 같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감독님과 의견을 나누며 깨닫게 되고 기존 고정관념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드라마를 바꿔갔다.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도 많았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라는 생각에 좌절하다가도, '정녕 이게 내가 쓴 글이 맞나?'라며 종종 혼자 자처럼 즐거워하기도 했었으니까.

부족한 나에게 벅거운 과제였지만, 그 과제 속에서 전보다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모든 과정 덕분에 나는 앞으로도 드라마를 쓰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2017
오픈
작품집

소풍 가는 날

이정민

작의

사람의 힘은, 때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파워를 보여줄 때가 있다. 소중한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그렇다.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자식을 끌어안고 맨발로 뛰어나오는 어머니...

열 살 소년이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1시간이나 버텨내기도 한다.

우리에겐 그런... 누군가를 구해낼 힘이 있는 것이다.

극한의 순간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지 않더라도... 작은 관심만으로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등장인물

재호(30대 중반) 유품정리 업체 직원

우연히 윗집에 사는 은지 아빠의 죽음으로, 시도했던 자살이 미수에 그치게 되면서 유품정리 업체인 '소풍 가는 날' 직원이 된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잘 보내드리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범한 자신에게도 누군가를 살릴 작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팀장(40대 후반) 유품정리 업체 팀장

유품정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덕만(30대 초반) 유품정리 업체 직원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인물. 항상 현장에 가면, 그들의 외로움, 고독을 느끼며 평평 울어준다.

알바생 기동(24세) 유품정리 업체 알바

군대를 제대하고 고임금 알바를 찾아 이곳에 왔다. 순한 마음과 절제 있는 행동으로 조금씩 일을 배워간다.

알바생 성철(26세) 유품정리 업체 알바

냉철하다.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일말의 측은지심도 느끼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소풍 가는 날'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성장하게 된다.

민주(28세) 자살 예약자

자살을 결심하고, '소풍 가는 날'에 예약을 한다. 그러나 자살 예약을 쉽게 받아줄 리 없고, 재호와 관계를 통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

세탁소 아저씨(40대 후반)

어릴 적 어머니와 헤어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큼 미움도 큰 인물. 자신의 어머니가 가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된다.

그 외

은지 엄마, 은지, 고깃집 사장, 고깃집 직원, 사관생도 어머니 등

줄거리

세상을 등지려는 순간, 누군가의 죽음이 재호를 살렸다.

그것을 계기로 재호는 유품정리 업체인 '소풍 가는 날'에 취직해, 외롭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유품을 수거하고 처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어느 누구의 삶에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떠난 그들을 위해 '소풍 가는 날' 직원들은 진심을 다해 물어주고 좋은 곳으로 '소풍'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준다.

그러던 어느날, 외로움이 묻어나는 그들의 공간을 마주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는 재호에게 누군가 유품정리 예약을 하며 자살을 예고하게 되는데...

재호는, 이 죽음을 막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때는 죽음을 결심했던 재호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 또 다른 시간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자살을 예약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일상을 함께 하며 죽음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재호...

그러나 그녀가 예약을 한 그 날이 찾아왔다.

그녀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재호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S#1. 재호 집. 거실(낮)

세간살이 얼마 없는 재호의 작은 거실.

내부를 환하게 밝히던 햇빛이 차단되며 갑자기 어두워지는데, 보면 재호, 커튼을 막 닫았다.

재호, 식탁 위에 놓인 진한 핑크색 쇼핑백(S#42)을 누이고 그 위에 유서를 담은 흰 봉투를 놓는다.

재호, 식탁 의자를 끌고 거실 가운데로 간다.

의자가 거실 조명등 바로 아래 놓이도록 자리를 잡는다.

가볍게 심호흡을 하더니, 천천히 의자 위에 올라서는 재호의 발.

조명등 위에 걸쳐 있던 끈을 내리니, 재호 앞에 툭 떨어지는 동그란 올가미.

재호, 지그시 눈을 감는다.

의자 위에 가지런한 재호의 맨발. 긴장 때문인지 조금씩 꿈지락거리고

천천히 눈을 뜨는 재호.

이내 결심한 듯 얼굴을 올가미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는데,

'땡동' 하는 초인종 소리.

재호 무시하고 조금 더 올가미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연달아 들리는 초인종 소리와 대문을 쿵쿵 치며 '계세요? 계십니까?!' 하는 소리.

현관이 신경 쓰이는 재호. 그러나 결심한 듯 이내 눈을 감는 모습에서 블랙아웃.

타이틀. 소풍 가는 날

S#2. 공군 사관생도의 집(낮)

덕만(30대 초반),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듯 울고 있다.

방에서 고개만 빼꼼히 내민 알바생 기동(24세), 그런 덕만을 바라보고는

기동 일 안 하십니까?

동만 (아랑곳없고 끼이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쌍해. 너무 불쌍해.

팀장, 집안에 들어서기 전 가볍게 묵념하며 예를 갖춘 후 들어오며

팀장 덕만이 벌써 시작한 거야?

기동 (덕만보고 그만하라는 듯) 선배님-

팀장 그냥 뒤. 누구라도 물어주면 가는 사람 털 섭섭하겠지.

기동 맞습니다. 초상난 집에 곡소리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선배님은 곡을 하십시오.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S#3. 같은 집. 방(낮)

너무나도 단출한 살림살이.

싱글침대, 책상. 책장에는 대입 교재들 틈에 자기계발서(나는 나로 살기로 했

다/ 잠깐 흔들려도 괜찮아) 등등 보이고

한 칸에는 풀지 않은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성철(26세)과 기동, 박스 안에 짐들을 담고 있다.

팀장 (허공에 쿵쿵 냄새 맡고) 냄새 많이 빠졌네.

재호 오전에 악취 제거랑 피톤치드 작업했어요.

팀장 5일?

재호 3일 만에 발견됐대요.

팀장 (벽에 코를 대고 냄새 맡고) 벽지랑 바닥까지 뜯을 필욘 없겠다. 그래도 이사올 사람 생각해서, 살균 철저히 하고.

재호 네.

덕만(E) 이 집 텃어요.

팀장 왜?

덕만 (눈물 닦으며 들어오면서) 옆 동네서 구경왔드라구요. 이런 소문은, 사거리 넘어가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기동(E) 이걸 어떻게 해요?(보면, 음악 CD들 들어 보이고)

팀장 (의뢰서 보면서) 유품은... 전부 폐기처분이네. 아버지가 보증인이고... 지방에 계시는구나.

재호 선입금하셨어요. 작업 끝나도 연락하지 말래요.

팀장, 늘 있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책장에 놓인 모형 전투 비행기들에 시선 가고.

기동(E) 이걸요? 이걸 챙겨야 되지 않나...?

기동이 옷장에 걸린 공군사관학교 생도 예복을 꺼내 보인다.

덕만 공사 생도였는데, 손 다쳐서 졸업해도 파일럿 못 된대요... 그래서 자퇴하고 다시 대입 준비하다...(울컥) 많이 힘들었나봐요...

기동 (감탄하며) 진짤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덕만 동네 아줌씨들이 모르는게 어딴냐?!

재호, 팀장, 생도 예복을 애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팀장 몇 살이지?
재호 스물하나요.
팀장 (썩썩한 표정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
성철 나보다 어리네...(하며 예복을 받아 상자에 담고)

기동, 다른 짐을 치우면서도 치울 때마다 ‘이건요?’ ‘이거 버립니까?’ 묻자

덕만 (보다 못해) 야! 다 폐기라니까 뭘 자꾸 물어! 그냥 다 버려!

단출한 사관생도의 방.

침대 옆에 나뒹구는 열댓 개의 빈 소주병과 담배꽂초가 수북하게 쌓인 재떨이.

재호, 방안 구석구석 시선을 옮기며 하나씩 의미있게 쳐다보다

책상 위에 있는 탁상 달력을 지긋이 보더니 한 장을 넘기는.

그 위로,

재호(N) 외로움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독사 하는 사람들의 방은 너무나... 닳아 있다. 단출한 세간에... 가
는 길에 용기가 되어줬을 알코올과 니코틴... 그리고 무엇보다... 날
짜가 지나버린 달력...

S#4. 고깃집(낮)

불판 위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이른 시간이라 텅빈 가게에 손님은 ‘소풍 가는 날’ 팀 뿐이다.

종업원 (커다란 비닐봉투 건네며) 옷 여기 담으세요. 냄새 배니까.
덕만 아니요. 저희 속속들이 냄새가 좀 배야 돼요.(양팔로 연기를 몸쪽으
로 쓸어 담는)

종업원 (의아하다는 듯 가져온 비닐을 가지고 가고)

기동,성철 나도. 나도.(덕만의 제스처 따라하고)

팀장 다 익었다. 많이들 먹어.

일동 네. 잘 먹겠습니다.

덕만 (먹으며) 세상에 이런 알바 없다. 월급 많아, 일 끝나면 고기 먹여줘.
잘하란 소리도 안 해... 그니까 도망만 가지 말고, 둘이서 용수형 한
명 뭇만 해라.

기동 그분은 왜 그만두셨습니까?

재호 담달에 결혼하시거든.

기동 ?

성철 (고기 먹으며) 이런 일 좋아할 여자가 어딴냐?!

기동 진짜 그래서 관둔 겁니까?

팀장 (끄덕이고)

성철 여기 이름이 넘 오글거려요. ‘소풍 가는 날’이 뭐예요.

팀장 외롭게 가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라고...

덕만 거기선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하는 거지...

성철 ... 근데 이 사업. 틈새시장으론 대박인 거 같아요.

재호 (보고)?

성철 신문에 보니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만 오천 명이 넘는데요. 그러
니까 대충 37분마다 한 명씩 죽는 거고. 거기다 1인 가구가 588만 가
구라니까... 혼자 살면... 그만큼 고독사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암튼,

유품정리 업체 이거 완전 대박 아이템이에요.

- 일동** (병찐 표정으로 보고)
- 덕만** (성철의 뒷통수 살짝 한 대 치고)
- 성철** 맞잖아요.
- 팀장** (피식. 실소)

S#5. 재호 아파트(5층짜리) 앞(이른 저녁)

집으로 걸어오는 재호
아파트에서 나오는 은지(8살)와 은지모. 은지, 재호 발견하고 반가워 뛰어온다.

- 은지** 삼촌!!
- 재호** 은지야.
- 은지** 삼촌, 우리 마트 가요. 아빠 생일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살 거예요.
- 은지모** 생일이 아니라 제사.
- 은지** 아 맞다! 제사.
- 은지모** 일찍 퇴근하시네요.
- 재호** 네... 내일...이죠?
- 은지모** (애써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은지야, 삼촌 들어가 쉬어야 하니깐 얼른 인사하고.
- 은지** 삼촌 파이파이.
- 재호** 어. 은지 잘 갔다와.

은지, 은지모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재호.

S#6. 재호의 집(이른 저녁)

찬장에 덩그러니 하나만 놓인 머그컵을 꺼내, 물을 마시고,
고독사 현장과 별 다를바 없는 소박한 자신의 거실을 쳐다본다.
그러다 문득 시선 가는 식탁 한 칸에 아무렇게나 넘어져 있는 탁상 달력.
재호, 달력을 바로 세워 한 장을 넘긴다.

S#7. 사무실(아침)

재호, 약품, 장비 등 정비하며 기동, 성철에게 설명하고 있는

- 덕만** (들어오며) 좋은 아침.
 - 기동,성철** 오셨어요?
 - 덕만** 열심히 배워. 약품들 다 독하니깐 잘못 쓰면 큰일나.
- 안쪽에 있던 팀장, ‘다들 왔나?’ 하며, 사무실 한 칸에 있는 작은 제단으로 이동
해 향로에 향을 꽂기 시작한다.
익숙하게 팀원들 모두 팀장 뒤로 모여들고
- 덕만** (장부를 보며) O월 O일. 천안에 장말숙 할머니... 서울에 김영수 학생... 그리고...(하는데)
- 재호, 향로에 향을 꽂는다.
팀장과 덕만, 누구를 위한 향인지 알겠고

덕만(E) 서울에... 박재상 씨...
팀장, 제단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잠시 묵념. 팀원들 모두 눈을 감고 묵념하는

세탁소(E) 식구가 늘었네요.

보면, 세탁소 아저씨(50대)
기동, 성철 '안녕하세요' 꾸벅 인사하고

세탁소 젊은 친구들이네.(재호에게 세탁한 유니폼 건네며) 여기. 이번 건 냄
새가 잘 안 빠지던데? 세 번이나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재호 고맙습니다.

덕만 (세탁가방 건네며) 별의별 손님이 다 있죠? 저희 같은 사람도 있고.

세탁소 여긴 냄새가 지독해서 그렇지 양반이야. 얼룩 안 지워졌다고 트집 잡
는 사람. 말기지도 않은 옷 내노라고 떡살 잡는 사람.(고개를 절레절
레) 사람 상대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 그래도, 수고한다고 반찬 챙겨
주는 할머니도 계시고. 그 맛에 또 할 만하지.

덕만 지랄 맞은 손님 많아도 장사만 잘 되면 좋죠. 저희 같은 직업이야 잘
된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세탁소 (웃으며) 그건 그러네. 나야 세탁소 자리 잡았겠다. 우리 아들 말만 잘
들으면 걱정이 없지.

덕만 늦둥이. 중학교 다닌다는...

세탁소 (고개를 절레절레) 사춘기야. 아주 아슬아슬해.(하는데 핸드폰 울리
고. 받는) 네... 제가 문흥석인데요... 경찰서요?!(재호, 덕만 보고) 우
리 아들 사고 쳤나 보네.(입 모양으로 갈게 하고 통화하며 서둘러 나
가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저씨, 굳은 표정으로 통화 중이고
일등,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럽게 보는

팀장(E) (통화중)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직원들 보며 집중
시키는) 자자. 우리 동네네. 시장 끝에 있는 임대아파트.

덕만 뭔가요?

팀장 목욕탕에서 나오다 미끄러지셨나 봐. 독거노인이라 그대로 방치되어서
사망.

재호 얼마나 됐대요?

팀장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

덕만 (표정 일그러지고) 으으... 한 달?!

팀장 지금 경찰이 현장 검증 중이라니까, 이따 3시쯤 와서 견적 내달래.

덕만 (한숨 쉬고는 알바생들 보고 나긋나긋) 니들 첫경험이 언제니?

기동 네?!

덕만 뭘 보든, 무슨 뻘썩 말든 오늘이 생애 첫 경험이 될 거다.

기동,성철 (두렵고 긴장한 표정)

S#8. 공군 사관생도 집(낮)

사람이 살았던 온기가 사라진 텅 빈 거실.

재호,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 중.

아줌마(E) 저기요.

보면, 열린 현관문 앞에 심기 불편한 주인 아줌마 서 있고

재호 들어오셔서 확인하세요.
아줌마 (괜히 버럭)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요! 그쪽이나 빨리 나와요.

S#9. 공군 사관생도 다세대 앞(낮)

다세대에서 나오는 재호와 주인 아줌마.

아줌마 냄새 안 나는거 확실해요?
재호 네.
아줌마 (짜증) 별레 같은 거 없죠?
재호 그럼요.
아줌마 (망설이는 듯하더니) 저기...
재호 ?
아줌마 ... 곳 같은 건 안 해주나?
재호 저흰 유품정리 업체라...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줌마 귀신 나오면?! 그쪽이 책임지나?!!
재호 (난감하다) ...
아줌마 (한숨 쉬고) 에휴. 죽을 거면 어디 산에 가서 죽든가 하지 남의 집에 서(신경질을 내다가 귀신이 들을까 걱정도 돼 누그러지며) 아니... 오 죽 답답하면 목을 뺏겠어... 편히 가지 못한 사람은 저승도 못 간다는 데... 여기 늘어붙어 살면 어떡하냐고.
재호 ...
아줌마 (허공 보고) 학생... 제발 좋은 데 가라고... 여기서 좋은 일도 없었는데(휘이 휘이 손짓하며) 미련 갖지 말고 좋은 데 가...
재호 여기... (빌라 열쇠를 건네는데 열쇠고리에 작은 모형 비행기가 달려

있다.)
아줌마 (모형 비행기 보며) 아유. 왜 그거까지 쥐. 열쇠만 쥐.

재호, 열쇠고리에서 열쇠 분리해 주자
주인 아줌마 만지기 싫어 핸드백을 열어 보이며 그 안에 넣으라는 제스처
재호, 열쇠를 주인 아줌마 핸드백 속에 넣어드리고

아줌마 (슬쩍)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건 못 걸지?
재호 네?
아줌마 하기야 지 자식 죽은 줄도 몰랐는데 무슨 돈을 주겠어. 그래도 맨날 이런 일 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재호 죄송합니다.
아줌마 (하소연하듯) 지독하다 생각하지 마요. 죽은 사람이 안타깝나? 산 사람이 불쌍하지. 늙어서 연금처럼 집세 한번 받아볼라고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서 장만했는데... 온 동네 소문 다 나서 어디 방이 나가겠어?! 어휴... 산 사람이 죄인이지...
재호 (아줌마 입장도 이해가 되는) ...

S#10. 탑차 안(낮)

재호 (운전하며 스피키프으로) 이제 다 왔어. 장비 챙겨서 나와.
재호, 차창 너머로 사무실 보이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 의아하다.

S#11. 사무실(낮)

기동, 성철,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다.

재호(E) 안 나오고 뭐해?
기동 이것 좀 보십쇼.
재호 (들어오며) 뭔데?
기동 우리, 예약도 받으니까?
재호 예약?(하며 모니터 앞에 앉는)

인서트.
 게시판에, '유품정리 예약하고 싶습니다. 예약 방법, 입금 계좌번호를 답글로 부탁드립니다' 써 있는.
 재호, 이리저리 클릭해보자

성철 정보 없어요. 비회원으로 글만 남겼어요.

재호,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이내 타이핑 시작하고
 모니터에 써지는 글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기동(E) 거 보십쇼. 예약 안 받지 않습니까.
성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재호 빨리 장비나 챙겨.

S#12. 은행 / 직원 휴게실(낮)

핸드폰 화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를 보고 있는 민주, 실망하는 표정인데 이때 문자 도착음과 함께, 핸드폰 화면에 '오민주 고객님 OO 캐피탈. 대출금 이자 장기 연체 중입니다. O월 O일까지 미납시 추심 진행됩니다.'를 보자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뀌고.
 다른 직원들 들어오자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하는 민주.

여직원1 (나가는 민주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알지? 월급 차압당하고 있대.
여직원2 (호들갑스럽게) 어머머. 왜?
여직원1 몰라.(아무말이나 툭) 도박하나?
여직원2 설마.
여직원1 사채 같은 거 썼겠지. 차압 뭐 아무나 당해?
여직원3 아버지 빚이라는 거 같던데...
여직원2 (팩트 관심 없고) 김대린? 다 아는 거야?
여직원1 알긴 뭘 알아. 그것 때문에 헤어졌대.

S#13. 은행 / 객장(낮)

자리로 돌아가다 김대리(30대초)와 지나치는 민주, 뭔가 말하려는데 차갑게 지나쳐 가는 김대리.
 민주, 김대리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핸드폰 꼭 쥐는.

S#14. 임대 아파트 앞(낮)

탑차에서 장비 내리는 재호, 기동, 성철.
아파트 입구에 팀장, 구청 직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기동과 성철, 장비 들고 들어가고 재호, 팀장 옆으로

팀장 왔어? 구청 사회복지과 오계장님.
재호 (목례) 안녕하세요.
오계장 잘 부탁드립니다. 발견이 늦어서 내부가 엉망이네요.
재호 네.(팀장이 들고 있던 자료 건네주면 본다) 할머니 가족은...?
오계장 아드님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절연하셨데요... 경찰서에서도 연락드리고 저희도 연락드렸는데, 욕만 엄청 먹었습니다. 시신도 수거 안 하신다고 해서, 일단 저희 쪽에서 방법 찾아보고 있습니다.
재호 (자주 있는 일이라 고개 끄덕이고) 그럼 유품은... 전부 폐기 처분하고 소각하면 되겠네요.
오계장 유품이랄 것도 없어요. 독거노인에 기초생활 수급자라...
재호 알겠습니다.
오계장 얼마나 걸릴까요?
팀장 시취가...
오계장 ?
팀장 아, 돌아가신 분들한테 나는 냄새를 시취라고 하는데, 집안에 전부 배어서, 벽지랑 장판이랑 다 뜯어서 소독 작업해야 돼요. 빨라도... 냄새 빠지려면 일주일엔 걸리겠는데요.
오계장 서둘러 주세요. 다음 입주하실 분도 기다리고 계시고...
팀장 알겠습니다.(재호 보고) 구더기 생겼더라. 일단 뿌레 먼저 시작해.
재호 네.

S#15. 할머니네 복도(낮)

할머니네 집에서 뛰어나오는 기동, 성철. 일반 마스크를 벗고 헛구역질하고

재호 (장비 들고 걸어오며) 그걸로 안 돼. 방독마스크 써.

덕만, 반도체를 방불케 하는 복장으로 나와, 저항하는 기동, 성철을 끌고 들어간다.

S#16. 할머니네 거실(낮)

현관으로 들어오는 재호, 시취를 참기 힘들지만, 입구에서 묵념하고 예를 갖추 후, 마스크도 없이 들어온다.

S#17. 할머니 방(낮)

단출한 살림살이. 재호, 둘러보다 화장대에 있는 액자 보는데,
액자 속에는 두어살 아들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 할머니의 낡은 흑백 사진.

S#18. 세탁소(밤)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있는 아저씨.
재호 들어오자

세탁소 조금만 기다려. 와이셔츠만 다리면 돼.
재호 천천히 하세요.(넓은 세탁소를 둘러보고) 오래되셨죠?
세탁소 여긴 오래됐지. 내가 맡아 한 건 이제 3년째야.
재호 그러셨구나.
세탁소 스무 번 이사 끝에 정착했어.
재호 그래요?
세탁소 사는 게 힘들어서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래도 우리 아들 중학교 갈 때쯤 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탁일 배웠지. 자. 다 됐다.(드라이크리닝 한 검은 양복과 와이셔츠 주며) 어디 초상집 가 나 봐?
재호 (빙긋. 미소로 대답 대신하는) ...

S#19. 재호네 아파트(밤)

전경으로 보이는 재호네 아파트. 201호 문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재호 나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복도 걸어가고.

점프.

301호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재호.

S#20. 은지네 집 앞(밤)

301호 앞에 선 재호, 킁킁거리며 몸 냄새 맡더니 안심한 듯 벨 누른다.

S#21. 은지네 집(밤)

조출하게 차려진 제사상. 은지부의 제사상이다.

그 앞에 선 재호와 은지, 은지모.

은지모 (재호 보고) 절... 하실 건가요? 안 하셔도 되는데...

재호, 다가가 절을 하고

은지를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앉게 하고 술잔을 받게 한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든 술잔에 가득 따라지는 술.

재호, 은지 손을 잡고, 향 앞에서 술잔을 세 번 빙빙 돌린다.

그러고는 은지에게 다시 절을 하라고 시킨다.

은지 절하는 모습을 보는 은지모 눈물이 흐르자 얼른 닦고 은지를 지켜본다.

재호 잘하네.

은지 (뿌듯한 마음에 환한 미소 지으며 엄마 보고)

엄마 응... 잘했어.

시간 경과

제사 음식, 비빔밥 먹는 재호, 은지모, 은지.

은지 아빠가 삼촌 구해줘서 온 거예요?

은지모 (흠칫)

재호 어. 아빠가 삼촌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러 온 거야.

은지 힘든 사람 구해주는 건 슈퍼맨인데...

재호 맞아... 은지 아빤 슈퍼맨이야.

은지 삼촌. 또 해줘요. 아빠가 삼촌 구해준 얘기.
은지모 삼촌 귀찮게 하지 마.
재호 이리 와봐.(은지를 무릎에 앉히고) 예전에 삼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은지 아빠가(은지 팔을 잡아 슈퍼맨처럼 팔을 쭉 뻗으며) 째째- 나타나서 구해주셨어.
은지 (흥미진진하다) 슈퍼맨 옷 입고?
재호 (피식) 어...(그때의 기억으로 젖어드는)

S#22. 회상. 재호의 거실(낮)

S#1의 상황.
조명등 위에 걸쳐 있던 끈을 내리니, 동그란 올가미가 재호 앞에 툭 떨어지고
재호, 지그시 눈을 감는다.
의자 위에 가지런한 재호의 맨발.
긴장 때문인지 조금씩 꿈지락거리고 천천히 눈을 뜨는 재호.
이내 결심한 듯 얼굴을 올가미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는데 그 위로,

재호(E) 삼촌이 정말... 죽을 뻔했거든...

(E) 초인종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S#23. 회상. 재호 집 앞(낮)

현관문 열리고 재호의 얼굴이 드러나자

경찰1 강서경찰서에서 왔습니다. 301호 사망 사건,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호 (놀라서 문을 조금 더 열고) 사망 사건이요?!
경찰1 네. 혹시, 최근에 301호 박재상 씨 본 적이 있습니까?
재호 (아득해지는 느낌) ... 최근에... 아니요...
경찰1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재호 아니요... 강돈가요?
경찰1 아닙니다.
경찰2 (다시 질문) 가장 최근에,(하는데)
재호 그럼 무슨 일 때문에...
경찰2 일단, 심장마비로 보고 있던 한데... 가장 최근에 보신 게,(하는데)
재호 (충격으로 질문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언제... 돌아가신 거죠?
경찰2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망하신 지는 한 열흘 정도 된 거 같고...
재호 열흘이요?!
경찰2 기러기야빠라 발견이 늦었어요... 고독사 하신 거죠.(경찰관끼리 소
득 없겠다는 시선 주고받고) 아무튼, 협조 감사합니다.

재호, 한 대 맞은 듯 멍한 느낌 들고.

S#24. 회상. 재호네 거실(낮)

재호의 시선에, 덩그러니 놓인 의자, 올가미가 들어온다.
뭔가 맥이 끊긴 듯, 괜한 부아가 치밀어 올가미 아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린다.
그 위로,

재호(N) 정말... 한발만 늦었어도... 삼촌은 살아 있지 못했을 거야...

S#25. 회상. 아파트 3층 복도(낮)

다음 날.

301호 대문 열려 있고 복도에는 이삿짐이 나와 있다.

재호, 뭔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면, 현관문 너머 거실에 앉아 울고 있는 덕만 보이고. 마침 짐을 들고 나오는 팀장과 마주치자, 지레

재호 아... 아랫집에서 왔습니다.

팀장 그러세요?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재호 아...아닙니다.(집안에서 울고 있는 덕만 보며) 가족...분...이신가 보죠?

팀장 (빙긔) 아뇨. 저희 직원입니다.

재호 ?

S#26. 회상. 재호네 집 앞 복도(낮)

재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단지 앞에 세워진 이삿짐센터 탐차. 지붕에 ‘소풍 가는 날’이 크게 인쇄돼 있고.

동네사람 몇몇 무리지어 속닥거리고.

이삿짐 마무리 하고, 탐차 출발한다.

S#27. 거리 일각(낮)

현재, S#26의 탐차 달리고

성철(E) 진짜요?

S#28. 탐차 안(낮)

운전하는 성철, 보조석에 재호.

성철 그냥 막무가내로 부탁하신 거예요?

재호 어. 윗집에 유품 정리하러 왔길래... 그냥...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성철 대박 사건. 그렇다고 그냥 취직시켜줘요?

재호 (피식) 다음 날 사무실로 오라 그러더니 그 길로 천안에 데려가더라. 어제 공양드렸잖아. 장말숙 할머니.

성철 대-박. 그 아저씨 살신성인이네요. 자기는 죽고 선배는 살리고.

재호 (쑥스러게 고개 끄덕이고) 그렇지...

성철 근데 왜 그래요?

재호 뭐가?

성철 그거요 게시판. 제가 답글 달았어요. 예약 문의하라고.

재호 !(보고)

성철 죽을 사람은 죽어요. 우리가 예약 안 받는다고 그 사람 안 죽을거 같아요? 산부인과 없다고 애 안 낳는 거 아니잖아요.

재호 그건 자살 방조야. 범죄라고.

성철 혼자 비참하게 죽는 거보단 낫잖아요.(E) 예약은 전화상담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진짜 죽을 맘이면 전화 오겠죠. 아님 말구.

재호, 성철이 이야기하는 동안 핸드폰으로 게시판을 확인하는데

<예약문의는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써 있고, 확인 1이라는 숫자가 보인다.

성철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뭐... 죽으면 우리 고객님 되는 거고, 살리면 좋은 일 하는 거고.

재호, 생각에 잠긴 듯 창밖 보는데 핸드폰 울리고

재호 (전화 받고) 어.(사이) 처분해. 다 폐기 처분이야.(사이) 사진? 사진도 폐기 처분.

성철 (힐끗 보며) 이기둥이네.

재호 배넷저고리? 그것도 처분해야지. 다 소각할거야.

성철 (재호 핸드폰 쪽에 대고) 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버리라니까!

재호, 그런 성철을 바라보는 데서

S#29. 할머니 집 / 거실(낮)

들어오는 재호와 성철.

재호 (쿵쿵거리며) 냄새 많이 빠졌네.

기둥 (재호에게 다가와) 저겁니다.

재호, 기둥이 가리킨 곳 보니, 열린 상자 사이로 보이는 할머니 유품들

기둥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성철 (옆에 와 보더니) 버리겠잖아.

재호, 유품 보면 두 살배기 아들과 찍은 할머니 사진(S#17), 배넷저고리 등등...

성철(E) 제가 버릴게요.

재호 아냐. 내가 정리할게.

덕만 (방에서 나오면서) 할머니 수집벽이 있으셨나본데. 엄청나다.

재호 ?

S#30. 할머니네 복도(낮)

세탁소 아저씨. 세탁물 배달 중이다.

문 열린 할머니네 집 앞에서 의아한 듯 멈춰 서는데

이때, 나오는 재호와 덕만, 양손에 세탁소 비닐과 옷걸이가 한가득이다.

세탁소 ?

재호 아저씨.

세탁소 (현관문 호수 다시 보며) 여기... 할머니 사시는 데 아닌가?

덕만 돌아가셨어요.

세탁소 (놀라며) 뭐?!

덕만 아저씨네 단골이었나봐요.(세탁소 비닐과 옷걸이를 보이며) 아직 방에 이만큼 더 있어요.

세탁소 (돌아가셨단 소리에 정신 못 차리다가) 아... 어... 우리 세탁소에 늘 맡기셨어... 반찬도 주시고 그러셨는데...(얼빠진 채 손 내밀며) 쥐.

재호 재활용하세요?

세탁소 아니... 한 폰이라도 절약하라고 매번 돌려주셨거든. 댘다고 했더니... 쌓아두셨나보네.

세탁소 아저씨,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세탁물(핑크색 카디건) 하나를 꺼내들고

세탁소 이거... 어떡하지?

재호 할머니 거예요?

세탁소 지난달에 맡기셨는데, 계속 안 계시길래 못 드렸네...

덕만 처분하기 곤란하시면 저희 주세요. 근데... 돈을 못 받아서 어떡해요.

세탁소 (당황스럽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돈은 무슨...

S#31. 할머니네 아파트 앞(낮)

장비, 청소용품 등 탑차에 싣고 있는 직원들.

재호, 상자(할머니 유품) 싣는데 열린 틈으로 낫은 배냇저고리가 보인다.

재호, 배냇저고리를 꺼내 들고 보면

팀장 (짐 실으며) 괜한 짓 하지마. 남의 가정사 그 속까지 어떻게 알겠어.

재호 ... 네...(생각난) 아, 저기... 사무실 전화. 당분간 제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게 넘겨놓을게요.

팀장 왜?

재호 그냥... 줘...

팀장 그래.

S#32. 고깃집(저녁)

무방비로 의자 위에 쌓여 있는 소풍 가는 날 직원들 옷.

지글지글 고기 구워 먹고 있는 직원들.

재호, 앞에 놓아둔 핸드폰에 자꾸 시선 주는

덕만 뭐야? 기다리는 전화 있어요?

재호 어? 아니...

성철 (힐끔 재호 보고)

기동 드디어 여자친구 생긴 겁니까?

재호 드디어는 뭐냐?

기동 한 10년은 없었을 거 같은 얼굴입니다.

일동 (웃음)

팀장 (자기 몸을 킁킁거리며 냄새 맡고) 찝질방 갈 걸 그랬나?

성철 5인분만 더 먹으면 돼지 냄새로 짝 스밀 거 같은데요.

팀장 그래... 다들 수고했으니까 더 시켜.

성철 (주문하고)

팀장 돈은 의뢰인들한테 받지만, 우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잊지 말고...

일동 (잠시 숙연해지는)

팀장 자자. 다들 마시자(하는데)

울리는 재호의 핸드폰. 재호, '잠시만요' 하고는 재빨리 핸드폰 들고 나가고

S#33. 고깃집 앞(저녁)

모퉁이 쪽에서 한쪽 귀를 막고,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인 재호

재호 예약은...(사이)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저기... 금액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끓을까 봐 얼른) 아뇨 아뇨... 일단, 접수해드릴게요. 접수해드릴 테니까...(통화 이어가고)

멀리서 보이는 재호. 몸을 동그랗게 말아, 귀를 틀어막고 통화 중이다.

S#34. 거리 일각 / 공중전화 박스(낮)

재호, 공중전화 박스 위에 써 있는 고유번호와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맞춰보고는 다른 듯 이동하고, 다른 공중전화 박스에서 고유번호를 확인해보고는 다시 이동하고. 또 다른 공중전화 박스를 바라보고.

재호 핸드폰으로 전화 걸면 공중전화 벨 울리고.

재호, 공중전화 수화기 들었다 놓는

공중전화를 기점으로 동네를 두리번거리다 재호, 무작정 걷기 시작한다.

조금 걷다 보니, 골목길이 나오고 그 안쪽에는 다세대, 원룸이 밀집돼 있다.

재호, 막연하게 다세대, 원룸촌을 바라보는. 그 위로,

S#35. 놀이터(초저녁)

삼삼오오 무리지어 놀고 있는 아이들.

아빠한테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우는 은지 또래의 아이.

은지, 혼자 그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걸어오는 재호, 은지 발견하고 옆 그네에 슬쩍 앉으며

재호 은지야.

은지 어? 삼촌.

재호 뭐해?

은지 ... 그냥요...

재호 엄마는?

은지 아직 안 왔어요.(시선은 아빠와 인라인 타는 아이에게) 저녁엔 놀이터에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재호 (그제야 둘러보면, 아빠와 나온 아이들이 눈에 띈다) 은진 삼촌이랑 놀면 되지.

은지 (시무룩해서) 아빤 아니잖아요.

재호 (두리번) 그래도 여기선 삼촌이 켈 멋지잖아.

은지 치... 삼촌. 아빠 얘기 해줘요.

재호 음... 무슨 얘길해줄까...

은지 아빠가 삼촌 구해준 얘기.

재호 또?

은지 난 그 얘기가 켈 좋아요. 우리 아빠 진짜 슈퍼맨 같은 사람 맞죠?

재호 그럼. 삼촌이(오버액션 하며) 도와줘요~~!! 살려줘요~~!! 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삼촌을 구해줬어.

은지 (기분 좋아져 초롱초롱 흥미진진하게 듣고)

점프.

사람들 다 빠지고 텅빈 놀이터.

시소 쪽으로 걸어가는 은지, 뒤따라 걷는 재호

은지 근데 삼촌...
재호 어?
은지 ...아니에요.
재호 왜?
은지 시소 탈래요.(앞서가는)

은지, 시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표정이 굳었다.

재호 (가만히 보다가)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싶어?
은지 ...
재호 삼촌이 하나 사줄까?
은지 아니요.
재호 은지야. 말만 해. 삼촌이 뭐든지 다 해줄게.
은지 (어렵게) 삼촌...
재호 ?
은지 근데... 삼촌은... 왜 우리 아빠 안 구해줬어요?
재호 !
은지 아빠가 삼촌 구해줬으니까. 삼촌도 아빠 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재호 !(당황스럽고 미안한) ...

S#36. 재호 집 베란다 + 거실(밤)

베란다에서 보이는 텅빈 놀이터.

재호, 그런 놀이터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고

이때, 거실에서 울리는 재호의 핸드폰.

재호, 핸드폰 쪽으로 시선 주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용수철처럼 튀어 거실로 들어가 핸드폰 받고

재호 (다급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지금 작업 중이라... 죄송하지만,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저기!... 꼭 전화주셔야 돼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나가는

S#37. 커피숍(밤)

손목시계를 보는 재호, 초초해 보인다.

창가에 앉은 재호, 창밖으로 시선 주면, S#34의 공중전화 박스 보이고.

재호, 조금 전 일을 떠올린다.

플래시백. (S#35)

은지(E) 근데... 삼촌은... 왜 우리 아빠 안 구해줬어요?

생각만으로도 괴로운 재호, 다시 창밖을 보는데,

한 여자,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 오민주다.

재호, 긴장한 모습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시선은 공중전화 박스를 향하고 있다.

민주, 공중전화를 걸고
재호의 핸드폰이 울린다.

재호 (핸드폰 받고, 시선은 공중전화 박스. 침착하다) 여보세요.

S#38. 커피숍 + 공중전화 박스(밤)

재호의 커피숍과 민주와 공중전화 박스 분할 화면

민주 아까 전화드렸던...

재호 네.

민주 ...

재호 ... 금액이... 궁금하신 거죠?

민주 네.

재호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시죠?

민주 ... 주거... 형태요? ... 원룸이에요...

재호 크기가...

민주 한... 일곱 평 정도?

재호 네... 사실 저희가 예약을 받진 않는데...(끊을까 봐) 저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자살방조죄라는 것도 있고...

민주 ...

재호 저희가 예약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민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재호 ... 게시판 글은 일단 삭제했습니다.

민주 ...

재호 저기... 어려우시겠지만... 대리인을 세워주시면 처리해드릴수 있을 거 같은데...

민주 ...

재호 ... 지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심부름센터 같은 데 부탁하셔도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리인만 보내주시면, 번거롭지 않게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민주 ... 네... 생각해볼게요.

재호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연락주세요.

민주 네...

재호, 전화 끊고 시선은 여전히 공중전화 박스 민주를 주시하며, 안도인지 불안인지 모를 감정에 크게 한숨 쉬고

S#39. 거리 일각 / 전화박스(밤)

민주, 수화기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S#40. 거리 일각(밤)

걸어가는 민주와 뒷모습.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재호.

S#41. 민주의 원룸 건물 앞 + 원룸 건물 입구(밤)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민주.

재호, 민주의 원룸 건물을 바라보는데

민주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계단참의 센서등 켜지고

재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시선 떼지 않고

센서등, 3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켜지지 않는다.

컴컴하던 3층의 한 방에 불이 켜진다.

재호, 손으로 어림잡아 위치 확인하고 원룸 건물로 들어간다.

원룸 건물 입구에 있는 우편함. 302호에서 멈춘 손.

텅빈 우편함에 이름 '오민주'

재호, 민주의 우편함을 바라보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 들리자 멈춰서서 찾하는

점프.

재호,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민주, 김대리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바라보고 있다.

담담하고 차가운 김대리와 눈도 못 마주치고 서 있는 민주.

김대리 (차분하게) 이걸 그런 문제가 아냐.

민주 ...

김대리 (쇼핑백을 민주에게 들려주고) 아버님 빛까지 떠안고 시작할 순 없어... 미안해...(하고 돌아서 가는)

민주, 덩그러니 쇼핑백을 가슴에 안고 고개 숙인 채고, 김대리는 차갑게 멀어져가고

그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재호

재호, 그 상황을 보는 게 힘들어 고개를 떨구는

S#42. 회상. 재호 아파트 앞(낮)

S#41에 이어서

재호, 급히 뛰어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고개 들어보면

화면 세피아로 변하며 회상 장면 펼쳐지는

현재의 재호, 아파트에서 뛰어오는 과거의 재호를 보고 있다.

진한 핑크색 쇼핑백(S#1)을 들고 서 있는 젊은 여자(30대 초반)에게 급히 다가가는 재호, 미안함에 제대로 눈도 못 맞추고 인사도 못한 채 그저 마주 서는

여자 (차갑고 단호하게) 제발 우리 가족한테 신경 꺼요! 애 아빠가 보증서 준 그 돈... 갚을 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마요!

재호 (고개 숙인 채 괴롭고) ...

여자 (거칠게 쇼핑백을 재호에게 던지듯 안겨버리며) 이런 거 보내지 말라구요!! 당신이 사준 옷 같은 거... 죽었다 깨나도 우리 애한테 안 입혀. 당신이 사주는 건 연필 한 자루, 사탕 하나도 필요없다고!!...(감정 격해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재호 (쇼핑백 안은 채 굳어 있는) ...

여자 (감정 폭발쳐 눈물 흐르고 사정하듯)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제발... 제발... 우리 집 다시 돌려줘요...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줘요...

재호 (괴롭다) ...

시간 경과.

S#43 할머니집 베란다 높이에서 보이는 시선으로, 쇼핑백을 안아 들고 고개 숙인 채 굳은 재호와 차갑게 멀어져가는 여자의 모습이 마치, S#41 민주와 김대리의 모습처럼 보인다.

재호(N) 죽음은... 홀로 남겨졌을 때 찾아온다.

기동(E) 선배님.

S#43. 할머니 집(낮)

S#42에 이어서
베란다에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던 재호, 그 소리에 현실로 돌아오는
도배, 장판 다 뜯겨 황폐해진 할머니의 집.

기동 (벽 가리키며) 도배 언제 시작합니까?

재호 (둘러보며) 소독 다 끝났나?

아직 구석구석 소독 중인 기동과 성철.

성철 이게 마지막이에요.

기동 화장실은 바르산 한통 더 뿌려야 될 거 같습니다.

재호 그래? 내가 가져올게.

S#44. 할머니네 아파트 주차장(낮)

재호, 탑차에서 약품 찾느라 뒤적이다 할머니 유품이 담긴 박스가 눈에 띄고.
재호, 배넷저고리와 어릴 적 아들과 찍은 할머니 사진을 꺼내 물끄러미 보는데,
그 위로, S#32

팀장(E) 돈은 의뢰인들한테 받지만...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잊지 말고...

재호, 그 말을 떠올리고 용기 내서 의뢰서를 보며 전화를 건다.

재호 여보세요? 저기... 임옥순 씨 아드님 되십니까?

아들(F) 아닙니다.

재호 저기!! 임옥순 씨 유품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

아들(F) 그 사람이랑 상관없다는데 왜 자꾸 전할해요?!!

재호 (가까이서 소리 들리자 소리나는 곳 바라보고)!

아들 유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대답 없자 목소리 커지며) 이봐요!!! 다 버리라니까 왜이렇게 말귀를 못알아들어요!!!

아들.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가 전화기에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들려온다.

재호.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 나는 곳으로 시선 주면 배달 자전거를 잠시 세우고 통화 중인 세탁소 아저씨.

아저씨. 상대방의 이야기가 멈추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 시선 느끼고 보면, 통화 중인 재호.

세탁소 아저씨. 놀라서 조심스럽게 “여보세요” 하면
재호. 핸드폰에 대고 “아저씨...”
세탁소 아저씨. 핸드폰을 들었던 팔이 툭 떨어지며 재호와 마주보는 데서

S#45. 사무실 앞 (아침)

다음 날.
사무실 문에 세탁소 아저씨가 걸어두고 간 직원 유니폼과 따로 담아둔 사관생
도의 비행기 열쇠고리.
재호, 물끄러미 바라보다 유니폼, 열쇠고리 챙겨 사무실로 들어가

S#46. 사무실(아침)

재호 뒤따라 들어온 덕만, 세탁된 유니폼을 보고 “아저씨 벌써 왔다 가셨네. 부
지런도 하셔라” 하고

시간 경과.
항 1개 피우고 묵념하는 직원들. 묵념 마치고 모여 서는

팀장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덕만 임대아파트 할머니댁은 오계장님이 확인해주시면, 바로 도배 장판
작업 들어가요. 오전에 마무리 지을게요.
기동 소각장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팀장 그래. 오늘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성철 아이러니하네요. 장사가 잘돼야 돈을 버는데... 장사가...잘되라고 할
수도 없고 영업을 펼 수도 없고...
팀장 영업을 왜 못 뛰어?
성철 네?!
팀장 경찰서에 가서 전단이나 돌려.
성철 사건 현장도 취급해요 우리?
팀장 그럼. 찬밥 더운밥 가릴 줄 알았나?
성철 으으(무섭다는 듯 몸을 떨고)
재호 전...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팀장 그래. 자자... 얼른 움직여. 성철이 넌 전단지 챙기고.

S#47. 빌라 단지(낮)

빌라 단지 쪽을 막연하게 보는 재호.
그중 한 빌라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멈춰 서더니
입구 쪽으로 들어가 반지하 쪽을 내려다본다.
다시 나와, 밖에서 보이는 지하방 창을 가만히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고는 뒤
돌아서 가는.

S#48. 거리 일각 / 편의점(낮)

걸어오는 재호, 무언가 발견하고 놀라 멈춰 서 보면.
길 건너 편의점 앞. 트럭에서 짐 내리고 있는 빗보증 서준 친구.
무거운 박스, 빵, 도시락 상자 등을 묵묵히 옮기고 있다.

재호, 그 모습을 아프게 지켜보고 있는
편의점 안 / 친구, 도시락 칸에서 시간 지난 도시락을 꺼내고 새로 도착한 도시
락을 진열하면서 폐기할 도시락 중 두개를 꺼내 따로 놓는다.

시간 경과.

길 건너에서 편의점을 지켜보는 재호.
꽤 오랜 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편의점을 바라보고 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S#42 친구의 부인, 유모차를 끌고 들어간다.
편의점 창 너머 계산대로 가는 친구의 부인과 맞이하는 친구의 모습 보이고
친구, 한 칸에 따로 두었던 시간 지난 도시락 두 개를 봉투에 담아 건네고
유모차에 있는 아이(2살)에게 다가와 미소 띠는 친구의 모습도 보인다.
부인이 도시락을 받아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친구의 시선
재호,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 화난 사람처럼 획 뒤돌아 빠르게 걸어
간다.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치지만, 사과도 없이 도망치듯 빠르게 걸어간다.

S#49. 카페(낮)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생각에 잠긴 재호
핸드폰 진동 소리에 정신 차리고 “여보세요” 하더니 몸을 일으켜 두리번거리
면, 입구 쪽에서 통화를 하며 두리번거리는 여자, 민주다.
재호, 작은 모션으로 손 들어 아는 체하면,
민주, 긴장된 표정으로 걸어온다.

시간 경과.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마주 앉은 재호와 민주.

재호 대리인이시니까... 불편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민주 (메모지를 꺼내며) ...적어왔어요. 여쭙 봐야 될 거...
재호 네.
민주 (메모지 보며 읽는) ... 어... 유품정리는... 그다음 날... 그러니까...
재호 (알아차리고) 네. 그 다음 날 말씀이시죠?
민주 네... 오전 중에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경찰에 신고도 하나요?
재호 네.
민주 ... 가족...한테도
재호 경찰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민주 (고개 끄덕이고. 다시 메모지 보며) ... 물건은 전부 폐기하시면 되는
데... 가전제품이랑 그런 건 아직 쓸 만한데... 필요한 사람한테 드릴
순 없나요?
재호 (아프게 보고) ...
민주 죽은 사람이 쓰던 건 싫어하겠죠?
재호 아닙니다. 깨끗한 건 저희 쪽에서 따로 소독해서, 복지관 같은 데 기
증도 하고 그래요.
민주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재호 물품은...
민주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괜히) 전... 대리인이라 잘 몰라서요.
재호 네.
민주 그리고... 비용 말씀인데요...
재호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어떻게 죽을 건지 묻
고 싶은)
민주 (알아듣고 당황하며) ... 아... 그건... 아직 안 정하신 거 같아요.

재호 ...
민주 아마... 20일이나... 그쯤... 부탁...드리신데요...
재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아까 전화번호. 제가 저장 좀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거나 하진 않겠지만...
민주 네.

둘이 마주 보고 어색하게 앉아 있다.

S#50. 세탁소 앞(밤)

걸어가는 재호, 늦은 시간에 세탁소 불이 켜져 있는 게 의아해 보면,
 창 너머로 아저씨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 보이고

S#51. 세탁소(밤)

세탁소 아저씨, 멍하니 앉아 서류 보고 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시선 주면 재호다.

시간 경과.

세탁소 구청에서 받아왔어. 사망증명서랑 화장증명서... 사망신고는 가족이 해야 된대서...

재호 (고개만 끄덕끄덕) ...

세탁소 내가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더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자식 버리고 편

히 살 수가 있어... 벌 받은 거지...

재호 ...

세탁소 얼굴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보고 싶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매일 울었어.

재호 어릴 때 헤어지셨나 봐요.

세탁소 세 살...

재호 할머니... 아저씨 어릴 때 사진이랑 배넛저고리 가지고 계셨어요.

세탁소 (코웃음) 흠. 다 소용없어. 눈앞에 자기 자식 두고도 못 알아보는 엄마가 무슨... 멀리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척에 있었으면서...

재호 ...

세탁소 이 일... 얼마나 했지?

재호 이제 1년 됐어요.

세탁소 외롭게 죽은 사람 보면 불쌍하다 싶지?

재호 그렇죠 뭐...

세탁소 난 하나도 불쌍하다 생각 안 해.

재호 ?

세탁소 그만 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쓸쓸히 죽어갈 땐...

재호 ...

세탁소 남의 속 피땀하게 다 할켜놓고 지 속만 편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노인네 물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

재호 ...

S#52. 재호의 집(밤)

바닥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S#42의 핑크색 쇼핑백.

식탁 위, 펼쳐진 할머니의 유품 배넛저고리, 아들과 찍은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다.
재호는,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

S#53. 주상복합(낮)

‘삐삐삐’ 도어록 여는 소리가 나더니 열리는 현관문.
재호와 팀장, 현관에서 목념하고 예를 갖추고 들어오는.
재호, 습관적으로 쿵쿵 냄새 맡으며 거실로 들어오면, 통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 뷰와 고급스런 내부. 그러나 세간은 단출하다.

팀장 으리뻘쩍하네.
재호 ?(두리번거리며) 현장이 어디예요?
팀장 한강대교.
재호 (긴장 풀리며 피식) 아-
팀장 둘러보고 견적만 내면 돼. 가구량은 전부 처분하고, 통장이랑 귀금속, 고가품만 좀 챙겨달래.
재호 (거실 테이블 쪽으로 가서) 핸드폰도 두고 갔네요.(하며 보면, 저장된 번호는 하나뿐)
팀장 저장 번호가 하나면... 거기겠네.(하며 통화버튼 누르고)
재호 ?

시간 경과.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장면을 먹는 재호와 팀장.

팀장 이제야 이삿집센터 같네. 이사하는 날은 역시 자장면이지.
재호 여기서 매일 시켜드셨나 봐요.
팀장 다행이야. 맛있어.

시간 경과.
가구 등등 보며 견적 내는 팀장
재호, 가족사진, 골프로 받은 상(트로피), 오래된 LP판들 등을 둘러보는 그 위로,

재호(N) 누구나 그랬다... 추억이 될 만한 걸 찾아달라는 사람은 없다.
그저... 돈이 되는 게 있으면 연락달라는 말뿐이다.

S#54. 은지네 집(초저녁)

은지모, 외출할 옷을 챙겨 입으면서도 은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은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은지 괜찮다니까.
은지모 정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은지 어.
은지모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엄마 금방 올거야.
은지 알았다니까.

은지모, 혼자 두기 불안해 한숨 쉬는데 ‘땡땡’ 초인종이 울리고

문 열면, 인라인스케이트 든 재호 서 있다.

S#55. 재호 아파트 앞(초저녁)

재호, 은지 손을 붙잡고 인라인스케이트를 가르쳐주고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툴지만 즐겁게 타는 은지.

S#56. 재호의 집(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은지. 보면, 옷도 얼굴도 땀범벅이다.

재호 땀 많이 흘렸네. 씻어야겠다.

은지, 만세 하며 옷을 벗겨달라는 제스처
재호, 옷을 벗기려다 어려도 여자아이라 머뭇거리지는.
은지, 도와주지 않는 재호가 의아한 듯 혼자 벗으려 하자
재호, “잠깐만 은지야” 하면서 동작을 멈추게 하고

시간 경과.
굳게 닫힌 화장실 문.
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는 재호.
안에서 들리는 은지의 노랫소리, 들떠 있다.

은지(E) 삼촌! 다 씻었어요.

재호 어... 그래... 잘 닦고 나와.

화장실 문 열리고 은지 나오는데 뒤따라 나오는 사람, 민주다.
민주, 재호와 시선 마주치자 살짝 웃어 보이는
재호, 멧쩍어 은지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시선 피하고

재호 죄송해요. 꼬꼬매도 여자애라... 제가 씻기기가 좀 그래서... 감사합
니다.

민주 아니에요.

재호 제가 아는 여자가 없어서...

민주 (빙긋)

시간 경과.
소파에서 잠이 든 은지.
재호와 민주,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민주 은지 아빠가 생명의 은인이세요?

재호 네?

민주 은지가 그러던대요? 자기 아빠 대단하다고. 삼촌도 구해줬다고.

재호 (쓴웃음) ... 그분은... 잘 지내시죠?

민주 네?(당황스러운) 아. 뭐... 아직은...

재호 20일이... 의미있는 날인가 봐요.

민주 (흠칫 당황스러워 눈을 피하고) ...

S#57. 거리 일각(밤)

나란히 걷고 있는 재호와 민주.

민주 들어가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재호 시장 끝나는 데까지만 바래다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 아니에요.

그렇게 잠시 걷는 두 사람.

재호, 민주의 마음을 돌리려 털어놓듯 이야기 꺼내는

재호 저도... 소풍 가는 날 고객 될 뻔했는데... 은지 아빠가 구해주셨어요.

민주 !(놀랍고) ...

재호 그냥...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살아지더라고요.

민주 네...

재호 그분도 아마... 지금이 지나면 또 살아질 텐데...

민주 (말없이 잠시 걷다) ...이제 진짜... 들어가셔도 돼요.

재호 네... 조심히 가세요.

재호, 민주 서로 꾸벅 인사를 하고

민주, 뒤돌아 걸어간다.

재호, 민주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다 점점 멀어지는 모습에 불안한 느

낌 들어

재호 (소리친다) 죽지 마요!!

민주 (멈춰 서는 뒷모습) ...

재호 그냥 살아요!! ... 다- 지나가니까. 그냥 살아봐요!!

민주, 그 소리에 걸음 멈추고.

눈물이 날 것 같아 꼭 참는 모습 위로,

재호(E) 그분한테... 꼭! 전해주세요!

S#58. 할머니네 아파트 앞(밤)

걸어오는 재호.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세탁소 아저씨의 배달 자전거.

재호, 의아한 생각이 들어 아파트 올려다보고

S#59. 할머니네 집(밤)

식탁 쪽에 갓도 없이 덩그러니 켜진 백열등 하나로 밝힌 집.

세탁소 아저씨 거실에 혼자 넋 놓고 서 있다.

재호(E) 아저씨...

아저씨, 재호를 보더니 울컥.

재호 (다가가며 괜히) 조명이 아직이구나.

세탁소 (울먹거리며) 내가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재호 ?! ...

세탁소 매일같이 이 집을 지나다녔는데 몰랐어... 세탁물 갖다준다고 매일 초인종을 눌렀는데...

재호 아저씨...

세탁소 이상하다 생각했어. 갈 데도 없는 노인네가 이렇게 집을 오래 비울 리가 없는데...

재호 ...

세탁소 (등본을 내밀며) 사망신고하면서 어머니 등본을 뺐더니...(감정이 격해지는) 이사를 스무 번이나 다니셨어...

재호 (아저씨, 할머니 등본 받아 비교해보는)!

인서트. 아저씨, 할머니 등본 이사 기록이 똑같은

세탁소 날 따라 스무 번이나 이살 다녔어...(눈물 터지고) 내가 아들인 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막 빨아도 되는 싸구려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옷걸이 하나도 다 돈이라고... 만날 때마다 밥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해줬는데... 내가 몰라본 거야... 내가...

재호 (지켜보는 게 힘들다) ...

세탁소 (가슴을 치며 오열) 내가 살인자야!!!

재호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세탁소 매일 집 앞을 지나갔어!! 내가 문만 두드렸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왜! 숨기만 했냐고!!!!(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우리 엄 만데!!! 내가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고... 내가 죽었어... 내가...(통곡하는)

그렇게 엎드려 우는 세탁소 아저씨.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저 등만 쓸어주며 안타깝게 바라보는 재호. 그 위로,

재호(N) 눈물은... 후회는... 언제나... 한발 늦게 찾아온다...

S#60. 몽타주

현장 / 바쁘게 일하는 재호, 기동, 성철

재호,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자 수북하게 쌓여 있는 로또들

덕만, 아이 방 책상에 앉아 아이의 책, 책상을 쓰다듬다 눈물 터진

소각장 / 활활 타고 있는 소각장. 재호, 유품들 하나씩 소각시키는

공중전화 박스(밤) / 빈 공중전화박스(S#34)를 바라보는 재호

은행 객장 / 아무일 없듯 일하고 있는 민주와 좀 떨어진 곳의 김대리

민주 집 / 민주, 물건들(김대리와 관계된)을 상자에 담고 있는

민주 원룸 앞(밤) / 재호, 불 켜진 민주 집을 올려다보고 있는

깨끗하게 원상 복구된 할머니네 집. 재호, 팀장, 오계장 둘러보고 있다.

사무실 / 팀장, 두툼한 돈봉투를 재호에게 건네는. 재호, 꾸벅 인사하고 봉투를 받고. 팀장, 격려하듯 재호 어깨를 툭툭 쳐준다.

편의점(S#48) / 편의점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 속

이고 서 있는 재호. 친구, 기척 느끼고 보면 재호다. 놀라 나오면, 그제야 친구

얼굴 보고 말없이 돈봉투(팀장에게 받은)를 내미는 재호. 친구 잠시 보더니 받

아드는. 그렇게 둘이 고개 속인 채 마주 서 있는

세탁소 / 아저씨 스티마리미로 다림질하는 한 칸에 액자에 담긴 S#17의 사진

이 놓여 있고. 다림질하는 옷은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배넛저고리다. 다 다리고

나서 걸어두는데 S#30 할머니의 핑크 카디건과 나란하다. 나란히 걸린 두 개의

옷을 안타깝고 사랑스럽게 보는 아저씨.

사무실 / 재호, 일하다가 달려 보면, 20일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재호, 잠시
고민하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으로 문자 쓰는 데서

기동(E) 공양 안 합니까?

S#61. 사무실(아침)

전원 모인 사무실. 한가한 분위기

팀장 (빙긋) 오늘은 없어.

성철 대박.

기동 진짱니까? 길일인가? 오늘 며칠입니까?

성철 20일.

재호, 초초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핸드폰 확인하는데
핸드폰 카톡 화면. 민주에게 보낸 메시지. ‘별일 없으시죠?’ 안읽음 표시.
재호, 다시 문자 보내볼까 주저하며 걱정스런 표정이고

팀장(E) 오늘은 장비 점검하고 쉬엄쉬엄하자.

일동 네.

재호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팀장 그래(하는데 대답도 듣기 전에 이미 재호 밖으로)

일동 (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의아해 보는) ?

S#62. 민주네 원룸 건물 앞(낮)

재호, 핸드폰으로 전화하며 빠른 걸음으로 오는.
상대방 전화받지 않자 끊고 원룸 건물로 뛰어 들어가는

S#63. 민주 현관 앞(낮)

초인종 누르기를 망설이는 손.
재호, 귀를 대문에 대고 소리를 들으려 해보고
재호, 문 틈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본다.
그러다 결심한 듯, 망설임 끝에 초인종을 누르는

S#64. 민주네 원룸 건물 앞(낮)

건물에서 나오는 재호, 건물 입구에 쌓인 박스들이 눈에 들어오고
재호, 정신나간 사람처럼 박스들 열어보며 확인하는데 눈에 들어온 쇼핑백.
S#41에서 김대리가 민주에게 주었던

플래시백. S#41 김대리, 민주에게 쇼핑백 안겨주는

쇼핑백을 뒤져보는 재호, 흰 카드 봉투 가득 담겨 있는.

재호, 뭔가 싶어 열른 열러보면, 민주네 청첩장. 결혼 예정일은 20일.

놀란 재호, 바로 핸드폰 꺼내 전화 거는 데서

S#65. 민주 현관 앞(낮)

119 대원, 민주네 집 대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모습을 초초하게 보고 있는 재호

S#66. 민주네 원룸(낮)

집 안으로 들어온 재호와 119 대원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 한쪽에 짐 박스들 쌓여 있고 아무도 없다.
재호, 일순 안도하며 119 대원들에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책상 위에 놓인 민주의 핸드폰을 집어 들고 걱정스런 표정.

S#67. 몽타주. 민주 찾는 재호

민주 원룸 / 119 돌아가고 혼자 남은 재호, 민주 방을 뒤지는
동네 일각 / 동네 뛰어다니며 민주를 찾는 재호
은행 객장 / 비어 있는 민주의 자리. 재호, 은행 직원에게 민주 어디 있는지 물어
보지만 모르겠다 고개를 흔드는 직원
공중전화 박스(S#34) / 텅 비어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오는 재호
카페(S#49) / 뛰어 들어와 두리번거리며 민주 찾는 재호
한강 다리(밤) / 재호, 불안한 마음으로 민주를 찾는

S#68. 민주네 원룸 건물 앞(밤)

불안함에 서성거리며 민주가 오는 길 쪽을 바라보는 재호.
재호, 전화 걸어보지만 받지 않고.
그렇게 한참이 지나, 민주가 걸어온다.
재호, 성큼성큼 가더니 민주를 확 낚아챈다.

재호 왜 전화 안 받아요?!!
민주 (놀라며) 여긴 어떻게...?
재호 왜 전화걸 놓고 다니냐구요!(울컥)
민주 ...
재호 20일이잖아요!! 놀랐잖아요!(목소리가 떨리며 울기 직전이다)
민주 (고맙고 미안한 눈빛으로 보고) 그 친구가 아직... 연락이 없어서...

재호, 조용히 흐느끼고... 그런 재호를 바라보는 민주에서

S#69. 고독사 현장(밤)

재호와 민주, 고독사 현장으로 들어서자 민주, 시취 때문에 손으로 코를 막고

재호 사람 냄새예요.
민주 ...
재호 지독하게 살다 간 사람 냄새...

민주, 둘러보는데 정돈이 안 돼 마구 헝크러져 있는 모습이다.

재호 여기 있는 건... 전부 이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뿐이에요.

민주 ...

재호 내가 대단해 보여요?

민주 ? ...

재호 대단하지 않으면 어때요. 훌륭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민주 !...(고개를 떨구고 참았던 눈물 쏟아내는)

재호 매일같이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만나면서... 한 번도 이젠 편하겠구나 싶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살지... 그냥... 살아보지... 그런 생각뿐이었대구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건 나도 몰라요!(눈물 쏟아지는. 민주와 마주 보며, 민주와 양팔을 꼭 잡는) 그래도... 그래도... 그냥 살아야...

민주 (주체할 수 없이 눈물 흐르는)

사무실 동네 전경
새로운 하루를 맞는 동네 전경

S#70. 사무실(낮)

세탁소 아저씨, 세탁한 유니폼 성철에게 주고 기동이 넘겨주는 세탁가방 받아 들고

세탁소 세탁물이 얼마 없네.

재호 일이 없었어요.

세탁소 좋은 거지 뭐. 요새... 우리 아들 칠들었어. 학교 갔다 와서 배달도 도

와주고 그래.

덕만 (장난) 그거... 위험한 신혼데...

세탁소 그런 거야?

기동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기동 아님 벌써 사고 친 걸 수도 있구요.

세탁소 그리고 보니 좀 수상하네... 아이고. 가게 맡기고 왔는데 불안하네. 얼른 가 봐야겠다.

재호 네.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세탁소 아저씨 나가는데 막 들어오는 중년의 아주머니

기동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간 경과.
소파에 앉아 있는 중년의 아주머니(생도모). 직원들 마주 앉아 있고

생도모 (고개 숙인 채) 제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애 아빠가 상의도 없이... 집안도 깨끗했고...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많이 봐서 보기만 해도 알거든요.

생도모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이죠...

덕만 그런 말씀 마세요.

재호, 서랍에서 뭔가 꺼내서 들고 오고

재호 저기... 이거...(S#9의 비행기 열쇠고리다).

생도모 (받아들고 목메어) ... 감사합니다.

모두 안타깝게 보는데

성철(E) 아무래도... 오실 것 같아서...

보면, 성철, 깨끗하게 세탁해놓은 공군사관학교 생도 예복이다.

생도모 (생도복 끌어안고 우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촉촉하게 바라보는 성철, 기동. 울음을 참아내려 안간힘을 쓰는 덕만.

재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재호(N) 유품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고독사한 사람의 것에는... 유난히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 있다.

S#71. 재호 집 인근 벤치(밤)

재호, 생각에 잠긴 듯 걸어오다 시선 멎는.

보면, 단지 앞 빈 벤치.

화면 세피아로 변하면서 회상으로 이어지고

S#72. 회상. 재호 집 인근 벤치(밤)

S#72에 이어서

벤치 위에 툇 놓이는 검은 비닐봉투. 옆에 앉은 재호.

재호, 멍하게 비닐봉투를 바라보는데 봉투 사이로 번개탄이 삐죽 나와 있다.

은지부, 은지와 통화하면서 걸어오는 소리 들린다.

은지부, 캐나다에 있는 은지와 영상통화 중이다.

은지부(E) 아빠 술 안 먹었어. 진짜 아빠 술 안 먹었다니까.

은지(F) 하-해봐 술 냄새 나는지 볼 거야.

은지부 (핸드폰에 대고 귀엽게 하- 하고 입김을 분다)

은지(F) 아빠. 술 마신 거 같은데

은지부 아니라니까.

하며 은지부와 은지 전화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하는 모습이 재호 눈에 들어 온다.

은지부, 재호 쪽으로 다가오더니,

은지부 은지야. 이 삼촌한테 물어봐. 아빠 술먹었는지 아닌지(재호에게 도와 달라는 눈짓을 하고 핸드폰을 재호 쪽으로 돌리고)

재호 (당황스러운데)

핸폰속 은지 삼촌. 우리 아빠 술 먹었어요?

재호 (당황스러워 머뭇거리자)

은지부 (친근하게 재호에게 어깨동무하며) 저 술 냄새 안 나죠?

재호 (당황스럽고 어색하게 핸드폰 속 은지에게) 어... 아빠 술... 안 드셨어.

은지 정말요? 그럼, 앞으로도 술 마시지 말라고 해주세요. 삼촌도 술 먹지 말고 밥 많이 드세요.

재호 (은지의 걱정애 따뜻한 마음 듣고)

은지 부자. 약속!

하며, 재호 손까지 끌어와 화면 속 은지와 약속하는 제스처. 얼떨떨한 재호.

재호 (왠지 그 소리가 마음에 남는) ...

S#73. 회상. 은지부 집(밤)

작은 밥상에 조출한 음식들 차려진.

은지부 별거 없어요. 같이 먹어요.(식사 시작하고) 제가 기러기아빠거든요. 많이 못 배워서 그런지...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좀 무리해서 유학 보냈어요. 캐나다에 있어요.

재호 (식사하며 듣기만) ...

시간 경과.

재호, 집으로 가려는데 은지부 “이거...” 하며 재호가 깜빡한 검정 비닐봉투를 건넨다.

재호, 당황해 얼른 받아 들고

천천히 멀어져가는 재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은지부.

S#75. 회상. 재호 집(밤)

재호, 식탁 위에 비닐봉투 내려놓는데 이상한 느낌 들어 꺼내보면. 번개탄이 아닌 은지부가 싸준 반찬이다.

뭔가 싶은 재호.

인서트.

은지부 집 / 쓰레기통에 덩그러니 버려진 재호의 번개탄

재호, 반찬들을 잠시 보다가 덤덤하게 냉장고에 넣는 데서.

끝.

S#74. 회상. 은지부 집 앞 복도(밤)

은지 집에서 나오는 재호, 뒤따라 나오며 배웅하는 은지부,

재호 잘 먹었습니다...

은지부 에이. 반찬도 없었는데 뭘요.(몇 발 따라 걸으며) 혼자 어떻게 사나 싶어도... 살다 보니까 또 살아지더라고요.(재호 어깨를 툭툭 치며) 살다 보면 다 지나가요...

덤벼!

노민경



작가 후기 이정민

구성상 줄거리 수정을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적으로 조금 넘치는 부분이 있어 연결성이 없는 에피소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중심 스토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전사입니다.

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의 일생을 정리하며 그들이 죽음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초고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전사를 극에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우에 빗대어 생각하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극 전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통계청 자살 원인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대 별로 대표될 수 있는 자살의 원인을 찾아보고 주인공인 20대와 30대의 대표성을 가지는 ‘돈’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전사를 재 설정하여 풀어보니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주인공(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한 것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느낌적으로가 아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의

길을 나선다. 그 길은 어둡고 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나눠주는 물 한 모금으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서로를 향해 내밀어주는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가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애정으로 마침내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닿을 것이다.

등장인물

철기(남, 18세) 단순무식. 치고받는 분야에선 킹왕짱!
있는 집 애랑 붙었다가 그 아인 남고, 없는 집 아들 철기는 퇴학당했다. 그렇게
대발공고로 전학온 게 1년 전. 어떻게든 졸업장만 받으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받
들어 조용히 찌그러져 살려고 노력 중이다. 억울하게 퇴학당한 것 때문에 자꾸
만 삐딱선 타는 놈.

원태(남, 18세) 할 말은 하는 순둥이
철기네 반의 반장. 1학년 때 시골에서 전학 왔다. 아직 억양을 못 고쳤다.
순하고 나긋나긋하지만 맞제?를 연발하며 조용히 할 말 다 하는 놈.

태영(남, 18세) 장학금 수혜자
대발공고고등학교에서 대학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꿈을 가진 유일한 아
이. 티끌 한 점 없는 깨끗한 수시 원서를 쓰는 게 목표지만, 그놈의 의협심 때문
에 수시로 위기를 맞는 놈.

상진(남, 18세) 동대문시장 사입 삼촌
생계를 책임지려다 보니 학교보다 알바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 급기야 출석일수
가 모자라 휴학을 권유받았다.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돈 벌어서 학교로 돌
아갈 날만 기다리는 놈.

준형(남, 18세) 사학재단 재벌 3세
철기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의 재단이사장 손자. 철기와 붙었다가 남은 아이다. 안
하무인에 비열한 짓은 골라서 하고 다니는 놈.

동철(남, 50세) 거친 모습 뒤에 숨겨진 엉뚱한 로망
힘한 놈들 데리고 살다 보니 애들보다 더 힘해진 대발공고의 규율부장.

줄거리

시작은 이랬다.
40년 전통의 대발공고고등학교는 바로 옆 골드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제
기로 2년 전 이전이 결정되었고, 대발공고가 이사 간 자리에는 특목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전의 의미를 알면서 모른 척해왔지만, 반장만은 그 부당함
을 호소하며 홀로 일인 시위를 해왔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다. 골드아파트가 내
건 현수막을 조롱거리로 만들며 항의하고 있는 누군가.

“등짝에 그 빠마 머리가 증거다, 색까.”
찌질한 애들만 모인 찌질한 대발공고가 쪽팔리는 철기.
현수막을 훼손한 용의자와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철기는 범인

으로 몰리고 정학 위협까지 받게 된다.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 손수 범인을 잡으려는 철기, 밤마다 현수막 아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한다.

“여기선 나가라고 난리, 저기선 오지 말라고 난리, 우리가 무슨 핵폐기물이나?”

이사 가기로 예정됐던 동네에서 대발공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온다. 대발공고가 그 동네의 학업 분위기와 교육 여건을 망칠 게 뻔하다는 게 이유다.

에어컨 있는 새 건물로 갈 수 있었는데 철기는 속상하다. 하지만 이사를 안 가게 됐으니 ‘축 대발공업고등학교 이전’이라고 적힌 현수막도 필요 없어졌고, 훼손하는 놈도 없어질 테지? 그렇다면 지키는 분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싸!!!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이 니들을 가마니로 본 거다.”

이전이 결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2017년 폐교’라는 행정예고가 내려온다. 표면적으로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지만 대발공고 학생들은 알고 있다. 폐교 결정이 내려지면서 골드아파트 값이 매일매일 치솟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골드아파트 특목고 건립 대책위와 모 국회의원의 담합이 있었다는 것도. 대발공고 학생들은 폐교를 막기 위한 시위에 나선다.

“저 사람들 힘 있고, 돈 있고, 백도 있어. 근데, 니들은 뭐냐? 돈 있어? 백 있어? 공부 잘해? 니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땀지랄을 해도 저 사람들, 눈 하나 깜박 안 해.”

유독 혼자만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철기. 예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철기는 확실히 깨달았다. 세상은 힘과 돈을 가진 자들의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목청을 높이고 싸워봤자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걸.

“믿을 거라곤 무식한 거밖에 없는 놈들이 피켓 들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 보니까, 내가 한

심해지더라. 지금은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볍다.”

폐교 결정 후 현수막의 문구도 바뀌었다.

“축, 2018년 용안2동 특목고등학교 확정”

또다시 현수막을 훼손하는 자가 출몰했지만 왠지 범인을 붙잡아야겠다는 의지가 희미해져버린 철기. 어느 날 밤, 아파트 주민에게 쫓기던 범인과 부딪치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게 범인을 붙잡게 된 철기는 기절초풍한다. 완벽한 수서 원서를 쓰기 위해 문제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끼어들지 않던 모범생 태영이 범인이었기 때문. 이 일로 태영은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대학 진학의 꿈을 버려야 할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태영은 철기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 자신은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았고 범인은 따로 있다고... 태영의 진학 실패가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던 철기는 사실을 알리자고 하지만 태영은 고개를 젓는다.

“니들이 그러면 학교가 지켜질 거라고 믿냐?” “믿어.”

그날은 교육청 내부까지 들어갈 계획이 잡혀 있다. 처음부터 시위를 주도해왔던 반장은 씬 잘하는 철기에게 길을 터 달라며 함께 가자고 하지만, 철기는 콧방귀만 뀌다. 그러나 역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학교를 지키러 간다는 뿌듯함으로 무장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뭔가가 차오르고, 철기는 마침내 현장으로 향한다.

반장을 발견하고 다가가던 철기는 바로 눈앞에서 전경의 방패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반장을 목격한다.

“할 말은 하고, 화내고 싶은 데다 화내던 김철기 돌려내, 돌려내~~”

상진은 반장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어른들에 대한 분노를 골드아파트 주민의 자동차 수십 대를 파손하는 것으로 풀고 퇴학 위기에 처하지만, 동철의 배려로 자퇴로 처리된다. 그토록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학교를 떠나던 날, 상진은 학교

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려 교문을 벗어날 때까지 뒤로 걸어간다.
그런 상진을 지켜보며 마음 아픈 철기를 위로해주는 이는 태영이다.

“밥 말리, 빠마 머리 가수”

시간이 흘러 대발공고의 운명을 결정 짓는 최종 심사가 한 달여 남았다.
반장의 장기 입원과 이들을 격려하던 규율부장 동철의 전근으로 시위 열기는 사
그라들었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꿈쩍하지 않는 세상에 학생들은 지쳤다.
철기는 이대로 찌그러져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
아갈 것인가? 그리고 현수막을 훼손시킨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S#1. 골드아파트 앞 오르막길(낮)

자막. 1년 전

학교로 향하는 오르막길 옆으로 5천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길가에는 부동산 소개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철기, 앞장서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뒤돌아보면
종순, 무릎을 짚으며 힘겹게 올라오고 있다. 철기, 한숨 푹 다가간다.

철기 (부축하며) 그러게 혼자 간다니까.

종순 강전 왔다고 무시할꺼미 그러지.

철기 그럼 난 가만 있고?

종순 (등짝 때리며) 또 또!! 여기서 절대로 나서지 말어.

뭘 난리가 나도 눈 딱 감고 지내는겨, 어?

철기 ...

종순 왜 대답이 읊어?

철기 (...) 이젠 안 그래, 걱정 마. (분위기 돌리듯) 아 씨, 대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

두 사람, 화면에서 빠지면

전봇대 사이에 ‘축 대발공업고등학교 이전’이라는 현수막 보이고, 그 아래 ‘우
리는 아파트 값보다 소중합니다’라는 피켓 들고 일인 시위 중인 원태 보인다.

S#2. 대발공업고등학교 정문(낮)

‘대발공업고등학교’라고 적혀 있는 아치형의 간판과

‘당당하게 살자’라고 새겨진 양철판 기념비엔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리고
쓰러질 듯 낮은 건물과 코딱지만 한 운동장은 초라함의 극치다.
마침내 정문으로 들어오는 철기와 종순, 가만히 서서 둘러보는데
운동장 저쪽, 쓰러질 듯한 농구대를 향해 떼로 몰려다니는 학생들 보인다.
구질구질한 트레이닝복에 런닝. 땀 뺀 바지와 고무신 차림도 보이고.
유행 지난 염색과 장발의 머리 스타일 하며, 뺨뺨이 졸졸 흐르는 얼굴들.

철기 (혼잣말처럼) 학교 클래스 봐라, 진심 오진다.

그때, 철기를 향해 날아오는 농구공.
철기, 순간적으로 점프, 팍! 잡아채서 사뿐히 내려 앉는다.

철기 (침 탁 뺨으며) 전학생 대접을 이따위로 하나?

노려보면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공 달라고 손 흔드는 아이들.
철기, 계속 눈에 힘주며 노려보다가 픽, 어이 없이 웃고 마는

타이틀. 덤벼!

S#3. 현재. 골드아파트 단지 앞(여름 / 밤)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단지 앞 길가.
입구 초소에는 TV를 켜놓은 채 잠든 경비원, 시계 3시를 가리키고 있다.
단지 앞, ‘축 대발공업고등학교 이전’이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고

잠시 후, 모자를 눌러 쓴 남자 한 명이 현수막 지지대 위로 올라간다.
남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의 등에 그려진 밥 말리가 눈에 띈다.
남자, 붓에 페인트를 적셔 현수막 위로 덧칠하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전봇대 위의 CCTV.
잠시 후, 남자는 사라지고 가로등이 꺼진다.

시간 경과.

아침. 간밤에는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던 5천여 세대의
골드아파트 단지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아파트 앞으로 등교 중인 대발공업고등학교 학생들.
기상천외하게 고쳐 입은 교복, 염색과 장발이 기본인 헤어스타일.
그러면서도 하는 짓은 유치찬란하다. 가방으로 때리고 도망가기,
깔깔거리며 잡으러 가기, 쫓아가서 또 때리고 도망가기 등등.
꺾렁하다기보다는 순진하거나 모자라 보이는 애들이다.
어느 순간, 한 아이가 현수막을 보고 키득거리면 곧이어 다른 아이들도
한 번씩 쳐다보고 웃기 시작한다. 깔깔대며 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현수막 아래에 서 있던 부동산 소개소 소장과 골드아파트 주민 서너 명,
심기 불편하다.

주민1 이게 몇 번째예요, 도대체!

주민2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이번엔 경찰에 바로 신고합시다.

소장 (지나가는 학생들 보고 빠드득) 에이, 저 돌대거리들.

현수막의 글씨 ‘축 대발공업고등학교 이전 좀 짱인 듯.’으로 바뀌어 있다.

S#4. 운동장(낮)

철기, 동철이 지켜보는 가운데 앞구르기로 운동장을 돌고 있다.
웁웁 구역질까지 해가며 돌다가 마침내 고꾸라진다.
등에 그려진 밥 말리 눈에 들어오고.

동철 (다가가서) 걸리면 무조건 퇴학이라고 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지? 꿀
어.

철기 (괴로워 이 악물고) 증거 있어요?

동철 등쪽에 그 빠마 머리가 증거다, 색까.

철기 예?

동철 씨씨티비 있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테고, 그래도 범행 다음 날 입고 온
건 너무 대담했다. 아냐, 이걸 노렸나? 아니지, 니 머리가 그 정돈 아
닌데.

철기 (말 끊고 기막힌) 아 진짜, 이런 티가 한두 개예요?

동철 닥이나 치고, (핸드폰 던져주며) 전화해라.

철기 (얼떨결에 받고)?

동철 할머니 오시라 그래.

철기 (헉!)

동철 어서!

철기 번호를... 잊어버렸는데요.

동철 (픽) 옷자는 거지? 그럼, 경찰서로 오시라 그럴래? 뭐, 그럴 거면 내가
하고.

동철, 핸드폰 빼앗아 번호 찾는 동안 철기, 점점 사색이 되어가고

동철 (버튼 누르며) 담임 입에서 경찰서 어쩌구 나오면 그거, 상당히 맘 아
프다.

내 들어봐서 알아. 아, 여보세요. 여기...

철기, 순식간에 동철에게서 핸드폰 뉘아채서 튜다.

동철, '저, 새끼가...' 하며 따라 달리고

철기 (죽을등 살등) 살려주세요, 선생님. 진짜 안 그랬다니까요. 왜 사람 말
을 안 믿으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겨우 그런 존댓니까, 예?

대꾸도 없는 동철, 비호같이 날아 철기를 붙잡는다. 헤드락!

S#5. 교실(낮)

피식피식 웃으며 교실로 들어오는 철기.

학생들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슬금슬금 눈치 보며 외면하는데
철기, 원태 옆에 가서 선다. 좌중 압도하듯 한 바퀴 훑어보고

철기 야, 마제! 명색이 반장인데 쯤 비겁한 거 아니냐?

원태 뭐가?

철기 현수막.

원태 (빙그레) 와 내라꼬 생각하는데?

철기 이사 반대하는 놈, 우리 학교에서 너밖에 없잖아.

원태 한 명 더 있는 갑지, 맞제?

철기 그래?

철기, 자리를 옮겨 학생1의 옆에 선다. 학생1, 벌써 겁먹었다.

철기 너냐?
학생1 (손사래) 아냐, 나, 아냐.

철기 진짜?
학생1 (필사적으로 끄덕이는)

철기 그래도 할 수 없다. 나 지금 아무나 한 놈 억울하게 만들어야 분이 좀 풀릴 것 같거든. 이해 바란다.

철기, 주먹 날리려는데 뒤에서 철기의 주먹을 잡는 아이, 태영이다.

철기 (돌아보며 확인, 픽 웃고) 상대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새끼하곤 주먹 안 섞는다고 했지.

태영, 놓지 않는다. 철기, 꽤 참는다 싶더니 순식간에 태영을 쓰러뜨리고 주먹을 날린다. 퍽, 퍽, 퍽... 철기의 일방적인 공격. 태영, 팔로 얼굴만 가린 채 얻어맞기만.

철기 (씩씩거리며) 쳐, 쳐 봐. 안 쳐?

S#6. 부동산 중개소 안(낮)

다른 날.
소장, 손님과 상담 중이다.

손님 대밭공고 이사 가는 건 확실한 건가요?
소장 (거만하게) 2년 전에 이사 갈 동네 벌써 정해졌고, 올해 안엔 이사갑니다.

손님 그럼, 그 자리에 특목고 생긴다는 건요?
소장 (헛기침) 보아하니 뭘 좀 알고 오셨나본데, (주위 살피며 소곤소곤) 그거야 말로 골드아파트 숙원 사업입니다. 특목고만 세워주면 짝꿍인데 어떤 후보가 그걸 모른 척하겠어요? 이 아파트가 5천 세됩니다. 가구당 두 표만 나와도 만 표 넘잖아요.

손님 그래도 30%나 오른다는 건 너무 오바 아닌가요?
소장 뒤쪽에 산 있죠, 앞쪽에 특목고 생기죠. 환경 프리미엄에 학군까지 챙기는데 사실 30%도 적게 잡은 겁니다. 학교 땅 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 로또라고 봐야죠. (계약서 보이며) 아침에도 한 분 계약하고 갔잖아요.

소장, 싫으면 말라는 듯 계약서 챙겨 넣는데 손님, 잠깐 망설이다 도장을 꺼낸다. 소장, 어쩔 헛기침하고.

S#7. 골드아파트 앞(낮)

짹짹 내리쬐는 햇볕 아래, 새 현수막 설치 중인 인부들 보인다. 바로 옆에서는 땀으로 범벅이 된 원태, 피켓 들고 일인 시위 중이다.

주민1 학생두 참 질기다.(만 원짜리 서너장 건네며) 자!
원태 (꾸벅, 받아들며) 고맙습니다.
주민1 고작 세차비 몇만 원 땀에 사람을 오라 가라, 문자를 백 번도 더 보

내구...

원태 에이, 세 달씩 기다리드렸잖아에, 맞지예?

원태, 주머니에 돈 챙겨 넣고 다시 피켓 드는데
학생2, 말없이 아이스크림을 내밀고 간다. 원태, 고마워서 어깨 툭 치고.
마침내 팽팽히 당겨져 자리 잡은 현수막. 예전보다 더 크고 선명한 글씨로
'축 대발공업고등학교 이전'이라고 적혀 있다.
원태의 모습, 대형 현수막 옆에서 초라하다.

S#8.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밤)

수하물 보관대 앞, 옷 보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영차영차 보따리를 지고 와 용달차에 싣는 상진, 밥 말리 티를 입고 있다.

철기(E) 어이, 상진!

상진, 돌아보면 건물건들 다가오는 철기, 손 흔들고 있다.

S#9. 쇼핑물 휴게소(밤)

의류 판매원 아가씨들과 사입자들, 둘러앉아 밤참 먹고 있고
머리 박고 순식간에 라면 그릇 비우는 상진과 철기, 그제야 고개 든다.

철기 (끄으 트림하며) 진짜 울 할매만 아님 나 좀 짤라 주라 사정이라도 하

고 싶다니까.(한숨) 똥철이도 지겹고 애들도 구리고. 얼마나 좋아? (아가씨들에 윈크 날리며) 돈도 벌고 눈도 즐겁고.

상진 그 느끼한 윈크 좀 날리지 마. 양아친 줄.

철기 너야말로 머리 스타일이 왜 그 지경이냐? 학생인 줄.

상진 (머리 매만지며 씨익) 진짜?

철기 (픽 웃고) 좋~단다. (일어나며) 자리나 빨리 좀 알아봐라.
(천 원짜리 두 장 놓으며) 라면 썬다, 이거 피 같은 돈이다, 어?

철기, 돌아서는데 옷 보따리 내려놓고 자리에 앉는 태영을 본다.

철기 (들으라는 듯) 대학 갈 놈이 공부나 하지 여긴 웬일?

철기, 흥, 태영을 보고는 돌아선다. 태영, 상진에게 아는 척하고.

S#10. 골드아파트 앞(밤)

철기, 숙, 숙 복싱 자세를 취하며 현수막 아래로 달려와 빙빙 돈다.
그런 철기의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
철기, 핵 돌아보면 농구공을 들고 학교에서 내려오던 학생3이다.

철기 너, 뭐냐?

학생3 (깜짝 놀라) 아냐, 나...

철기 아냐, 나? 어쭙, 뭐 아나본데... 뭐가 아닌데?

학생3 그냥 암것도 아니라구. 갈게. (후다닥 가며)

철기 (까웃하며) 저 새끼, 저거 수상한데.

철기, 핸드폰을 꺼내 용의자1번 이승규라고 적는다.
다시금 복싱 자세로 현수막 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철기.
그런 철기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

S#11. 학교 외경(낮)

S#12. 실습실(낮)

런닝 바람의 남학생들, 용접 마스크 쓰고 실습 중이다.
불꽃과 열기로 벌겋게 달아오른 팔뚝 위로 땀방울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천장에 달랑 선풍기 두 대 돌아가는데 그중의 한 대 힘없이 멈춰 선다.
철기, 우썩, 마스크를 내동댕이치더니 원태에게 다가간다.

철기 (선풍기 가리키며) 눈까리가 있으면 좀 봐라, 쏘! 이게 학교야?
일인 시위 그딴 거 고만 좀 하라고!!

원태 (조근조근) 너는 이사 가는 기 아무렇지도 않나?

철기 어때서?

원태 가고 싶어서 가는 기 아이라, 쫓기 가는 거다 아이가, 맞제?

철기 맞긴 뭐가 맞아, 색겨, 새 건물로 간다매. 에어컨도 있고.

원태 거기 우리 쏘심보다 중요하나?

철기 (억양 흥내내며) 중요하다. 그라믄 쏘 안 되나? 암튼(주먹 치켜들며)
이사 못 가면 다 너 때문이니까 니가 에어컨 책임져라, 어?

철기, 노려보다 돌아서면 원태, 책상 위로 올라가 선풍기를 분해한다.

학생1, 2 철기 눈치 보다가 도와주면
철기, 흘깃 보고 으유~ 하며 문 광 닫고 나간다.

S#13. 철기의 집(밤)

단칸방에 철기의 두 동생들(11세, 6세 정도) 되는 대로 누워서 자고 있고
종순, 한쪽에서 복대를 풀고 잘 준비한다.
철기, 동생들의 가방을 챙기고 있다.

철기 (알림장 보며 중얼중얼) 물체주머니? 있고..가족사진? 요즘 시대가 어느 편데
이런 걸 가져오래? 암튼... 선생님 생각이 제일 떨어져. 패스.

철기, 가방을 싸서 책상 앞에 놓아두고 싱크대로 가서 쌀 씻을 준비한다.
쌀통 확인하는데 텅 비어 있는 쌀통.
그리고 보니 쓰레기통에 들어 있는 라면봉지들.

철기 (종순을 향해) 사 오라 그러지.

종순 사 오라 그럼 돈은 있고? (허리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넬부텀 일 나갈 거니까 괜한 걱정 말어.

철기 편의점 월급 나올 때 됐는데... 더 쉬지.

종순 너 실습비나 내. (다가앉으며) 윗층에 아들내미 말어. 정비 기술자 자
격증 공부한다던디, 그거 팔라믄 돈 많이 드까?

철기 돈이 왜 들어. 독학하면 되지. 걱정 마. 따 줄게.

종순 따 줄게? 웃다가 죽것네. 너 먹고살 길 찾으란 얘기여, 이눔아.

철기 (농담) 얘기가 틀리잖아. 장가갈 때까지 먹여준다며?

철기, 웅크하며 나가면 종순, 대견하기도 안쓰럽기도.

S#14. 철기의 집 앞 / 골목(밤)

반지하층에서 올라오는 철기. 기운 내리는 듯 제자리 뒹뒹기 몇 번 하고 달려 간다.

S#15. 편의점(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철기, 카운터에서 핸드폰으로 오락 중이다.
(E) 부르릉 난폭하게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들리고

철기 (인상 팍 찡그리며) 아오, 저것들!!

철기, 한마디 하려는 듯 입구로 나가다가 문득, 표정 굳어진다.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리는 폭주족 중의 한 명, 준형이다.
철기, 외면하며 들어오는데

준형(E) 오, 김철기, 맞지?

철기, 들은 척도 않고 카운터로 돌아가면 준형, 따라 들어온다.

준형 (앞에 서서 빙글빙글 웃으며) 색까, 옛친구를 만났으면 아는 척 좀 하자. 예의가 없어.

철기, 외면하고 있으면 준형, 피식 웃으며 검을 집어서 카운터에 탁 놓는다.
마지못해 바코드 읽히는 철기.

철기 오백 원.

준형 (보란 듯 지갑에서 오만 원짜리 꺼내며) 잔돈이 없다.

철기 (잠깐 보다가 묵묵히 거스름돈 세고)

준형 요즘은 사고 안 치냐?

철기 (거스름 돈 밀어주고)

준형 대발인가 소발인가, 니네 학교 쫓겨난다며?

철기 ...

준형 이해가 안 되네. 학교가 얼마나 후지면 쫓겨나냐?
색까, 애기 좀 해봐, 애들이 다 너 같냐?

철기 ...

준형 인정?

철기 나 좀 바쁘는데.

준형 재수 없긴...(비웃듯) 잔돈은 먹고 떨어지세요.

철기 !

준형 (크크 웃고) 피웅신... 설랬지?

약올리듯 돈을 한 장씩 천천히 집어 들고 나가는 준형,
철기, 모멸감으로 지긋이 입술을 누르고 섰다가 픽 웃고.

철기 (썩썩한, 들릴 듯 말 듯) 그래, 색까, 절라 설랬다.

S#16. 골드아파트 앞(낮)

다른 날.

원태, 여전히 일인 시위 중이다.

낮선 시위대 행렬, 피켓을 들고 저 아래서 올라오고 있다.

시위1 대발공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동넵니까, 왜?

시위2 자기 동네에서도 쫓겨나는 학교를 우리가 떠맡을 수는 없습니다.

시위3 봉암동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함께 구호 외칩시다.

봉암동민 일치단결, 대발공고 막아내자! 막아내자! 막아내자!

학교하던 학생들 조금씩 모여들고. 철기, 구경거리다. 신났다.

학생4 우리 이사가는 데가 봉암동이라던데, 거기서 온 사람들 아냐?

학생5 듣다 보니 기분 무지 나쁘네. 우리가 무슨 핵폐기물이야? 쓰레기장이야?

학생6 우리도 그 동네 같 생각 없거든요? 남이야 이사를 가든 말든 닥들이 뭘 상관?

시위1 니들 담배 피우면서 폐로 몰려 다니지. 애들 돈 뺏고? 니들이 와서 착한 우리 동네 애들 물들일까 봐 그런다. 알아들었음 비켜!

학생5 (입김으로 머리카락 넘기며) 씨바, 요즘 담배 안 피우는 고딩들이 어땠다고. 어디 한번 지나가 봐.

학생5,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린다. 학생6, 뒤따라 눕고

시위1 어허... 이러니까 양아치 소릴 듣는 거야, 이것들아.

학생7 (나서며 험악하게) 말 함부로 하시네. 아저씨 아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시위2 (학생7을 밀치며) 넌 또 뭐냐? 좋은 말 할 때 꺼져.

학생8 (나서서 시위2를 밀어내며) 아 씨. 니들이나 꺼져, 왜 학생한테 행패야!

시위2, 밀려서 넘어지면 시위대들, 순식간에 학생 8에게 달려들고

구경하던 학생들, 시위대들에게 달려들면서 일대 난투극이 벌어진다.

S#17. 학교 외경(낮)

다른 날.

동철(E) 이전이 결렬되다뇨?

S#18. 교무실(낮)

교감을 향해 앉은 교사들. 교무회의 중이다.

교감 그 동네에서 우리 학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전해왔답니다.

동철 (반갑게) 그럼 이전 문제는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된 겁니까?

교감 (가로젓고) 골드아파트는 계속 교육청에 민원 제기하겠죠.

다른 방법을 생각할지도 모르고.

동철 다른 방법이라면... 설마... ?

교감 (침통한 표정으로 한숨) 그러지 말란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전문계 학교 두 개나 폐교 조치됐는데.

교사들, 마음 무겁다. 동철, 답답하다.

S#19. 교실(낮)

철기, 자리에 앉아 원태가 앉은 걸상을 툭툭 건드리고 있다.

철기 색깔, 소원대로 돼서 좋겠다. 대신 용접실에 에어컨 한 대 사놔라!

원태 ...

철기 특별히 봐주는 거야. 왜냐? 이사를 안 가게 됐으니까 현수막도 필요 없어진다 이거야. 그럼 그거 건드리는 놈도 없을 거고, 그럼, 지키는 놈 아니, 지키는 분이 없어도 된다는 거지. (가웃하고) 아니지, 그 새끼를 확 잡아가지고 그냥 (때리는 시늉하며) 색깔, 내가 너 땀에 똥칠이한테 뒤질 뻔했잖아. 어? 피해? 하, 이놈 봐라.

태영 (들릴 듯 말듯) 썩소를 해라.

철기 (보지 않고) 인마, 넌 공부 좀 한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나본데...
수시 원서라도 쓸려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태영 니가 원서 써주게? 몰랐네.

철기 (못 참는다, 일어나며) 더 할 말?

태영 넌 우리 학교가 쪽팔리지? 근데 우리 학교도 너 같은 애는 쪽팔려.
에어컨에 눈 뒤집혀서 쫓겨 가는 것도 좋아라 하는, 그런 골 빈 학생

놈은 필요 없....

철기, 태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영에게 주먹을 날려버린다.

넘어진 태영을 올라타고 사정없이 때리면 태영, 고스란히 맞고만 있다.

철기 (간절한) 쳐 봐, 제발 한 대만~ 확 자빠져서 병원에 실려가줄 테니까.
응?

태영 (팔로 얼굴을 막고 견디는)

철기 (마침내 일어나며 숨고르고) 나도 너 같은 새끼 쪽팔려. 너 예전 학교에서 완전 날렸다면? 그런데 그런 새끼가 고작 대학물 한번 먹어보겠다고 별레처럼 당하고 사냐? (침 탁 뱉고) 재수 지리게 없어.

태영 (일어나려다 도로 주저앉고)

철기 (둘러보며) 이 새끼 나 못 쳐. 왜? 한 대라도 치면 내가 개지랄 떨어져서 빨간 줄 남길 거거든. 그럼 수시 원서고 나발이고 물 건너가거든. 일반고? 전교 1등이면 있던 빨간 줄도 다 지워줘.

태영 (외면하고)

철기 (사무치는) 그래도 이 그지 같은 학교가 좋냐? 너는?

철기, 문 광 닫고 나가면 태영, 그대로 누운 채 천장을 응시한다. 씩씩하다.

S#20. 골드아파트 앞(낮)

다른 날.

동철과 주민1, 2. 현수막 아래서 언쟁 중이다.

동철 이사 안 간다니깐요. 그런데도 저런 걸 붙여놓으면 엄청난 명예훼손입니다.

주민1 억울하면 소송 거세요. 그러면 한 일 년 후에나 판결 날 거고, 그럼 우리야 더 편하죠. 이런 실랑이할 필요도 없고...

동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2 아, 우리도 우리 재산 지킬 권리가 있죠. 사실 우리 아파트 제값 못받는 거, 대발공고 때문이란 거 아시잖아요?

동철, 분통 터지지만 대들 수 없고 학생들, 얇은 한숨 쉬며 지나간다.

상처 투성이의 태양,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지나간다.

S#21. 골드아파트 앞(밤)

현수막으로 다가가는 검은 그림자. 주위 둘러보다가 지지대 위로 올라간다.

S#22. 골드아파트 앞(아침)

다음 날.

등교하는 학생들. 현수막 아래를 지나는데 뭔가 이상하고,

위를 바라보면 현수막이 반으로 찢어진 채 길 양옆으로 늘어져 있다.

웅성거리는 학생들 사이에 철기, 물끄러미 보고 있다.

S#23. 상담실(낮)

동철, 철기를 으르고 있다. 철기, 짜증 나는 표정으로 앉아 있고

동철 나도 더 이상 이 문제로 골드아파트 사람들한테 시달리기 싫다. 늙은이가 인내심도 줄어들고. 열 센다. 그때까지 결정해라. 나하고 잘 얘기하면 정확 정도로 끝날 거고, 끝까지 개기면 사람들이 신고를 하든 말든 나도 손 댄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철기 ...

동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힐금 보다가) 열!

철기 ...

동철 하긴 열이 좀 짧긴 해. 그래, 까짓 거 열 번 더 쓰지 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철기 (답답한) 썸, 저 강전 왔다고 색안경 끼고 보시나 본데 진짜 저 아니에요. 저 완전! 완전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동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철기 미치겠네.

동철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철기 그냥, 짜르세요.

동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철기 (고함) 짜르라구, 씨발!

동철 (보다가) 가봐라.

철기 ?

동철 내가 잘못 봤어, 내가 미쳤지. 학교야 쫓겨가든 문을 닫든 너처럼 아무 생각 없는 놈이 그랬을 리가 없는데... 참, 나도 감 많이 떨어졌다.

철기 진짜... 가도 돼요?

동철 그런 거 있잖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제일 간신배 같은 놈이 사실 우리 편이었던 거, 난 혹시나 니가 그런 놈이 아닐까 했는데...

철기 가도 되냐구요?

동철 (기대하는) 진짜... 안 그랬냐?

철기, 잠깐 보다가 나간다. 동철, 열은 한숨.

S#24. 교실(낮)

시험보는 중이다. 대부분의 학생들 엎드려 자고 있고 태영과 원태 정도만이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 철기, 엎드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철기 (혼잣말) 똥철아, 영화 느므 많이 봤구나.

S#25. 의류 쇼핑몰(밤)

상진 앞으로 던져지는 옷 보따리들. 상진, 표정 굳다가 다시 미소 짓고

상진 (넉살 좋게) 에이, 우리 사장님. 화 많이 나셨구나. 죄송해요, 진짜 지 인짜 담부턴 시간 딱딱 맞출게요.

사장1 (냉담) 널부턴 나오지 마. 자전거 배달 못 믿겠어. 두 시간이나 늦게 오면 나더러 망하란 얘기지, 그제.

상진 저도 오토바이 하고 싶죠. 근데... 학생이라 이게 (손가락으로 돈 모양) 쪼끔 짜쳐요. (옷 멍치 번쩍 들며) 에이, 인심 썼다. 지방 보낼 거

죠? 아는 형한테 부탁해서 공짜로 부쳐드릴게요. 오케이?

사장1 (정색하고) 꺼지라 그랬다?

상진 !

사장1 그리고 너 자꾸 학생 어찌구 하는데, 여기 밥줄 걸린 사람들 전쟁터야. 학교 놀인 학교에서나 해.

상진 사장님...

사장1 (못 들은 척 지나가는 손님에게) 사장님, 신상 좀 보구 가요. 단가 맞춰줄게.

상진, 슬며시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선다. 부끄럽고 화나고

(E) 문자 도착 알림

철기(E) 놀자, 콜?

S#26. 골드 아파트 앞(밤)

현수막 아래 쭈그리고 앉은 철기, 핸드폰 확인하고 흥분하는 중이다.

철기 (혼잣말) 와~ 그래도 내 판엔 짜식 돈 번다고 휴학까지 하고 맘이 맘이 아니겠구나, 나라도 놀아줘야겠다. 그런 건데 썩을 까? 애 변했네, 변했어.

철기,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듯 두리번거리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고

에잇, 하면서 일어나 학교 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올라간다.

S#27. 학교 운동장(밤)

철기, 농구공을 탕탕 치며 골대를 향해 솟아오른다.
점점 신이 나서 혼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느새 땀까지 뻘뻘 나는데.

철기 (혼잣말) 겨우 생각한 데가 학교냐? 김철기, 엔간 지린다.

상진(E) 내 말이.

철기, 돌아보면 상진, 벌써 공을 빼앗아 튕기며 골대 아래로 간다.

철기 (골난) 썩까고 기껏 겨운 데가 여기냐?

상진 (뛰어다니며) 학교에 오면 이상하게... 안심이 된다.

철기 변태냐?

상진 막 비대도 괜찮을 것 같고. 잘못하면 다음에 잘하라고 할 것 같고...

철기 소셜 오진다.

상진 또 있다.

철기, 뭐? 하듯 보면 상진, 철기 머리에 공을 맞힌다. 철기, 우 썩! 하는데

상진 (빙그레) 밖에서 고생하는 친구 한 번씩 찾아주는 새끼도 있고.

철기 (좋으면서) 색까, 징그러.

철기, 상진에게 공 맞히면 상진, ‘어쭈’ 하며 공 주워 철기 맞히고.
킬킬거리며 뛰어다니는 그 위로,

상진(E) 복학하면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할 거다. 두고 봐.

철기(E) (신나서) 야, 그럼 니 자리 나 주는 거지?

S#28. 교실(낮)

쉬는 시간. 나른한 채 대부분 엎드려 자고 있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학생2 (헐레벌떡 들어오며) 야, 클났어. (숨고르며) 우리 학교 폐교된대~

철기, 자다 깨서 멍한데 학생들, 눈 동그래지며 뭐? 뭐? 하며 웅성웅성

S#29. 부동산 소개소(낮)

소장, 전화기 두 대와 핸드폰까지 동원해서 전화 받느라 난리 났다.
상담 고객들, 복적이다.

소장 예, 폐교 결정 났습니다. 글썩, 매물이 없네요. 지금 대기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물건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소개소 앞을 지나던 주민1, 2 흐뭇해서 보고 있다.

S#30. 골드아파트 주차장(아침)

다른 날.

철기와 원태, 학생들 서너 명. 세차 아르바이트 중이다.
주민1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주민1의 아들, 다가온다.
아들, 세차하는 학생들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차에 오르고.

학생4 (결눈질로 보고 피식) 새끼, 분 발랐냐? 허애가지고.
학생3 잘 먹어서 그렇잖아.
주민1 (차에 오르려다 말고) 어머, 이거 뭐야?
학생4 (보면 굵힌 자국) 아, 깜빡했다. 그저께부터 있었는데.
주민1 무슨 소리야? 어젯밤까지 멀쩡했구만.
학생4 잘못 보신 거예요. 그저께 세차할 때부터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주민1 허, 아니, 그럼... 내가 어디서 굵혀 와서 너한테 뒤집어씌운다는 거야?
학생4 그게 아니구요, 암튼 그저께부터...
아들 (고개 내밀고) 엄마. 상대하지 마. 재들 말 안 통해.
학생3 뭐? (창으로 다가가는) 너 뭐라 그랬냐? 상대하지 마, 말이 안 통해?
그럼 영어로 할까? 지랄 샷따 퍼킹 마우스! 월 모 타임? 지랄 샷따 퍼
킹 마우스!!

주민1, 어머, 어머. 기절하기 직전이고 아들, 열 받아서 밖으로 나오려 하는데
학생3, 금방이라도 달려들 품이고 철기, 무표정하게 보고 있는데
원태, 재빨리 다가온다.

원태 (아들에게) 야야, 진짜 미안하데이. (주민1에게)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 자숙이 성질이 워낙 급해가꼬. 너그럽게 봐주이소.
학생3 (황당한) 야, 마제!
원태 그라고 굵힌 거는 저희들이 세차하고 나면 사진으로 다 찍어놓거등
예. 그거 보내드릴 테이까, 확인 한번 해주이소. (꾸벅하고) 죄송합니

데이.

주민1, 붉으락푸르락 차에 올라 떠나고 나면

원태 (학생3에게) 미안타, 성호야.
학생3 (화나지만 누르고) 됐어.
학생6 (아파트 입구 쪽에서 달려오며) 야! 씬 났어. 씬..

학생들, 어디? 왜? 하며 우르르 몰려가고 원태 뒤따르려는데

철기 야, 마제!
원태 (돌아보고)
철기 너 좀 전에 그 황당 시추에이션 뭐냐?
원태 뭐 말이고?
철기 그 자식이 먼저 우리 무시했잖아. 근데 왜 사과하고 지랄?
원태 승규 안 말렸으모 그 자식 보나마나 성질대로 했을 꺼 아이가.
그라마 세차 알바 짤렸을 끼고.
철기 그게 왜?
원태 짤리면 승규 급식비 니가 내줄끼가?
철기 (멈칫, 할 말 찾다가) 그럼 넌 왜 맨날 골드아파트 앞에서 시위하는
데? 앞뒤가 안 맞잖아?
원태 (생각하다가) 저그들 덕에 먹고살지마는 무시하지는 말라꼬.
그거 얘기하고 싶어가 하는 기다.
철기 !
원태 가마이 있으모 진짜 가마인 줄 안다, 맞제?

원태, 동의 구하듯 보다가 출구 쪽으로 달려가면
혼자 남겨진 철기, 조금씩 표정 가라앉는다.

S#31. 골드아파트 앞(낮)

등교하던 학생들 수십 명, 현수막 아래에 웅성웅성 모여 있다.
'축, 용안2동 2018년 특목고등학교 건립 확정'이라고 바뀐 현수막.
'떼라, 떼라, 떼라...' 연호하며 항의하는 학생들과 주민들, 몸싸움 한창이고
아파트에서 달려나오는 원태. 현수막 문구를 보고는 표정 굳어진다.
순식간에 사람들을 헤치고 현수막 지지대 위로 올라가면
학생들 따라서 우르르 올라간다.

주민3 어, 어... 이 자식들. 안 내려 와, 당장?
원태 (대꾸없이 현수막 매듭 풀려 애쓰고)
학생2 폐교되려면 아직 1년 남았잖아, 그때 달라고, 씨바.
주민4 우리 돈으로 설치한 거니까 떼도 우리가 해, 니들 이러는 거 엄연히
불법이야!!

주민들, 억지로 학생들 한 명씩 끌어내리는데
끝까지 버티던 원태. 순간 중심 잃고 허공에서 휘청이다가 떨어진다.

일동 (비명)

순식간에 달려 나와 떨어지는 원태를 붙잡고 함께 구르는 사람, 철기다.
두 사람 한데 엉겨 멍하게 누워 있다가 철기 끄응 하며 몸 일으키는데

원태, 고개 들다가 철기임을 알고 놀라고

철기 (고함) 색까, 너 병신 되면 치료비 낼 돈 있어? 아니면 저 인간들이
불쌍하다고 모금이라도 해줄 것 같냐?
원태 (멍하게 보고 있는데)
철기 (학생들 둘러보고) 야, 찌질이들! 잘 들어. 니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쟁지랄을 해도 저 사람들 눈 하나 깜박 안 해. 왜 그런지 모르지?
저 사람들 힘 있고 돈 있고 뺨도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니들 돈 있
어? 뺨 있어? 공부 잘해? 하! 제발 좀 찌질한 것들이 찌질한 짓까지
하지 말고 앞가림이나 좀 잘...
학생5 (박치기 날리며) 뭐, 색까?
철기 (나동그라지고)
학생5 (큰일났다 싶지만 내친 김에 방어 자세 취하며) 그래도 우린 너보다
나야. 넌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일생 그렇게 살다가 뒤져, 그냥!
철기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굳은 표정으로 멀어지고)
학생5 (도리어 쫓아서) 야, 철기야. 김 철기!

철기, 손을 위로 들어 올려 감자 날리며 그냥 멀어지면
학생5, 순간 다리에 힘 풀리며 주저앉고
학생들의 눈앞에서 여전히 펄럭이고 있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다.

S#32. 몽타주 편집

골드아파트 주차장. 세차하는 학생들, SNS 확인한다.
[7월 15일 3시, 교육청 앞 집결. 참가자 전원에게 소개팅 100% 보장]

치킨집 앞. 학생7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나간다.
 중국집 앞. 철가방 든 학생8, 역시 오토바이로 배달 나간다.
 교실. 대자보나 피켓 쓰는 학생들, 흰 장갑과 머리띠 나눠주는 학생들,
 철기. 교실 한쪽에서 농구공을 튕기며 심드렁하게 보고 있다.

S#33. 관할 교육청 앞(낮)

(E) ‘부릉부릉’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와 팽과리 소리 크게 울려 퍼지며
 배달 오토바이 십여 대 일렬로 서 있다.
 그 뒤로 오십여 명의 학생들 피켓을 흔들며 시위 중이다.
 [가마나가 아닙니다. 보자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발공고 학생입니다.]
 [폐교 no! 특목고 no!] [교육청=부동산 브로커] [대발공고, 넌 내가 지킨다.]
 [폐교 결정 교육감은 골드아파트 내조의 여왕] 등등의 피켓.

얼굴에 ‘폐교 반대’라고 쓴 학생들, 흰 띠를 두른 학생들,
 비보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학생들 박수 치며 환호하고

원태 (확성기 들고) 멀쩡한 학교 문 닫게 하는 교육청은 각성하이소, 각성 하이소!

학생1 일방적인 폐교결정 취소하라, 취소하라!

학생2 특목고생만 학생이냐, 공고생도 학생이다!

지나가는 행인들, 흥미롭게 보다가 끌끌 혀 차고 지나가고
 정작 교육청 관계자들은 아무도 나와 보지 않는다.

학생들의 메아리 없는 싸우팅이 강렬하다기보다 서글프게 들린다.

S#34. 교실(낮)

피켓, 대자보를 만들고 남은 종이며, 붓, 천 등이 어지럽고
 태영과 철기만이 남아 있다.
 태영은 자리에 앉아 자습 중이고 철기, 빈둥빈둥 돌아다니고.

철기 (대자보 읽으며) 열심히 하려는 저희들을 자꾸 금 밖으로 몰아내지 마세요?

개불, 지들이 뭘 열심히 했는데? 이걸 또 뭐야?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모교를 꼭 찾아오고 싶습니다? 맞춤법이나 제대로 배우지. (고쳐 쓰며) 에이 씨바, 어차피 단을 걸 뭘 2년씩이나 기다리래.

(문득 태영 보고) 잘난 척 열라 하시더니 요럴 땐 쪽 빠지냐, 색까?

태영 (보지 않고)

철기 아아~ 폐교해도 졸업장은 주는구나. 하긴 대학만 가면 됐지 이까짓 학교 없어지면 어때, 그지? 암튼 잔대가리 하난 야무지게 굴러. 위선자 새끼.

태영 (보지 않고) 그래, 난 위선자고 넌 겁쟁이지.

그리고...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넌 내 한 주먹꺼리도 안 돼.

철기 (침 튜 뺀고) 그래? 맞이나 한번 보여주라, 그 주먹. 마침 애들도 없겠다.

누가 실려 가도 쪽팔릴 건 없겠다야.

철기, 태영에게 가서 문제집을 탁탁 덮으면 태영, 다시 문제집 펼친다.

철기, 다시 덮고 태영, 펼치고 서너번 되풀이되는데

태영 그림 좀 낫냐?

철기 뭐?

태영 그림 좀 덜 미안하냐고?

철기 (다시 냉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태영, 물끄러미 보면 철기, 좀 마주 보다가 슬그머니 외면하는데
웅성거리며 시위 나갔던 학생들 들어온다.

철기 (괜히 원태에게) 니 편 많아졌다? 떡볶이라도 돌렸냐?

원태 떡볶이 사주모 같이할끼가?

철기 (코웃음)

원태 하기사 천하의 김철기가 떡볶이 정도에 팔릴 아는 아이제.

철기 아네. (가려는데)

원태 내 친구 중에 니캉 학교 같이 다니던 아가 있었거든.

철기 (멈추는)

원태 가가 그라더라. 니 억수로 멋진 놈이었다꼬.

철기 나는 지금도 멋진 놈이야, 몰랐냐?

원태, 빙그레 웃으며 보면 철기, 서늘한 표정으로 마주 본다.

S#35. 학교 운동장(밤)

텅 빈 운동장. 가로등이 농구대를 비추고 있다.

런닝만 입은 채 신들린 듯 혼자 공을 툭기고 다니는 철기.

문득, 멈춰 서서 핸드폰 버튼 누른다. '상진'이라고 뜨고

철기 뭐하냐?

상진(E) 뭐하긴, 배달 중이지.

철기 야...

상진(E) 어.

철기 어지간하면 돈이나 열심히 벌지?

상진(E) 벌고 있잖아.

철기 아니, 내 말은... 그냥, 그 동네서 자리 잡아서, 나도 좀 부르고... 그
니까, 사업가로 성공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얘기지. 학 پول 꼭 다녀야
되냐?

상진(E) (말 자르며) 너나 해, 사업가. 바쁘다. (톡 끊어지고)

철기 아, 이 자식은 말을 안 듣냐.

전화 끊는 철기, 답답한 듯 공을 세게 툭긴다.

S#36. 골드아파트 앞(밤)

농구공을 들고 내려오는 철기.

문득, 현수막 아래 팽개쳐진 페인트통. 엇, 하며 살피러 가는데

주민1 (다급한) 저 놈 잡아라, 저 놈.

쏟살처럼 달려오는 모자 쓴 남자, 그리고 뒤를 쫓는 주민2.

(철기 시선에선 누가 누군지 모르고). 순식간에 철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 철기, 반사적으로 도망치는 발을 건다. 땅 넘어지는 남자.

다시 일어나려다 발목을 뻗 듯 휘청거리는 사이 주민2, 달려와 붙잡는다.

주민2 (헐레벌떡) 이 놈, 이 쥐새끼 같은 놈.

주민2, 남자의 얼굴을 뒤로 찌르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나는 얼굴.

태영이다. 철기, 놀라서 공을 떨어뜨린다.

S#37. 경찰서(낮)

주민들, 태영을 에워싸고 난리 북새통이다. 경찰, 진정시키려 애쓰고 동철, 난감한 표정으로 수습하려 노력 중이다.

주민1 거 봐요, 그 학교 학생이라고 그렇게 애길 해도 모른 척하시더니, 어쩔 거예요, 이제?

주민2 보세요, 경찰 양반. 현장에서 잡으면 즉결심판 뭐 이런 거 없어?

동철 그러지 마시고 학교 차원에서 틀림없이 징계는 하겠습니다. 선처 좀 하십시오. 아, 애들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지들 다니는 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주민1 그렇다고 남의 재산을 막 훼손해요? 여러 말할 거 없고 여태까지 현수막 가느라 든 비용, 그것부터 일단 변상해요.

동철, 속상하고 태영, 고개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다.

창문 밖에서 지켜보던 철기, 슬그머니 사라진다.

S#38. 편의점(밤)

다른 날.

철기, 말없이 물건 정리 중이고 씩씩대는 상진, 철기를 돕고 있다.

상진 (머리 가리키며) 이거... 남들은 재섭게 티낸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한테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맹세야.

철기 ...

상진 어차피 고졸로 끝날 인생인데... 내 청춘의 끝자락이 공중분해 되는 거잖아. 그 꼴은 못 보지. 널부터 나도 시위 나간다.

철기 태영이 자식, 시장엔 나오냐?

상진 몰라, 전화도 안 받아. 널까지 안 나오면 짜르다고 개네 사장 방방 뜨던데.

S#39. 태영 수퍼(낮)

다른 날.

허름한 단층집이 모여 있는 주택가. 두 평 남짓한 '태영 수퍼'.

아홉 살 정도의 여자아이, 옆드려 숙제하고 있다.

철기, 물건을 사는 척 들어가 기웃거리다가 우유 하나를 집는다.

철기 (동전 세어 건네며) 오빠, 집에 있냐?
아이 아빠가 입원하셔서요, 병원에서 잔대요.
철기 (대답 대신) 몇 살이냐?
아이 아홉 살이요.
철기 (나가며) 가게 잘 봐, 인마. 우윳값 제대로 받은 거 맞냐?
아이 (끄덕이면)
철기 (우유 던져주며) 너 먹어.

우유를 받고 어리둥절한 아이를 보며 철기, 씩씩하게 나온다.

S#40. 의류 공장(밤)

다른 날. 철기, 공장 입구에서 옷 보따리를 넘겨받고 있다.

직원1 오토바이는?
철기 없는데요.
직원1 자전거냐?
철기 아뇨.
직원1 그럼, (미심쩍은) 아버지 차냐?
철기 저, 그게...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 차도 없는데... 히히.
직원1 (보따리를 도로 뺏으며) 옷기는 새끼네. 오토바이는 고사하고 자전거도 없는 놈이 배달을 어떻게 해? 남의 장사 말아먹으려고... 확, 안 꺼져?
철기 (매달리며) 사장님, 아니, 실장님... 어쨌든, 배달만 하면 되잖아요. 잘 할 수 있거든요? 함 믿어보세요. 못하면 그때 짜르시구요, 예?

S#41. 지하철 객차 내부(밤)

철기, 옷 뭉치 위에 멍하니 앉아 있다. 사람들, 자리 차지하고 있는 철기에게 인상 쓰고. 철기, 확! 하며 눈 부라린다.

S#42. 학교 올라가는 길(아침)

여전히 현수막 아래로 등교하는 학생들.
 철기, 건들건들 올라가고 있는데 태영, 옆에 와서 선다.

태영 내 자리... 니가 땀뽕하고 있다며?
철기 일 좀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다 싶어서 그랬다.
태영 그래? 그럼 고맙단 인산 생략하고...

철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하게 날아와 박히는 태영의 주먹.
 철기, 순식간에 부웅 날아가 바닥에 처박힌다. 호흡이 안 될 정도의 강펀치.
 반격은커녕 배를 감싸안고 신음하는데

태영 (빙글빙글 웃으며) 니 소원 못 풀어준 게 계속 맘에 걸리더라구.
철기 (신음만)
태영 그리고, 혹시 니가 죄책감이라도 가질까 봐 하는 소린데... 현수막, 내가 그런 거 아냐.
철기 (놀라서 보면)
태영 어떤 애가 현수막 쪽으로 올라가고 있길래 누군가 불러구 간 거야. 갠 튀고 내가 걸린 거고.

철기 (놀란) 색까, 그럼 아니라고 해알 거 아냐? (억지로 일어나 태영 옷자락을 움켜쥐며) 가, 동철이한테 가서 말해. 너 아니라고. 빨간 줄 지워달라고. 어서!

태영 (피식) 김철기가 쫓 때도 있네. 나 대학 못 갈까 봐?

철기 뭐, 색까?

태영 됐어. 대학 가서 취직하고 돈 벌고 아파트 사고... 그러다가 골드아파트 사람들처럼 되면 어떡하냐.

철기 !

태영 압튼... 지금은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하다. (등교하는 학생들 보며) 진짜 범인... 궁금하지? 저 중에 한 녀석일텐데...

철기, 고통스런 와중에 새삼스럽게 친구들의 모습을 본다.

여전히 켈렁켈렁, 모자라고 천진난만한 녀석들.

S#43. 교실(낮)

학생들, 서명 용지에 서명하는 등 시끌벅적하다. 철기, 모른 척 나가려는데

원태 (다가와서) 철기야, 오늘만 좀 같이 가모 안 되겠나?

철기 싫은데?

원태 오늘 좀 쎬게 할 끼거든.

철기 내가 알 바냐.

원태 실은... 우리가 서명한 거 내가 교육감한테 전달하기로 했거든.

안에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짜친다.

철기 짜치면 안 하면 되겠네.

원태 진짜 안 되겠나?

철기 (가방 탁 내려놓으며) 야, 마झे!

원태 어.

철기 니들이 그러면 진짜 학교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냐?

원태 ...

철기 믿냐고?!!

원태 어, 믿는다.

철기 그럼... 계속해 봐. 진짜로 폐교 안 되면 그때 생각해볼 테니까.

철기, 이곳이 원태 보면 원태, 순한 미소로 마주 본다.

S#44. 버스 정류장(낮)

피켓 들고 장갑 낀 학생들, 버스에 우르르 올라 떠나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던 철기, 착잡한 표정인데 빗방울 하나씩 떨어진다.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지며 또 한 무리의 시위 학생들, 버스를 타러 온다.

비를 맞으며 긴장된 마음을 수다와 웃음으로 풀고 있는 학생들.

우산을 꺼내 쓰던 철기, 문득 왜소한 몸집의 학생에게 다가가

우산을 손에 쥐어준다. 학생, 괜찮다는 듯 사양하면

철기 (버럭) 색까, 밀리면 이거라도 들고 싸워알 거 아냐.

학생들, 버스에 올라 떠나면 홀로 남은 철기, 비를 맞으며 그대로 서 있다.

S#45. 관할 교육청 앞(낮)

여전히 셔터는 닫혀 있고 전경들, 긴장된 표정으로 도열해 있다.
오토바이를 앞세운 채 빗줄기를 그대로 맞아가며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흰 장갑을 낀 모습이 사뭇 비장하다.
상진의 모습도 보이고, 제일 앞줄의 원태, 태영 등등.
어느 때보다 크고 힘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진다.

원태 대발공고는 그런 학썩니다. 공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던 아들도 가슴 쪽 피고 당당하이 꿈꿀 수 있는 썩니다. (주먹 치켜들며) 폐교는 막아야 합니다.

태영 입시교육에서 낙오됐다고 학교도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상진 다른 애들이 뒷바라지 받아 가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생활비 벌어가면서 공부합니다. 칭찬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폐교 철회하십시오.

시위대 뒤쪽으로 철기,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
입을 앙 다문 채 학생들 사이를 헤치며 조금씩 앞으로 나온다.
이때, 학생들의 노랫소리 울려 퍼지고 이를 신호로 앞줄에 서 있던 학생들 우르르 닫힌 셔터를 향해 돌진한다.
학생들과 이를 막는 전경들 사이에 몸싸움 벌어지고 학생들 수가 많아지자 전경들 점점 수세에 몰리며 틈이 벌어진다.
원태와 서너명의 학생들, 재빨리 틈새를 파고든다.
철기, 원태를 발견하고 앞줄로 달려 나가는데 전경에 막혀 저지당하고 앞줄의 상진, 전경들을 밀쳐내며 길을 터주면 원태, 기를 쓰고 들어가는데 순간,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머리를 맞는 원태. 스르르 쓰러진다.
놀라는 상진, 원태를 받아 안는데 이미 원태의 이마와 얼굴이 피투성이다.

상진 (떨리는) 야, 마째, 마째야.

학생들, 쓰러진 원태 발견하며 몰려들고 동시에 흐트러지며 점점 밀려난다.
상진, 원태를 일으켜 세우다가 눈에 불꽃이 튀면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경들을 향해 사정없이 달려들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 그 위로 빗줄기가 거세게 퍼붓는다.
철기, 기를 쓰고 앞으로 가려 하지만 전경들에 의해 점점 밀려난다.

(E) 사이렌 소리 들리다가 점점 작아지고

S#46. 병원 응급실(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죽은 듯 누워 있는 원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동철과 학생들, 상진 보인다.
다급하게 들어오는 철기, 어떻게 됐냐는 듯 상진 보며

상진 아직 안 깬어. 지켜봐야 된대.

철기 (보다가 낮게) 뭐가 맞는 겁니까, 선생님.

동철 (보고)

철기 가마니가 됐든 보자기가 됐든 가만히 있었음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나마 똑똑하던 애마저 바보 소리 듣게 생겼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동철 엄살 떨지 마.

철기 예?!

동철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등철, 침통한 표정으로 원태를 보고 있다. 철기, 등철을 노려보다가 나간다.

S#47. 병원 앞 / 버스 정류장(밤)

병원에서 나란히 걸어오는 상진과 철기

상진 대구리가 깨질 정도로... 우리가 잘못된 거냐, 정말?
철기 ...
상진 (화난) 원태가 너한테 가자 그랬다며? 너만 있었음 그 지경까지 안 갔어.
철기 내가 뭐라고.
상진 뭐?
철기 나? 암것도 아냐. 열라 겁 많고 약아빠졌어. 학교 문 닫는 거? 알 바아냐. 대구리 깨진 거? 누가 설치래? 까보면 다치는 거 몰랐어?

상진, 철기 노려보다가 버스에 오르면 철기,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
그 위로,

철기(E) (울컥) 왜 전 강전이고 준형인 정학인데요?

S#48. 회상. 철기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 복도(낮)

팔과 목에 깁스, 상처투성이인 철기, 담임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는 중이다.

담임 (외면하듯) 학폭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철기 쌤도 아시잖아요. 준형이 그 새끼가 먼저 시작했고 제가 훨씬 많이 다쳤어요.
담임 ...
철기 (글썩이며) 그 새끼요, 괴롭혀도 꼭 없는 애들만 골라서 괴롭혀요, 애들 앞에서 저 새끼 급식비도 안 내고 밥 먹는다고 망신 주고, 때리고... 이사장 손자면 학교랑 애들도 다 지 꺼예요?
담임 그런다고 니가 왜 나서?
철기 아무도 그 새끼한테 그럼 안 된다고 말을 안 하니깐요. 쌤들도 그 새끼한테 암말 못하잖아요!!
담임 뭐? (냉소)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철기 왜요, 찢리세요?
담임 (터졌다) 너 이 새끼, 지금 선생 무시해? (마구 때리며) 내가 왜 찢려, 뭐가 찢리는데? 말해 봐!!!! 새끼야. 이사장이 너 퇴학 시키라는 거 내가 사정사정해서 강전으로 끝냈다. 고맙단 애긴 못할 망정 찢려? 이게 선생을 뭤로 보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맞고 있는 철기,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S#49. 주택가(밤)

현재.
(E) 부르릉 오토바이 달려오는 소리.

대저택 앞. 오토바이를 타고 와 멈추는 준형. 헬멧을 벗으며 내리려는데 어둠속

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가로등 아래에 서는 철기.

준형 (멈칫 하다가 피식) 난 또 누구라고. 잘 지냈냐?

철기 열라. 니 덕분이지 머. 오토바이 또 바꿨냐?

준형 타볼래?

철기 됐고, (비직 웃으며) 한번 뜨자.

준형 미친 놈.

철기 (비실비실 웃으며 좀 더 크게) 뜨자고.

준형 꺼져, 색까. 나 널 섬이야.

철기 (복싱 자세로 툭툭 건드리며) 나, 너 뺨에 완전 인간 배렸어. 알지? 그 래도 옛날엔 제법 멋진 놈 소리 들었거든? 근데... 씨바, 나 완전 쫓보 됐다.

준형 (한 대 치고) 안 꺼져, 색까?

철기 (으, 움츠렸다가 다시 툭툭 치며 점점 감정 담기는) 이래도 흥, 저래 도 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누군 지들 무시하는 사람들 한테 두 눈 부릅뜨고 달려들고 누군 대구리가 깨져가면서 아닌 건 아 니라고 하는데... 난 왜 그게 안 되냐? (울컥) 입이 안 떨어져, 이 망할 입이....

준형, 본격적으로 철기를 때기 시작한다. 철기, 필사적으로 막고 치고...

철기 (헉헉거리며 절규하는) 왜 그렇게 됐냐, 내가? 응? 색까, 돌려내. 두 눈 뺨글뺨글 굴리면서 코 깨지고 머리 깨져도 막 할 말은 하고, 진짜 화내고 싶은 데다 화내던 김철기 돌려내. 돌려내라고!

준형의 카운터 펀치. 철기, 휘청하며 바닥에 처박힌다.

준형 (씩씩거리며) 색까,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이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툼! 침 뱉고 돌아서는 철기, 비실비실 일어나 다시 준형에게 엹히는데 발로 차버리는 준형. 철기, 다시 쓰러진다.

집으로 들어가는 준형을 보며 다시 일어나다 바닥에 나뒹그러지는 철기.

철기 (눈 감은 채 자조적인) 아, 씨바... 또 졌어. (발악하듯) 김철기, 이 새끼야!!

왜 맨날 지고 자빠졌어, 좀 이겨 봐, 이겨보라고!!!! 이 봉신어!!!

가로등 아래. 잔뜩 웅크린 채 흐느끼는 철기의 모습으로 들어가며

S#50. 골드아파트 주차장(밤)

현재.

(E) 몽둥이로 무언가를 깨부수는 소리, 규칙적으로

주차된 차의 운전석 유리가 죄다 깨져 있다.

랜턴 불빛 흔들리며 헐레벌떡 다가오는 경찰과 경비. 이리저리 비춰보는데

그 불빛의 끝에 무표정한 얼굴로 몽둥이 든 채 차를 부수고 있는 사람.

상진이다. 경찰과 경비에 의해 간단히 제압당하는 상진.

딱히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혀 끌려가고.

S#51. 교무실(낮)

다른 날.

처음으로 교복 입은 모습의 상진, 자퇴서에 이름 쓰고 동철에게 내민다.

동철 (무겁게) 퇴학이 아니라 자퇴다. 응?

상진 (들릴 듯 말 듯) 고맙습니다, 선생님.

동철, 상진에게 끄덕여 보이면

상진, 꾸벅 인사하고 물러난다. 동철, 답답한 듯 마른 세수하고

S#52. 운동장(낮)

상진, 천천히 뒤로 걸으며 운동장과 건물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뒤돌아서서 걸
어간다.

S#53. 교실(낮)

상처투성이의 철기, 착잡하게 상진을 지켜보고 있는데 태영, 옆에 선다.

태영 혁명은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웃으면서 기다려라.

철기 ?

태영 (턱짓으로 철기가 입고 있는 티 가리키며) 밥 말리, 그 사람이 한 말이

야.

철기 앤 가수거든. 혁명은 무슨?

태영, 다시 운동장으로 시선 주며 <No Woman No Cry>를 흥얼거린다.

철기,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흥얼거리다가

철기 (떨어지는 상진을 보며) 미친 놈, 오늘 같은 날 교복을 처입고 지랄...

철기, 울음을 참는 듯 눈가를 꺾 누른다.

(E) 밥 말리의 <No Woman No Cry> 흐르고

잠시 후, 창밖으로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며 계절이 변하고 있다.

S#54. 동대문 시장(밤)

쇼윈도에 진열된 옷들 긴 소매로 바뀌어 있다.

쇼핑몰 간판의 모델들 역시 긴팔 차림들이고

노랑계 염색한 장발 머리의 상진, 철기에게 자판기 커피 건네고 있다.

철기 (받으며) 똥철이가 학교 한번 오래.

상진 똥철이, 시골로 발령 났다며?

철기 (무겁게 끄덕이고)

상진 참... 태영인 배 탄다더라.

철기 !

상진 사촌 형이 원양어선 타는데 같이 가자고 했대.

철기 (생각하다가) 농구 하러 한번 와라.

상진 봐서. (컵 구기며) 가야겠다. 신상 나오는 날이라서.

철기 그래.

상진, 공차 하며 오토바이에 옷 보따리 부지런히 싣는다.

철기 (거들다가) 머리 스타일 죽인다. 시장 사람 다 뺏다야.

상진 (썩썩한 미소) 욱이지?

철기 (오버하며) 욱은 무슨... 지린단 얘기지.

상진, 손 들어 보이고 떠나고 나면 철기, 천천히 걸음 옮긴다.

S#55. 골드아파트 앞(낮)

긴팔 교복의 학생들, 깔깔거리며 때리고 도망가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다.

‘축, 용안2동 2019년 특목고등학교 건립 확정’ 현수막 빛바랜 채,
하지만 여전히 펄럭이고 있고 반장이 일인 시위하던 자리 비어 있다.

부동산 소개소 앞.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 꽉 차 있고

철기, 힐끗 보며 학교로 올라간다.

S#56. 교실(낮)

쉬는 시간. 대부분이 엎드려 자는 가운데

태영, 선박에 관한 책을 보고 있고 철기, 무릎으로 축구공을 툭기고 있다.

철기 (결눈질로 보다가) 졸업식은 하고 가냐?

태영 (뚝박인) 글썩.

철기 원양어선 타다가 죽은 애들 여럿이라던데.

태영 (뚝 웃고) 걱정해주냐?

철기 착각 오진다.

태영 다시 올 거야.

철기 색까. 오면 누가 만나준대? 학교 없어도 만날 데도 없겠구만.

태영 (피식) 다시 온다 그랬지, 만나자고 했냐?

철기, 무안해서 다른 쪽 보면, 학생1, 흰 장갑과 머리띠를 나눠주고 있다.

예전의 열띤 분위기와는 달리 그저 시무룩하게 받아드는 학생들.

학생1 널 교육청 앞에서 2시 집합이고, 한 시간 정도 할 거야.

학생2 아르바이트 가야 되는데.

학생3 나도.

학생2 (쉬 목소리) 이번 주는 쉬면 안 되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학생1 (열 받는) 우리가 언젠 목소리 안 나온다고 안 갔냐? 때려쳐.

학생3 그게 아니라,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힘이 나지. 맨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학생2 동영상 조회수가 이천도 안 되더라. 너무한다들 진짜.

학생1 됐어, 혼자 간다, 혼자 가.

학생3 그래, 가자, 가. (학생2에게) 갈 거지?

학생2 (끄덕이고)

태영 (손 들며) 나도...

학생1 오케이... 한 명 추가. 또 갈 사람?

다른 학생들, 별 관심 없다.
축구공이 구석에 세워진 피켓을 텅 치고 구른다.
피켓을 세우던 철기, 피켓의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대발공업고등학교, 너 우리가 지킨다'

S#57. 병원 외경(낮)

철기, 병실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원태(E) 김철기?

철기, 돌아보면 원태가 순하게 웃고 있다.

S#59. 복도 끝 창가(낮)

원태와 철기, 창턱에 나란히 걸터앉아 있다.
두 사람 옆에 김스를 한 청년, 노트북으로 동영상 보고 있다.

원태 실은... 빵이었다.

철기 뭐가?

원태 지난 번에...니가 이래 갖고 학교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아이가.

그렇다고 했던 거, 빵이었다고.

철기 알아, 색까.

원태 짬 잘하는 김철기 모셔갈라모 그렇게라도 해알 거 같아서.

철기 ...

원태 있다 아이가, 1학년 때만 해도 현수막 밑에서 열라 서 있으면 골드아
파트 사람들이 마음 바꾸고, 우리가 이사도 안 가게 되고 그럴 줄 알
았다. 진짜 믿었다카이.

철기 바보냐?

원태 진짜 삼질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동 버티고 있
었는데 폐교하라고 하니까 속으로는 진짜 끝이구나 싶더라. 근데 다
들 진짜 대단하지 않나? 내색 안 하고 달려들었던 거 보든.

철기 ...

원태 얼마 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 그때 뭐 믿고 그랬냐고?

철기 ?

원태 그냥 내가 안쓰러웠단다. 아, 저 새끼 해도 안 되는데 와 저라노?
저 자식 땀에 때려칠래도 못 때려치겠네, 그러면서..(ㅋㅋ) 웃기제?

철기 ...

원태 처음에 그 자리에 설 때는 택도 아닌 신념? 뭐, 이런 거뿐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버티는 힘은 아이들한테서 얻었던 것 같더라.

철기 ...

원태 (쓸쓸한) 그나저나 폐교되면 우리가 그래 애썼던 거, 기억하는 사람
도 없겠제?

원태, 시무룩하게 창밖을 보면 철기, 붕대 감은 원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원태 (쭈스러운) 징그럽다, 인마.

철기, 일어나면 원태, 미소 지으며 배웅한다.

병실로 들어가려던 원태, 문득 옆에 앉은 청년이 보는 동영상에 시선.

폐교 반대 인터뷰하는 친구들의 동영상이다.

열심히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청년.

‘대발공고 학생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대발공고 화이팅...’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는 원태, 점점 환해진다.

S#60. 운동장(밤)

땀범벅인 채 농구공을 끌어안고 누워 있는 철기.

원태(E) 처음에 그 자리에 설 때는 택도 아닌 신념? 뭐, 이런 거뿐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버티는 힘은 아이들한테서 얻었던 것 같더라.

인서트.

주민에게 항의하는 학생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이 한 명 한 명 떠오르고

철기, 천천히 일어나서 교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동철(E) 달밤에 체조하는 게 취미냐?

돌아보면 짐이 든 상자를 들고 걸어오는 동철.

S#61. 골드아파트 앞(밤)

철기와 동철 나란히 걸어 내려오고 있다. 저 앞으로 현수막 보이고

동철 니들만 남겨놓고 가는 것 같아서 개 맘아프다.

철기 사는 게 그렇죠, 뭐.

동철 졸업하면 뭐할 거냐?

철기 밥 먹고 살아야죠.

동철 뭘로?

철기 손가락으로요.

동철 그래... 밥은 손가락으로 먹는 거지.

철기 ...

동철 잘해라, 쫓지 말고.

철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요?

동철 (멈춰서 물끄러미 보다가) 니가 찾아, 인마. 자꾸 가르쳐주면 버릇 나빠져.

동철,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 철기에게 획 던져주고 총총 사라진다.

혼자 남은 철기, ‘뭘 헛소리야?’ 하다가 모자를 써본다.

문득, 눈 앞에 들어오는 현수막.

S#62. 골드아파트 앞(아침)

다음 날.

등교하는 학생들, 현수막을 보며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하다.

곧 키득거림이 번져 나가며 학교 쪽으로 올라간다.

현수막 아래, 부동산 소개소 소장과 주민들 분통 터트리고 있다.

주민1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또 시작이네.

주민2 어떤 놈이야, 도대체?

소장 (학생들 쪽 보며) 으유, 저것들을 그냥.

현수막 ‘축, 용안2동 2099년에도 특목고등학교 건립 미확정’으로 바뀌어 있다.

방송국 차량에서 내리는 한 무리의 취재진들, 주민들에게 다가온다.

기자 (주민1에게) 골드아파트 사시나요?

주민1 예, 그런데요. 무슨 일인지...

기자 아 예. 대발공업고등학교 폐교 관련해서 취재 나왔는데요.

주민2 (반갑게) 진짜 할 말 많습시다. 우리는 그 학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특목고만 만들어달라고 했지. 그 학교를 없애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자 아파트 대표 분들이 현역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주민들, 손사래까지 치며 항변하고 카메라, 그런 모습들 담고 있다.

S#63. 교실(낮)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책걸상들.

서른 명 남짓한 학생들이 죄다 나뒹그러져 있다.

코피가 터지고, 팔다리나 머리를 어루만지며 신음하고 있는 학생들. 그들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철기. 쌍코피가 터지고 멍투성이에 교복이 뜯겨져 나간 채 간신히 버티고 서 있다.

철기 (헉헉대며) 짜식들, 가자면 가는 거지, 반항은. 이게 다... 니들 생각해 서야.

말을 마치자마자 철부덕 쓰러지는 철기. 눈 감은 채 비시시 웃고 있다.

S#64. 교육청 앞(낮)

불과 대여섯 명의 학생들과 태영. 피켓 들고 무언의 시위 중이다.

오가는 사람들, 아무 관심 없고 학생들, 기운 빠지는데

학생1 (놀라며) 야, 저거, 저거 봐.

웅성거리며 돌아보면 철기, 뚝뚝뚝 걸어오고 있다.

그 뒤로 대여섯 명씩 어깨동무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척척 걸어오는 학생들.

시위하던 학생들,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가고.

철기 야, 그러구 있으면 가마니 세워논 줄알 꺼야냐. 소릴 질러야지, 소릴 (고함) 대발공고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파트값보다 소중한입니다. 덤빌 테면 덤벼 봐아아아아아!!!

학생들 (목청껏) 덤빌 테면 덤벼 봐아아아아아!!!

우르르 달려나가는 학생들. 지나가던 사람들, 깜짝 놀라서 바라보고
힘차게 뛰어오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스틸.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날아 오른다.

끝.



작가 후기 **노민경**

초고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등장인물들이 공고생들답지 않게 너무 착해서 사실감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아파트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나 지금보다 거친 모습들을 더 넣는 게 좋지 않겠냐는 평들이었습니다. 수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공고생들의 리얼한 모습? 욕설이 난무하고 담배 피우고 뽕 뜯고 공부는 뒷전인 채 몰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고민 끝에 그런 모습을 넣어서 공고생(전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대사를 조금 거칠게 주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애초에 '담벼'를 쓰기 시작하면서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드라마적 사실감'에 대한 압박에 잠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수정하면서 고민했던 또 다른 부분은 시위대와 전경이 등장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마치 오래 전 파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파업전야'같은 느낌(드라마적 비유나 상징보다 직설적인 구성에 의존한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고민 중인 지점입니다. 가네시로 가즈키의 <레볼루션 NO3>처럼 꾸러갓다면 감동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스타일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오픈에서 '담벼'로 당선 연락을 받고 나서 얼마 후,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후 특목고를 점차 일반고로 바꾸어나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특목고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쫓겨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철기와 마찌와 태영이, 상진이가 그들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017
오 펜
작 품 집

우리 집은 맛나 된장 맛나

윤조

작의

한 아이가 지구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등장인물

한아이 (여, 15)

시작은 밥이었다.

태어나 보니 사연 있는 엄마였다. 엄마의 사연을 고스란히 함께 짊어지고 그럭저럭 잘 살아온 아이. 문제의 시작은 밥! 어려서부터 가장 겸 요리사 역할을 해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어언 반 년, 학교 급식으로 겨우 1일 1식을 이어온 아이에게 방학이란 다른 말로 밥 알짬 없음. 없는 밥에 덮친 격으로 엄마가 위염으로 쓰러진다.

장기복(남, 37) 기복식당 주인

우선 가게부터 팔고 보자.

태어나 보니 사연 있는 엄마도 없었다. 밖으로 도는 아버지를 대신해 억척스런 할머니가 밥장사를 하며 기복을 키웠다. 식당일 돕기를 원한 할머니를 거스르고 <장기복과 얼굴 둘>이라는 밴드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기복.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식당이 팔리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밥장사를 해야 한다.

한정희(여, 37) 아이의 엄마

저 그런 일 못해요.

재색 겸비한 작사가 '한설'로 한때는 대한민국을 감성으로 범람시켰지만, 유부남 프로듀서와의 스캔들로 지독한 추락을 맛봄. 그때의 상처로 칩거한 경력이 아이

의 나이와 같다. 아이를 위해 만든 동화가 책장 한가득이지만, 이젠 동화가 아니라 밥을 만들어줘야 한다.

유슬기(여, 15) 아이의 친구

화교 중국집을 하는 부모님 덕분에 원 없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놀림도 원 없이 당한다.

이초키(남, 39) 기타리스트

불혹을 앞둔 나이에 스카이콩콩에 몸을 맡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심을 지킬 순수한 영혼. 다만 얼굴이 불순할 뿐.

그 외

남1, 2, 3. 부동산 사장. 손님들. 촬영팀.

줄거리

아이의 불의 앞에서도 주먹보다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밥에 살고 밥에 죽는 조용한 아이다. 밥을 왜 그렇게 밝히냐고? 배고픔에 장사가 있던가. 비록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끼니 걱정을 한 적이 없다. 내 수저가 흠이네 금이네 탓하는 사람들을 아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확 다 뺏어다 연못에 물어버릴까 보다. 산신령도 찾아주지 못하게 깊숙이. 훌륭한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 법! 아이는 밥만 있다면 맨손으로도 감사히 먹을 자신이 있다.

그런데 방학! 그것은 아이에게 그나마 공급받던 하루 한 끼의 급식마저도 알짬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사고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하

지 않았던가. 모성, 그 위대한 사랑이 아이의 엄마를 움직였다. 칩거 경력 15년의
엄마가 드디어 주방보조 일을 시작한 것이다. 딱 4시간 18분 동안. 아이는 엄마
의 '그럴 만한 사정'을 알기에 엄마를 무개념, 무책임으로 몰며 아이고 나죽네..
하는 장기복을 따라 엄마의 하루 대타로 나선다. 자고로 여자는 약해도 딸은 강
하다로 정정을 부탁하고 싶은 아이다.

강한 딸을 더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늘의 뜻이던가! 엄마의 대타를 마치고 집으
로 돌아온 아이는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반 년도
안 지나 엄마마저... 아이는 하늘이 무너진다.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
아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 그 당연한 지시를 따르기 위해 아이는 본격적으로 생
활전선에 뛰어든다. 아파트 단지 상가, 간판 없는 식당의 <할망구 백반>을 전수
받기 위해 기복에게 접근하는데...

처음은 밥이었으나 그 끝은 창대한, 맛있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S#1. 중학교 급식실(점심시간)

시골벽적인 급식실 풍경. 그중 한아이와 유슬기가 마주 앉은 테이블.
왜소한 외모에 비해 큼직큼직하게 밥을 먹는 아이.

아이(V.O)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은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 나는 태어났고, 왜 태어났...

남1(OFF) 야, 이거 니네 아빠가 만들었냐?

보면 옆 테이블, 반찬으로 나온 탕수육을 들고 있는 남1. 깰깰대는 2와 3.
표정이 어두워지며 숟가락을 내려놓는 슬기. 슬기를 잠시 보던 아이,

아이(V.O) (무심히 다시 먹으며) 나는 태어났고, 왜 태어났는지 안다.
나는 먹...

남1 (여전히 탕수육 들고) 이거 중국산 아냐?

아이 (짜증. 숨 고르고 슬기에게) 그냥 먹어.

슬기 (울상)

남1 (먹어 보고) 음, 중국산 맞는데?

남2(간죽) (던진다) 아, 안 먹어!

남3(당치) 췌췌~ (날름 주워 먹으며)

우리 짜람 짜장면 좋다 해~ 내일은 짜장면 해달라 해~

남2 짜장면 좋으면 재랑 결혼하라 해~

남3 (뒤통수 스매싱) 너나 해 봉신 새까.

남2 (지지 않고 숟가락으로 스매싱) 니가 재 좋다매 봉신 새까.

남3 (마구 스매싱) 짜장면 좋다고 봉신 새까, 짜장면! 짜장면! 짜...

끼이익- 급식실을 울리는 의자 끄는 소리. 손가락을 붙끈 쥔 작은 주먹. 우
두둑-
주먹을 따라 올라가면 명찰 <한아이>. 명찰을 따라 올라가면 결연한 표정의
아이.
전체 울트라 초집중.

아이(V.O) 나는!

정적을 가르고 슬기 쪽으로 단호히 걸어가는 아이, 호기롭게! 슬기 밥을 대신
먹는다.

아이(V.O) 조용히 먹기 위해 조용히 태어났다.

장기화와 얼굴들 <우리 지금 만나>의 경쾌한 기타 전주가 시작되고, 타이틀.

S#2. 기복식당 + 식당 앞(낮)

음악 연결. 타이트하게 수선한 웨프복의 장기복, 주방(오픈형)에서 된장찌개
를 끓이고 있다.

옆에서 뚱하게 지켜보는 선글라스의 한정희.

기복 (손가락 마이크) 우리 집은 맛나~

관객에게 마이크 넘기듯 손가락 넘기면, 식당 앞 스카이콩콩을 타는 이츠키.

이츠키(OUT) (스카이콩콩 박자에 맞춰) 맛나~

기복 된장 맛나~

이츠키(OUT) 된장~ 맛나~

기복 우리 집은 맛나~

이츠키(OUT) 맛나~

기복 아 된장 맛나~

이츠키(OFF) 된자아아앙~~~

찌그러지는 음악. 기복이 달려나간다. 뒤따라가는 정희.

찌그러진 스카이콩콩. 널브러진 이츠키. 놀란 정희. 한심하다는 표정의 기복.

이츠키 아파...

S#3. 학교 운동장(낮)

여학생들이 동영상을 보며 걸 그룹 노래와 댄스를 따라한다. 발랄하다.

S#4. 학교 옥상(낮)

S#3의 광경을 보며 사이다와 콜라 캔을 쌍 빨대로 들이켜는 아이. 꺼어억-

아이 너무 많이 먹었나. (콩콩 뛰며) 아 근데 왜 키가 안 커...

슬기 (아이 옆) 넌 학교가 맛집이냐?

아이 왜 나한테 짜증이야. 구원해주려고 대신 먹어줬구만.

에휴, 밥걱정은 안 해도 되는 니가 급식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니.

슬기 우울증 걸릴 거 같아.

아이 (나뉘구는 의자에 앉는다) 이렇게 하루 30분씩 햇볕을 쬐어줘야...

슬기 (아이 앞으로) 아빠가 중국인인 게 내 탓이냐고. 지켜워, 사는 게.

아이 (손짓으로 비키라며) 내 태양을 가리지 마라.

아이 옆 의자에 털썩 앉는 슬기. 오후의 태양 아래 두 소녀.

아이 (나른) 그냥 그러려니 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별일 없이 살자 우리.

슬기 죽어버릴까 봐.

아이 네가 너무 쉽게 태어나서 그런 사치스런 생각을 다 한다.

날 봐. 우리 엄마가 고집스럽게 날 낳았으니 망정이지, 할머니가 (양갈지계 흥내) 이 가시나 미친나, 처녀가 무슨 아를 낳노 아를! 니 캉 내캉 콧 죽어빠자!! ...했대요. 난 엄마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파 이팅 할 거다. 엄마가 날 어떻게 낳았는데... (슬기 보며) 우리 엄마 의리 있지?

슬기 (...끄덕끄덕)

아이 아, 요리만 좀 됐으면 완벽한데...

음식은 할머니가 잘했지.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밥 먹는 게 일이다 일.

(사이다 주욱 빨며 슬기에게 콜라를 건넨다)

슬기 (도리도리) 요즘은 입맛도 없.. (꼬르륵-)

3초 정적. 아이, 입에 머금은 사이다를 푸읍- 뱉으면,

슬기도 덩달아 웃음이 터진다.

“입맛 없다며~ 죽고 싶다며~”

햇살 같고 탄산수 같은 15살 소녀들의 청정 웃음.

아이 (웃음이 진정되면) 두고 봐. 슬기 넌, 최고로 인정받는 중국 수입산이 될 거야.

슬기 (몽클... 가방에서 동화책 꺼내 건네며 아닌 척) 지금 동화 쓰냐?

아이 (가방에서 새 동화책을 꺼내 바꿔주며) 많이 오글거렸냐?

슬기 한아이, 니가 누굴 위로할 처지가 아니야. 내일부터 방학임. 급식 못 먹어.

아이 (얼굴 파묻고 괴롭다) 아, 급식... 방학해도 급식 주는 학교 없나...

(얼굴 번쩍) 하고 절망할 줄 알았냐?

(자리를 뜨며) 우리 엄마 오늘부터 식당에서 일한다~ 요리 배운다 고~

S#5. 기복식당 외관(낮)

간판은 없다. 유리벽에 <된장찌개 백반> 정도의 빛 바랜 썬팅만.

S#6. 기복식당(낮)

선글라스를 낀 정희. 혼자 테이블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S#3의 걸 그룹이다.

기복 (들어오며 호들갑) 첫날부터 정신없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며칠 입원하는 게 좋다네. (반응 없다. 머쓱) 나이가 몇인데 스카이콩콩을... 그 형이 생긴 거랑 다르게 디게 순수한 쪽이예요. (TV) 하- 요즘 애들은 발육이... (흥얼흥얼 따라한다) 저렇게 리메

이크 하나까 또 색다르네. 뭐 워낙 명곡이라... 정희 씨도 저 노래 아시죠?

정희 ...

기복 (머쓱머쓱. 주방으로 가며) 가만 있자... 저녁 타임 준비를... (하다 핵 돌아서서 정희를 가리키며) 맞다!! 흑시... 그...

정희 (!!...)

기복 그 뭐냐... 그러니까... 안 답답해요?

정희 (경계) 뭐가요?

기복 (손으로 안경 모양)

정희 (안도, 냉랭) 안 답답해요.

기복 아... 안 답답하시구나. 가만 있자... 저녁 타임 준비를...

정희 (표정)

S#7. 아이네 / 거실 + 현관(낮)

책장에 꽂히는 (슬기에게 받은) 동화책. 크게 보면, 커다란 책장에 가득 찬 동화책들. 중앙엔 커다란 동화 작업용 테이블. 그림들과 소시지, 젤리 껌질들이 널려 있다.

아이 (거실 창에 붙어서)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아이네 아파트 거실에서 보이는, 길 건너편 상가 건물에 간판 없는 기복식당.

아이 (번뜩!) 흑시 선글라스도 안 벗고 그러는 거 아냐? 에이, 설마... (돌아서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쓰레기 치우며) 할머니 보셨어 봐,

(흥내) 니가 아가? 와 만날 주전부리고. 집에 밥이 읊노 쌀이 읊노. 니 이래 먹고 또 속 아프다고 할끼가? 먹었음 쫌 찻나! (테이블에 세 모녀 사진 집으며) 할머니, 엄마 철들려나봐. 오늘부터 식당에서 일 해. 나 밥해...

하는데, 현관 키패드 소리.

정희 (식당에서의 포스는 온데간데없다. 화장실로 뛰어가며) 싸는 줄 알았네.

아이 엄마? (따라가며) 식당은? 화장실 가려고 온 거야?

핑둥- 울리는 현관 벨. 인터폰 카메라 속 기복.

아이 누구세...

기복 (인터폰) 한정희 씨, 장기복입니다.

정희 (화장실에서 소리) 열어주지 마!!

CUT TO. 들어오려는 기복을 막아선 아이. 쌍방 만만치 않은 불꽃 눈빛. 아이 뒤에 정희.

기복 (정희에게로 시선 옮기며) 저기요, 일을 하시다가 (시계) 4시간 18분 만에 그만두시면 어떡합니까?

정희 그렇다고 이렇게 덤석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집까지...

기복 (뒷목 잡겠다!) 아니, 여보세요, 한정희 씨, 그렇다고 이렇게 덜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집까지... 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덜컥 찾아온 거 아닙니까 집까지!

덜컹 그만두시니깐!!

정희 전 주방 보조 구한다고 하셔서 요리도 배울 겸 해본 건데 배달까지 해야 되는 줄은 몰랐죠. 저 그런 일 못해요.

아이, 마리 앙투아네트 급으로 철없이 말하는 엄마에게 시선. 철드는 건 멀었구나...

기복 (참자) 아니, 배달은... 배달은 원래 그 형님이 해요. 스카이콩콩. 근데 아까 상황 보셨잖아요. (생각하니 화가 난다) 미친놈! 스카이콩콩은 타고 지랄이야! (진정) 배달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형 퇴원할 때까지만 서빙이랑... 또 뭐 좀 카운터랑... 도와주시는 쪽으로...

정희 (들어가며) 저 그런 일 못해요. 아이야 문 닫아.

기복 저기요! 여보세요! 야!
(들어오려는, 하지만 아이로부터 저지) 이씨...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너무 무책임하다. 뭘 믿고 저렇게 무책임하지?

아이 얼굴.

기복 (이씨... 부정할 수 없고) 이러시면 저 혼자 주방 보고! 주문 받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배달하고!!!! 저 진짜 죽..(어요)

S#8. 기복식당 + 식당 앞(해질녘)

와그작와그작. 멀쩡하게 TV 보며 군것질 중인 기복. 텅 빈 식당.

기복 (밖을 향해) 야, 들어와 있어.

가게 앞에 꾸그려 앉아 있는 아이. 한쪽에 찌그러진 스카이콩콩이 보인다.

아이 (혼잣말) 난 또 엄청 바쁜 가젠 줄 알았네. (기복에게) 괜찮아요.

기복 니가 거기 있으면 손님들 못 들어오니까 그렇지.

아이 (영덩이 털며 마지못해 들어가는) 손님도 없구만...

기복 (못 들었다) 뭐라고?

아이 아니에요.

기복 (의자 가리키며) 서 있지 말고 앉아, 정신없다. (앉으면) 딸이야?

아이 (대충 끄덕)

기복 엄말 안 닦았네. (너무 솔직했나?) 안 예쁘단 건 아니고. 몇 살이야?

아이

기복 아흐, 둘 다 사람 속 터지게 하는구나. (분노의 와그작와그작. TV나 보자)

벽에 붙은 유일한 메뉴 <할망구 백반>을 보는 아이.

S#9. 아이네 / 거실(밤)

색연필로 동화 채색 중인 정희.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지만,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다.

정희 (잘 그리다 머리를 쥐어박는다) 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손놀림 점점 강렬. 또 머릴 때린다) 아! 그러면 그렇지 니가 무슨...

평온한 표정으로 1인 2역 하는 정희.

정신이 나간 게 아닌지... 좀 무섭다. 그러다...

정희 (꽉 쥐 주먹이 풀리며) 아... (배를 움켜쥜다)

S#10. 기복식당(밤)

TV엔 S#3의 걸 그룹 인터뷰 중이다. 즉석에서 한 소절만 불러달라는 제안.

기복 그 사람이 지금 없다고 그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
카야... (몸 찌릿찌릿)
넌 저 노래가 재네 노랜 줄 알지? 나 스무 살 때 진짜 히트 쳤던 노랜
데... 넌 태어나지도 않았잖단. (...) 원래 둘 다 말이 없는 쪽이냐?

아이

기복 (과자 내밀며) 먹을래? (...) 야! 어른이 말을 시키면 아무 말이라도 좀
해!

아이 (TV) 판 데 보면 안 돼요?

기복 (이씨... 말을 말자. 하지만 못 참고) 엄마한테 가서 말해. 오늘 일당은 없다고
오늘 백반 다섯 개 팔았어.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이야.

아이 (바라지도 않았다...)

기복 (또!! 대답이 없어!!)

S#11. 거리(밤)

아이 (걸으며) 엄마 밥 얻어먹긴 글렀구만. 먹고살기 힘드네.

S#12. 아이네(밤)

아이 (들어오며, 밝게) 아가~ 할매 왔다~ 아가~ (쓰러진 정희 발견) 엄
마!!!

S#13. 병원 / 응급실 앞(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

S#14. 진료실(낮)

다음 날

의사와 마주 앉은 아이.

의사 (착잡하다) 네가 보호자야?

아이 네.

의사 아빠는?

S#15. 병실(낮)

죽 먹고 있는 정희. 옆에서 지켜보는 아이.

아이(E) 안 계세요.

의사(E) 엄마 잘 드셔야 한다. 규칙적으로. 안 그러면 또 위 수술 들어가야 돼.

정희 (입맛이 없다. 수저 내려놓으면)

아이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정희 (이래저래 미안하고)

아이 얼른. (안 되겠다 싶은지 할머니 흥내) 이 미친 가시나, 니 퍼뜩 안 쳐 먹나! (정희를 만지며) 이래 말라가 어데 사람 구실을 하겠노. 어여, 이리 온나. 한 숟가락만 더 넘겨보래.

정희 (웃음 픽- 눈물 핑- 받아먹고)

아이 오웁지.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정희 있으면? 있으면 해줄끼가?

아이 와? 내 돈할 거 같나?

정희 (아이 손에서 숟가락을 가져와 직접 먹는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 (엄마를 위해서...)

S#16. 아이네 / 주방(낮)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에서 헤엄치는 멸치들.

아이 (된장을 퍼서, 식탁 위 액자 속 할머니 사진 보며) 이만큼?
아냐. 좀 덜어. 됐나? (된장을 풀고 맛을 본다. 별 맛 없다. 두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두부는... 네모나게. (액자 속 할머니가 나타난 듯 돌연) 가쓰나! 손이 요래 야무지지 문해 어데 쓰노! (써는 시늉) 요래, 요래 깎두기 문냥, 그래야 먹기도 좋재~

된장찌개를 끓이는 아이, 킷킷. 나름 괜찮은 찌개가 식탁에 올려진다.

아이 (자축의 실룩실룩) 오예~ 오예~ (앉으며 할머니처럼) 울 똥깡아지 시 집가도 되겠대이~ (숟가락 들고 맛보며) 이제 할미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
(줄줄줄... 역류하는 된장찌개) 이런 썩을...

CUT TO.

아이 (멍-)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물 한 모금 가글. 뺨기 귀찮다. 꿀꺽) (핸드폰. 슬기다) 응.. 응.. (책장으로 이동, 책 한 권 뺏으며) 응, 알았어.
(끓고, 거실 창 앞에 선다. 햇살을 받으며) 아... 우울해...

그때, 띵응~ 눈에 들어온 간판 없는 기복식당. 땃츠잇! 우당탕탕 튀어나가는 아이.

S#17. 기복식당(낮)

부동산 사장 (뚝배기 짹짹) 어으, 잘 먹었다.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해?

기복 (업소용 자동판매기 커피 뽑아 주며) 가게 보러 오는 사람 없죠?

부동산 사장 장사가 어느 정도 돼야 가게도 보러 와. 파리 날리는 거 뻥뻥 보이는데 누가 선뜻 들어오려고 하나.

기복 ...

부동산 사장 (마시며) 또 한 양반은 안 보여?

기복 예.. 좀 며칠...

부동산 사장 그 양반은 뭐하던 사람이야? (얼굴 가리키며) 어으, 좀 무섭게 생겼

어. 식당용 페이스가 아냐.

기복 (웃음. 자주 듣는 오해다) 그 형 디게 순수해요.

부동산 사장 (일어나면서) 순수해? 밥집이란 게 맛도 맞지만 분위기가 중요하거든.

S#18. 기복식당 앞(낮)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며 서성대는 아이. 계산 중인 기복과 눈 마주친다. 어색한 미소-

S#19. 기복식당(낮)

기복 (계산하며 아이 발견) 쟀 또 왜 저리고 있어.

부동산 사장 (농담) 숨겨둔 딸이야?

기복 (질겁) 아이, 사장님, 무슨 그런 있을 법한 농담을..

가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동산 사장 (알았다는 손짓. 나가며 아이에게) 딸내미 왔구나. 왜 안 들어와?

기복 (이씨...)

아저씨 농담 따위엔 관심 없는 아이, 들어온다. 한 손엔 동화책.

기복 (테이블 치우러 가며) 왜 또 왔냐? 엄마가 알바비 받아 오래?

아이 (기복이 스치며 지나가자 반사적으로 움찔) 아뇨, 여기서 친구 만나기로...

기복 친구를 왜 여기서 만나.

아이 아뇨, 이 앞에서요. (동화책 슬쩍 보이며) 빌려주려구요.

기복 책도 읽냐? (다시 지나가는데 아이 움찔) 아, 앞든가! 가든가!

아이 (냉큼 털썩 앉으며) 오늘도 손님이 없네요.

기복 (한숨) 낸들 아냐. 다들 가게 문을 닫아라, 닫아라 한다.

아이 (벽에 <할망구 백반> 보며) 근데 왜 할망구 백반이에요?

기복 (주방에서) 여기 원래 우리 할머니가 하던 식당이야. 망할 놈의 할망구가 죽는 바람에 가게 팔릴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설거지 하며) 난 원래 음악 했어, 밴드. (돌연 아이돌 인사) 장기복과 얼굴 둘 (손가락)이에요. 내가 장기복. 리드 보컬. 얼굴 한 놈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고, 또 한 형은 스카이콩콩 타다 자빠져서 입원 중이고... 엄마한테 들었지? (하며 돌아보는데, 아이가 없다) 애 어디 갔어!??

S#20. 기복식당 앞(낮)

슬기 (동화책을 주고받으며) 여기서 뭐해? 여기 식당이야, 뭐야? 간판이 왜 없어?

아이 (동화책을 주고받으며) 망할 건가 봐. 어디 가?

슬기 어디겠냐. 뻥하지. 너는 방학 동안 학원 안 다녀?

아이 에휴... 학원 다닐 시간이 어딤냐...

슬기 (잠시 골똥) 이상해. 니가 말하면 불쌍한 말인지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

아이 불쌍한 말이야. (돌아서며) 잘 가라.

슬기 맞다! (아이가 들고 있는 동화책 펴며) 쌍둥이들이 짜장면 먹다가...

미안..

아이 (동화책의 짜장면 자국 냄새 맡으며) 맛있는 냄새 나고 좋네. (가며) 아, 배고파...

S#21. 기복식당(낮)

슬기에게 받은 동화책을 가슴에 품고 슬금슬금 들어오는 아이.

기복 (점심 먹는) 왜 자꾸 와?

아이 (기복과 좀 떨어진 테이블에 슬며시 앉는다)

기복 가면 간다 말을 하고 나가던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없어지고 그러면 무시당한 거 같고 디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아이 (맛있어 보인다)

기복 또 대답 안 하는 것 봐!!

아이 네...

기복 (이씨...) 점심 안 먹었어?

CUT TO. 보글보글 된장찌개와 맛깔스런 반찬들. 무아지경으로 먹는 아이.

기복 야,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어.

아이 (아프아프~) 이런 된장 (앗뜨~) 찌개 끓이는 거 어려워요?

기복 뭘 어려워. 물 넣고 된장 넣고 그냥 끓이면 되지. 왜? 맛있냐?

아이 (동작 그만! 소름 돋게 짜늘한 무표정 3초. 감탄 발사!) 너~무 맛있어 요.

기복 (순간 쫄았다. 기분 좋은) 우리 할망구 비법이 있긴 있지.

아이 ... (용기 내서) 저 여기서 알바 하면 안 돼요? 방학 동안만.

기복 왜? 급전 필요해? 쪼끄만 게 무슨 알바야 알바는. 니가 어제 잠깐 있어봤다고 쉽게 생각하나 본데, (거들먹) 외식업이라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아이 할 수 있는데...

기복 시끄러. 빨리 먹고 가거나 해. (손님 두 명 입장) 어서 오세요.

기복, 물 컵을 챙겨 손님 테이블로 가는데, 이미 세팅되어 있다! 어라?? 그때 울리는 식당 전화벨. 돌아서면, 이미 전화 받는 아이.

아이 (입에 밥 한가득 물고) 여부세여. (메모 하며) 네... 네... 네... (끓고) 언니네 미용실 백반 세 개요. 한 개는 청양 고추 많이.

기복 (...남아 지금 뭐하시는 거??)

아이 (꿀꺽. 기복의 시선을 피해, 암전히 자리로 가 다시 밥을...)

기복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 준비. 양파가 없다) 양파가...

아이 (이미 홀 한쪽, 재료 상자에서 주홍 양파 망 꺼내 들고 주방 앞에 대기)

기복 (!!!)

S#22. 기복식당(밤)

퇴근 준비

S#23. 기복식당 / 옥탑 마당(밤)

그윽한 조명. 벌레 우는 소리. 평상에 누워 아이가 놓고 간 동화책을 읽는 기복.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킁킁. 옆에는 익어가는 사발면.

기복 (넘기다) 이게 뭐야. (냄새를 맡는다) 짜장면??
(못 볼 걸 봤다) 예잇, 더럽게... 여자 애가 조심성이 없어.
(사발면 다 익었다. 젓가락 뜯어 후루룩) 아 뜨어.. (줄줄줄..) 이씨...

기복이 휴지를 가지러 아웃하면, 번지는 라면 국물을 따라 동화책 속으로 연결.

※글 동화의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바닥에 누워 동화를 그리는 뽀뽀엄마, 손을 더듬어 지렁이 모양 젤리를 두 개
꺼낸다. 한 마리는 자기 입에, 한 마리는 옆에 누워 동화책 보는 뽀뽀머리 입에.

뽀뽀머리 (오물오물) 으마, 완자님이 딴 하고 나타난 꼬야?
뽀뽀엄마 (들여다보며) 응. 완자님이 착한 공주님을 짠 하고 구하러 온 거야.
할머니 (바닥을 손 걸레질 하며) 엔병... 니 자꾸 아 그딴 거 머길래?

아랑곳 안 하는 뽀뽀모녀. 할머니 걸레질 공격이 뽀뽀머리 배 밑으로 들어온다.
뽀뽀엄마가 반대쪽으로 꿈틀 움직이자, 뽀뽀머리도 엄마 쪽으로 꿈틀 피해간
다. 그러기를 두어 차례.

할머니 (걸레질 공격하며) 징글징글한 거 모이 조타꼬 아를 머기노 아를.

뽀뽀엄마, 두 마리 더 꺼내 자기 입에 한 마리, 뽀뽀머리 입에 한 마리.

아기 새처럼 날름 받아먹은 뽀뽀머리, 젤리를 다시 꺼내 본다. 앗싸~ 대왕 지
렁이~

할머니 (걸레를 탁 내던지며) 마! 꼬마 무거 싸라! 밥맛 없다카..

뽀뽀머리 (할머니에게 대왕지렁이를 들이민다) 엔봉~

할머니 (뒤로 나자빠진다) 으메으메- 이 문디 가시나, 뽀뽀익%\$^&*#&---

뽀뽀엄마, 뽀뽀머리를 자기 품에 안으며 깔깔 웃는다. 그 모습이 연결돼서,

S#24. 아이네(낮)

아이가 정희를 부축해서 들어온다.

정희 (아이를 밀쳐낸다. 웃으며) 오버 하지 마. 그 정도 아니야.

아이 (웃는다) 그런가?

정희 (핸드폰 올린다. 모르는 번호다. 받고) 여보세요? 어디요?
(기복이다) 저 그런 일 못한다니... 잠깐만요.. (핸드폰을 아이에게)

S#25. 기복식당(낮)

테이블 위에 쿵! 놓이는 동화책 더미들. 땀 흘리며 헉헉 거리는 아이.

기복 뭘 이렇게 많이. (펼쳐서 그림 만져보며) 근데 이거 누가 직접 그린 거
야?

아이 (헉- 헉- 집 방향 가리키며) 엄마.

기복 (의외다. 정희 흉내. 새침) 저 그런 일 못해요... 이 언니가? 오...
(그림 속 삐삐머리가 아이를 닮은 것 같다. 그림 한 번, 아이 얼굴 한 번 쳐다본다)

아이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움켜잡고 우는 표정)

기복 아...

아이 (어제 놓고 간 책을 펼쳐 보이며) 울 할머니.

기복 우리 할망구랑 닮았어.

아이 (넘기다 짜장면 자국 옆에 라면 국물 발견. 찌릿!!)

기복 (시치미) 친구가 그랬나 보더라. 조심성이 없어...

아이 (뺨치시네!) ...근데 이거, 아저씨가 읽으시게요?

기복 (민망의 헛기침) 원래 음악 하는 사람.. 너 어제 어디까지 들었어?

아이 장기복. 리드 보컬.

기복 그렇지. 그래도 중요한 건 놓치지 않았네. 음... 뭐랄까.. 동심을 잃고 싶지 않은 아티스트적 투지랄까? 어쨌든 고맙다. 잘 읽을게. (동화책 들 챙기려)

아이 (손을 탕! 기복이 동화책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다)

기복 (깜짝) 왜? 뭐?

CUT TO. 요란스런 딸그락딸그락. 앞치마 두르고, 테이블 한가득 세척된 숟가락의 물기를 닦는

아이 (혼잣말) 장사도 안 되는 집이 숟가락은 왜 이렇게 많아..

기복 (카운터에 앉아 못마땅) 중학생이 무슨 알바야... 야, 난 이게 법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이상해. 싫어. 불편해.

아이 어차피 아저씨도 혼자 힘드시잖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새로운 아르

바이트 구하기도...

기복 (벌떡) 야! 누가 너더러 내 걱정 해 달래? (주방으로) 그리고 가게 내놔.

아이 (따라 주방으로) 알바비는 안 주셔도 돼요. 대신.. (기복이 막아선다)

기복 (똥 폼) 스읍! 여긴 일개 알바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대신 뭐?

아이 대신... 저... 된장찌개 좀 가르쳐주세요.

기복 (뚝어지게 응시) 와... 요즘 애들 빠르다더니... 너 혹시... 창업 준비하냐?

(쌩- 돌아서서 할 일 하며) 뭐, 어제 보니까 엄마보다 낫긴 낫더라.

아이 (YES!!)

그때, 인상 좋은 아저씨 손님이 들어온다.

아이 (기복보다 한 템포 빠르게) 어서 오세요~

기복 (요것 봐라?)

아저씨 손님 (물 가져온 아이에게 웃으며) 할망구 백반 두 개. 하나는 갈 때 포장.

아이 할망구 백반 두 개. 하나는 포장.

S#26. 아이네 / 정희 방(저녁)

어두운 방. 정희가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예전 기사를 검색하고 있다.
<프로듀서 P와 한설의 은밀한 관계>, <한설 유부남 P와 심야 목격>,
<눈꽃 같던 한설 임신! 누구의 아이인가?> 등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
현관 키패드 소리. 노트북을 닫는다.

아이 (들어오며 불을 켜다) 불 좀 켜고 있으라니까. 죽 사왔어. 나와.
정희 (눈부시다) 너 알바 하지 마. 남들이 보면 엄마 욕해.
아이 (나가며) 욕먹을까 봐 걱정하다 굶어 죽어. 난 굶어 죽는 게 더 싫어.
정희 (침대에서 내려오며) 엄마 좀 나아지면 이번엔 진짜 요리 배울 거야.
아이(OFF) 걱정 마. 방학 동안만 하는 거야.
정희 (거울에 비친 자신을 물끄러미)

S#27. 기복식당 / 옥탑 마당(밤)

그윽한 달빛 아래, 단아한 자태로 도열해 있는 장독들.
 평상 위에 쌓여 있는 동화책. 찌뿌바를 빨며 독서 삼매경인 기복. 재밌는지 몸부림치다 찌뿌바 조준이 빗나간다. 그림 위에 번지는 빠알간 찌뿌바.

기복 아씨, 진짜...

S#28. 기복식당(저녁)

가지런히 준비된 재료들. 기복이 된장찌개를 만드는 시범을 보인다.
 아슬아슬하게 주방 경계에서 까치발을 들고 메모하며 경청하는 아이.

기복 된장찌개라고 된장만 들어간다? 노오노~ 어 리를 빗 차이가 궁극적인 맛의 빅 차이를 가져오지. 먹어봐서 알 거 아냐? 뭐, 뭐, 들어가?
아이 두부... 호박... 감자...
기복 좋아. 감각 있어. 우선 재료를 미리 썰어 둘 거야. 두부는 어 리를 빗

넓적넓적하게~ 먹음직스럽게~

아이 우리 할머니 깎두기 모양처럼 썰던데?
기복 (빈정. 칼 내려놓으며) 그럼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하든지...
아이 ... 죽었는데요.
기복 ... (칼 다시 집어 들며) 모양이 뿔이 중헌디. 니 종을 대로 썰어. 하트로 썰든... 별 모양을 만들든... 근데 왜 하필 된장찌개야?
아이 엄마가 편식이 심해요. 입도 짧고. 근데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시면 (은근슬쩍 다가가며) 밥도 한 그릇씩 먹고 그랬거든요. 엄마 해드리고 싶어서...
기복 (어딜 은근슬쩍! 제자리로 밀며) 아니, 이게 무슨 심청이 임당수에 다 이빙하는 소리야... (앗!) 그래서 선글라스 쓰는 거야? 심봉사야?
아이 (이래 저래 빈정 상하는)
기복 아니, 엄마가 자식 챙기는 게 정상이지...
아이 다 그럴 만하니까 그러죠...
 아무나 챙기면 어때요. 밥만 잘 먹으면 됐지.
기복 (뒤... 일리 있네...) 그래. 아무나 챙기면 어떠냐. 밥만 잘 먹으면 됐지. 밥은 할 줄 알고?
아이 ...
기복 기본이 안 됐구만 기본이. 된장찌개만 끓여서, 어머니 드시웁소소.. 할래? 오냐, 후루룩 짹짹 후루룩 짹짹 - 응? (쯔쯔) 자, 그럼 오늘은 밥 짓는...
 그때, S#25의 인상 좋은 아저씨 손님 들어온다. 5살 정도의 귀여운 딸과 함께.
아이/기복 (동시에) 어서 오세요~
아저씨 손님 (앞으며) 저희 딸이 여기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해야지.

딸 안녕하페여.
기복 아이, 귀여워라.
아저씨 손님 (멋쩍게. 기복에게 다 안다는 눈빛) 저도 혼자 키워요.
기복 (??)
아저씨 손님 (웃으며) 두 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딸에게) 우리 혜민이도 커서 언니처럼 아빠 도와줘야 돼요~ 네에~ 해, 네에~
아이/기복 (!!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정희 (소리) 깔깔깔 깔깔깔-

S#29. 아이네 / 거실(저녁)

노트북으로 S#28 아저씨 손님의 블로그를 보고 있는 정희와 아이.

정희 (스크롤 내리며 읽는) 우리 동네 간판 없는 집. 주인장의 유일한 메뉴인 할망구 백반도 일품이지만, 내가 이 집을 자주 찾는 이유는 바로 아빠와 딸이 (깔깔깔깔)
아이 아 뭐가 웃겨!!
정희 (이어서) 아빠와 딸이 만들어 내는 정겨운 분위기 때문이다.

식당 사진, 아이와 기복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넷이 찍은 사진, 등이 보이며,

소리1 어머~ 간판 없는 집. 향수 돋는다. 왠지 맛있을 듯~
소리2 아빠와 딸~ 보기 좋네요~ 메뉴도 맘에 들고.
소리3 크크크, 할망구 백반. 믿음이 가네요. 아빠와 딸이 한다니 더욱!

소리4 우리 동네임. 3년 넘게 살면서도 지나쳤는데... 조만간 가 봐야겠음.
정희 이 사람 파워 블로그인데? 너 졸지에 아빠 생겼다. 표정이 뭐냐? 좀 웃지...
아이 난 찍기 싫었던 말이야.
슬기 (소리) 왜?

S#30. 편의점 앞(낮)

파라솔 의자에 앉아 블로그 사진을 보는 슬기. 눈 감고 태양 바라기 하는 아이.

아이 할머니가 어디 가서 튀지 말랬어. 그게 엄마랑 나한테 좋다고.
슬기 이 아저씨 연예인 닮은 거 같은데? 이렇게 생긴 가수 있지 않냐?
아이 닮긴.. 연예인 병은 있더라. 자기 무슨 밴드 했대. 좀 놀았나봐.

S#31. 병원 / 병실(저녁)

다리 깎스하고 누워 있는 이츠키. 기복과 통화 중이다.

이츠키 (놀리는) 아이고, 아버님~ 아이 이름이 뭐예요?

S#32. 기복식당(저녁)

기복 (통화) 에이 진짜... 끊어!! 대충 나왔으면 빨리 나와!

안 나왔어도 나와!! (끓고)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모르네...

아이 (배달 그릇 들고 들어온다)

기복 (받아들며) 이걸 왜 니가 해... 무겁게.

아이 안 무거워요. 바로 옆인데요 뭐.

기복 (다시 주며) 그럴래? (장난이다. 주방으로) 근데 너, 이름이 뭐냐?

아이 (괜히 경계) 왜요?

기복 (괜히 무안) 왜라니? 이름 뭘다 뭐하게. 이름도 못 물어봐? 우리 사이에? 우리가 보통 사이야? (푹- 터진다) 아, 어떻게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아이 (이씨...) 아이요. 한아이.

기복 이름이 아이야? 한아이? 두아이도 아니고 세아이도 아니고...

아이 (단호) 그만.

기복 예!

(알뜰도록 귀엽게) 일 더하기 일은 한아이, 이 더하기 이도 한아이..

아주머니 손님 입장.

아주머니1 (호들갑) 여기 맞네~

(그 뒤로 우르르 들어오는 동네 부녀회 아주머니들)

아주머니2 (아이 보고) 어머어~ 네가 그 아이구나~

아이/기복 (??)

아주머니3 그러네~ 사진에 있던 그 아이네~

기복 (장사 본능) 예! 이 아이가 우리 아입니다. 한아이.

아이 (이 아저씨가 근데!!)

기복 (약 올리듯) 물. 물.

아이 (등 떠밀리며 이대로 괜찮을까 싶은)

S#33. 몽타주

부동산 사장, 기복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복적거린다. 의외다.

기복식당 주변.

운전자 (창문 내리며) 저기요. 여기 간판 없는 집이 어딘지 아세요?

슬기 (지나가다) 이쪽으로 쪽 가셔서 왼쪽으로...

요리하고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배달하는 아이와 기복. 손님들 표정. 목발을 짚고 병원을 나오는 이츠키. 조금 걷다가 휘청.

이츠키 아파...

손님들과 사진을 찍는 아이. 웃긴 웃는데 영...

주방에서 아이에게 웃으라고 신호 보내는 기복. 기복을 째려보는 아이.

거실 창에서 내려다보는 정희.

아이/기복 (가는 손님 배웅하며) 안녕히 가세요~

S#34. 아이네 / 주방 + 거실(저녁)

뚜껑 열리는 찬함. 나물무침, 멸치볶음, 어묵볶음, 오이지, 계란말이...

정희 이게 다 뭐야?

아이 기복이 아저씨가 엄마랑 먹으래. (반찬을 집어 정희에게) 맛있지?

정희 맛있네. 앞으로 이런 거 받아 오지 마. 불쌍해 보여.
아이 (냉장고 문을 열어 보인다. 텅텅 비었다) 불쌍한 거 맞아.
정희 ... 밥 좀 할까?
아이 (거실로 밀어낸다) 엄만 쉬고 있어. 기복 아저씨가 밥 하는 법도 알려 줬어.
 (쌀 씻을 준비를 하며) 맛있게 해줄게. 기대하래이~

작업 테이블 앞에 비스듬히 앉은 정희, 아이가 기특하면서도 무력한 기분이.

정희 한아이, 엄마 동화 그만 그럴까?
아이 (할 일 하며) 왜?
정희 아니... 너도 재미 없어하는 거 같고...
아이 에이, 내가 동화책 읽을 나인 아니지...
정희 그러니까... (번쩍!) 엄마가 야한 걸로 써줄까?
아이 (질색) 엄마!!
정희 (웃긴다) 왜? 싫어?
아이 (다시 할 일 하며) 뭐... 잘할 자신 있으면 함 해보든가...
정희 (어쭈구리! 씩씩히 웃으며 펼쳐져 있는 동화 한 페이지를 넘기면)

※글 동화의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거실에서 메주를 만들고 있는 할머니와 삐삐머리.

삐삐엄마 (마스크 쓴. 인상 짝, 창문 열며) 아, 냄새!! 사다 먹으면 되지!!
할머니 또, 또, 지랄한대이. 마, 춤따! 기름 아깝게 와 문을 열어 쌓노 한겨울
 예? 니 그거 아냐? 메주가 니 방귀 냄새보다 구수하대이.
삐삐머리 (코에 빨래집게 꽂고 메주로 공작 삼매경)

할머니 이 뭐꼬?
삐삐머리 (메주로 만든 응가 모양을 천진하게 내밀며) 또옹.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는 밥상. 세 모녀가 둘러 앉아 밥을 먹는다.

할머니 (삐삐머리에게) 우리 똥강아지 맛있나?
삐삐머리 마시또~
삐삐엄마 (애교 떨며) 엄마, 난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
 있어.
할머니 (좋으면서) 미친년. 냄새나는 걸 우째 그리 잘 쳐묵노!
삐삐머리 (따라한다) 미친년. 냄새나는 걸 우째 그리 잘 쳐묵노!
삐삐엄마 야!!

할머니와 삐삐엄마 잠시 황당해하다가 깔깔 웃는다. 따라 웃는 삐삐머리.

S#35. 기복식당(낮)

손님들로 거의 꽉 찬 상태. 아이와 슬기가 카운터에 앉아 있다.

슬기 (아이 냄새 킁킁) 너 그거 알아? 너한테...
아이 (밀쳐내며) 알아. 니 똥 냄새보다 백배는 구수해.
슬기 (아 드러...)
아이 (손님에게 영수증을 건넨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 (딸 보듯 애정 담은 표정으로) 그래~ (나가면)
슬기 국민 딸내미로 등극하셨구만.

아이 (듣기 싫다. 밖을 보며) 아, 뭐하는 거야... 주문 밀렸는데...

S#36. 기복식당 앞(낮)

기복, 부동산 주인, 가게를 보러온 사내가 대화 중이다.

사내 (식당 안을 훑어보며) 장사는 잘되죠?

부동산 사장 (기복에게 찡긋하며) 점심이라 요 정도. 저녁때면 이 주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줄도 서.

기복 (오.. 우리 식당이 어느새 그런 식당이라니!!)

아이 (마침 나와서 불멘소리) 뭐해요, 주문 밀렸어요.

기복 어, 그래 그래. (달려가며) 쉴 틈이 없구나 쉴 틈이~

부동산 사장 (거 보라는 눈짓)

사내 (오.. 감탄)

S#37. 기복식당(낮)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 기복. 주방 경계에 서 있는 아이, 표정이 뚱하다.

아이 (불멘) 된장찌개 언제 가르쳐줄 거예요?

기복 (재료 썰고, 넣고, 넘치고 정신없다) 바쁘다 바빠.

아이 된장찌개 언제 가르쳐주실 거냐고요!

기복 얘야, 우리 센스 있게 굴자. 누가 안 가르쳐준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아이 저 알바 그만할래요. 원래 된장찌개 가르쳐주기로 해서 한 거잖아요.

기복 참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시죠. 예? 그리고 누구처럼 그렇게 덜컥 그만두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준다니깐 그러네..

아이 거짓말하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 아바랑 딸도 아니면서...

기복 (떨쩍) 거짓말은 누가 거짓말!

너 누구한테 내가 아빠라고 한 적 있어?

아이 (없다. 도리도리)

기복 내가 누구한테 니가 내 딸이라고 한 적이 있을까? (자문자답. 도리도리)

근데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오해한 거 아냐. (다가가 쑥닥쑥닥) 이 가게가 곧 팔려요. 장사가 좀 돼야 가게가 금방 나갈단 말이야. 가게만 팔리면 니가 내 딸이든, 할머니든, 아무 관심 없음이야. (다시 할 일 하며)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해.

손님(OFF)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기복 예~ (아이에게 김치 접시 주며) 무브! 무브!

아이 (아무래도 맘에 안 든다. 접시 내려놓으며) 싫어요. 저 그만할래요.

기복 (애가 진짜!! 참자) 이리 와 봐.

아이 (갈 수 없다. 주방 경계를 가리킨다)

기복 (아놔... 잡아끌며) 봐 봐. (된장 보글보글~)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네 손으로 끓일 수 있는 기회야. 지금 그 기회 거부하겠다는 게냐?
(끓고 있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아이 코 앞에 들이민다)

아이 (저항하기 힘들다)

기복 (숟가락, 자기 입으로 쪽-)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아이 (기복이 알밉다)

기복 집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집이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슬기 (주방으로 와서) 뭐해? 김치 달라서.
기복 (아이에게 김치 접시 들려서 밀며) 그래, 친구 말 들어. 자연스럽게~
아이 (어금니 물며) 자연스럽게? 된장찌개만 아니든 내 고마... (사동 걸고)
손님 (짜증) 여기요, 김치 좀 더 달라고 아까부터...
아이 (부릉부릉 할머니 발사!!) 마! 간다, 가!! 무슨 노메 김치를 그리 쳐 목
 노. 와? 갈 때 좀 싸줄까잉?

학- 놀란 기복과 슬기. 손님들 일동 정지. 밖에 있던 부동산 사장과 사내도 입
 이 짝-
 아이도 빨고 보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는데...
 김치 달란 손님이 쿨럭 하면 <할망구 백반> 낡은 종이가 팔랑-

아이 (에라 모르겠다. 김치 탁! 내려놓고) 마, 마이 묵어라.
 내가 미쳤지!! 카운터로 내빼는 아이.
 그때, 여기저기서 푼푼- 킁킁- 터지는 웃음소리. 급기야 폭소로 번진다.
아이 (어라?)
기복 (우선 넘어가자. 어색하게 그지없이) 쟤, 할머니 그리우면 꼭 저러
 더라.
아이 (얼레? 뭘 소리셔? 먹히니깐 더 자신 있게) 뭐이 좋다고 웃노? 비싼 밥
 쳐묵고 욱 머그이 그래 좋나? 더해 주까?
기복 (스읍!! 그만해라!!)
아이 (입모양. 왜요? 자연스럽게~ 메롱) 니 와 그레 서 있노? 전부 굶길 끼
 가?

기복 아...
손님 (배꼽 잡으며) 할머니, 저 갈 때 진짜 김치 싸주실 거예요?
아이 치아라! 아가리 다물고 밥이나 쳐무라!
부동산 사장 (밖에서 큰소리로 꺄꺄) 아니, 할머니 입 다물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아이 (고개를 쏙 빼며) 누꼬? 닌 와 안 들어 오꼬 거 있는데? 밥 묵었나?
 마, 갈라카몬 가고 들올라카몬 퍼뜩 드온나!
부동산 사장 (사내를 데리고) 아, 그럼 우리 할매, 할망구 백반 솜씨를 맛봐야지.
아이 니 모 안대잉~ (기복에게) 찌개 두이 넣으래이~ (슬기) 여 물 좀 가온
 나.
슬기 (얼떨결에 서빙)
기복/아이 (눈빛. 불꽃 스파크!)
아이 (복수다!) 어이, 기복아~ 니 노래 잘하재이~ 어디 함 해보래이~
기복 야!! 그만.. (순가락 던질 뻔. 진정) 여기서 무슨 노래를 하라고...
아이 와? 부끄럽나? 니 가수라 카지 않았나? 함 해보래이~ 자연스럽게~
손님들 와~ 해주세요~
기복 (얼굴 빨개지고 미치겠다)
아이 와? 몬하겠나? 자연스럽게지 않나? (손님들에게 비웃듯) 몬하나 보네.
손님들 에이~
기복 (우물쭈물하다, 국자와 순가락을 드럼스틱처럼 원! 투! 쓰리! 포!)
 우리 집은 맛나~ (국자, 마이크 넘기듯 손님들 쪽으로 넘기면)
손님들 (당연히 반응 없고)
기복 된장 맛나~ (넘기고) 우리 집은 맛나... (점점 의기소침) 된장 맛나...
이초키 (들어오며) 우리 집은 맛나~ 맛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표정의 기복, 신이 나서 함께 부르며 이어지는 즉석 공연.
 손님들도 점점 흥이 돌고, 몇몇은 동영상을 찍는다.

S#38. 몽타주

<우리 집은 맛나 된장 맛나> 영상을 보고 있는 S#1의 남1, 2, 3. 따라한다.
 SNS 화제가 된 <육쟁이 아이> 영상을 보는 지하철 승객들. 킷킷 웃음.
 중국 TV. <지구촌 화제 인물> 정도의 뉴스 클립. 육쟁이 아이라는 자막과 함께.
 방송국 직원들. 모여서 아이의 영상을 돌려 본다.

직원 방송으로 내면 재밌겠는데?

혼자 작업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정희. 결심한 듯 일어나 테이블을 정리한다.
 식당 밖이 시끄러워 내다보는 아이와 슬기. 그 뒤로 기복과 이츠키. 학-
 식당 앞.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중국인 무리.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사진 찍고...
 기복식당. 중국인들, 백반을 먹으며 아이에게 뭔가 기대하는 눈빛.

아이 뭇들 봐? 밥이나 퍼뜩 쳐먹어~ 뭐이 볼꺼 있따꼬 뱅기까지 타고 돈지
 랄을...

중국인들 (반응 없다. 눈만 끔뻑끔뻑)

아이 (기복을 향해) 못 알아듣나 본데요?

기복 그런가 본데?

아이 (갑자기 슬기를 앞으로 툭 미는. 카리스마의 눈빛과 고갯짓. 어서!!)

슬기 (유창하게 쏟아 뱉는 중국어. 그냥 들어도 욱 같다)

중국인들 (대륙의 웃음이 빵! 빵! 터진다)

기복/이츠키 (놀랍다. 슬기를 향해 엄치 척)

슬기 (으쓱) 아이 이런 미친놈들...

기복식당 건너편. 선글라스의 정희가 기복식당을 바라보다 돌아선다.
 주방. 나란히 서서 된장찌개를 맛보고 하이파이브 하는 아이와 기복.

S#39. 기복식당 외관(낮)

문에 걸려 있는 <일요일은 쉽니다>

S#40. 기복식당 / 옥탑 마당 + 방(낮 → 해질 무렵)

항아리 뚜껑이 열린다. 황금빛 된장. 맛을 보는 아이와 슬기. 오~

기복 (라면과 계란을 들고 마당으로 나오며) 야! 그거 손대지 마!

아이/슬기 (삐죽. 항아리를 닫는다)

평상 위, 휴대용 가스 위에 끓고 있는 물. 기복이 라면을 쪄개어 넣는다.
 모여드는 아이와 슬기. 와~ 맛있겠다~

기복 (계란 집으며) 몇 개 넣을까? 한 사람에 하나씩? (하고 계란을 깨려는
 데)

이츠키 (절규) 안 돼에~~ 계란 넣으면 안 돼에~~

모두 (공포) 왜! 왜?? 왜에!??
이츠키 (다리를 질질 끌고 평상으로 와앉으며 공포감 조성) 계란을 넣으면..
모두 계란을 넣으면??
이츠키 계란을 넣으면... (귀엽게) 너무 마시쫘~ 맛있으면 마이 먹어. 살쫘~
모두 (!!! 결코 귀엽지 않다)

CUT TO. 평상에 누워 있는 슬기. 배부르다. 옆에 엮어져 있는 이츠키. 동화 읽는 중.

방에 딸린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기복(거품 담당)과 아이(헝굼 담당). 장갑은 아이만.

둘이 있는 곳에서 문을 통해 슬기와 이츠키가 보이는 구조다.

기복 너 나 옛 먹이려고 할머니 흥내 낸 거지?
아이 (인상) 먹이다뇨... 그런 말을 쓰냐... (짓궂게) 자시라고... (웃는)
기복 (어쭈. 아이 입에 거품 묻힌다. 아이가 꺾려보면) 자시라고.
아이 (뉘고) 자연스럽게 하라면서요. 집에서처럼.
기복 야, 내 말은 진짜 아빠 대하듯 하라는 거였지. 난 뭐 니가 자연스러운 줄..
슬기 (OL) 개 아빠 없어요.
이츠키 (동화책 보며) 이혼?
슬기 땡!
아이 (기복 시선 느끼고) 아빠가 원래 없어요. 엄마가 혼자 절 낳았어요.
이츠키 (슬기 보며) 미혼모?
슬기 (책이나 보시라는 손짓. 배부르고 등 따수우니 나른하다.)
기복 아... 그... (거품 묻은 손으로 선글라스 모양 만들며) 오...
아이 할머니가 올해 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자주 우울해해요.

기복 엄마 우울해할 때마다 할머니 흥내 내면... 기분이 좀 나아지세요.
 너 심청이 맞구나. 할머니 흥내에, 알바에,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근데 너희 엄마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츠키 (갑자기 흐느껴 운다. 동화책, 애잔한 장면이다.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기복 저 형이 진짜... (읽어봐서 왜 우는지 안다) 그래... 감성 하나는 좋더라.
 어쨌든 네 덕에 가게도 팔릴 거 같고... (한 번 더 거품) 고맙다.

아이 (이 악물고 닦으며) 뭘요. 할망구 된장찌개의 비밀도 전수해 주시고 (수돗물 발사하며 할머니처럼) 내가 더 고맙다 이눔아.

기복 (!!!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냐! 그렇게 물장난이 시작되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 점점 커진다. 슬기, 어디 불났나? 일어난다.

슬기 (옥탑에서 보이는 아이네 아파트) 불났는데요?
모두들 (모여든다) 어디? 진짜?

보면, 아이네 거실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쓴살같이 튀어나가는 아이.

S#41. 횡단보도(해질 무렵)

차가 오든 말든, 미친 듯이 건너는 아이. 두 손엔 핑크 빛 고무장갑이 그대로.

S#42. 아이네 / 현관 + 주방(해질 무렵)

별일 없이 수습이 된 상태. 주의사항을 남기며 철수 중인 소방관들.

아이 (덩치가 산만 한 소방관들을 밀치며 달려 들어온다) 엄마!!!
정희 (얼굴에 거뭇한 그을림 자국. 민망) 뭘 좀 태워먹었더니...
아이 (만지며)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왜 그런 건데?
정희 (키득키득. 고무장갑을 가리키며) 이걸 뭐야?
아이 (찌릿!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정희 별일 아냐. (주방으로) 돈까스 튀기려다 키친타월에 불붙어서 연기 좀 난 거야. (철없이) 근데 이게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불이 그냥 후아 아아악~
아이 (히스테릭할 정도로 꺾!) 미쳤어!! 돈까스를 왜 튀겨 엄마가!!
정희 (당황) 아니 왜 소리를 질러... 난... 너 돈까스 좋아하니까...)
아이 누가 엄마더러 돈까스 튀겨 달래!!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일 좀 벌리지 마, 제바알!!
정희 야! 아니, 엄만... 넌 알바도 하고... 고생하니까...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 엄마 때문에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제발 엄마 걱정 좀 하지 않고 살자!
정희 허, 걱정..
(당황해 얼굴을 붉적이는데 그을음이 번진다. 말없이 방으로..)
아이 (그 모습이 또 불쌍해 보이고...)

S#43. 아이네 / 정희 방(저녁)

바닥에 앉는 정희.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가 없다. 뭐가 잘못된 걸까. 거뭇한 얼굴.

S#44. 아이네 / 주방(저녁)

아이, 눈물이 난다. 눈물을 닦으려고 고무장갑을 벗는데, 그마저도 잘 안 벗겨진다.

S#45. 기복식당 / 옥탑 마당(밤)

아이네 아파트 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 기복. 묘하게 쓸쓸한 기타 튠링 소리.

기복 아, 애는 이렇다 저렇다 왜 연락이 없어.
이초키 (평상에서 기타 튠링) 니가 해.
기복 ... 번호를 몰라.
이초키 개는 니 번호 알아?
기복 ... 모를 걸?
이초키 도대체 개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기복 그니까... (평상에 앉으며) 애가 씩씩한 거 같기도 하고, 사연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볼 때 개 엄마가 문제야. 형도 그 여자 봤지? 형 스카이콩콩 타다 다친 날... (핸드폰이 울린다. 기타 멈추게 하며) 여보세요? (아이가 아니다. 시무룩) 네. 네, 간판 없는 식당 맞습... (놀라

서) 어디요?

S#46. 아이네 / 욕실(밤)

욕조에 따뜻한 물이 채워진다. 김이 모락모락. 물소리가 물방울 소리로. 똑똑- 아이와 정희, 마주 보고 앉아 있다. 눈만 바라보고 말이 없다. 불편한 침묵 계속되는데,

정희 (푸아아- 숨을 터뜨린다) 못 참겠어.

아이 (푸아아-) 아싸, 이겼다. 이긴 사람이 먼저 밀어 주기.

정희 (아이에게로 가서 등을 돌린다) 살살 해.

아이 (세신사처럼 준비 박수 치며) 으~메, 이 아가씨 피부 고운 것 좀 보셔
잉.

정희 (웃음 터져) 까불지 마.

다정하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한 모녀의 모습.

아이 작업대는 어디 갔어?

정희 그냥... 치웠어...

아이 왜? 야한 건 아무래도 힘들겠어?

정희 (웃고, 어렵게) 아이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났다... 그지?

아이 (눈물 핑- 참으며) 엄마가 왜 못나! 이렇게 예쁘데...

(등에 기대 안으며) 아깐 내가 미안해. 난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

정희 (돌아서 안아주며) 알아. 놀라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아이 엄마...

S#47. 아이네 아파트 전경(밤 → 새벽 → 낮)

달이 떠 있는 아파트 단지 하늘.

푸른 새벽하늘로 바뀌며 해가 중천으로 뜨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쏟아지는 비.

S#48. 아이네 학교 앞(낮)

비. 하교하는 학생들. 교문 앞은 아이들을 마중 나온 차와 우산 든 엄마들로 북적. 그런 우산 마중은 기대도 하지 않는 듯, 비를 맞으며 뚜벅뚜벅 교문을 나오는 아이. “한아이!” 돌아보면 신문지 쓴 기복이 반갑게 손을 흔든다.

S#49. 거리(낮)

비를 맞으며 걷는 아이와 기복.

아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단호) 싫어요.

기복 (신문지 쓰고 쫓아가며) 진짜 이러기야? (태도 바뀌 상냥) 된장찌개 말고 더 배우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짝 다 (가르쳐)

아이 없어요.

기복 불고기? (아이, 고개 절레) 잡채? 제육볶음? (절레절레) 오징어 볶,

아이 (멈추며) 아, 싫다구요!

기복 (졸딱 젖은 신문지 내동댕이치며) 아, 왜 싫은 건데!!

아이 그냥 싫어요! 아저씨네 식당 촬영하는데 제가 왜.. 원래 방학 동안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손으로 비를 가리며) 올 거면 우산을 좀 가지고

오든가!!

S#50. 기복식당 / 옥탑 마당(낮)

평상 위로는 투명비닐 천막. 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무대 의상을 입은 기복과 기타 멘 이츠키. 수건으로 닦으며 어이없이 쳐다보
는 아이.

기복 (간절) 우리 음악 할 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방송 출연의 기회
야!!

이츠키 (끄덕끄덕) 이 기횡 놓칠 수 없다고!

아이 그럼 아저씨들끼리 하세요. (가려고)

기복 (잡으며) 방송국에서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아이 (가만...) 근데, 맛집 프로라면서요. 지금 맛집 프로에서 노래하시게
요?

기복 우리가 그 정도야... 딱 한 번 만이라도...

아이 (체념. 앉으며) 제가 방송 출연하고 그럴 입장이 못 돼요.

이츠키 너 이쁜 편이야.

기복 (뿔 소리야... 이츠키 옆구리를 찌른다)

아이 (짜증) 그런 게 아니구요... 할머니가 죽기 전에 조용히 살라고 했던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튀지 말고. 그게 엄마랑 나를 위한 거라고.

기복 그게 무슨 말이야? 뭐? 미혼모? (열 받는다) 야!! 우리 엄마 나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집 나갔어! 아버지는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고. 할머니가 밥집 하면서 나 키운 거야. 그런 거 때문에 위축되
면 안 돼, 인마!

이츠키 난 부모님 두 분 다 교수셔.

기복 근데 이렇게 보기 흉하게 살잖아. (이상한 자부심을 느끼는 이츠키)
아무도 모르는 거야. 또, 요즘 누가 부모 다 갖추고 사나... 아빠 없는
게 잘못이야? 조용히 살긴 왜 조용히 살아. 왜 살아!! 그럴 거면!!

아이 (괴롭다) 아, 진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게) 사실은...

S#51. 기복식당(저녁)

주방. 요리하는 기복, 정신은 온통 TV. TV엔 S#3의 걸 그룹과 원조 아이돌
스***.
노래를 리메이크 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면, 무엇보다도 가사가 좋았다는 내용.

손님1 사장님, 요즘 왜 따님이 안 보여요?

기복 (얼렁뚱땅) 예, 방학해서... 아니, 개학이구나. 개학해서...

손님2 아웅~ 난 욕 듣고 싶어서 비 오는데도 인천에서 일부러 왔는데~

이츠키 (카운터에서 움찔움찔하더니, 별떡 일어나) 야, 이년아, 욕먹기가 그
렇게 쉬운 줄 알아!! 이년이 욕을 어디서 거저 먹...

모두 (분위기 싸아... 빗소리만... 역효과다)

이츠키 죄송합니다.

S#52. 포장마차(밤)

빗소리에 향수 돌는 포장마차. 나란히 앉은 기복과 이츠키. 기복이 소주를 넘기
면, 기복 옥탑 마당 S#50 연결

아이 (괴롭다) 아, 진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게) 사실은...
(평상으로 올라가 #3의 걸그룹 댄스와 노래를 짧게) 이 노래 아시
죠?

기복 알지~ 바야흐로 서기 2000년, 나 대학 떨어지고 할머니가 식당 일이
나 도우라고 닦달할 시절, 음악 하겠다고 빈손으로 가출해서 집 없이
돈 없이 서럽고 춥고 배고픔의 연속이었던 겨울... 그 노래가 나의 유
일한 위로였다 진짜. 아, 눈물 나... 근데 왜?

아이 그럼 이 노래 가사 누가 썼는지도 잘 아시겠네요?

이초키 (손 번쩍! 부저 누르는 시늬) 뽁- 정답! 한설! 진짜 이랬는데...

기복 (황홀) 진짜 이랬지... 예쁘기만 해? 천재였다니까! 써내는 가사마다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데... 으아아... 그러다가 갑자기 스캔들 터지고
눈꽃처럼 사라졌지... 나 그때 많이 울었다. 어떻게 우리의 여신 한설
이 유부남 프로듀서랑... (아이 앞이라 말을 가린다) 응? 그런... 응?

이초키 난 그때 8기로 빠졌어.

기복 형은 군대 빠지려고 일부러 뺨 거고.

이초키 마침 딱 겹쳐서 빼기 쉬웠어.

기복 아... 지금 뭐하고 살려나... 미국 가서 애 낳고 산다는 말도 있고...

아이 ... (정희 흉내) 저 그런 일 못해요.

기복 (??) 뭘 그런 일을 못해?

아이 (끄덕)

기복 (!!!) 저... 그런 일 못... 그니까... 지금...

기복 (탁! 잔을 내려놓으며) 201동에 살고 있었어. 미국이 아니라.

이초키 한설 저작권료 많냐?

기복 (이 형은 진짜... 짜린다)

이초키 (후루룩 우동 먹으며) 난 정리가 안 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정리하면, 그 아이라는 아이가 그 유부남 프로듀서의 딸이란 거야?

아이 (소리) 아니!!

S#53. 아이네 학교 / 복도(점심시간)

화창한 날씨. 급식실로 향하는 학생들 사이에 아이와 슬기.

슬기 그럼?

아이 그때 그 회사에 데뷔 앞둔 아이돌 그룹이 있었다. (그룹 이름 귓속
말로)

슬기 스!! (놀라서 입 밖으로 튀어 나오는 걸, 아이가 막는다)

아이 그중 한 멤버랑 엄마랑 사랑에 빠진 거지.

슬기 오 마이 설마... 그럼 그스... (아이, 슬기 입 막고) 중 한 명이 너희 아
빠라고? 대박! 어떤 놈이야!!

아이 (먼저 가며) 몰라.

슬기 (쫓아가며) 몰라!? 왜 몰라? 엄마한테 안 물어봤어??

S#54. 아이네 학교 / 급식실(점심시간)

아이 (급식 먹으며) 엄마랑은 이런 얘기 안 하지. 이것도 겨우 할머니한테
알아낸 거임.

슬기 (열분. 숟가락을 찻불 시위하듯 쳐들며) 그럼 진실을 밝혀야지!!

아이 (주위 눈치) 조용히 좀 해. 그때 엄마 겨우 스물한 살이었는데. 무서웠
겠지. 그 와중에... 날 포기 안 한 거라구... 그 프로듀서씨는 자기 이
미지보다 아이돌 그룹이 중요했... 아, 몰라, 좀 복잡해. 밥이나 먹어.

슬기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냐.. 엄마 좀 (엄지 척) .
아이 의리 있다니까.
남1(OFF) 오늘은 된장국이네? 야, 이걸 니네 아빠가 만들었냐?

여전한 남1, 2, 3. 남2, 3은 콤비로 '우리 집은 맛나~ 된장 맛나~' 부르며 낄낄.

아이 (잠자코 먹기만)
슬기 (아이 눈치 보고)
남1 중국집 딸이랑 백반집 딸이랑 무슨 얘기 했냐?
 누구네 집이 더 맛있나,

하는데 급식실을 올리는 딱! 아이가 숟가락을 테이블에 내려친다.
 남1, 2, 3 깜짝-
 고요- 알게 떨리는 아이의 숟가락.

슬기 (자기 식판 사수하며. 숨죽여) 참아, 참아.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아이 (끼이이이익- 서서히 밀려나는 아이의 의자)
슬기 (밥을 입에 막 넣으며) 알아서 먹는다(니까...)
아이 (숟가락을 들고 남1에게로 뚜벅뚜벅)
남1, 2, 3 (쫓다... 어찌려는 거지?)
아이 (남1 앞에 서서, 밝게) 왜? 먹기 싫어? (남1의 밥을 된장국에 말며) 중국산이면 어떻고, 칠레산이면 어떠냐. 팍팍 좀 먹어라. 야, 나는 까딱 하면 밥은 커녕 세상구경도 못했을 뻔해서 그런지, 웬만한 건 다 맛있더라. 엄마가 고집스럽게 날 낳았으니 망정이지... (우물우물) 아, 우리 엄마 미혼모야. 미혼모 알지? (남1, 2, 3 끄덕끄덕) 엄마가 중간에 입양이라도 보냈어 봐. 지금쯤 토마스, 앤드류, 이판 애들이랑 햄

버거 먹고 있었을 거 아냐. 햄버거도 맛있지. 맛있긴 한데, 밥이 최고지 않냐? 아무튼 난 엄마한테 잘해야 돼. (식판째 들고 국물 들이켠다) 어흐, 잘 먹었다. 꺼억-

남1, 2, 3 (헉-)
아이 미안. (원래 자리로 이동하며) 프랑스는 미혼모가 반이 넘는데. 애 낳으라고 나라에서 돈도 주고. 죽이지? (남1, 2, 3 끄덕) 그랬더니 출산율이 점핑! 점핑! 너희들도 밥 많이 먹고 출산에 힘써. 알고 보면 우리 다 힘든 처지 아니니. (숟가락으로 남2 가리키며) 엄마 아빠 이혼 하셨지? (헉! 끄덕끄덕) (남3에게) 넌? (도리도리) 방심하지 말고. 하여튼 돕고 살자. 팍팍 먹어!!
 (급식판 챙겨 나간다)
슬기 (따라 나가며, 중국어로) 팍팍 먹어!!
남1 (아이 뒤에서 어리둥절) 그럼 그 백반집 남잔 누구야? 아빠야, 뭐야?
아이 (땀뺀. 그러게나 말이다...)

S#55. 대형마트 앞(낮)

원조 아이돌 그룹 스***의 얼굴.
 넓게 보면 마트 벽에 걸려 있는 광고 현수막(or 브로마이드). 그 앞에 아이와 슬기.

S#56. 기복식당(낮)

슬기와 이츠키가 현수막 끝을 잡고 있고, 한 멤버의 얼굴 옆에 키 맞춰 서 있

는 아이.

아이 (까치발 들고 바들바들) 빨리요.

기복 아닌 거 같은데?

아이 (옆 멤버에게로 옮겨) 어때요? 좀 닳았어요?

기복 (자신의 턱을 만지며) 이 부분이 닳은 거 같기도 하고...
(바들대는 아이를 보고) 둘이 좀 내려서 들어.

슬기/이초키 (앗! 그러면 되겠구나! 현수막을 아이 키에 맞춰 내린다)

아이 (힘이 탈씩 풀린다)

기복 그러니까 지금 뭐하자는 건데?

아이 (결의) 밝혀야겠어요! 이대로 엄마를 억울하게 둘 수는 없어. 그 유부남이 아니라 (현수막을 애매하게 가리키며) 이 어디쯤이다... 밝힐 거야.

슬기 (당달아 정의감에) 의리!!

기복 (한심하다) 맛집 프로에서?

아이 의리!!

기복 맛집 프로가 연예가 중계냐?

슬기 맛집 프로가 음악중심도 아니죠.

아이 제가 지금 그 정도예요.

기복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냐? 잘 살고 있는 (현수막을 애매하게 가리키며) 이 어디쯤한테?

이초키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턱짓으로 아이)

아이 (슬기와 각 맞춰 현수막 접으며)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기복 야! 먼지 나! (현수막을 뺏으며 골몰)

S#57. 아이네 / 주방(저녁)

아이와 정희, 된장찌개를 끓이며 모녀끼리 짹짹이 맞아 해 없는 기복 뒷담화.

아이 (재료 넣으며, 기복 흉내) 된장찌개라고 된장만 들어간다?
노오노~ 어 리를 빗 차이가 궁극적인 맛의 빅 차이를 가져오지.

정희 (옆에 서서 깔깔깔)

아이 엄청 품 잡고 어엄청 잘 빠져. 근데 또 음식은 잘해요, 이 아저씨가.

정희 생긴 건 뻥뻥뻥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리를 빗 차이가 뭐래?

아이 (웃음기 가시며) 그건 엄마한테 말 못하지. 그 집 영업 비밀인데.

정희 (어이없다) 야!

아이 (맛보며) 오, 좋아, 좋아. (정희 등 떠밀며) 밥, 밥. 밥 퍼 엄마.

정희 (시키는 대로 하면서 비죽) 엄청 빈정 상하고 싶어진다.

아이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숟가락 세팅하며) 엄마... 답답하지 않아?

정희 뭐가?

아이 집에만 있기.

정희 (괜히) 와, 밥 잘됐다. (시선 느끼고) 아니. 안 답답해. 엄만 집이 편해.
넌 이제 걱정 말고 떡을 썰라. 엄만 손맛을 낼 터이니. (...??) 이상하지?

아이 글을 써라.

정희 그래. 그렇게 해라, 엄마는 요리 공부를 할 테니.

아이 불이나 내지 마.

정희 야!

아이 (불쑥) 기복 아저씨네 촬영 온대.

정희 그래? 가게 팔 거라며?

아이 나도 나가기로 했어.

정희 (탐탁지 않은) 적당히 해. 할머니 살아계셨으면 진짜 질색하셨어.
아이 엄마도 같이 나가자.
정희 뭘?
아이 방송.
정희 무슨 소리야. 거길 왜 나가 내가?
아이 밝히자. 엄마스캔들. 잘못된 거라고 그유부남아저씨, 아با아니라고
정희 (밥공기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 엄마 사람들이 욕하는 거 무서워서 집에만 있는 거잖아.
정희 (배섭)한아이!(냉정)그만해. 가스 불 꺼. 찌개 넘친다. (다시 밥 푸러)
아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평생 이렇게 사람들 눈 피해서 집에서만 살 거
 냐고!
정희 (오히려 웃으며)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이젠 된장찌개 좀 끓
 일 줄 안다고 엄마 가르치려 드는 거야? 알았어. 너 밥걱정 안 하게
 엄마가...
아이 (OL) 밥이 문제가 아니라!!
정희 (주걱으로 전기밥솥 딱!) 그만해.
아이 (물러설 수 없다) 엄마 화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
 잖아. 근데 엄마 평생 숨어서 이게 뭐야! 분하지도 않냐고! 왜 바보
 처럼 참고만 살아!! 왜 바보처럼 숨어서 사냐고!! 이렇다고 누가 알
 아 줄,
정희 (밥솥 뚜껑 쿵!) 그만해. (싱크대 위에 밥공기 탁! 가스 불 드르륵 끄고
 나간다)
아이 (눈물 보이지 말자. 안간힘) 뭘 그만해... 뭘 자꾸 그만해... 뭘 해본 적
 이나 있어? 해본 적이냐 있냐고!! 난! 엄마 이렇게 사는 거... (눈물이
 이겼다. 후두둑 떨어지는) 다 나 때문인 거 같단 말이야...
정희 (!!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엄마 이렇게 사는 거 다 나 때문이잖아. 나만 안 생겼어도... 엄마 잘
 나갈 수 있었잖아. 나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사
 는 거잖아.
정희 (이런 생각을 했다니... 다가와 어깨 잡고) 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
 각을... 엄마가 포기하긴 뭘 포기해. 엄마 포기한 거 없어. 엄마 오히
 려... (말로 하자니 맘이 아프다) 아빠도 없이 태어나게 해서 너한테
 미안...
아이(OL) 나 엄마가 이렇게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난 이 세
 상에 있지도 않았을 거잖아. 할머니도 그렇게 말했는데...
 (단호)나도 엄마한테 은혜 갚아야지. 엄마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어.
정희 엄마 상관없어, 아이야. 정말이야. 엄마 너만 있으면... (안으려)
아이 (벗어나며) 엄마, 아빠가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지 알아?
정희 ...
아이 ...반항. 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나간
 다)
정희 (...눈물...에 젖은 입술을 질근...)

S#58. 슬기네 중국집(저녁)

주방. 슬기 아빠가 중국어로 썰랴썰랴~ 지시하며 음식을 만든다.
 훔. 슬기와 슬기 엄마가 바쁘게 서빙한다. 열심히 사는 가족의 훈훈한 모습.
 구석 테이블에 짜장면을 먹으며 동화책을 보는 쌍둥이 동생(6)들. 맞은편에 아
 이.

동생들 (슬기 오면 중국어로) 읽어줘~

슬기 (중국어) 지금 바쁘잖아. 좀 이따가. (뉘아주며) 흘리지 마, 책에 떨어
져. (아이에게) 탕수육 가져다줄까?
아이 아니.
슬기 짜장면?
아이 됐어.
슬기 먹는 걸 마다하고. 왜 그래 기분이?
아이 너도 룰루랄라는 아니구나, 사는 게.
슬기 엄마는 뭐라서?
아이 뭘 뭐래... (주방의 슬기 아빠를 보며) 아빠 있으면 어떤 기분이냐?
슬기 아빠 (요란하게 벨 울리며 중국어로 고래고래) 유슬기, 뭐해. 음식 식어!!
슬기 (중국어) 지금 가요! (아이에게 봤지? 가며) 고달프지 뭐.

S#59. 아이네 / 정희 방(밤)

옷장에서 상자를 꺼내는 정희. 열어보면 ‘한설’ 작사의 CD들.
그들 <스***>의 앨범도 있다. 멤버들의 얼굴이 있는 재킷 사진.

S#60. 기복식당 / 옥탑 마당(밤)

마당 구석의 노란 전구 밑. 소파에 앉아 동화책을 읽는 이츠키. 푹 빠져 있다.
평상에서 이츠키를 바라보는 아이와 슬기.

슬기 재밌어요?
이츠키 (못 듣는다)

아이 부모님 두 분 다 교수시래.
슬기 (입이 꺾-)

그때, 전구가 깜빡거린다.
이츠키, 그제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 전구를 만지작.
그런데 어떤 일인지 더 발광하기 시작하는 전구. 번쩍번쩍번쩍.

기복 (할머니 카디건을 가져 나오며) 이거 어때? (하다 이츠키를 보며)
저 형은 또 왜 저래?

보면, 나이트클럽인 양 발광하는 전구 밑에서 무반주로 격렬한 댄스를 추는 이
츠키.

CUT TO. 할머니 카디건을 입은 아이를 중앙에 두고, 무대의상을 입은 기복과
기타를 맨 이츠키가 좌우로 서 있다. 뒤에는 번쩍이는 조명.

슬기 (리포터처럼) 오늘은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된 간판 없는 집을 찾아왔
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기복 네. 저희는 장기복과

아이/이츠키 (손가락) 얼굴 돌이예요!

슬기 네! 굉장히 이색적인 가게인 것 같습니다. 아빠와 따님이 하시는 가
게라..

아이 (땀이 급해서) 여기 계신 장기복 씨는 저희 아빠가 아닙니다!! 저는 한
설..

기복 (OL) 야!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아이 그럼요?

기복 우선 노래를 한 곡 해야 할 거 아냐.
아이 아...
기복 노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싸인을 보낼게. 그러면 니가,
아이 (또 급해서) 여기 계신 장기복 씨는 저희 아빠가 아닙니다!! 저는 한설 씨,
슬기 (OL) 근데 이런 게 방송에 나가긴 해요?
 전구가 나갔다. 깜깜...

이초키 불길해...

S#61. 아이네 아파트 단지 입구(밤)

아이가 걸어오다 멈춘다. 저만치 서 있는 정희.

S#62. 아이네 아파트 단지 / 놀이터(밤)

벤치에 앉아 있는 아이와 정희. 서먹한 기운.

아이 웬일로 나왔어?
정희 (밝은 척) 답답해서.
아이 (킷-) 안 답답하다며...
정희 나오니까 좋네.
아이 엄마가 안 나간대도 난 원래대로 할 거야. 더 이상 엄마 이대로,

정희 (CD를 내민다)
아이 (스***의 CD다)
정희 아빠가 누군지 궁금해?
아이 ... 당연한 거 아냐?
정희 (미소) 왜 궁금해?
아이 ... 나중에 나 찾아오면 무시하게. 못 알아보고 상냥하게 굴면 어떡해.
정희 찾아갈 생각은 아니고?
아이 미쳤어!! (CD 던지며) 필요 없다고 해!!
정희 (주워서 소중히 닦으며) 왜 던지고 그래... 필요 없다니 다행이네.
 엄만 네가 아무리 졸라도 말 안 해줄 거야. 그렇게 약속했거든. 약속은 약속.
아이 엄만 세상이 동환 줄 알지? 착한 공주님인 척하면 누가 알아준대?
정희 아이야. 엄만 정말 너만 있으면 상관없어. 물론 너한테.. (다시 맘이 쓰리고)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한 건 미안해... 엄마한테 분하지도 않냐고 했지?
아이 ...
정희 아니. 오히려 엄만 너같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못 보는 누군가가 억울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만, 아빠 하나도 안 미워. 웬 줄 알아? 아빠가 아니었음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냐. (아이 안으며) 아이야, 넌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없다고, 그 사랑도 없는 건 아니야. 너가 이렇게 있잖아, 엄마 곁에.
아이 그래도 난 (울먹) 사람들이 엄말 오해하는 건 싫단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희 (무슨 말인지 안다. 더 꼭 안아주는..)

달이 밝다. 달이 지며 푸른 새벽하늘로. 해가 떠 중천에 오르고.

S#63. 기복식당 앞(낮)

준비 중인 촬영팀. 피디, 조연출, 카메라맨, 스태프, 리포터 정도의 구성.
식당 앞에 간이 무대가 마련돼 있다. 앰프, 마이크, 기타. 무대의상의 기복과 이
츠키.

피디 (조악한 무대를 보며) 이게 다 뭐예요?
기복 (의욕 왕성) 네, 저희가 나름 특별 무대를 마련해 봤습니다.
피디 ... (조연출에게) 여기 사장님들 옷 갈아입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는? 아이는 왜 안 보여?

S#64. 학교 옥상(낮)

아이와 슬기가 태양 바라기를 하며 앉아 있다.

슬기 결국 할머니 말씀대로 조용히 살기로 한 거야?
아이 (눈 감고) 이렇게 하루 30분씩 햇볕을 쬐어 줘야...
슬기 판소리야.. 연락이라도 해. 아저씨 기다릴 텐데.
아이 할머니 왜 조용히 살라고 한 걸까?
슬기 시끄러워서 그래. 우리 엄마 맨날 속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래.
아이 만약에 말이야... 지인짜 만약에, 그 프로듀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
다면 말이야...

슬기 엄청 부자겠지.
아이 (이씨... 눈부신 태양을 보며 혼잣말)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까?

S#65. 기복식당 앞(낮)

기복 (핸드폰 발신 중. 난감) 안 받는데...
촬영팀 (난감하긴 마찬가지)

S#66. 아이네 / 거실(낮)

거실 창으로 기복식당을 바라보고 있는 정희. 돌아선다.
거실을 지나다 책장 가득한 동화책들을 보며,

아이 (#62 소리) 엄만 세상이 동환 줄 알지? 착한 공주님인 척하면 누가 알
아준대?

섬뜩한 미소의 정희.

S#67. 기복식당 앞(낮)

피디 (조연출에게) 정리하자.
기복 (속이 탄다)애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저기요, 피디님! 잠시만요!
이츠키 (앰프에 연결된 기타를 만지다 굉음을 낸다) 삐이이익-

모두들 (귀를 막고)
피디 (짜증 섞인) 조연출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기복 (혼자 안타깝게)그땐 가게도 팔리고..(다시 늘어지며) 진짜 십분만,
아이(OFF) 마 됐다, 치아빠라! 바쁜 사람을 뭐한다꼬 잡노. 마, 가라 케라~
모두들 (보면, 아이와 슬기)

CUT TO.

피디 쿨!
리포터 우리 동네가 뜬다! 동네 구서역~ 구석, 숨어 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가 뜬다! 자, 오늘은 (기복식당 외관을 가리키며) 보이시나요? 간판도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맛집 대열에 올랐다는 이 집,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 찾아왔습니다. 이 집 왠지 수상합니다. 맛도 맛있지만 이색적인 사장님과 따님이... 앗! (옆에 서 있는 아이와 기복) 아... 혹시?
기복 네, 안녕하세요. 장기복과 얼굴 둘에 장기복입니다.
이츠키 (요란한 기타 반주)
기복 (찌릿-)
피디/ 조연출 (뭐 하는 거야!!)
리포터 (아이에게) 우리 학생, 자기소개 좀...
아이 (할머니 카디건 입은) 안녕하세요. 저는 ** 중 2학년 한아입니다.
리포터 이름이?
아이 한. 아. 이. 입니다.

S#68. 아이네 / 거실(낮)

아이를 보고 있는 정희.

S#67-1. 기복식당 앞(낮)

촬영하나봐~ 모여드는 사람들. 아저씨 손님과 딸. 뽀꼼 내다보는 부동산 사장.

피디 (조연출에게) 아빠랑 애랑 성이 달라?
조연출 (급적급적) 그러네요.
피디 그러네... 야! 지금 여친이랑 맛집 데이트 왔냐? 일을 해, 일을!!
 CUT TO.
피디 (기복을 불러낸) 저 혹시 두 분... (귓속말로) 친아빠가 아니세요?
기복 (귀가 예민하다. 간지러워 뽀뽀) 예??
피디 (이 사람이!! 좀 크게) 혹시 친아빠가 아니시냐구요.
아이 (듣고)
기복 (난처)아, 그게... 그러니까... (MC처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피하는)
피디 (잡는) 아니, 꼭 친아빠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방송이 이렇게 자막도 나가고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 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복 그러니까요. 그게 잠시 후에...
아이 아! 아! (주변을 울리는 마이크 하울링) 된장, 된장, 마이크 테스트.

아! (시선 아이에게 집중) 사실 그 분은...

기복 야야야!! (복화술 외침) 노래! 노래 먼저 하고!!

아이 여기 계신 장기복 씨는 사실... 저의 아버지입니다.

기복 야!! 노래 먼... 뭐 인마??

슬기 미친.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겠지...

부동산 사장 (놀랍지만, 재밌어 하는 미소)

남1, 2, 3 (지나가다 뭐지? 촬영하는데?)

아이 이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리porter (주춤. 피디 눈치 보며) 아, 네... 두 번째 아빠... 엄마가...

아이 저희 엄마는 미혼모세요.

리porter 아, 엄마가 미혼..이시고, 아버지가 두 분 계시는...

(피디에게) 이게 뭐죠?

S#68-1. 아이네 / 거실(낮)

정희의 얼굴.

S#67-2. 기복식당 앞(낮)

아이 (차분) 엄마는 아빠 없이 혼자 저를 낳으셨어요. 할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저를 낳아주셨어요.

피디 (카메라 돌리라는 짜인)

리porter 어머, 대단하시다. (안쓰럽게) 아웅, 그럼 우리 아이 학생은 할머니가 많이 원망스럽겠어요.

아이 아니요. 할머니가 저의 첫 번째 아버지예요. 할머니도 엄마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똑같이 고생하며 사는 게 당연히 싫으셨겠죠. 전 할머니 이해해요. 제가 태어난 뒤로는,

S#69. 슬기네 중국집(낮)

동화책을 보고 있는 쌍둥이. 동화책 그림과 아이의 대사가 맞물리는.

아이 (소리) 가장 많이 안아주시고, 혼내주시고, 유치원 입학식에도 와주시고 시장도 데려가주시고... 엄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주셨어요.

S#67-3. 기복식당 앞(낮)

아이 얼마 전 돌아가실 때까지 저랑 엄마에게 항상 맛있는 밥도... 저는 세상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리porter 어머, 그랬구나. 할머니 음식이 많이 그림겠어요.

아이 네. (기복 보며) 기복이 아저씨가 제게 할망구 백반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 된장찌개 맛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반찬도 챙겨주시고...

리porter 어머머, 우리 사장님 얼굴만 멋있으신 줄 알았는데 마음까지 훈남이시다.

기복 (머쓱)

아이 네. 저의 두 번째 아빠나 다름없으세요.

리porter 아응,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 학생 보시면 뿌듯하시겠어요. (주변 살피며) 어머니~ 나와 계세요?

아이 엄마는... (자신의 아파트 쪽으로 시선 옮기며)

S#68-2. 아이네 / 거실(낮)

거실 창에서 돌아서는 정희.

아이(OFF) (마이크) 201동 406호 한정희 엄마!!!

정희 (멈춘다)

S#67-4. 기복식당 앞(낮)

아이의 시선 쪽을 쳐다보는 사람들.

아이 (찌렁) 엄마! 내 말 듣고 있지!

(사람들에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낳으셨대요. 거짓말...

사람들 (동요)

S#68-3. 아이네 / 거실(낮)

정희 (!!)

아이(OFF) 거짓말!! 솔직히 엄마 나 처음 생겼을 때 무서웠잖아!!

남아야 할지... 잘 키울 수 있을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지... 무서웠잖아! 맞지?

S#67-5. 기복식당 앞(낮)

아이 그때 내가 엄마한테 한 말 기억해? 난 기억해. (찌렁) 엄마!!!

엄마-엄마-엄마-마-마-마-아이의 소리가 주변을 울린다.

S#68-4. 아이네 / 거실(낮)

아이(OFF) 나 나가고 싶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정희 (눈물이... 주저앉는)

S#67-6. 기복식당 앞(낮)

아이 엄마 그냥 내 부탁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눈물 참고) 아빠 없이 크게 했다고 미안해하지 마 엄마. 그때도 지금도 엄마 듣고 있잖아, 내 말.

아저씨 손님, 눈물을 훔치며 딸을 꼭 안아준다.

아이, 한동안 고요. 불편한 정적이 계속되자 피디가 리porter에게 진행을 재촉

한다.

리포터 (홀쩍이다가 본분을 깨닫고) 음, 우리 아이 학생이..

아이 (불쑥) 손해 보는 맛.

리포터 ... 네?

아이 기복 아저씨네 된장찌개 비법이요. 손해 보는 맛.

기복식당 주방. S#38 아이와 기복이 하이파이브 하기 전 장면이다.

아이 그런 맛이 세상에 어딴어요?

기복 (우긴다) 있어!! 그게 우리 할망구 비법이야.

아이 (어이없다) 그게 비법이라고요?

기복 (진지) 조금 손해는 보더라도 내 가족이 먹을 거다 생각하면 (넣으며) 재료도 켈로 좋은 걸로 듬뿍 넣게 되고 (싱크대 여기저기 열며) 어디 다 뒀지...

아이 (덩달아 찾으며) 뭐요?

기복 (짤! 엄지 검지로 하트 모양 만들어 꺼내 들며 허세 포즈로 된장찌개에 투하) 이런 것도 막.. 슈! 슈! 슈!

아이 (헐...)

기복 (아이 이마 살짝 때리며) 좋은 거야 마!

아이 (기복을 흘기지만, 생각이 깊어지는 표정)

아이(E) 손해 보는 맛이랬어요. 가족한테만 줄 수 있는 맛... 그래서 맛있는 거라고... (마지막 외침) 그거 알아 엄마! 난! 우리 집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고마워 엄마!

S#70. 기복식당(낮)

주방. 된장찌개를 끓이는 아이와 기복의 다정한 모습. 그 모습을 촬영 중인

피디 (조연출에게) 시식할 손님 섭외됐어?

조연출 앗!

피디 야!!

다정한 뒷모습과는 달리, 카메라 의식해서 은근히 티격태격하는 아이와 기복.

기복 (밀며, 복화술) 야, 너 왜 남의 영업 비밀을!!

아이 (밀며, 복화술) 찻,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시죠. 가족 같은 사 이에..

S#71. 기복식당 앞(낮)

구경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조연출. 누군가에게 다가간다.

S#70-1. 기복식당(낮)

기복 (밀며) 그리고 내가 노래부터 하고 하라고 했어, 안 했... (헉!)

아이 (미는데 안 밀린다) 아, 왜 자꾸 밀어... (헉!)

조연출이 선글라스 낀 정희의 손목을 끌고 들어온다.

CUT TO.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앞에 선글라스의 정희. 아이와 기복,
더 긴장되고...

피디 (조연출에게) 암마, 넌 섭의를 해도... 선글라스를 벗겨야 할 거 아냐!
조연출 (주눅. 울기 일보 직전) 저... 죄송하지만 선글라스... 잠시만...
아이/기복 (못 보겠다)
정희 (잠시 반응 없던 정희, 선글라스를 벗는다)
촬영팀 혁-
피디 허어억-
아이 (올 것이 왔구나 싶고)
피디 야이씨끼, 조연출! 니가 드디어 한 꺾 했구나!! 어디서 저런 미인을...
(적극) 자, 자, 한 입 드셔보시고...
아이 (으에앵?)
정희 (못 알아본다. 다행인지 뭔지... 어리둥절 수저를 들고 맛을 보면)
리porter 어머, 드시는 것도 어쩸... 맛이 어떠세요?
정희 (아이를 보며 방긋) 맛있어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전주가 시작되고. 그 전주를 연주하는,

S#72. 기복식당 앞(낮)

카리스마 풀풀 이츠키, 이 남자가 그 남잔가 싶게 간지 작살.
우리 집은 맛나~ (맛나~) 된장 맛나~ (된장 맛나~)는 기복과 아이(할머니 카디
건 입은).
음악 프로처럼 오버해서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 구경하는 사람들 호응 좋고.

랩이 시작되는 순간, 기복과 아이가 동시에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 튀어 오르는
데, 공중 부양된 상태에서 정지!

아이(E) 근데 이 뒤에 가사가 있긴 해요?
기복 (E, 발끈) 지금 장난해?

S#73. 기복식당(낮)

아이, 기복, 이츠키가 테이블에 수북이 쌓인 멀치 똥을 발라낸다.

기복 우릴 뭘로 보고... (하면서 이츠키와 모종의 눈빛 교환)
아이 맨날 우리 집은 맛나 된장 맛나, 이러기만 하고.
음, 찌그만 게 뭘 똥을...
기복 (이츠키에게 밖으로 나와 보라는 눈빛, 아이에게) 잠깐 있어봐.
아이 (둘이 나가면) 아, 어디 가요? 이 똥 나 혼자 다 빼요?

S#74. 횡단보도(낮)

넵다 뛰는 기복과 이츠키. 땡땡- 벨소리.

S#75. 아이네(낮)

정희 (인터폰 앞에) 누구세요?

기복 (인터폰) 한정희 씨, 장기복입니다. (이츠키 얼굴 들이밀고)

S#72-1. 기복식당 앞(낮)

S#72의 공중부양 상태 정지가 풀리며 연결.
멋들어지게 착지한 아이, 쇼미더머니 저리 가라 랩을 해댄다.
기복은 자신이 하려던 랩을 뺏겨 닭 쫓던 개 꼴이 됐는데, 어라? 아이, 제법 한
다.
랩이 끝나고 우리 집은 맛나~ 가 시작될 순간, 한 번 더 정지!

S#76. 아이네 학교 앞 거리(낮)

아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단호) 싫어요.
기복 (열심히 쫓으며) 이러기야 진짜?
아이 싫어요. 이번엔 진짜 싫어요.
이츠키 (어디선가 나타나) 너 이쁜 편이야.
기복 (옆구리 찌르며) 아 뭐 소리야. (아이에게) 아무래도 넌 타고난 거
같아.
정희 (어디선가 합세해) 힘든 처지끼리 돕고 살아야지. 손해 보는 맛이라며.
아이 (멈추며) 아, 다들 왜 이래!
정희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아이 제가 아저씨네 버스킹 하는 텔 왜 나가요!

S#77. 흥대 거리 + 중학교 급식실(낮)

S#72-1 정지 풀리며 연결. <장기복과 얼굴 들> 티셔츠 입고 버스킹 하는 셋.
구경하는 사람들 틈에 정희와 슬기. 남1, 2, 3.

아이/기복 우리 집은 맛나~
관객들 맛나~
아이/기복 된장 맛나~
아이들 (급식실) 된장 맛나~
아이/기복 우리 집은 맛나~
관객들 맛나~
아이/기복 된장 맛나~
아이들 (급식실) 된장 맛나~ (순가락 번쩍 들고 우렁차게) 잘 먹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화면이 책장처럼 접히면, 오른쪽엔 옆구리에 향아리 낀 할머니 뒷모습. 돌아
본다.

할머니 (빈 향아리 보이며) 다 퍼줬다 이놈들아! (라스트 된장 맛나 음악 땀!)

끝.



작가 후기 **윤조**

대본작업 전 시놉시스 단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공모 제출까지 대본 버전은 한 개였지만 시놉은 다양했습니다.
그중 '한아이'라는 인물을 위해 가장 이야기가 되겠다, 싶은 시놉으로 대본작업을 했습니다.
수정작업의 경우 감독님께서 초고의 색깔을 워낙 좋게 보셔서 최대한 적게, 그러니까 대본에도 나오
듯이 "어 리틀 빛 차이로 궁극적인 빅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1. 정희의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정희의 동화가 들어가면 세 소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센터장님의 의견이 있었
습니다. 동화 삽입을 고려 안 해본 건 아닌데, 동화 컷이 사용된 단막들이 몇몇 있어 제쳐 둔 아이디
어였습니다. 뻔해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때 감독님께서 때로는 진부한 기술이 힘을 가지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틀어 애니메이션으로 가보자, 가 되었고 대신 배치를 보시
는 분들이 극에 어느 정도 몰입이 되었을 때로.

2. 엔딩

"신인 냄새가 너무 난다"는 감독님의 향기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갈갈갈갈] 신인인 걸요." "그래도 너무 난다."

원본은 '한아이'의 내레이션과 함께 기록식당이 대박이 나서 확장 리뉴얼되고, 정희는 15년 동안 써
온 동화를 출판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뭐 그런 (냄새 나는)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인인 듯 신인 아닌 신인 같은 엔딩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올려 공
연의 피날레 같은 엔딩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의 엔딩이.

(감독님 촬영하시기 어려우라고 몹Mob씬도 넣고! 음하하하)

3. 화룡점정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화룡점정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감독님은 클라이맥스에서 조금 더 감동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저의 수련 부족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촬영 전에도 고민을 하고 있지
만, 어쩌면 감독님의 위로처럼 화룡점정이 없는 게 화룡점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보다
는 여지의 미.

2017
오 펜
작 품 집

파이터 김봉숙

유영주

작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노력이 비웃음 당하는 세상 속에서, 일상 속의 평범한 히어로인 김봉숙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외모가 별로라고 남들이 깎아내려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히어로.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내 잘못이 아니라며 툭툭 털고 일어나 불의에 맞서기를 선택하는 히어로. 얼마나 강한 펀치를 날리느냐보다, 강한 펀치를 맞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믿는 히어로.

그런 히어로 말이다.

등장인물

김봉숙(34세, 여) 봉대리
IT계열 중견기업에서 대리만 햇수로 5년차.
매너 있게 말하면 ‘통통녀’, 싸가지 없게 말하면 ‘똥녀’이지만 정작 본인은 몸무게에 개의치 않는다. 남자친구와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때보다 집에서 드라마 보며 불족발을 냉면에 싸 먹을 때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우친 후 다이어트는 깔끔하게 졸업했기 때문. 자기도 못생긴 주제에 남의 외모를 지적질 하는 인간은 반드시 응징하고야 만다. 마블이나 DC의 히어로 무비를 좋아한다. 특히 블랙 위도우의 팬.

홍두식(32세, 남) 흥관장

오피스 빌딩숲 한가운데서 직장인 복싱스쿨을 운영 중인 관장.
퇴근 후 운동에 관심 있는 회원은 죄다 여자들뿐인지라 체육관은 여성 회원만 넘쳐난다. 남자들의 땀냄새 나는 뜨거운 드라마를 꿈꾸었지만, 지금은 아이돌 노래에 맞추어 다이어트 복싱을 가르치고 있다. 언젠가 ‘진짜’ 복싱을 가르쳐보는 것이 꿈인 그의 앞에 어느날 나타난 똥녀 김봉숙. 그런데 이 여자, 누군가를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며 눈빛이 장난이 아니다. 한번 제대로 가르쳐볼까?

강새미(26세, 여)

업무지원팀. 봉숙 밑으로 들어온 신입 사원. 어딘지 자신감이 없다.

유세진(36세/남) 유차장

업무지원팀. 귀공자 같은 외모와 서글서글한 매너로 남녀 모두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외

윤대리(남자 동기), 과장, 팀장, 부장 등.

줄거리

언니가 와서 말한다...셋업.

서른네 살, 번듯한 직장에 주말은 치킨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싱글녀 김봉숙. 남들이 떠올리는 ‘골드 미스’의 모습에서 조금 과체중일지는 몰라도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살고 있다. 여자 동기들, 선배들이 결혼과 육아휴직으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 정글 같은 남초 회사에서 홀로 살아남는 법을 깨우쳤다. 하고 싶

은 말은 그 자리에서 꼭 하고야 마는 성격이지만, 제법 긴 사회생활에 능구렁이가 다 되었는데. 하지만 그녀에게도 시련은 있었으니, 날고 기는 여자 선배들도 다 떨어뜨렸다는 회사의 유리천장. 압축파일 하나 제대로 못 푸는 남자 동기가 먼저 승진한다는 말에 뚜껑이 열린 봉숙, 속상한 마음에 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마는데...

난 성폭행을 당했는데, 넌 평판에 흠집? ...장난하나?

팀 남자들에게 늘 무시당하는 봉숙을 챙겨주던 매너남 유세진 차장.

회식이 있던 다음 날, 봉숙은 호텔 침대에서 혼자 눈을 뜬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본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유차장이 데려다준다고 택시에 태웠고, 그리고 호텔로 데리고 와서... 설마?! 몸서리치는 봉숙!

그 길로 회사로 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차장에게 깽판을 치는 봉숙. 하지만 유차장은 그런 일 없었다며 잡아챈다. 설상가상으로 유차장이 뭐가 아쉬워서 봉숙을 건드리겠느냐는 회사 사람들의 조롱에 봉숙은 사직서를 던지고 만다.

고소를 하려고 해도 증거라고는 봉숙의 불완전한 기억뿐. 소송해봤자 상대 평판에 흠집이나 나지, 무고죄로 역고소나 당할 거라는 말에 분노에 떠는데.

복싱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분에 못 이겨 유차장을 한 대 패기라도 해야겠다고 무작정 찾아간 봉숙이지만, 압도적인 힘 차이에 본인만 바닥에 패대기쳐질 뿐이다. 패배감에 서럽게 우는 봉숙. 문득 출근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복싱장 관장, 흥두식을 떠올린다. 두식을 찾아간 봉숙은 무작정 복싱을 가르쳐 달라며 떼를 쓴다. 하지만 두식은 사람 패는 기술은 안 가르치겠다고 거부하는데.

“난 종이 인형이 아니에요.

두들겨 맞고 나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자식 얼굴에 한 방 먹여주고 말 거예요.”

봉숙의 눈빛에서 복싱의 소울을 느낀 두식. 봉숙을 가르치기로 마음먹는다.

봉숙은, 복싱으로 그토록 염원하던 복수를 달성할 수 있을까?

S#1. 체육관 내부(저녁)

빠른 템포의 아이돌 음악이 흘러나오는 체육관 내부.
여자 네댓 명이 거울 앞에 일렬로 서서 음악에 맞춰 원투 동작(쩍과 스트레이트
가 연결)을 반복하고 있다.
앞에는 코치로 보이는 듯한 남성(두식)이 미트를 팡팡 쳐대며 목소리를 높인다.

두식 지방을 향해 펀치를 날린다 생각하고~!! 원투 쓰리 포!
(박자에 맞춰 미트 치며) 트랜스지방을~분해! 분해! 분해! 분해!

그때, 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오는 누군가에 시선을 빼앗긴다!
제법 살집 있어 보이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30대 중반 여성, 김봉숙이다.
두식, 봉숙의 살벌한 눈빛에 압도되는데.

두식 다...다이어트 하시게요...?

봉숙, 말없이 문을 닫으며 한 마리 불곰처럼 위압감 있게 걸어 들어오고.

봉숙 ...사람 패려고요!

타이틀. 파이터 김봉숙

자막. 이들 전

S#2. 구로디지털단지역 / 승강 플랫폼(아침)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여느 때의 평화로운 아침.
지하철 문이 열리며 캐주얼한 오피스룩 차림의 여성을 비춘다.
우르르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나오는 봉숙.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다.

S#3. 구로디지털단지역 / 에스컬레이터

줄을 서서 에스컬레이터에 탄 봉숙.
뒤에 서 있던 20대 남자의 핸드폰이 슬슬 봉숙의 다리 밑을 향하기 시작하고.
세상 모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봉숙.
남자, 봉숙의 눈치를 보더니 점점 과감하게 핸드폰을 치마 밑으로 들이민다.
그때, 남자의 손목을 덩석 잡는 봉숙의 손!
헉...해서 올려다보는 남자. 살기등등한 표정의 봉숙이 쳐다보고 있다.

시간 경과.

봉숙, 몰카남에게 헤드락을 걸어 올라오고 있다. 몰카남, 도망가려고 몸부림
치는데.

몰카 이거 놔...! 킁...숨막혀...!

봉숙 숨은 왜 쉬냐? 이 미세먼지도 아까운 놈아.

몰카 이 돼지야! 너 같은 거 볼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사진을 찍어!

봉숙 니 취향을 왜 나한테 물어봐?

난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경찰서 가서 얘기해.

몰카남, 안 되겠는지 에이씨! 하더니 봉숙의 팔을 꺾어서 바닥에 패대기친다.
비명을 지르는 봉숙. 몰카남, 전력 질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봉숙 (이 갈며) 너 이새끼 잡히면 진짜 죽는다...!

봉숙, 힐과 가방을 던져놓고 맨발로 질주하는데.
몰카남의 발이 빨라서 한참 멀어진다. 봉숙, 숨이 차지만 계속 달리는데.

봉숙 (헉헉) 거기...! (헉헉) 그놈 좀 잡아요...!

그때, 길에서 광고용 티슈를 돌리고 있던 두식.
뛰어오던 몰카남을 보더니 발을 썩 내민다.
뒤돌아보며 뛰다가 발을 보지 못하고 우당탕 걸려 넘어지는 몰카남!
다시 기어 일어나서 도망가려는 몰카남의 뒷덜미를 두식이 잡는다.

몰카 (주먹 날리며) 넌 뭐야 이씨!

두식, 몰카남의 주먹을 물 흐르듯 속 피하더니 귀 옆으로 속 스트레이트를 날린다!
주먹이 스친 것뿐인데도 오금이 저린 몰카남, 털썩 주저앉고.
봉숙, 그제서야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다.

봉숙 헉...헉...너 이새끼.. (몰카남 옷 뒤지는)

두식 뭘니까? 소매치기?

봉숙 (남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핸드폰 보여주며) 몰카요.

두식 ...모, 몰카요? 여자 몸 찍는? (반사적으로 봉숙 몸을 훑어보는)

봉숙 (몰카남 향해) 야, 니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도망쳐 봐. 니 가족 친구들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니가 찍은 작품들 다 보낸다.

몰카 으...

봉숙 (두식 향해) 진짜 고맙습니다. 어떻게 인사 표시를 할지...

두식 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퍼뜩 생각나면) 아, 그러면요. 혹시 회사 가시면 직원들한테 이거 좀 돌려주실래요?

두식, 가방을 뒤지더니 비닐에 든 휴지를 한 움큼 꺼내서 봉숙에게 내민다.
광고 피라시기가 들어 있는 휴지다. “HONG 다이어트 복싱”이라고 써 있다.

봉숙 (읽으면) 복싱?

두식 네, 복싱이라고 해서 때리고 맞고 그런 거 아니고. 최신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춤추듯 하는 거죠! 여자들 다이어트에 좋아요.
(봉숙 훑어보며) 보니까, 등록하시면 효과 보실 것 같은데...

봉숙, 그 말에 기분이 팍 상했다. 보면 눈치없이 해맑게 웃고 있는 두식이다.

봉숙 (정색하고) 이보세요. 도와준 거면 도와준 거지, 누가 인생 조언 해달랬어요? 언제 내가 살 빼고 싶대요?

두식 (기세에 놀란) 예...?

봉숙 (휴지 낚아채며) 휴지는 회사 가서 돌릴게요.
(정중하게 고개 숙이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뻑! 하니 몸을 돌려 가버리는)

몰카남 (어기적거리며 일어나서 쫓아가는) 저...저기요! 내 핸드폰...

두식, 황당해하며 뒷모습만 바라보는데...

S#4. 한국소프트 사무실(아침)

소프트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사무실로 다급하게 들어오는 봉숙. 던지듯 자리에 가방 내려놓으며 컴퓨터를
켜고.
봉숙 옆자리에 앉은 새미가 인사한다.

새미 안녕하세요. 차 막히셨나 봐요.
봉숙 안녕, 나 찾는 사람 없었지?

그때 봉숙의 자리로 다급히 뛰어오는 30대 남성.

과장 봉대리, 메일 봤어? 북미 쪽 마케팅 지표 정리하는 거. 이따 10시까
지 부장님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봉숙 (재킷 벗으며) 어제 해냈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과장 땡큐 땡큐. (봉숙 책상에 걸터앉다가 초콜릿 상자 발견하고는)
면세점 쪼꼬렛이네? 유차장님이 출장 갔다 오면서 사다줬구만?

그 말에 파티션 너머에서 유차장(세진)이 이쪽을 보며 슬며시 웃어보인다.
멀끔한 인상의 세진. 봉숙과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는데.
봉숙, 쑥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눈길을 피한다.

과장 (초콜릿 날름 먹으며) 아유~ 센스쟁이. 여자들 거만 챙겨왔네.
(민소매 입은 봉숙의 팔뚝 훑어보고) ...근데 봉대리, 안 답냐?
봉숙 (모니터에서 눈 안 떼며) 안 더운데요?
과장 그래? 난 너 보면 더운데.

봉숙 왜요, 내가 너무 핫해서? (메일 전송하고는) 자료 보냈어요.
과장 (발딱 일어나며) 땡큐, 프린트 다섯 부만 해서 부장님 방으로 갖다 줘.
가자 윤대리.

어리숙해 보이는 윤대리. 과장 뒤에 붙어 졸래졸래 따라간다.

새미 (봉숙 눈치 보고 일어나는) 프린트 제가 해올게요!

S#5. OA실

새미, 프린터 앞에서 찢찢매고 있다. 야속하게 빨간 불만 깜박거리는 프린터.
시계를 보면 10시까지 채 오 분도 안 남았는데.
봉숙이 들어오더니 컴퓨터 전원을 껐다 켜고 옆구리를 몇 번 두드린다.
램프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종이를 토해낸다. 새미의 얼굴도 환해지고!
봉숙, 옆에 폐종이함 박스에서 용지를 한 움큼 집어 프린터 종이칸에 넣는다.

봉숙 부장님은 이면지 안 쓰면 뭐라고 하시니까 이면지 찾아서 쓰고.
새미 (미안한 얼굴로 끄덕끄덕)
봉숙 (프린트 넘겨주며 미소 짓는) 부장님 방에 가져다드리고 와.

S#6. 일식집(점심시간)

지원팀 여섯 명이 테이블에 들어와 앉는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동적으로 휴지 깔고 숟가락 놓고 물 따르고 척척적인 봉숙.

건너편 테이블 쪽 컵에 손이 안 닿아서 킁킁대는데,
그쪽과 가까우면서 손 하나 까딱 안하는 동기(윤대리)를 한번 찌러본다.
그때, 누군가 봉숙 손에서 물병을 뺏는데, 세진이다.
자기 쪽 테이블 물컵에 직접 물을 따라서 놓는 세진.
봉숙, 배려가 고맙다.

과장 예뻐, 오늘 특별히 우리팀 다같이 점심 하자고 한 이유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봉숙, 설마? 하면서 팀장 얼굴 쳐다보고.
맞은편 윤대리를 보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뭔가 불길하다!

과장 바로 우리 윤대리가! 다음 달부터 과장으로 승진합니다!
(박수 유도하며) 모두 박수~!! 박수~! 짹짹짹!!

봉숙 (물컵으로 탁자 내리치며) 뭐야아아아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일행. 그러거나 말거나 분노로 얼굴이 시뻘게진 봉숙.

S#7. 일식집 앞(점심시간)

점심을 먹고 가게에서 나오는 일행.
봉숙은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다른 팀원들은 모두 눈치 보느라 어쩔 줄 모른다.
안 되겠다는 듯 총대를 매는 팀장.

팀장 봉숙 씨 새미 씨. 따라와, 커피 마시러 가자.
봉숙 (말없이 따라가고)
과장 (뒤에다 대고) 카~ 여직원들만 따로 커피 사주시고.
팀장님 너무 멋있으시다! 좋겠네, 우리 팀 여직원들은!

S#8. 커피숍 / 야외 테이블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을 앞에 놓고 앉은 세 사람.
팀장은 내심 미안한 얼굴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얼굴이 구겨진 봉숙.

팀장 이해해. 윤대리가 야근도 더 많고, 평가도 쪼오금 더 높았거든.
봉숙 윤대리가 한 발표 자료들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야근은 저도 해요! 윤대리가 회사 컴으로 게임 한다고 맨날 늦게까지 있어서 그렇지!

팀장 (난처하다) 윤대리 와이프 둘째 임신했잖아. 네 입 먹여살려야 하는데, 우리 봉대리는 아직 혼자고.

봉숙 네 입이든 다섯 입이든 누가 능력도 안 되는데 애 싸지르래요? 막말로 내 애도... (아닌데, 하려다 팀장 표정 보고 입 닫고)

팀장 다음에 진짜 올려줄게. 이번엔 보너스랑 휴가 따로 챙겨줄 테니까 얼굴 좀 펴고. 무서워서 아까 먹은 알탕 얹히겠다.

힘차게 손가락 다섯 개 펴 보이는 봉숙. 팀장, 도리도리 젓고 세 개를 펴 보이고. 봉숙, 힘주며 네 개! 팀장도 비장하게 끄덕인다. 네 개로 합의.

팀장 (일어나며) 나 먼저 들어갈게, 둘은 천천히 들어와.

아! 그리고 새미 씨. 회식 요 앞에 삼겹살집 일곱 명 예약해 줘.

팀장이 일어나고 둘만 남은 새미와 봉숙.

봉숙 (자조적인 웃음 짓는) 아이고, 더럽다 그치? 그래도 어찌겠냐.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있으니까 내 눈치를 보는구나 하는 거지.
(새미 보며) 넌 나처럼 이직 타이밍 놓쳐서 여기 지박령 되지 말고 튼나는 대로 영어공부 해서 좋은 데로 이직해.

새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봉숙 어우 맛없어. (쓰레기통에 커피 던져버리는) 보너스도 댔는데 비싼 커피나 마시러 가자. (일어서는) 사줄 거면 좋은 거 사주지, 천이백 원짜리가 뭐냐..

S#9. 흑돼지 삼겹살집(저녁)

뽕~! 하며 공중에서 부딪히는 쏘맥 잔들!

일동 이 멤버, 리멤버~!!!

이어서 파도타기 하고, 부장-팀장-과장-윤대리-맞은편 봉숙까지 빠르게 원샷한다.

다음 차례인 새미가 먹다가 다 못 마시자 야유하는 남자들.

부장 야야, 그런 거 하지 마. 요새 억지로 술 권하면 인사에서 경고 들어와. 개발팀 얘기 못 들었어?

팀장 에이, 그래도 신입 들어오고 처음 하는 회식인데 할 건 해야죠. (손짓하며) 강새미 씨, 이리 좀 와서 앉아봐! 새미 씨가 따라주는 술은 얼마나 맛있나 보게. 아주 그냥 달착지근~할 거 같은데.

선을 넘나드는 발언에 과장 이하들은 영 뺄뚱한데. 새미도 곤란해한다. 그때 팀장과 부장 사이에 와서 털썩! 앉은 봉숙. 쏘맥을 척척 말기 시작하고.

팀장 야! 새미 씨가 오라니까 왜 니가 와~!!

봉숙 쏘주 이십 년 마셔놓고 맛 몰라요? 새미 씨가 따르면 쏘주가 양주된 대요? 뭘 3천 원짜리 마시면서 맛을 따져.

팀장, 성질 부리려는데 눈치 없는 과장이 고맙게도 끼어든다.

과장 (볼멘소리) 맞아요 팀장님. 우리도 좀 좋은 데 가요. 우린 맨날 1차 삼겹살, 2차 치맥...어우 지켜워.

윤대리 개발팀은 2차로 한남동에 싱글 몰트바 갔대요.

팀장 싱글 모... 뭐...?

세진 요즘 유행하는 위스키바 종류예요.

팀장 야 그까짓 싱글... 난 따블로 쏜다. 따따블로 쏜다!!!

일동, 환호하고! 다시 파도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S#10. 노래방(새벽)

부장과 팀장을 중심으로 으샤으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일행. 다들 거나하게 취

했다.
봉숙, 졸려 죽겠다는 얼굴로 복도로 나오는데. 들어오던 세진과 마주친다.

세진 (미소) 피곤한가 봐요.
봉숙 (궁시렁) 싱글 몰트의 따따블이 노래방인가.
세진 (웃음) 제가 여기로 잡았어요. 거기 가면 저희 예산 구멍 나요.
(봉숙 살피며) 김대리 오늘은 좀 많이 마시던데요.
봉숙 그러게요. 술이 좀 들어가네요.
세진 윤대리 승진 때문에 속상하죠?
봉숙 (쌉쓸하다) ...솔직히 좀 그렇죠.
세진 김대리가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가는 거 다들 알고 있어요. 김대리가 일한 만큼 대접 못 받고 있다는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어쩔 말도 저렇게 이쁘게 할까. 봉숙, 고맙고 씩스러운데.
세진의 부드러운 눈길에 괜히 설렌다.
그때, 벌컥 문이 열리며 새미가 나오고! 퍼뜩 정신 차리는 봉숙.

새미 (분위기 살피는) ...대리님 괜찮으세요? 안 들어오셔서...
세진 들어갈 거예요. (봉숙에게) 가요.

세진, 먼저 들어가면서 봉숙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는데. 의식하는 봉숙.
방 안에 들어가자 세진이 봉투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꺼내 사람들에게 돌린다.
봉숙에게도 싱긋 웃어 보이며 음료를 건네고.
(세진, 음료수를 꺼낸 봉투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더니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는다. — 시청자만 보임. 나중에 수면제임이 드러남)

봉숙...방 안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는 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본다.
부장...팀장...과장...망할 놈의 윤대리...새미 씨...그리고 세진.
이걸로 된 거겠지...봉숙, 자조의 미소를 띠우며 앞의 맥주잔을 쪽 들이켜고.

S#11. 몽타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봉숙의 시선(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음)

일행들이 봉숙에게 말 거는 소리. “봉대리, 집에 가자!” “대리님 괜찮으세요?”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문이 탁! 닫히는 장면
누군가 봉숙을 부축해서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
침대에 눕혀지는 봉숙의 모습
그리고 암전...

S#12. 호텔방(아침)

다음날. 침대에서 반짝! 눈 뜨는 봉숙.
깨질 듯한 숙취로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데. 속옷(슬립)만 입은 상태이다.
기다시피 샤워실로 가서 물을 틀자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진다.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알 수 없는 장면이 뇌리를 스치는데...

플래시백.
침대에서 정신없이 잠든 봉숙
그런 봉숙에게 몸을 기울여 키스를 하는 세진
겉옷을 벗는 세진의 모습

봉숙, 옆을 보자 봉숙의 옷이 물에 젖은 채 옷걸이에 걸려 있다.
번개를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든다!! 꿈이 아니었구나!

S#13. 한국소프트 사무실(아침)

사무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봉숙.
분주히 일하던 사람들, 봉숙을 보고 놀라서 동작 정지한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머리에 땀, 덜 말라서 구겨진 (전날 입은) 옷차림의 봉숙.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과장이 봉숙을 발견하고 “아, 봉대리 오늘 회의 자료...”
하다가 입을 다무는데. 봉숙이 그대로 돌진한 곳은 세진의 자리!
전화 받고 있던 세진이 심상치 않은 기운에 뒤돌아보는 순간, 봉숙이 와서 책상
을 와르르 쓸어버린다!
사람들... 얼음물을 끼얹은 듯 굳어버리고. 새미도 놀라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봉숙, 식식대며 세진을 노려본다.
세진도 내심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침착하게 봉숙을 보는데.

세진 (차분한 말투) ...김대리, 무슨 짓이죠?
봉숙 무슨 짓? (버럭) 무슨 짓을 했는지는 너가 더 잘 알겠지!!

세진,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나직하게 말하는데.

세진 김대리 집까지 데려다주러 갔었는데, 김대리가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못 눌러서 할 수 없이 데리고 근처 호텔로 갔어요. 옷은... 김대리가 옷에 구토를 하는 바람에 미안하지만 허락없이 벗겨서 빨아냈고요.

봉숙 거짓말하지 마.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세진 (차갑게) 목소리 낮추세요. 업무시간입니다. 의심스럽다면 정식으로 인사팀에 이슈 제기하든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든가 원하는 방법으로 납득이 갈 때까지 하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봉숙 (이게 입만 살았네...)

세진 하지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이 그렇게 자기 기억에 확신을 가진다는 게 신기하네요.

봉숙 ~~~~~ (이성을 잃는) 야!!!!

S#14. OO 호텔 / 로비

다급하게 뛰어 들어와 프론트에 매달리는 봉숙.

봉숙 (헉헉) 저기...1005호요. 거기, 청소했나요?

직원 네?

봉숙 거기 있던 침구류...시트랑 그런 거요. 어디 있어요?

직원 수거해서 세탁업체 맡기려고 모아놨는데요. 저쪽에...

봉숙, 호텔 주차장에 나가 보면 십여 개의 세탁 주머니가 늘어서 있다.
하나 열어 보면 똑같이 하얀 시트...옆의 것 열어 보면 똑같은 하얀 시트...미치겠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플래시백. S#10에서 음료수를 건네는 세진.

자신의 것만 마개를 열어서 준다. 혹시 이미 열려 있었던 거라면...?

S#15. 노래방

노래방 복도 바닥에 쓰레기통을 모아놓고 뒤지고 있는 봉숙.

아저씨 (짜증) 아 저 아침에 쓰레기차 왔을 때 다 내놨다니까?!

봉숙, 답답해서 입술만 깨물 뿐이고.

S#16. 한국소프트 사무실(오후)

다시 사무실에 봉숙이 등장하자 흥해가 갈라지듯 피하는 사람들.

옷을 갈아입고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봉숙이다.

영혼 없이 자리에 앉는데, 옆을 보면 새미 자리는 비어 있다.

과장, 봉숙 주변에 와서 차마 말을 못 걸고 쭈뼛거리는데.

과장 어...저기... 봉대리...

봉숙 ...회의 자료 때문에 그러시죠? 취합해서 윤대리 편에 보낼게요.

과장 (살았다) 고마워, 봉대리...!

영혼 없이 문서 작업을 하는 봉숙... 내가 여기서 뭘하고 있지 싶은데.

프린트를 가지고 윤대리 자리로 가는 봉숙. 자리가 비어 있다.

무심코 털썩 의자에 앉는데, 모니터에 반짝이는 채팅창 알림이 눈에 들어온다.

인서트. 컴퓨터에 뜬 채팅 미리보기.

“봉돼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회사 나왔다면?”

봉숙,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본다.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채팅창을 여는데.

10명 남짓이 있는 ‘남자 동기’ 채팅방이다. (‘12 공채 남자방’ 따위의 이름)

채팅방의 글을 읽어 내려가는 봉숙의 눈이 커지는데...!

동기1(E) 강새미인가 개도 얼탱이 없겠다.

동기2(E) 왜?

동기3(E) 개 유차장님 좋아하잖아. 유차장님도 관심 있었고.

동기4(E) 둘이 잘되려는 것 같았는데 봉돼지가 괜히 이상한 소문내서 민폐 끼치네.

동기5(E) 폼...야 유차장이 뭐가 아쉽다고 봉돼지를 건드려. 술 처먹고 꿈꾼 거겠지.

동기3(E) 맞아. 올 회사 여자들 다 유차장님 좋아하는데 왜 하필 봉돼지?

동기5(E) 술까 건드렸어도 고맙습니다 해야 하는 거 아냐? 봉돼지 그동안 많이 굶었을 것 같은데.

윤대리(E) (뒤에서 나타난) 봉대리! 내 자리에서 뭐해?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윤대리를 노려보는 봉숙.

윤대리는 모니터를 보고 내용을 짐작한 듯 얼어 있는데...

윤대리 (모른 척하지만 목소리 떨리는) 지...지표 정리한 거지? 이리 줘.

윤대리가 봉숙의 손에서 인쇄물을 받으려 하지만 봉숙, 꽉 움켜잡고 안 넘겨 주는데.

윤대리 (겁먹고) 뭐해?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봉숙, 인쇄물을 갑자기 뺏더니 북북 찢기 시작한다!
산산이 바닥에 흩어지는 종이를. 윤대리, 입만 짹 벌리고 보는데.

시간 경과.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팀장과 뒤따라오는 과장.

팀장 뭐해 지금? 부장님 기다리시는데! 자료는?

보면, 봉숙은 책상에서 짐 싸고 있다!

멍하니 쳐다만 보는 윤대리, 바닥에 날리는 종이 쪼가리며 난장판인데!

팀장 보, 봉대리... 지금 뭐해?

봉숙 마침 잘 오셨네요. 모바일로 결재되지요? 지금 기안 올렸는데.

팀장 뭘 기안? (핸드폰 꺼내는)

인서트. 팀장의 모바일 결재 화면.

기안자 김봉숙, 기안은 '퇴사 신청서'이다.

봉숙 저희 그만두기 2주 전에 통보해야 되죠? 저 지금 휴가 12일 남았으니까, 오늘부터 10일 쓰고 나머지 2일은 수당으로 주세요.

팀장 보..봉대리! 지금 뭐하는 거야? 갑자기 그만둔다니?

봉숙 (표독스럽게 노려보며) 말이 안 되는 게 뭘 줄 알아요?

애 만드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압축파일도 못 푸는 동기 놈이 저보다 먼저 승진하는 거랑요. (윤대리, 움찔하는)

본인 정수리 흰하니 비어가는 아재가 제 팔뚝 굵다며 오지랴 부리는 거랑요. (과장, 뜨끔해서 자기 정수리 만지는)

(세진 쪽 노려본다. 세진도 봉숙을 노려본다) 짐승이 인간의 탈을 쓰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기 너무 아깝네요.

봉숙, 팀장의 핸드폰 뺏더니 '결재'를 눌러버린다.

봉숙 참. 실수로 하드에 있는 제 자료들 전부 삭제해버렸어요.

회사에서 오는 전화는 다 차단시킬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세요. 화이팅!

봉숙, 짐이 든 박스와 핸드백만 달랑 들고는 나가버린다!

그 자리에 불박이가 된 것 마냥 서 있는 세 남자...

S#17. 봉숙의 오피스텔(저녁)

화이트 톤의 깔끔한 투룸 오피스텔 방.

봉숙, 들어오자마자 회사 물건이 든 상자를 현관에 털썩! 던져놓는다.

시간 경과.

거실에서 <원터솔저>나 <어벤져스> 같은 마블 영화를 보고 있는 봉숙.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양념치킨을 열고 한입 크게 베어 문다.

화면에는 화려한 액션으로 멋지게 싸우고 있는 블랙 위도우가 보인다.

봉숙 (혼잣말) 아...씨. 괜히 불닭으로 시켰나.

(치킨을 앙 물고 있는 불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왜 이렇게 매워...

S#18. 변호사 사무실(낮)

떨랑 책상과 책장만 놓여 있는 단출한 변호사 사무실.
봉숙이 성난 사자처럼 방안을 빙빙 돌고, 봉숙의 친구로 보이는 변호사가 서류를 훑훑 넘겨보고 있다.

변호사 검사에서는 정액, 체모,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아주 주도면밀한 놈이네. 증거라고는 네 말이랑 호텔 CCTV에 들어 들어갔다가 나온 거 찍힌 게 다인데. 그 인간 말대로 너가 토하는 바람에 정리하고 나오느라 그런 거라고 하면 시간대도 이상하지 않고.
(봉숙 보며) 솔직히 이기기 힘들다. 그쪽도 무고죄로 맞고소 할 거고. 가능성은 낮아도 네가 싸운다고 하면 고소 진행할게. 그 인간 평판에 흠집 내기 정돈 할 수 있겠지.

봉숙 피어어엥파아안?! 난 지금 강간을 당했는데 그 쓰레기는 평판에 흠집이 나신다고?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봉숙, 쿵쿵대며 사무실을 뛰쳐나간다!

S#19. 회사 헬스장(저녁)

세진,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야경을 보면서 런닝머신에서 뛰고 있다.
다른 직원들이 쳐다보며 수군대지만 신경쓰지 않는다.

S#20. 회사 주차장(저녁)

샤워를 하고 나온 듯 젖은 머리에 캐주얼한 복장의 세진.
차문을 열고 타려는데, 직감적으로 몸을 휙 돌려 피한다!
세진이 있던 자리에 떨어지는 봉숙의 장우산(골프우산)!
겨우 피한 세진, 봉숙과 마주보는데. 똑바로 노려보는 봉숙의 눈빛이 살기등등하다!
숨을 고른 뒤 이야아아아아! 기합 소리와 함께 덤벼드는 봉숙!
이번엔 세진, 가볍게 몸을 돌려 피하더니 봉숙의 팔을 꺾어 우산을 뺏는다!
봉숙을 차에 밀어붙이고 우산을 던져버리는 세진.

세진 무슨 짓이야 김대리. 미쳤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김대리가 술에 취해서 헛꿈 꾸 거라고.

봉숙 (이 악물고)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나한테 빌게 만들 거야...

봉숙, 빠져나오려고 꿈틀대며 안간힘을 쓰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이가 없다는 듯한 세진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한다.
가만히 봉숙의 귓가로 입을 가져다대는 세진. 들릴 듯 말 듯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세진 ... 왜 그래, 너도 즐겼으면서.

봉숙, 몸에 소름이 돋는다!
봉숙을 힘껏 바닥에 내팽개치는 세진. 봉숙이 구르듯 나동그라지고.
세진, 흰색 세단에 올라타더니 봉숙을 지나쳐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봉숙, 일어나 쫓아가려 하지만 절뚝대느라 역부족인데.

S#21. 회사 바깥 벤치(저녁)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봉숙.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조롱당한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다...

주머니를 뒤져 티슈를 꺼내는데. (S#3에서 두식이 준 티슈)

그때, 눈물로 흐려진 눈앞에 보이는 짜라시 문구. ‘HONG 다이어트 복싱’.

S#22. HONG 체육관 내부(저녁)(#1의 반복)

빠른 템포의 아이돌 음악이 흘러나오는 체육관 내부. 여자 네댓 명이 거울 앞에 일렬로 서서 음악에 맞춰 원투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

그 앞에서 미트를 들고 지도 중인 두식.

그때, 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오는 봉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두식 다...다이어트 하시게요...?

봉숙, 말없이 문을 닫으며 한 마리 사자처럼 위압감 있게 걸어 들어오고.

봉숙 ... 사람 패려고요!

S#23. HONG 체육관 내부(저녁)

사람이 다 빠져나간 시간. 봉숙과 두식, 그리고 청소하는 알바생만 남아 있다.

두식, 상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봉숙을 미심쩍게 바라본다.

두식 ㅎㅎ... 저, 호신술 배우하려는 거면, 제가 좋은 데 알려드릴게요.

봉숙 호신술 배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사람 패는 거 배우러 온 거라고.

두식 말했잖아요, 사람 패는 기술 안 가르친다고.

봉숙 복싱이 사람 패는 기술 아니면 뭐예요?

두식 (기분 상했지만 가라앉히고)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회원이 사회면 기사에 뜨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호신술 할 거면 여자 들은 차라리 주짓수 같은 게...

봉숙 (악 쓰는) 내가 패버려야 할 인간이 있다고요!!!

그런 눈빛 본 적 있어요? 마치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을 볼 때의 눈빛... 넌 너랑 동등한 인간이 아니야. 넌 버려지야. 버려지가 어떻게 감히 반항을 해? ... 내가 자신한테 손톱자국도 남길 수 없다는 걸 아주 잘 아는 눈빛 말이에요. 그 눈빛, 그 얼굴에 주먹을 날려야지 내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울먹이는 봉숙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는 두식.

한숨을 쉬더니 캐비닛으로 간다.

캐비닛 문을 열면, 안쪽에 붙어 있는 록키 발보아의 사진과 문구.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이미 진 것이다”라는 문구를 바라본다.

두식, 원가를 꺼내더니 캐비닛을 닫는.

두식 ...운동 좀 해봤어요?

봉숙 요가 세 달에... 필라테스 두 달?

두식 (한심하게 쳐다본다)

봉숙 (눈치 보다가) 한 달...? 관둔 지 좀 됐어요.

두식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인가 보네요. (줄넘기를 던져준다)

쌩쌩이 할 줄 알죠? 중학교 때 하던 거. 그거 3분이 1라운드예요. 1라운드 하고 30초 쉬고. 또 1라운드 하고 30초 쉬고. 체육관 오는 날도 안 오는 날도 무조건 하루 5라운드씩 해요.

(결연하게) 살, 빼야 합니다.

봉숙 (쩍...)

(봉숙 팔뚝 만지며) 지금은 살 때문에 표적이 쓸데없이 넓어요.

봉숙 (손을 쳐낸다) 자존심 굽는 말 안 하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두식 그리고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하루에 7키로씩 조깅하고.

식단은 프린트 헤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먹어요.

봉숙 (기뻐서 미소짓는) ...근데, 스파링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두식, 어처구니없다는 듯 웃더니 구석에서 물걸레질하던 여자아이를 향해 손짓한다.

두식 은선아! 링 좀 올라가봐. (봉숙에게) 우리 알바생이에요.

나이는 어려도 시작한 지 좀 되어서 안 다치게 잘할 거예요.

봉숙 다쳐요? ...누가? 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아이가 걸레를 내려놓고 링에 올라가는데.

두식, 봉숙에게 마우스피스를 물리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씌워준다.

봉숙 (민망해서) 아니...아무리 그래도 어린애를 제가 어떻게 때려요.

내 몸무게 반도 안 되어 보이는데.

두식 무슨 음식 좋아해요?

봉숙 예?

두식 치킨 좋아하게 생겼네. 재 한 대라도 때리면 치킨 씹니다.

봉숙 예?

봉숙, 몽그적거리며 링 위에 올라가는데.

링 위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풍경이 신선하면서도 익숙지 않아 두리번거린다.

두식 준비!

자세를 잡는 아이. 포즈나 눈빛이 제법 숙련자 태가 난다.

봉숙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어정쩡한 자세로 제자리에서 콩콩대는데.

공(gong)소리가 울리며 경기가 시작된다!

서로 떨어진 채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두 사람.

그 와중에도 봉숙, 혹시 때리면 아이가 다칠까 걱정인데...

그때, 안면으로 흑 들어오는 펀치!

봉숙 으악!!

가까스로 피했지만 스피드나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다시 날아오는 펀치!

봉숙, 뒷걸음질로 도망가다가 넘어지는데.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빙글빙글 돌며 도망을 다닌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눈 딱 감고 이야아아아! 하면서 주먹을 마구잡이로 날리는데!

어쩔 한 대도 맞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피하는 아이.

봉숙이 상황 확인을 위해 고개를 드는 순간 얼굴로 펀치가 들어온다!

차진 퍽 소리와 함께 암전하는 화면.

시간 경과.

입술이 터지고 부은 붓속. 얼음팩을 얼굴에 대고 있다.

두식 (빙글빙글 웃는) 지금이라도 환불 가능해요.

터진 입술로 말없이 고개 흔드는 붓속. 조용히 체육관 문을 열고 나간다.

그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버틸까? 미소 짓는 두식인데.

S#24. 몽타주. 훈련하는 붓속의 모습

체육관. 다이어트 복싱하는 여자들 옆에서 땀 뻘뻘 흘리며 즐넘기하는 붓속.

아침의 공원. 혁혁대며 조깅 중인 붓속. 사람들이 다 추월해서 지나간다.

붓속의 집. TV로 복싱 영상 보면서 닭가슴살 먹는 중. 새도우 복싱을 한다.

S#25. HONG 체육관(낮)

붓속을 지도 중인 두식. 복싱의 기초인 잼과 스트레이트다.

두식 복싱에는 대단한 스킬이랄 게 없어요. 잼, 스트레이트. 이게 전부죠.

나머진 스피드와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세 취하며) 잼, 스트레이트.

(반복해 보이며) 원투 원투. 이거 계속하세요. (가버리고)

붓속 (자세 취하며) 잼, 스트레이트. 잼, 스트레이트. (이미 지겹고)

S#26. 몽타주. 슬럼프가 온 붓속

체육관. 즐넘기하고 있는 붓속. 지치고, 지겹다. 나아지는 게 없다.

아침의 공원. 역시나 혁혁대며 조깅 중인 붓속. 지겨울 뿐이고.

체육관. 샌드백을 치다가 문득 링 위를 보면, 두식이 은선의 미트를 받아주며 훈련 중이다. 샌드백만 두들기고 있는 자신이 처량한데.

붓속의 집. 복싱 영상 보며 꾸역꾸역 닭가슴살 먹던 붓속. 한계에 도달한 듯, 갑자기 쓰레기통에 닭가슴살을 처넣는다. 배달 치킨을 시키더니 마구 뜯고 단무지 국물까지 들이켜는 붓속.

붓속, 행복감에 도취되어 침대에서 잠드는데.

S#27. HONG 체육관(저녁)

수업이 끝난 여자들이 삼삼오오 체육관을 빠져나가고. 두식은 보이지 않는다.

혼자 남은 붓속, 지겨운 얼굴로 성의 없이 샌드백을 치고 있는데.

은선 언니!

붓속,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면 은선이 링 위에서 붓속을 해맑게 쳐다보고 있다.

은선 잼이 안 계셔서 그런데 나 스팅 상대 좀 해줄래요?

붓속, 망설이는데.

시간 경과.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를 물고 링 위에 올라간 봉숙.
 지난번 얻어맞은 기억 때문인지 더 긴장이 되는 듯하다. 애써 마음을 다잡는데.
 조심스레 링 위에서 돌며 상대를 탐색하는 두 사람.
 은선의 얼굴은 자신만만하고, 봉숙은 이미 겁먹은 얼굴이다.
 은선이 성큼 다가오자 바깥으로 돌며 물러서는 봉숙.
 잼이 나오는 순간 가드를 올리고, 그 위로 은선의 주먹이 쏟아진다!
 그때, 마침 탈의실에서 나오던 두식이 링 위의 두 사람을 발견한다.
 주먹을 걷어내고 물러나지만 쫓아오는 은선에게 자꾸만 코너에 몰리는 봉숙.
 그저 맞느라 정신없어서 고개가 타조마냥 바닥에 꽂혀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식... 입술을 깨무는데.

두식 저 봐라 저저...

그때, 맞고 있는 봉숙의 머릿속으로 스치는 회상.

S#28. 회상. HONG 체육관(저녁)

가만히 서 있는 봉숙의 눈앞에까지 주먹을 흑! 뺨는 두식.
 봉숙, 자동반사로 눈을 꼭 감고 몸을 움츠린다.

두식 (한숨) 눈을 떠야 해요.

봉숙 (눈 감은 채) 뜨고 있어요.

두식 맞는 건 아프죠. 하지만 아직 맞기도 전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끝까지 상대를 봐야지 피할 수 있어요. 눈을 감는다는 건 이미 맞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S#29. 현재. HONG 체육관

눈을 질끈 감은 채 맞고 있던 봉숙, 에라 모르겠다 눈을 뜬다.
 그리고는 재빨리 고개를 들며 상체를 젖혀 주먹을 피하는데!
 헛편치를 날린 은선, 호흡이 흐트러지지만 숙련자답게 금세 자세를 가다듬는다.
 거리를 둔 채 링 위를 돌며 다시 서로를 탐색하는 두 사람.
 은선, 기세 좋게 다시 힘껏 주먹을 휘두르지만 봉숙은 몸을 뒤로 젖혀 피하고!
 봉숙의 얼굴에 닿지 못한 채 바로 앞에서 바람만 가르느 주먹들.
 봉숙, 주먹들 중 하나를 손으로 비껴내더니 다른 손으로 배에 한방을 날린다!
 은선의 가드가 내려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얼굴에 정확히 주먹을 꽂는데!

두식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은선, 힘 있는 편치를 제대로 맞고 정신이 아찔하다.
 정말 내가 해낸건가? 믿을 수 없어 기뻐하는 봉숙!
 두식, 링 위로 훌쩍 올라오더니 은선의 얼굴 살펴본다.

두식 여기까지 합시다. (은선 내려 보낸다)
 (봉숙에게) 애를 이렇게 골이 울리게 때리면 어떡합니까?

봉숙, 그 말에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은선이 탈의실로 모습을 감추면.

두식 (미소) 오늘은 그만 짐 싸요, 치킨 쓸게요.

봉숙 (그제야 씩 웃는다)

플래시백. 봉숙, 어젯밤에 치킨 와구와구 먹던 장면 떠올리는.

봉숙 아...저기요! (마음이 찢리는) 치킨은 됐어요. 감량 중이잖아요.

두식 (가웃) 이상하네. 이렇게 잘 지키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럼 판 거 뭐 먹을래요?

S#30. 포장마차(밤)

오뎅 국물을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소주잔을 부딪힌다.

봉숙, 찰랑한 소주잔을 보며 감회에 젖는데.

봉숙 술 참 오랜만에 마시네요.

이놈의 술. 나쁜 놈. 넌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홀쩍 털어놓고)

두식 근데 지금은 회사 안 다녀요? 전에 봤을 땐 출근길 아니었나?

봉숙 아 네... 그만 됐어요.

두식 하하, 백수면 인기 없겠어요. 요즘은 여자도 다 맛벌이하는데.

봉숙 (갈잡다) 자영업이면 인기 없겠어요. 한 집 건너 한 집 망하는데.

두식 (쩍...) 어디 다녔었는데요?

봉숙 요 앞에 한국소프트요.

두식 (감탄) 어유. 좋은 데 다니셨네. 왜 나왔어요? 그냥 다니지.

봉숙 ... 남자 문제 때문이에요.

두식 사내연애?

봉숙 (피식 웃고)

두식 아! 흑시! ... 패주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봉숙 (쓱쓱하다)

두식 에유~ 난 또 뭐라고! 봉숙 씨,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복싱은... 아니, 모든 운동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제압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봉숙 (한 자 한 자 힘주어 말하는) 모든 운동은, 나 좋자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새끼 얼굴에 스트레이트를 날려주고 말 거예요. (소주 홀쩍 마시고)

두식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잇는 겁니다.
(대뜸) 나는 어때요?

푸우- 하고 소주를 뿜는 봉숙.

두식 봉숙 씨 정도면 미인이죠. 살 빠지면 더 미인일 것 같고...

봉숙 미안한데 그쪽은 제 취향 아니에요.

두식 네? (자존심 상한) ...봉숙 씨 취향은 어떤 사람인데요?

봉숙 (오뎅 우물거리며) 장동건, 정우성이요.

두식 네? (말을 못 잇고)

...아니 그게... 솔직히! 그건 쯤...! (가당키나 하나는)

봉숙 알아요, 눈 높은 거. 그러니까 티비만 보면서 살잖아요. 평생 이려고 살 거예요.

두식 에이... 평생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현실의 남성을 봐야죠! 남자는 서른부터라는데 지금부터 키워보는 건 어때요? 정우성, 장동건은 마흔이 넘었는데 내가 그 나이 되면 얼마나 멋있어질지...

봉숙 (기분이 팍 상해서) 정우성, 장동건이 그쪽 나이 때 얼마나 잘생겼었는데 줄 알아요? 홍두식 씨가 마흔이 되면 마흔 살 정우성, 장동건이 아니라 마흔 살 홍두식이 되겠죠.

(오뎅 꼬치 흔들며) 입으로 똥 싸지 말고 술이나 마셔요. 입을 꼬치로

꽤버리기 전에.

봉숙. 입안에 소주를 털어넣고.

두식, 서슬 퍼런 봉숙의 태도에 다소곳이 술만 마시는데.

S#31. 포장마차 앞(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고 있는 봉숙.

두식 데려다드릴...

봉숙 택시!! (멈추면 냉큼 올라타고)

아까 질척댄 거는 없었던 일로 해드릴게요. 내일 체육관에서 봐요.

두식, 택시가 떠난 뒤에도 충격으로 멍하니 자리에 서 있을 뿐이고...

S#32. 몽타주. 훈련으로 성장하는 봉숙

아침의 공원. 조깅할 때도 사람들을 추월해서 지나가는 봉숙.

체육관. 줄넘기하는 봉숙. 제법 뽕뽕이 스피드가 늘어났다. 감탄하는 수강생들.

체육관. 두식과 미트 훈련 중인 봉숙. 미트도 제법 야무지게 치고 들어오는데!

어쭈? 하는 표정의 두식.

S#33. HONG 체육관(낮)

혼자서 스트레칭 중인 봉숙. 옆에서 핸드폰이 울린다.

봉숙 여보세요?

은행(F) 안녕하세요, 김봉숙 고객님의 본인 맞으시죠? 조은은행입니다.

봉숙 아, 예에...

은행(F)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은행 적금상품 이용하고 계신데, 이번 달 금액이 이체되지 않아서요...확인해보니 자동이체 되는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네요. 다음 달이 만기인데...

봉숙 네?

S#34. 건물 1층 앞(낮)

전화기에 대고 बारबार 소리 지르는 중인 봉숙.

봉숙 내가 왜 징계해고냐고요!

인사팀(F) (담담한 목소리) 상사에 대한 비방, 폭언, 폭행 외에도 퇴사가 공시된 절차를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징계해고로 결정되었습니다.

봉숙 그건...!

인사팀(F) 그리고 징계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제 발로 나가신 거잖아요.

맞군... 난감해하는 봉숙의 시선에 1층의 편의점이 들어온다.

유리벽 바깥에 “사람 구함 밤 12시~아침 8시”라는 종이가 붙어 있다.

S#35. 편의점(밤)

아까 본 편의점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봉숙. 그 와중에도 새도우 복싱 연습이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셋이 오더니 맥주캔과 안주거리를 계산대에 올려 놓고. 저들끼리 까르륵 웃고 떠드는 모습이 이뻐 바라보는 봉숙. (새미 또래다)

봉숙 만이천 원입니다. (카드 긁고)

여자들이 편의점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핸드폰을 꺼내는 봉숙. 메신저에서 ‘강새미’를 찾는다.

인서트. 봉숙이 새미에게 보낸 메시지.

“인사도 못하고 나왔네. 혼자 두고 나와서 맘이 편치 않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 파이팅!”

“별일 없지? 회사 생활은 좀 어때?”

등의 메시지가 보내져 있지만 1 표시가 그대로 (읽히지 않은) 상태.

봉숙,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그때 들리는 날카로운 여자 비명소리! 와장창 깨지는 소리도 난다.

바깥을 보자 방금 계산하고 나간 여자들이 남자 둘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테이블에서 여자들이 술을 마시는데 남자들이 접근했다 시비가 붙은 듯.

여자1 됐으니까 꺼지라고!

남자1 (손 올리며) 어디서 소리를 뽉뽉 질러! 치맛으려고...

말 걸어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성피 같은 게...

여자1 성형하는 데 니가 돈 대줬냐? 돈 생기면 급한 니 얼굴부터 해라. 돈도 없어 보이지만...

남자1, 손을 휘둘러 여자의 뺨을 때린다!

여자1, 저만치 날아가 땅에 쓰러지는데. 비명을 지르는 친구들.

남자들, 내친 김에 발로 테이블을 차서 술병들을 깨버리고.

봉숙 뭐하는 짓들이야!!

봉숙의 등장엔 동작 정지하는 남자 일행. 성큼성큼 다가서는 봉숙을 아니꼬운 눈으로 쳐다본다.

남자1 (갈잡다는) 이제 편의점 알바냐? 깰 데 안 깰 데 구분 좀 해라.

(손가락으로 봉숙 이마 찌르며) 가서 삼각김밥이나 팔어 아줌마.

봉숙 너야말로 삼각김밥같이 생긴 게 왜 남의 가게 와서 손님한테 행패야? 애들이 너 못생겨서 싫다잖아.

남자1 (주먹 부르르 떠는) 아... 진짜 오늘 별 게 다 박돌게 하네.

남자1,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다!

링 위에서 연습했던 대로 주먹을 가볍게 피하는 봉숙!

보기와는 다른 날쌔(?) 움직임에 놀란 남자들.

남자1, 우연이라 생각한 건지 좀 더 매섭게 주먹을 휘둘러오는데.

이마저도 다 피해내는 봉숙!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경탄하고.

봉숙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두식의 말.

두식(E) 질릴 때까지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 동작이 나올 때까지. 안 그러면 실전에서는 못 써먹어요.

봉숙, 스트레이트를 날려 남자1의 얼굴에 꽂아버리고!
이를 본 남자2, 놀라서 봉숙을 뒤에서 붙잡는다.
그런 남자2의 머리에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여자2.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다.
마침 건물에서 나오던 두식, 갑자기 경찰차에서 경찰들이 내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들이 향하는 난장판 속에서 봉숙을 발견한다!

두식 ... 봉숙 씨?!

S#36. 구로경찰서 강당(낮)

경찰서 직원 네댓 명이 모인 강당. “용감한 시민상 표창”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경찰서장이 표창장을 낭독하는 가운데 얼떨떨한 봉숙.

서장 귀하께서는 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폭행당하던 부녀자를 구한 동시에 절도로 수배 중인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안전 사회 구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들의 박수가 쏟아진다!
서장이 표창장을 건네자 씩스럽게 받아드는 봉숙. 입이 귀에 걸린다.

S#37. HONG 체육관(밤)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봉숙. 텅 빈 체육관 링 위에 두식이 앉아 있다.

봉숙 미안해요, 늦었죠! 경찰서에 좀 다녀오느라...
(가방에서 표창장 꺼내 보여주며) 짠! 이게 뭐게요~?
바로 훌륭하고 용감한 시민에게만 수여된다는 표창장이지요!
상금도 받았어요. 우리 흥관장님 덕분도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쓸게요! 뭐 먹고 싶어요?

두식, 들떠서 떠드는 봉숙을 말없이 볼 뿐인데.
링 위에서 내려오더니 책상에 앉아 손짓으로 봉숙을 부른다.

봉숙 뭐해요?
두식 우리, 팔씨름합시다.
봉숙 뜬금없이 무슨...

봉숙, 의아한데...어쩔 수 없이 마주 앉아 두식의 손을 잡는다.
입술을 앙 다물고 배에 힘을 단단히 넣는데.

두식 시작.
신호와 동시에 온 힘을 쏟아붓지만 몇 초 만에 바로 꺾이는 봉숙의 손!

봉숙 크윽...
두식 다시 해볼래요?

봉숙 당연하죠. (다시 자세 잡고) 시~작!

시작 소리가 무섭게 또 봉숙의 손등은 바닥에 닿는데.
두 번, 세 번... 저항도 못해보고 팔이 꺾인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한 봉숙이지만 이젠 이를 악물고 하는데.
반면 두식은 눈 하나 깜짝 않은 채 초연한다. 숨까지 헉헉대는 봉숙.

두식 (손 풀고) 내가 봉숙 씨한테 왜 복싱을 가르친 줄 알아요?

봉숙 ?

두식 싸움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요.

봉숙 (...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의아한데.)

두식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도 복싱, 처음에 사람 때려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전학 다니면서 맨날 따돌림 당하고 맞는 게 지겨워서요. 이
를 갈며 복싱을 네 달 배워서 저 때던 녀석들한테 덤벼쥘
줄 알아요?

봉숙 ...

두식 전보다 더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애초에 덩치나 힘에서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현실 세계와 링 위는 달라요. 피지컬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실에선 게임의 룰도 없죠.

봉숙 씨가 남자들에게 덤빈 건 아주 멍청한 행동이었어요.

봉숙 !

두식 봉숙 씨한테 필요한 건 복싱이 아니라 이거예요. (뒀가를 꺼내서 책
상 위에 올려놓는다)

봉숙 이게 뭡데요?

두식 호신용 스프레이요.

봉숙 (어이가 없어 발끈하고!) 개들은 그냥 동네 양아치였어요. 싸울 생각
도 없고 그저 약한 상대를 괴롭히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은 내가
겉먹고 도망가면 쫓아와요. 근데 맞서서 노려보면 도망가죠. 실제로
는 나와 눈도 못 마주치는 인간들이라고요!

두식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봉숙 씨가 지금 안 다친 건, 그 사람들이 그
럴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일 아니었으면요?
칼을 숨기고 있다가 휘두르거나, 뒷일 생각 안 하고 훗김에 사람을 죽
이는 정신병자였으면?

봉숙, 분하지만 할 말이 없는데.

두식 현실은 슈퍼 영웅들만 나오는 영화가 아니에요. 남자들이랑 대등하
게 싸우겠다는 생각은 버려요. 지금 운 좋아서 목숨 붙어 있는 줄 알
아요. 봉숙 씨한테 복싱을 가르친 게 후회스럽네요.

봉숙, 두식을 노려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두식, 복잡한 마음에 봉숙과 팔씨름했던 손을 바라본다. 주먹만 파악 쥐는데.

S#38. 봉숙의 집 / 침실

침대에 누웠지만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봉숙.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으아아아아!!! 소리 지르며 힘껏 베개에 연속 펀치를 날린다!

S#39. 편의점(밤)

잠을 못 잔 탓인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봉숙.

그때, 계산대 위에 음료수를 올려놓는 남자.

윤대리(E) 어? 봉대리?

봉숙, 정신차리고 올려다보면 윤대리다!

봉숙 (억지 미소) 어...윤대리네. 오랜만이다.

윤대리 (빠기며) 윤과장이지! 봉대리 너 용감한 시민상 탔다고 인터넷에 기사 쓴 거 봤어. 대단하던데! (봉숙 위아래로 훑어보고) 운동 좀 했구나? 근데 왜 살은 안 빠지냐?

봉숙 (그럼 그렇지...)

윤대리 근데...여기 편의점에서 일하는 줄은 몰랐네. 재취업 힘들지? 징계해고면 다른 회사도 안 받아주냐? 어려우면 얘기해. 내가 좀 알아봐줄게.

봉숙,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리는데.

봉숙 윤과장, 너 저번에 채팅창 보니까 남자 동기들끼리 좋은 모임 하는 거 같더라? 매달 회비도 걷어서.

윤대리 (흠칫) 그... 그거 그냥 계모임이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

봉숙 (핸드폰 꺼내서) 끝자리 3009. 이거 너희 와이프 전화번호 맞지? 전에 너 밤늦게 연락 안 된다고, 회식하는 거 맞냐고 나한테 전화 왔었거든. 일단 그렇다고는 했는데, 그날 혹시 회비 쓰러 갔니? 그 건전한

계모임 너희 와이프도 알고 있나 좀 물어볼까?

윤대리, 이를 빠득빠득 가는데.

윤대리 너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만만하냐? (소리 지르며)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봉숙 (물건 던지며) 내가 사장이다, 이 월급쟁이 새키야! 꺼져! 너한테 안 팔아!

윤대리, 날아오는 담배며 껌을 피해 쫓겨나면서 한마디 던진다.

윤대리 참, 너 그거 아냐? 강새미가 인사팀 가서 직접 말했대. 너랑 차장님이랑 아무 일도 없었다고.

봉숙 뭐...?

윤대리 그 시간에 자기랑 있었다고. 통화기록도 보여줬다던데? 너 혼자서 애먼 사람 붙잡고 성폭행했네 어쩌네 난리치다 회사 잘린 거라고! 꽃뱀 짓을 하려면 좀 잘하던... (봉숙이 던진 어묵 소세지에 얼굴 맞고 도망치는)

혼자 남은 봉숙. 뭔가 이상하다. 새미가 왜 그런 말...?

S#40. 회사 주차장 앞(저녁)

주차장 출구에서 고급 흰색 세단(세진의 차)이 빠져나온다.

차 안에서 조용히 노려보고 있던 봉숙, 조용히 세단을 뒤쫓는데.

S#41. HONG 체육관(같은 시각 저녁)

수업을 마친 여자 회원들이 삼삼오오 빠져나가고 있다.
혼자 남은 두식... 가만히 문 쪽을 바라본다. 봉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포기하고 씻으러 가려는데, 문이 열린다! 기대에 차서 돌아보는데!
... 보면, 방금 나갔던 다른 여자 회원이다. 실망하는 두식.

회원 죄송해요, 가방을 두고 가서.
두식 아...예에.

여자 회원, 가방을 챙겨 나가려다가 멈칫하는데.

회원 저, 매일 여기 오시던 여자분. 김봉숙 대리님 맞죠? 한국소프트 다니시던.

두식 ... 아시는 사이세요?

회원 저는 아니고 제 친구... 그러니까 동기의 사수였어요. 대리님이 억울하게 그만두신 건데 징계까지 받고.

두식 네?

회원 친구가 그랬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고. 제가 인사팀이라서 뭔가 돕고 싶었는데... 신입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회원, 등을 돌려서 나간다. 얼이 빠진 두식.

두식 (다급히 쫓아가며) 저기요, 잠깐만요!
(회원을 붙잡고) 대체 무슨 말이에요? 봉숙 씨가 왜요..?

S#42. 고급 오피스텔 앞 도로(늦은 밤)

오피스텔 도로 앞에 차를 세운 봉숙.
결연한 표정으로 손에 밴디지를 감고 있다.
시계를 보자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다시 세진의 차가 나온다.
라이트를 끈 채 다시 조용히 뒤를 쫓는 봉숙.

S#43. 청담 라운지 바(늦은 밤)

라운지로 들어간 세진. 많이 와본 듯 익숙하게 안쪽의 룸으로 들어간다.
룸 안에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늘어진 남자 둘과 적당히 취한 여자 셋이 있는데.

세진의 친구인 듯한 남자가 간신히 손을 흔든다.

세진, 혼자 앉아 있는 여자의 옆에 앉고. 처음 보는 사이인 듯하다.

세진 대학생?

여자 (끄덕이고)

세진 (얼음 담아서 양주 따르며) ... 뭐 마실래?

여자 많이 마셨어요.

세진 그럼 맥주 마셔. 그건 괜찮지?

세진, 옆에 병맥주를 따서 냅킨으로 입구를 닦더니 여자에게 준다.

여자도 부담스럽지 않은 세진이 싫지 않은 느낌이다.

가볍게 짱 부딪히고 술을 마시는 두 사람. 웨이터가 다가온다.

웨이터 뭐 드릴까요?

세진 (메뉴 여자에게 넘기며) 먹을 것 좀 골라줄래? 안주 같은 거.

여자가 메뉴판을 보며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는 사이, 세진 재빨리 조그만 약병을 꺼내 여자가 마시던 맥주병 입구에 액체 몇 방울을 떨어뜨린다.
여자가 다시 얼굴을 돌리자 아무렇지도 않게 싱긋 웃어보이는.

세진 업무 전화가 와서. 잠깐 받고 올게.

세진, 부드럽게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가고. (S#10에서 하던 행동)
여자, 혼자서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맥주병에 손을 뻗어 입으로 가져가는데.
그때, 맥주병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손!
영문을 모른 여자가 올려다보자 봉숙이 서 있다!

봉숙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봉숙, 가져온 병마개로 맥주병 입구를 막더니 가방에 챙겨 넣는다.

S#44. 다세대 주택가의 놀이터(같은 시각)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는 두식.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난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새미가 다가온다.
두식을 발견하고는 잠시 시선을 교환하는 두 사람.

S#45. 라운지 건물의 1층 뒷골목(같은 시각)

핸드폰으로 나지막하게 전화통화 중인 세진.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듯)

세진 아냐... 피곤해서 그래. 일하고 있지 그럼. 빨리 끝내고 들어갈게..

봉숙(E) 그래. 나도 피곤한데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

세진, 뒤를 돌아보자 봉숙이 서 있다.
황당한 표정의 세진. 가만히 전화를 끊고 뒤돌아선다.
어이없음, 짜증남, 분노의 표정들이 얼굴에 떠올랐다 사라지고.

세진 ... 왜 그래?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걸 왜 매를 버냐고.

(비웃으며) 혹시 그날 기억이 너무 좋았어?

봉숙 그날 넌,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못했어.

세진 (보면)

봉숙 강새미 씨가 호텔로 왔으니까.

S#46. 과거. (S#39에 이어서 봉숙 시점의 회상) 변호사 사무실

봉숙, 변호사와 함께 컴퓨터로 CCTV 영상을 다시 보고 있다.

변호사 이걸 왜 또 보는데? 하도 봐서 니 머릿털 개수까지 외우겠다.

거의 정신이 나간 봉숙을 세진이 부축해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변호사가 빠르게 감기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지나가고.

봉숙 잠깐! 거기! 돌려봐.

변호사, 다시 돌려서 화면을 정상 재생하면.

봉숙과 세진이 지나간 호텔 복도로 누군가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그 모습을 본 봉숙의 눈이 커진다.

변호사 누구야? 아는 사람?

S#47. 라운지 건물의 1층 뒷골목 / 다시 현재

봉숙 당신이랑 내가 방으로 올라간 후 정확히 십이 분 후에, 강새미 씨가
호텔에 도착했어.

말없이 봉숙만 노려보고 있는 세진.

S#48. 과거. (세진 시점의 회상) OO호텔 방

침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잠든 봉숙.

세진, 힘겹게 봉숙의 옷을 벗긴다. 세면대 안에 봉숙의 옷을 던져놓고 물을 튼
다.

자신의 자켓도 벗어서 바닥에 던지고는 잠든 봉숙 위로 몸을 숙이는데.

그때,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울리는 전화소리.

세진, 무시하려다가 문득 다시 핸드폰을 본다. ‘강새미’라는 이름이 떠 있다.

한숨을 내쉬더니 바닥에서 핸드폰을 주워서 받는다.

세진 ... 여보세요.

세진, 수화기 속의 목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굳는다. 곧바로 문 쪽으로 향하는.
방문을 열자 문 앞에 새미가 전화기를 든 채 노려보며 서 있다.
독하게 보고 있지만, 겁먹어서 손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새미.

새미 ... 그대로 나와요. 안 그러면 소리 질러서 사람 부를 거야.

S#49. 과거. (세진 시점의 회상) OO 호텔 엘리베이터 안

엘리베이터 안에 말없이 서 있는 두 사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버튼은 1층과 지하1층 주차장이 눌러져 있다.

이윽고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새미만 내린다.

그리고 뒤돌아본다. 문이 닫힐 때까지 서로를 노려보는 세진과 새미.

봉숙(E) 그리고 정확히 팔 분 후에 새미 씨는 호텔 로비로, 당신은 지하주차
장으로 빠져나갔어.

S#50. 현재. 라운지 건물의 뒷골목

세진 ... 맞아. 그래서 말했잖아, 너한테 손끝 하나 안 댔다고.

볼일도 없는데 여긴 왜 온 거야?

봉숙 (서슬 퍼런) 새미 씨한테 무슨 짓을 했어?

세진 (그 말에 동요하고!)

봉숙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강새미 씨가 먼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겠지. 하지만 새미 씨가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당신이 뭔가 약점을 잡고 있었던 거 아냐?

세진... 무표정했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는데.

S#51. 다세대 주택가의 놀이터 / 같은 시각

그네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식과 새미.

새미 ... 입사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갔던 라운지 바에서 처음 만났고, 친해졌죠. 그때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자기네 회사에 입사해보라며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입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도와줬고. 입사 결정된 날, 그 사람이 축하하자며 한잔 마시자고 불러냈어요. 그런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정신 차려보니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두식, 참담하다.

두식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나요? 봉숙 씨한테라도 말했으면...

새미 (고개를 저으며) 회사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학교도 지잡대에, 어학도 짱이고. 이 회사 들어올 스펙이 아니죠. 제가 그 사람과 어떤 거래를 해서 들어왔다고 다들 생각할까 봐 무서웠어요. 처음부터 그 인간은 타겟을 정했던 거예요. 남한테 알리지 못하거나, 알

려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김대리님 사건이 터진 후에도 입막음은 철저했어요.

S#52. 과거. (새미 시점의 회상. S#13이 일어나기 전) 한국소프트 사무실

봉숙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무실. 새미가 자리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 수신음이 울리고.

새미, 무심코 핸드폰을 열면 충격으로 얼굴이 새하얘진다!

익명의 번호로 전송된 사진 파일.

사진 전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잠든 새미의 얼굴이 일부 보인다.

새미(E) ... 그건 경고였어요. 대리님 일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결국 또 나는 누구한테도 알리지 못했죠.

S#53. 현재. 다세대 주택가의 놀이터

두식 왜 마음을 바꾼 거죠?

새미 이제는 상관없어졌거든요. 저 사표 냈어요.

김대리님... 봉숙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일하는 법, 처신하는 법...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전 언니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눈물을 글썽이고)

두식... 분노로 주먹이 부르르 떨린다.

S#54. 현재. 라운지 건물의 뒷골목

핸드폰을 열어 봉숙에게 사진을 흔들며 보이는 세진.

세진 잘 찍혔지? 신고해봐. 나도 타격이 있겠지만 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남친도 있던데... 애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누구 탓 같아?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봉숙, 이야아아아아!!! 소리 지르며 달려든다!
넵다 내지르는 봉숙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는 세진.

그 바람에 봉숙 넘어진다. 재빨리 일어나서 다시 주먹을 휘두른다.

하지만 흥분해서 마구 내지르는 주먹뎌 우습다는 듯 가볍게 피하는 세진.

어느 순간 봉숙의 손목을 잡더니 무릎으로 배를 찌는다!

헉!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봉숙.

이어서 인정사정없이 얼굴을 가격하는 세진의 주먹.

봉숙, 나가떨어진다. 난생 처음 느끼는 고통에 엎드려 얼굴을 감싸 쥐는데.

세진, 천천히 걸어오더니 잔인하리만치 세계 봉숙의 배를 발로 차기 시작한다.

S#55. 택시 안 / 같은 시각

두식, 봉숙에게 전화하지만 받지 않는다. 불안함과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는데,
뭔가가 떠올랐는지 새미에게 전화를 건다!

두식 새미 씨, 그 인간이랑 처음 만났던 바, 거기가 어디예요?

S#56. 라운지 건물의 뒷골목 / 같은 시각

엉망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봉숙.

세진이 구두로 봉숙의 머리를 밟지만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세진 ... 원래 너같이 생긴 애들은 설설 기어야지 정상인데. 주제 파악도 못
하고 설쳐대는 꼴이 좀 재밌긴 했어. 좀 칭찬해주면 사랑사랑 꼬리를
흔들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지?

세진, 몸을 숙이더니 봉숙의 머리채를 잡아서 자기 얼굴 앞에 가져다댄다.

(봉숙, 세진이 눈치 못 채게 손을 뻗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세진, 봉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말하는데.

세진 ... 회사 아니었으면 나한테 말도 못 붙였을 벌레 같은 존재데 말야.
넌 선을 넘었어.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됐어야지.

봉숙 (간신히 입을 연다) ... 벌레 맛 좀 볼래?

봉숙, 갑자기 손을 들어 세진의 눈을 향해 스프레이를 분사한다!

세진 으아아악!!!

세진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자, 겨우 숨을 내쉬며 뒷걸음질 치
는 봉숙. S#37에서 두식이 쥔던 후추 스프레이가 바닥에 떨어진다!

S#57. 라운지 건물 1층 / 같은 시각

택시에서 내린 두식. 길거리에 주차된 봉숙의 차를 발견한다.
다급히 라운지 안으로 뛰어들어 가고!

S#58. 라운지 안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헤집어 놓으며 봉숙을 찾는 두식!

두식 봉숙 씨, 김봉숙 씨! 어딴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봉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S#59. 과거. (두식 시점의 회상 / S#31에 이어서) 포장마차 안

술에 얼큰하게 취해 빨개진 두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 봉숙.

두식 (꼬부라진 목소리) 봉숙 씨 내가 왜 그렇게 시른데에에~

봉숙 (한숨 쉬고 시계 들여다보는) 그만 들어갑시다.

두식 봉숙 씨! 그 남자...내가 대신 패줄까요?

봉숙 씨한테 못된 짓한 그 남자, 내가 흠씬 두들겨 패줄게요. 내가 더
힘도 썩고... 그게 낫지 않아요?

봉숙 (피식 웃고)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두식 예...?

봉숙

나는 그 인간이 나를 두려워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욕하면 화내고, 때리면 반항하는 보통의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해
주고 싶은 거라고요. 난 종이 인형이 아니에요. 두들겨 맞고 나서 그
냥 조용히 사라져줄 수는 없어요. 난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봉숙의 진지한 얼굴에 설득당하는 두식...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두식

알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대신 하나만 약속해요. 안 다치겠다고...

(점점 잠드는) 봉숙 씨가 다치면... 내 맘이 아플 거 같으니까.

테이블에 고개 처박고 잠드는 두식.

어이없어하던 봉숙, 픽 웃고는 그런 두식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S#60. 현재. 라운지 안

두식, 라운지 안을 헤집으며 다니자 보안 직원들이 와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밖에서 뭔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열자 1층에 엉망이 된 모습의 봉숙과 세진이 보인다!

두식

봉숙 씨!

봉숙의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 없다. 들리길 바랄 뿐이다.

두식, 있는 힘껏 소리 지른다!

두식 봉숙 씨!! 그 자식, 날려버려요!!!

두식의 말이 들린 걸까? 봉숙, 비틀거리면서 일어난다.
벽을 짚고 일어나려는 세진에게 다가가더니, 얼굴에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린다!
일어나려다가 다시 날아가 바닥에 처박히는 세진.
저항도 못하는 세진의 온 몸에 한이 담긴 펀치가 쏟아진다!
아주 가열차게. 뺨안 얼굴이 엉망이 되도록. 낭심도 두 번쯤 차준다!!
위에서 복싱 경기를 관람하듯 새도우 복싱하는 두식. (“그렇지! 거기서 흑을!!)
한참을 두들겨 맞은 끝에 바닥에 탈색! 쓰러져 기절하는 세진.
봉숙 다가가더니 세진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기절한 세진의 손가락을 끌어다 지문 잠금을 풀고 사진을 확인하는 봉숙.
재킷의 안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수면제도 꺼낸다.
한숨 쉬는 봉숙... 긴장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는데.
쓰러질려는 찰나 달려온 두식이 타이밍 좋게 부축한다!
도움을 받아서 자리에 앉는 봉숙... 두식에게 기댄다.

두식 ... 이거 진짜로 사회면에 기사 날 수도 있겠는데요.

봉숙 나한테 복싱 가르친 거 후회돼요?

두식 그럴리가요. (짤하게 보며. 진심으로) 진짜 멋있었어요.

멀리서 울리는 앰불런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S#61. 일주일 후. 봉숙의 집 / 거실(낮)

여느 때처럼 치킨 먹으며 히어로 영화를 보고 있는 봉숙.
지난번 싸움의 여파로 눈은 밤탱이에 입술은 터져 있고 엉망진창이다.
그때, 현관벨이 울린다. 문을 열면 두식이 치킨 봉투를 들고 서 있다.
의외의 방문에 당황한 봉숙! 두식도 주변머리 없이 말을 더듬는데.

두식 오랜만...이네요.

봉숙 (얼굴 가리며) ... 그러게요. 잘 지냈죠?

두식 몸...괜찮나 해서. (치킨 건네며) 저, 이거 드세요.

후다닥 인사만 하더니 돌아서는 두식.

봉숙, 손에 든 치킨 봉투를 보며 이 많은 치킨을 어찌하나... 싶는데.

봉숙 (망설이다 불러세우는) 저기요!

두식 (보면)

봉숙 치킨 먹고 갈래요?

S#62. 봉숙의 집 / 거실

TV에서는 슈퍼 히어로 무비가 나오고 있고.

나란히 소파 양쪽 끝에 앉은 두 사람, 각자 치킨을 뜯고 있다.

두식 ... 고소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봉숙 예... 뭐. 경찰에 증거는 다 넘겼고 조사 중이긴 해요. 증거가 확실해

서 별 문제 없을 거래요.
두식 그렇구나... 잘됐네요.

또다시 말이 없는 두 사람.
두식, 맞아서 통통 부은 얼굴로 맛있게 치킨을 뜯고 있는 봉숙을 본다.
흥악한 물골이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두식.

두식 이젠 체육관 안 나올 거예요?
봉숙 일단... 제 목적은 달성했으니까요.

두식, 봉숙을 뺀히 쳐다보자 봉숙도 시선을 의식하고는 흘끗 본다. ...뭐야?

두식 ... 저는 아직 달성 못했는데.

갑자기 봉숙에게 몸을 숙여 뽀뽀하는 두식!
봉숙, 놀라고 어이없어 쳐다보다가 치킨을 던져버린다.

봉숙 덕은 내 취향 아니라고 했잖아요!

두식의 목덜미를 덩싹! 낚아채더니 찌나게 키스하는 봉숙!
키스하는 두 사람의 모습 뒤로 TV 화면이 포커스 된다.
슈퍼 히어로가 연인과 마지막 클라이맥스 키스를 하는 장면이다.

S#63. HONG 체육관(저녁)

여자 회원들이 나란히 서 있는 앞에, 봉숙이 미트를 들고 지도를 하고 있다.
복싱 임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봉숙이다!

봉숙 ... 여러분이 링 위에 올라가면 당연히 상대에게 맞게 될 거예요. (두 눈을 가리키며)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눈을 똑바로 뜨고 끝까지 상대를 봐야지 피할 수 있어요. 맞는 건 아프죠. 하지만 아직 맞기도 전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눈을 감는다는 건 이미 맞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뒤에서 문이 열리고, 트레이닝복 차림에 가방을 멘 새미가 들어온다.
눈이 마주치자 미소 짓는 두 사람.

봉숙 ... 그럴 때마다 외치는! 우리의 구호는 뭐다?!
일동 (씩씩하게)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이미 진 것이다!!!
봉숙 원투 시~작!!

봉숙의 신호가 떨어지면, 구호에 맞추어 원투 동작을 시작하는 회원들.

끝.

질투는 나의 힘

최수현



작가 후기 **유영주**

<파이터 김봉숙>은 수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초고 그대로 책에 신게 되었습니다. 수정 과정에서 멘토님, 센터장님, 그리고 동료 작가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받았고, 때로는 정반대되는 피드백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복수 과정에서 복수는 어울리지 않으니 빼야 한다. 아니다, 재미있으니 더 강화해야 한다. 봉숙은 더 과장된 캐릭터여야 한다. 아니다, 감정 이입이 쉽도록 평범한 여성이 낫다. 모든 피드백들이 나뉠의 근거가 있었기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복수의 방법으로 복수는 봉숙에게 유리한 면이 없고 개연성이 떨어지기에 다른 복수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과체중 여성이라는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판단에 해당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들이 바뀌었고 처음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싸워나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리고자 한 의도는 변하지 않았고, 초고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버전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봉숙이의 모습을 대본을 읽는 분들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의

인생의 어느 순간, 잘못 끼워진 단추 같은 결정적 한 순간.

마흔을 목전에 둔 한 남자가 자신의 고교 시절 첫사랑과의 추억을 닮은 TV 드라마를 만나, 그 결정적 한 순간의 진실을 깨닫고 잘못 채워져버린 인생을 되돌리려 한다.

열등감과 질투에 사로잡혀 사랑을 놓친 불운한 소년의 이야기.

등장인물

정선우(18세 / 39세)

결벽증에 가까운 칼같은 일 처리, 완벽한 매너로 가슴을 후벼파는 독설. 그 덕에 잘나가는 광고기획자로 승승장구해왔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처참하기 그지없다. 결혼 3개월 만에 도망치듯 이혼한 전처, 그가 거꾸러지기만을 바라는 동료들, 그 상황을 즐기듯 부추기는 상사. 하지만 그도 항상 이랬던 건 아니다. 1990년대를 목전에 두고 세상을 떠난 시인 기형도를 좋아했던 문학소년 선우. 또래 소년들이 야한 비디오나 만화책을 볼 때 그는 몰래 시집을 보고 시를 끄적였다. 외로웠지만 섬세하고 여린 소년 선우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이미석(18세 / 39세)

21년 전 선우네 집 옥탑방에 이사 온 어른스러운 소녀. 그녀가 끌고 온, 옥탑방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거대한 이삿짐들처럼 그녀에겐 뭔가 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우와 유일하게 취미를 공유하고 그를 이해해주는 소녀였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선우의 오해로 비롯된 그녀의 악몽 같던 한 순간을 다시 복기하고 추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만큼 진짜 어른으

로 성장하기도 했다.

김현성(18세 / 39세)

선우의 고교 동창. 선우가 살던 지방 소도시 최고 유지의 장손. 키 크고 잘생기고 못하는 운동이 없으며 심지어 공부까지 잘했다. 당연히 겸손, 배려와는 거리가 먼, 또래 수컷들의 우두머리. 선우는 그에 대해 조금 부러울 뿐, 오히려 내심 무시하거나 무심한 편에 속했지만 미석과 엮이면서 본격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이게 된다.

남경호(현재 27세)

갓 수습을 땀, 선우의 회사 신입. 아무도 들이받을 생각 못하던 선우의 매너 독설에 덤벼들 만큼 열정적이나, 선우의 과거 업적에도 나름 존경심을 갖고 있다.

박상무(현재 40대 후반)

능력은 있지만 인망이 없던 선우를 나름 감싸주며 여기까지 왔지만, 최근 몇 년 선우가 실적을 못 내자 더 이상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윤환(과거 39세)

선우네 학교 문학선생님. 예전에는 그 또한 시인을 꿈꾸었고 등단까지 했으나 지금은 현실적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실적만을 중시하는 생활인이 되었다.

선우부(과거 40대 후반)

전형적인 꼰대 아버지.

선우모(과거 40대 후반)

전형적인 속물 어머니.

그 외

이과장, 구아트, 남직원(현재). 교감선생, 친구1, 2(과거) 등.

출거리

광고기획사 Creativity의 핵심인 39세의 정선우 팀장. 고속승진을 거듭하여 마흔도 되기 전에 임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선우지만, 독설가애다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자로서의 면모에 주변 사람들은 다 그를 멀리한다. 1990년대를 컨셉으로 한 광고 시안을 내민 후배 경호를 말로 짓밟아주던, 어느 때와 같은 어느 날, 선우는 상사로부터 이젠 후배에게 양보해야 할 때라는 말을 듣고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리고 몰래 그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동료들. 세상은 온통 그가 거꾸러지기만을 바라는 듯하다. 그 순간 선우는, 아직도 감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고교 동창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야, TV 좀 봐라. 드라마에 너랑 똑같은 새끼가 나온다.”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려던 선우. 하지만 그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읊어대는 시 한 구절에 동요하는데.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과 겹치는 한 소녀의 모습.

“너두... 기형도 좋아하니?”

선우는 홀린 듯이 드라마와 함께 추억에 빠져든다.

18세의 선우는 다른 친구들이 몰래 숨어서 만화책이나 야한 잡지를 볼 때, 기형

도의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을 숨겨두고 볼 정도로 시를 좋아하던 문학소년이었다. 그런 그는 거친 남고생들의 놀림의 대상이었고, 동네 어린 수컷들의 우두머리 격인 현성은 그런 선우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역지로 포르노 비디옌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역겨움만 느끼는 선우. 그런 선우의 등을 두드려주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날 선우네 옥탑방으로 이사 온 미석은 머리로 길고 담배까지 꼬나물어 누가 봐도 대학생 누나였지만, 다음 날 아침 선우와 같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며 선우를 기함하게 만들었다.

“고...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추억을 TV에서 보게 되는 39세의 선우. 그는 설마 우연일 거라며 애써 드라마를 외면하려 하지만.

한편 선우와 함께 등교하던 미석을 보고 반한 현성은 선우를 조르고 헐박하여 연애편지 대필을 시킨다. 굴욕감을 참고 편지를 쓰던 선우, 자기도 모르게 기형도의 시 〈질투는 나의 힘〉을 인용한 구절을 넣는데.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편지를 보고 깔깔대던 미석. 편지지 뒷면에 휘갈기듯 답장을 쓴다.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지만/ 너 같은 놈은 처음 본 것 같다.”

미석의 답장을 보고 동요하는 선우. 그다음 날 현성과 함께 하교하는 미석을 보고 심란하다. 그리고 다시 새 편지를 쓰는 선우. 현성이 보낸 양 미석에게 전해 주는데.

“거짓말 마. 개는 이런 거 쓸 수 있는 애가 아냐.” 단번에 편지의 주인공을 간파하는 미석. 그리고 조심스레 선우에게 묻는다. “너두... 기형도 좋아하니?”

어렵게 고개를 끄덕인 선우.

그날 밤, 선우와 미석은 옥탑방의 아직 치우지 못한 가구들에 앉아 밤새 시에 대해, 그리고 열여덟 살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곧 아직 미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현성을 따돌리며 미석과 단짝이 되는 선우. 이런 게 이기는 수컷(?)의 쾌감이라는 걸까. 미석의 시 습작 노트를 가져와 읽으며 미소 짓는 선우.

“벚꽃의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난 그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생각해네...”

그리고 그 순간이 선우 인생의 ‘벚꽃의 계절’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선우가 예전에 호기심에 투고한 시가 꽤 이름 있는 문예지에 실리게 된다. 그를 보며 수군대는 여자애들의 시선과, 질투심을 애써 감추는 현성의 눈빛을 의식하며 선우는 인생 최고의 시기를 만난다. 심지어 문학선생님 윤환은 그에게 ‘서울대 추천서’를 운운하며 전국청소년백일장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특별과외까지 시켜준단다. 선우가 18년 인생의 절정을 보내고 있을 때, 미석은 갑자기 짝고 보기 싫게 잘린 머리를 하고 나온다. 그러나 선우는 기쁨에 취해 그런 그녀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39세의 선우. 드라마를 통해 짧게 잘린 미석의 단발머리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다. 알코올중독인 아버지가 술에 취해 엉망으로 잘라버린 미석의 머리.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곱게 머리를 빗어주던,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의 행복한 추억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애써 외면해오던 드라마를 보며 자기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한데.

18세의 선우. 생각보다 윤환과의 과외는 순조롭지 않았다. 연일 계속되는 그의 독설에 이런저런 시를 짜깁기하며 애써보지만 윤환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냥 공부나 하라는 윤환에게 자신의 시 습작 노트를 내밀며 사정하는 선우. 그러나 윤환이 주목한 것은 선우의 시가 아닌, 선우가 베껴 적은 미석의 시였다. “그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게다가 미석은 갑자기 백일장에 나가면 상금도 탈 수 있냐면서 자신도 백일장에 나가면 안 되겠냐 물어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날선 말을 내뱉는 선우. “남들은 목숨 걸고 나가는데... 재미 삼아 나가서 뭐가 되겠어?”

그리고 백일장에 함께 나간 선우와 미석. 선우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시제를 받아들고 괴로워한다. ‘서울대 추천서’라는 얘기를 듣고 동네방네 자랑하던 아버지, 미석은 자신이 아닌 현성과 사귀다고 굳게 믿는 친구들, 자신의 시가 아닌 미석의 시를 보고 감탄하던 윤환... 결국 선우는 미석의 시구절 “벚꽃의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를 제출지에 적기 시작하는데.

한편 미석은 시를 제출하지 않고 선우에게 준다. ‘도둑 165325113667’이라는 기괴한 제목의 시다. 선우에겐 시의 내용보다 ‘도둑’ ‘거짓말이다’ ‘흠쳐가지 말아줘’ 따위의 단어만 눈에 들어온다. 결국 자신이 미석의 시를 도둑질한 걸 눈치챈 미석이 자신을 비꼬기 위해 쓴 시라고 생각한 선우는 미석에게 분노에 찬 말을 퍼붓고 돌아선다. 하지만 말없이 돌아선 미석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미석과 아버지가 선우네 옥탑방에서 야반도주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9세의 선우, 드라마의 주인공이 ‘가을 9815423’이란 시를 해석하는 것을 보고, 21년 전 미석이 자신에게 준 시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S#1. 프롤로그

암전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 시구가 떠오른다.

자막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질투는 나의 힘> 中, 기형도(1960~1989)

S#2. CF 화면

속도감 있게 편집된 CF.

짙은 화장, 오버 사이즈의 힙합룩, 레게머리 등

90년대 패션을 재현한 모델들이 서태지, 듀스 등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

그리고 제품 로고가 뜨려는 찰나, 딱 꺼지는 화면. 그 위로,

선우(E) (냉랭하게 비웃는)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컨셉이지?

S#3. 프리젠테이션실

어두운 방안에 프로젝션 불빛이 떨어지는 선우의 얼굴. 불쾌하다.

그 맞은편 텅빈 스크린 앞에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경호.

경호 (긴장했지만 분명한)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이 타깃을 3,40대로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춘이었던 90년대를...

선우 (알뜰고 차갑게)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게 힙합에 서태지 듀스입니까?

경호 아...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 세대들이라면 한번씩은 좋아해 봤을 테니까요.

선우 (단호한) 난 아닙니다만.

경호 (당황스러운) 그... 그럼... 팀장님께서 당시 좋아하셨던 건 뭐였습니까? ...가르쳐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선우 (멈칫하는. 그러다 벌컥) ...그걸 경호 씨가 알아서 뭐하게!

선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경호의 시안을 쓰레기통에 던진다.
흠칫하는 직원들.

선우 담부턴 프린트 하지 마세요. 종이가 아깝네. (나가려는)

경호 (쓰레기통에 처박힌 시안 집어 들고 울컥한) 아니, 말로 하십 되지 버리긴 왜 버려요! 한 달 동안 저희 팀 전부 휴일도 잠도 없이 만든 시안을...!

선우 (냉랭하고 어이없는 눈빛으로 돌아서는)

경호 상사면 다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선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는데)

선우 (기가 막혀 코웃음 치는) 애 뭐야...?

“아이고! 남경호 씨!” 당장이라도 들이받을 것 같은 경호에게 달려들어 말리는 직원들.

냉랭한 눈빛으로 바라만 보는 선우. 그 와중에 휴대폰 울려 들려다본다.

“개”라고 뜨는 번호가 울리고 있다.

선우 휴대폰 번호 수신 거부하고,

“차라리 절 치시든가! 그걸 어떻게...! 저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흥분해서 날뛰는 경호를 뒤로하고 방을 나가버린다.

S#4. 박상무 사무실

박상무 아이패드로 뭔가를 보고 있고 그 앞에 앉은 선우 덩덤하게 보고 중이다.

선우 (어이없는) 요즘 신입들은 최소한의 염치도, 인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도 안 하면서 말만 많은...

박상무 (아이패드 들여다보며 킁킁대는) 정팀장 신입 때 생각나네...

선우 (불쾌한) 그래도 전 제 말에 책임을 졌죠. 이 회사 십 년 동안 먹여살린 거 누구였죠?

박상무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싫어했지.

선우 상무님...!

박상무 킬킬 웃으며 아이패드 내려놓는다. 화면 보이면 앞 썸의 경호 시안이 떠 있다.

박상무 보는 선우.

박상무 ...좋은데?

선우 (어이없는) 네?

박상무 재밌어. 향수도 자극하고.

선우 (가르치듯) 90년대 얘기는 이제 한물갔죠. 울귀먹을 것도 뻔하고...

박상무 누가 뭐래도 그때가 대한민국 황금기 아냐. 팔아먹으려면 아직도 십 년은 더 팔아먹을 수 있다고. 요즘 드라마도 하잖아. 질투... 뭐라든가.

선우 저희가 드라마 찍습니까? 게다가 저건 SWOT도 불분명한 이미지 광고에 가깝다구요. 아무리 신입이라도 저런...

박상무 (말 자르는) 욕심 좀 그만 부려. 아직도 정팀장이 X세댄 줄 알아?

선우!

박상무 (다소 냉랭한) 이제 한물간 건 우리지.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고 이번엔 후배한테 양보해! (일어서는)

당황스러운 선우 불안한 시선으로 아이패드에 뜬 경호 시안 본다.

그때 다시 울리는 휴대폰 진동. 앞 썸의 “개”다. 거친 손놀림으로 수신 거부하는 선우.

S#5. 화장실 / 칸 안

화장실. 나란히 소변기 앞에 선 경호, 이과장, 구아트(디렉터)

경호 (한숨 푹 쉬며) 저 어떡하죠? 팀장님은 가만 있는데 저 혼자 길길이 날뛰고... 진짜 죽고 싶어요.

구아트 아냐, 잘했어. 잘했어... 내 속이 다 후련했다니까.

이과장 (웃으며) 하긴, 구아트도 진짜 엄청나게 당했지...

구아트 차라리 욕을 하든가...! 그 깡뚫한 태도로 남 깔아뭉개는 거 진짜 싫어요!

이과장 (쓴웃음 짓는) 성격이 저따구니까 마누라도 도망가지.

구아트 (킁킁대며) 세 달 살고 이혼했다면서요?

경호 (호기심) 진짜요? 왜요?

이과장 (킁킁대며) 너 같으면 더럽다고 오줌도 앉아서 싸는 인간이랑 살고

싫냐?

화장실 칸 안. 양변기 위에 앉아 부글대는 표정으로 듣고 있는 선우.

화장실. 세면대로 이동하는 세 남자.

이과장 우리 좀만 참자. 내가 보기엔 잘하면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애.

구아트 (눈을 빛내며) 정팀장... 작년에도 실적 하나도 없었죠?

이과장 가뜩이나 들어올 때부터 실력은 있어도 싸가지는 없다고 사장한테 찍힌 놈이었는데... 실적도 없으면 나가리 되는 거 시간문제지.

화장실 칸 안. 바지 올리다 말고 엉거주춤 서서 숨죽여 엿듣고 있는 선우.

그 순간 낭랑하게 울리는 경쾌한 벨소리의 휴대폰.

화들짝 놀라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는 선우. 또 “개”다.

수신 거부 누르려는데, 순간 휴대폰 손에서 미끄러지며

통화버튼 눌리고 그대로 칸 밖으로 미끄러져 나간다.

화장실. 화장실을 나가려던 이과장, 구아트, 경호

갑자기 튀어나온 선우의 휴대폰을 보고 흠칫한다.

현성(F) (유달리 큰) 정선우! 이 자식, 전화 왜 이르게 안 받아! 너 또 맞아야 정신차리겠냐!

순간 칸 밖으로 더듬거리며 빠져나오는 선우의 손.

세 남자의 눈 더더욱 커진다.

가까스로 휴대폰을 쥔 선우의 손. 스르르 칸 안으로 사라진다.

선우(E) (침울한) 김현성... 왜?

뜨악한 표정으로 서둘러 화장실을 나가는 세 남자.

S#6. 남직원 휴게실

서너 명의 남직원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소파에 누워 쉬고 있는 연기 자욱한 휴게실.

아무도 안 보는 TV엔 90년대 스타일의 남녀가 다정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어이없는 얼굴로 문 열며 들어오는 선우.

선우 뭐? ...드라마?

현성(F) 너 아냐?

선우 (기가 막힌) 내가 무슨 드라마를 써?

현성(F) 이상하다... 분명히 너랑 똑같은 새끼가 나오는데.

선우 (정색하는) ...어떤데?

현성(F) (킬킬대는) 봐봐. 보면 알어.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선우.

TV에선 여전히 90년대 스타일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선우 (TV 한번 흘깃 보고 혼잣말) ...지겨워. (한숨 쉬다 목소리 높여) ...난 그런 거 쓸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아아...알았어. 동창회는 나갈 거니까... (하는데)

(TV속남주인공(E))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흠칫하며 TV 돌아보는 선우.

심드렁한 표정으로 맞은편 소파에 누워 있던 젊은 남직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리모콘 집어들며 중얼거리는데,

남직원 무슨 드라마에서 시를 읊고 지랄이야?

선우 TV 채널 돌아가자 신경질을 벌컥 내며 남직원 돌아본다.

선우 채널 고정!

남직원 선우 알아보고 흠칫 놀라 리모콘 놓고 각 잡고 일어나 앉는다.

다시 아까 TV 드라마 화면으로 돌아가면, 여주인공이 남자주인공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며 얘기한다.

여주인공 너두... 기형도 좋아하냐?

플래시백. 밤. 선우의 집 옥상. 선우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미석.

미석 ...너두 기형도 좋아하니?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TV 속 화면을 주시하는 선우.

선우 그 드라마... 제목이 뭐라고?

현성(F) 질투는... 나의 힘.

타이틀. 질투는 나의 힘

S#7. 과거. 학교 교실

인서트. 그닥 높지 않은 빌딩이 몇 채 들어선 지방 소도시 전경.
그 한복판에 있는 고등학교 건물.

자막. 1996년. 청주.

몇몇은 즐고 몇몇은 잡담 중인 남고생들.

가늘고 창백한 인상의 18세 선우. 드물게 한껏 집중한 눈빛이지만 사실은 책상 밑에 무언가를 숨겨두고 보고 있다.

그때 반쯤 열린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교감(남, 50대)

숙련된 고양이 걸음으로 교실을 거닐며 학생들을 감시하는데.

그때 교감, 선우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참고서가 아니라 책상 밑의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포착한다. 먹이를 포착한 야수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다가가는 교감.

번개같이 선우 책상 밑의 책을 집어들어 선우의 머리를 내리친다.

교감 잡았다, 요놈!

흠칫 놀라 돌아보는 학생들.

선우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책으로 머리를 두들겨 맞고 있다.

교감 (사정없이 책으로 선우의 머리를 내리치며) 고3이 널 모렌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구! 응? 자율학습 시간에 이딴 책이나 보구 있... (하다가

문득 선우의 머리를 내리치던 책을 보는데)

도색잡지도 만화책도 아니다. 《입속의 검은 잎-기형도》란 시집.
주르르 페이지를 넘겨보는 교감. 야한 글귀도 사진도 없는 그냥 ‘시집(詩集)’
이다.
의아한 눈빛으로 그런 교감과 선우를 보는 학생들.

교감 (황당한) 뭐여, 시집이잖여? (선우 보는) 넌 무슨 사내새끼가 숨어서
시집을 보냐? (선우의 책상에 던지듯 시집 놓는) 내 참... 별...

민망한 얼굴로 서 있는 선우.
킁킁대며 그런 선우를 바라보는 현성(18세/남)과 남학생들.

S#8. 과거. 운동장

떠들썩하게 하교하는 아이들 틈으로 축 처진 표정으로 나오는 선우.
학교 건물은 가운데 중앙 현관을 사이에 두고 정확히 남고와 여고가 갈린 형
태다.
선우가 왼쪽 현관으로 나오면 오른쪽 현관에는 비슷한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
이 재잘대며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여고생들한테 둘러싸인 현성.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
여유 있는 표정으로 여고생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는 현성을 시큰둥한 눈길로
바라보는 선우.
그때 현성과 눈이 마주친다.

선우를 보며 손을 번쩍 들고 다가오는 현성.

현성 여어! 문학소년.

선우, 현성 옆에서 의아한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고생들 눈길이 민망해
얼른 자리를 뜨려는데,
선우에게 다가와 와락 헤드락 거는 현성.

선우 (버둥대며 킁킁대는) 킁...!

현성 (킁킁대며) 야자 시간에 시집을 보는 남고딩이라니, 어우, 변태 같
애...!

선우 무...무슨!

현성 내가 널 정상적인 남자로 만들어주마! 어때? (소리 낮춰) 우리 집 가
서 좋은 거 볼래?

선우 시...싫...어....

선우 약하게 반항하나 그대로 현성에게 끌려가는.

S#9. 과거. 현성의 방

E)야릇한 신음소리. 살색이 넘치는 TV 화면.
침대에 가로로 기대앉아 입을 헤벌리고 보고 있는 현성의 덩치 큰 친구들 1, 2.
그보다 살짝 뒤에서 허영계 질린 얼굴로 화면을 보고 있는 선우.
선우 뒤 침대에 거만한 자세로 걸터앉은 현성, 자랑하듯이

현성 야, 니네 영광인 줄 알아. 저거 우리 서울 (강조) 강남 사는 사촌 형이 빌려준 거잖아. 미제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냐?

친구1 (살짝 역겨운. 하지만 시선은 TV에서 떼지 않는) 근데 좀... 이거 내가 본 중에 켈 세다.

현성 (홀끔 보는) 좋구만, 뭘. (선우 보며) 어때? 너두 남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끼냐? (선우의 가량이 사이를 덥석 잡으며) 어디...!

선우 으악! 하지마! (허영계 질린 얼굴로 기겁하며 피하는)

하지만 현성 집요하게 선우의 가량이 사이를 쥐는데, 곧 의아한 표정.

현성 (선우 보며) 뭐야, 너... 고자야? (안쓰러운) 저런...

선우 (새빨개진 얼굴로 벌컥) 하지 말라구! (벌떡 일어나는)

선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나가고, 남은 아이들 킬킬대는.

S#10. 과거. 선우의 집 앞

1층에 슈퍼마켓이 있고 2층에 살림집, 그리고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는

작은 골목의 상가주택. 건물 옆에 작은 쪽문과 작은 마당이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어지럽게 이삿짐들이 쌓여 있는데

선우 달음질쳐 와 계단 밑에 쫓그리고 토하기 시작한다.

플래시백. 살색이 난무한 TV 화면.

선우 아이씨... 그런 걸 도대체 왜 봐... 우웩!

그때 희고 가느다란 손이 다가와 선우의 등을 두드려준다.

미석(E) 이 동네 애들은 낫술을 다 먹네...

선우 일어서 돌아본다.

긴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고 짝다리를 짚은 빼박한 자세,

살짝 그늘을 드리운 눈매에 곧은 코와 풍부한 표정을 지닌 입술의 성숙해 보이는 여인이다.

선우 (당황한) 아... 고맙...

미석 (살짝 웃는) XX고 다니니?

선우 아... 네....

미석 계단 밑에 내려놓은 책 꾸러미를 들고 다시 계단을 올라간다.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보는 선우. 3층 옥탑방에 새로 이사왔는지 아직도 마당엔 이삿짐이 즐비하다. 그중 가장 많은 짐을 차지하는 건 책이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려는 선우. 하지만 그때

선우모(E) 선우야! ...선우 왔니?

선우 아쉬운 눈빛으로 미석의 책꾸러미를 일별하고 계단을 올라서는데.

S#11. 과거. 선우의 집 거실(밤)

좁지만 나름 TV, 소파, 카펫까지 있을 건 다 있는 90년대 중산층 가정의 거

실. 런닝만 입고 소파에 눕듯이 앉은 선우부와 그 옆에서 사과를 꺾고 있는 선우모.

선우 TV에 멍하니 시선을 쫓고 있는데,
천장에서 계속 ‘우드드득’ 가구 끄는 소리가 들린다.

선우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보며) 저것들은 밤새 저럴 건가...

선우모 (통명스럽게) 여자가 없으니 살림을 격없이 하지!

선우부 히, 그럼 달랑 애비랑 딸 하나여?

선우모 그런가봐유. (선우에게 사과 건네주며) 참, 너 오늘 현성이네 갔다 왔답서?

선우 (심드렁하게) ...네.

선우모 (선우의 허벅지를 째! 치며) 진작 좀 그러고 다니지.

선우 아...! 왜 때려요!

선우모 (계속 선우 허벅지 치며) 내가 진작 좀 친해지라구, 친해지라구,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응!

선우 (선우모 손 피하며) 아, 아파요...!

선우부 가가 누군디?

선우모 아, 왜 그... 도지사택 손자라는...

선우부 아, 개. 잘됐구먼. 맨날 혼자 다니더니...

선우 그딴 녀석이랑 친해지는게 뭐가 좋아요!

선우부 (고압적으로) 사내자식이 만날 책이나 들여다보구 비실비실해 빠져서 으뎡게 사회생활 할겨? 남자라든 친구들 끌구 다님서 큰소리도 탕탕 치구 살아야지!

선우 (답답한) 어휴...! (방으로 들어가버리는)

그런 선우를 한숨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우의 부모.

S#12. 과거. 선우의 방(밤)

한쪽 벽면이 책으로 뒤덮인 선우의 방.
작은 책상과 침대 하나가 놓인 조촐한.
책상에 두꺼운 노트를 놓고 분노를 쏟아내듯 뭔가를 써갈기는 선우 위로,

선우(E)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애달프면서도 끔찍한 존재다. 한없는 고결을 위한 욕망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저 지배하고자 하는...

하는데 천장에서 다시 우드드득- 가구 끄는 소리가 들린다.
위를 흘끔 올려다보는 선우. 짜증스러운 얼굴.
그때 선우 방문 열리며 선우모가 사과 접시를 들고 들어온다.
역시나 짜증스러운 얼굴.

선우모 위층 좀 올라가서 이거 주면서 오늘밤은 이만 좀 쉬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봐줄려?

S#13. 과거. 옥상(밤)

커다란 가구들이 아직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해 어지럽게 쌓인 옥상.
계단을 올라오는 선우. 옥탑방 문으로 다가서려는데,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기대어 담배를 물고 있는 미석을 발견한다.
미석 선우 보자 담배를 버리려는데,

선우 피우던 거 그냥 피우세요.

미석 (선우가 갖고 온 접시 보며) ...사과네.
선우 저희 아버지 앞에서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하며 미석에게 사과 접시 내미는)
미석 (사과 정말 맛있게 먹는다) ...생과일 먹어본 지 진짜 오랜만이다.
선우 (투덜대는) 우리 엄만 맨날 과일로 배 채우게... (하다가 앓차!)

플래시백.

선우부 히, 그럼 달랑 애비랑 딸 하나여?
미석 (웃으며) 고마워. 잘 먹을게.

미석 어쩔 줄 모르는 선우에게 목례하고 사과 접시 든 채, 옥탑방 문으로 들어선다. 그런 미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선우.

S#14. 과거. 선우의 집 앞(아침)

교복을 입고 2층 계단을 내려오는 선우.
 그때 옥탑계단에서 같은 패턴의 여고 교복을 입은 미석이 내려온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선우.

선우 ...고...고등학생이었어요?
미석 (심드렁하게) 응. (시계 보며 선우 잡아끄는) 늦겠다...! 가자!

얼떨떨한 표정으로 선우 미석 따라간다.

S#15. 과거. 학교 운동장

운동장에서 정확히 반으로 갈려 각자 현관으로 들어가는 남고생과 여고생.
 나란히 등교하는 선우와 미석. 선우 표정 아직도 얼떨떨하다.

미석 그럼 이따 집에서 보자! (손 흔들며 여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선우 (반사적으로 힘없이 손을 흔드는)

그런 선우와 미석을 뒤에서 바라보는 현성.
 다들 짧은 단발을 한 여고생들 사이로 긴 머리를 휘날리며 뛰어나가는 미석의 뒷모습이 인상적이다.

현성 (선우의 어깨를 툭 치며) 재 누구야?
선우 (멍하니 미석의 뒷모습 바라보다 꿈에서 깨어난 표정으로 돌아보는) ...어?
현성 아까 너랑 같이 있던 여자애, 누구냐고.
선우 그냥... 우리 집 위층에 이사온... 애.

S#16. 선우의 오피스텔

비스듬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선우. 어이없는 표정으로 몸을 일으킨다.

TV 속.

남주(E) (놀란) 누나... 고등학생이었어요?

여주(E) (웃으며) 나 너랑 동갑이야!

선우 한동안 멍하니 TV 보다 중얼댄다.

선우 (애써 아무렇지 않게) 아, 뭐야... 그냥... 우연이겠지.

S#17. 선우의 사무실

모든 자료와 필기류가 칼같이 정리된 선우의 사무실.

선우 컴퓨터 앞에 앉아 '질투는 나의 힘'을 검색하고 있다.

영화 제목과 기형도의 시에 대한 정보가 쪽 뜨다가

드라마 '질투는 나의 힘'에서 선우의 스크롤이 멈춘다.

'90년대 청춘들의 사랑과 야망...' 어찌구 하는 카피와 함께

맨 밑에 작가 이름이 뜬다. '이미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선우.

그때 누군가 선우의 방문을 노크하자, 선우 황급히 인터넷창을 끄며 "네"대 답한다.

매우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의 경호 들어와 커피를 건넨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받아드는 선우.

경호 (쩍쩍대는) 저... 어제 일은 죄송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거의 잠을 못 자서 제정신이...

선우 (말끊는) 됐어. 나가봐요.

경호 (쭈뼛쭈뼛) 근데 저... 박상무님께서... 그 시안 디벨롭해보라고...

선우 (벌컥)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경호 할 말을 잊고 잠시 쭈뼛거리다 꾸벅 인사하고 나간다.

선우 몰래 한숨 쉬는.

S#18. 과거. 학교 운동장

운동장도 반으로 갈려 남학생들은 축구를, 여학생들은 피구를 하고 있다.

거칠게 뛰는 남학생들 사이로 헉헉대며 하는 시늉만 하는 선우.

그러다 문득 여고 쪽 운동장을 바라보는데.

역시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여학생들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우두커니 서있는 미석.

그 모습을 흘끔 바라보는 선우.

시간 경과

'치익' 콜라캔을 따는 현성. 흘러넘치는 콜라를 한입 쭈욱 들이켠다.

여학생들 무리에서 몇 발짝 물러나 있는 미석에게 다가간다.

의아한 눈으로 돌아보는 미석에게 콜라캔을 건네는 현성.

미석 영문 모르고 받아 마신다.

질투 어린 눈길로 그런 미석을 바라보는 여고생들.

그리고 그런 미석과 현성을 스탠드에 앉아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선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스탠드에 앉아 있는 남자애들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현성.

현성 재! 내가 침 발랐다! 건드리면 죽인다!

의아한 얼굴로 현성 보는 남학생들.
'뭐야' 어이없는 선우. 고개를 돌린다.
그때 선우 옆으로 다가오는 현성.

현성 야! 문학소년! (하며 선우의 어깨에 팔 두르는)
선우 (귀찮은) ...왜?
현성 너 편지 좀 써주라.
선우 (기겁하는) 뭐?
현성 시집 좀 읽었으면 글도 좀 쓸 거 아냐. 재 니네 윗집 산다며?

선우 난감하다.

S#19. 교실(과거)

쉬는 시간,
선우 피곤한 표정으로 엮드려 있는데 그 앞에 핑크색 편지를 툭 놓는 현성.
억지로 고개드는 선우. 현성 바라보면,

현성 (능글맞게 웃는) 야, 너 호모새끼라고 소문내기 전에 빨리 편지 써라.
선우 (기겁하는) 그... 그게 무슨 소리야?
현성 내가 대학생인 우리 사촌 형한테 물어봤는데... 너 좋아하는 그 시인 호모라며?
선우 (화 억누르는) ...함부로 말하지 마!
현성 (킬킬대는) 그 사람 죽은 파고다극장인가? 거기가 그런 사람들 모이는 데라며. 너 그때 그 비디오 보구도 아무 반응 없는 거 보고 내가

확신...

순간 선우 벌떡 일어나 현성에게 덤벼든다.
현성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선우 밑에 깔린다.
하지만 곧 선우의 가냘픈 주먹을 툭 막고 선우를 내팽개친다.
나동그라지는 선우. 그 위를 덮치는 현성.

현성 (능숙하게 선우 목 조르는) 어쭙! 이 젓가락 같은 게! 죽을라고! 크 크...
선우 이...이거 댜... (씩씩대며 반항하지만 곧 힘 풀리는)

S#20. 과거. 선우의 방

겨우겨우 편지지 반을 채운 선우.
입가엔 앞 씌에서 다친 상처에 피가 굳어 있다.
굴욕적이고 비참하다. 한숨 쉬며 편지지에 머리 박는데.
그러다 곧 다시 고개 들어 아무렇게나 대충 마무리하는 선우.
편지의 맨 마지막 문구를 이렇게 적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고 나름 만족스러웠는지 자기도 모르게 미소짓는 선우.

S#21. 과거. 옥상(밤)

편지지를 펼쳐보고 있는 미석.

그 앞에 조심스레 몰래 미석의 표정을 살펴보고 있는 선우.

미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러다 곧 깔깔 웃는다.

미석 야, 니네 동네 진짜 재밌다!

선우 (당황한) ...뭐?

미석 가방에서 펜을 꺼내어 펜뚜껑을 입에 물고 편지지 뒷면에 글씨를 휘갈긴다.

선우 미석이 내미는 답장을 받아들고 본다.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지만
너 같은 놈은 처음 본 것 같다.“

미석의 답장을 받아들고 흠칫하는 선우.

선우 ...이게 뭐야?

미석 그 편지 쓴 애한테 보여줘 봐. 그럼 뭔지 알 거야.

미석 얼떨떨한 선우를 남겨두고 옥탑방 문으로 들어가 버린다.

선우 복잡한 표정으로 미석이 남긴 편지지 뒷면의 답장을 보고, 또 본다.

S#22. 과거. 교실

미석의 답장을 받아들고 머리를 쥐어짜는 현성.

그런 모습을 옆에서 씩씩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선우.

현성 (도움 청하듯이) 야, 정선우. 이 기집에 도대체 뭐라는 거냐? 사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선우 (외면하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어.

현성 (다시 편지지 들여다보며) 아이씨... 그냥 들이댈 걸 그랬나?

S#23. 과거. 선우의 방 + 선우의 집 앞

선우, 책상 앞에 앉아 기형도 시집 중에서 <질투는 나의 힘>을 펴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선우와 미석이 인용한 현성의 연애편지 문구들이 보인다.

그때 E)딸랑딸랑 자전거 벨소리가 들린다.

책상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는 선우.

선우의 집 앞. 현성의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다가오는 미석.

선우 행여 들킬까 몸을 숨긴다.

선우의 집 앞. 미석 현성에게 밝은 몸짓으로 크게 손 흔들며 배웅한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선우. 책상 서랍에서 늘 쓰던 두꺼운 노트 새 페이지 한 장을 쪽 찢어 원가를 끄적거리기 시작한다.

S#24. 과거. 옥상(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선우.
옥탑방 현관문 사이에 노트에 쓴 편지를 끼워넣으려는데,
그 순간 열리는 문. 미석 나온다.
선우 미석과 마주치자 그대로 굳어버린다.
그런 선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미석.

선우 아... 그... 그러니까... 아까 깨...가... 또 전해주라 해서...

순간 미석 선우 손에 들린 편지를 빼앗아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춰 열심히 읽기 시작한다. 어쩔 줄 모르는 선우.

미석 (선우 보는) ...이거 누가 썼니?

선우 (짙끔한) 김현성이...

미석 (선우 꿩어보는) 거짓말 마.
그 자식은 이런 거 쓸 수 있는 애가 아냐.

흠칫하며 미석 돌아보는 선우. 그런 선우를 여전히 뚫어져라 바라보는 미석.

미석 ...너두 기형도 좋아하니?

한참을 망설인 끝에 고개를 끄덕이는 선우. 멧쩍게 미석을 바라본다.
서로 조심스럽게 시선이 마주친 선우와 미석.
선우 자기도 모르게 품! 웃음이 나온다. 그러자 미석도 피식 웃는다.
서로를 마주 보면서 수줍게 어색하게 웃는 선우와 미석.

S#25. 과거. 운동장

운동장 단상에 놓인 카세트라디오에서 울려퍼지는 서태지의 '시대유감'
그 옆에서 열을 맞춰 노래에 맞춰 안무 연습 중인 남학생들.
현성은 리더처럼 맨 앞에서 아이들의 안무를 지휘하며 열심히 추고 있다.
맨 뒷줄에 영혼 없는 표정으로 흐느적흐느적 박자 안 맞는 춤을 추는 선우.
그러다 앞줄에 선 친구1과 딱 부딪히는.

친구1 (벌컥 짜증내는) 아, 진짜! (현성 보며) 이 새끼 왜 끼웠어!

선우 (무안한) ...

현성 (웃으며) 하겠다는 새끼가 없잖아...야! 정선우! 서태지 은퇴한다고 기집애들이 얼마나 슬퍼했는데, 이번 축제 때 우리가 좀 달래주자! 어?

다시 노래 시작되고, 환장할 것 같은 선우.
그때 갑자기 노래가 끊어진다. 돌아보는 아이들.
카세트라디오가 있던 자리에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미석.
'쟤가 여기 왜 있지?' 의아한 선우.

미석 미아안! 내가 실수로 라디오 발로 차버렸어!

황급히 미석 쪽으로 달려가 단상 밑을 보는 현성.
단상 밑에 굴러 떨어진 카세트라디오.
열받은 현성. 그러나 그 앞에서 미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는 (척 하는) 미석을 보자 화를 내기도 뭐하다.

미석 어떡하지? 저거 얼마짜리아?
현성 (이를 악물고) 아니, 됐어... (아이들 보며) 야, 오늘은 이만하자!

선우 얼굴의 먹구름이 날아간다. 미석 보는 선우.
순간 미석 눈과 마주친다. 찡긋 윙크하는 미석.

현성 (단상 위에 놓인 가방 들며) 기다려. 데려다줄게.
미석 (손사레치며) 아냐, 아냐. 나 지금 어디 가봐야 돼. (현성이 뭐라 말하기 전에 재빨리 도망치듯 뛰어가는)
선우 (현성 눈치보며) 저기... 나두 엄마가 빨리 오라 그래서... (하면서 자리를 뜨는)

남은 현성, 뭔가 기분이 되게 나쁘다.

S#26. 과거. 몽타주

1. 동네 서점
서가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책을 고르며 수다 떠는 선우와 미석.
2. 운동장
방과 후, 학생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데,
구석에서 뭔가를 열심히 토론 중인 선우와 미석.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다 그런 선우와 미석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현성.

S#27. 과거. 옥상(밤)

아직 미처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가구들이 비닐에 쌓여 있다.
선우와 미석, 그 가운데 방으로 들여보낼 짐들을 찾아 바구니에 정리하는 중이다.

선우 ...서울서도 살아봤으면, (잠시 망설이다) 파고다극장도 가봤어?
미석 파고다극장?
선우 있잖아, 기형도 시인이... 죽은 곳.
미석 아... 거기. (고개 젓는) 아직 못 가봤어. (하다가 선우 보는) 그래, 우리 같이 갈까?
선우 (심콩한) 아... 그... 거긴... 나 대학 붙으면 가보겠다고...
미석 아, 그래? 그럼 뭐 나중에 가지.
선우 ('미친 놈! 그냥 가자 그래야지!' 안 들리게 혼잣말하며 머리를 마구 쥐어박는다)
미석 그러게... 왜 거기 가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 (피식 웃으며) 기형도는 나름 내 첫사랑인데.

하는데, 선우 두껍게 쌓인 책들 중에 노트 한 권을 발견한다.
펼쳐 보니 미석의 어른스러운 필체가 나타난다. 시 습작 노트인 것 같다.

선우 (웃으며 미석에게 다가가는) 와, 너두 이런 거 쓰냐?

하는데 미석 선우 손에 들린 노트의 정체를 알아보고 얼굴 빨개져서 획 닦아낸다. 선우 그런 미석 쫓아가며-

선우 왜! 좀 보여줘어!
미석 니 꺼 먼저 보여주기 전엔 절대 안 돼!

선우와 미석, 킬킬대며 좁은 옥상에서 쫓고 쫓기는.
그러다 미석 가우똥하며 난간 쪽으로 휘청인다.
얼른 그런 미석의 허리를 끌어안아 당기는 선우.
그리고는 의도하지 않은 스킨십에 서로 당황하는 선우와 미석. 얼른 떨어지는데.

S#28. 과거. 선우의 방(밤)

상기된 얼굴로 미석의 노트를 들고 열심히 읽고 있는 선우.
위층에서 “드르륵” 가구 끄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이젠 마치 음악소리 같다. 선우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데.
미석 노트에 적힌 시구,
“벚꽃의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난 그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생각하네...”

미소 지으며 중얼거리는 선우.

선우 시 참 좋다...

선우 서랍에서 두꺼운 습작 노트 꺼내어 미석의 시를 베껴 적기 시작한다.

S#29. 21년 후. 선우의 집 / 선우의 방

21년 전과 거의 바뀐 게 없는 선우의 방.
갑자기 작아진 듯한 책상 의자에 불편한 듯이 앉아 있는 39세의 선우.
천장에서 부서질 듯한 쿵쿵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하얗게 샌 선우모 들어와 아들에게 녹색 주스잔을 내민다.
떨떠름하게 받아 마시는 선우.

선우모 일 년에 명절에나 올까 말까 한 집에 갑자기 웬일이여?
선우 (인상 찌푸리고 주스 마시는) ...옥상 공사하는 거... 잘 돼가요?
선우모 별루다. 건물이 낡아서 층을 더 올리는 건 안 되구, 그냥 보수공사 정도여.
선우 그냥 팔고 이사가자니까.
선우모 이 집 팔아서 으딜 가냐! 그나마 니 애비가 남긴 게 이거 하나뿐인디.
선우 (말없이 주스 마시는)
선우모 (그런 선우 안쓰럽게 보다) ...온 김에 자구 가.
선우 (다 마신 주스잔 건네는) ...바빠요.
선우모 (빈 주스잔 받아 돌아서며, 야속한) 바쁜데 왜 왔어!

선우, 선우모 나가자 책장을 훑어보기 시작한다.
한참 만에 기형도의 《입속의 검은 잎》을 찾아내고 미소 짓는 선우.
꺼내어 먼지를 툭툭 털어 페이지를 들춰 보기 시작한다.
곳곳의 밑줄과 메모를 보며 쓴웃음 짓는.
다시 끼워 넣으려는데, 책장 안쪽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난다.
잠시 망설이다 책장 안쪽으로 손을 넣어 뭔가를 빼내는 선우.
누렇게 변색된 편지봉투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없는 봉투.

갑자기 어두워진 표정으로 한없이 봉투를 바라보는 선우.

S#30. 과거. 교실

갓 등교한 학생들. 자리에 앉아 떠들고 있는데.
그때 앞문이 드르륵 열린다. 담임선생, 밖에 선 한 남자와 웃는 얼굴로 담소하
다 들어오는. 30대의 곱상하게 생긴 남자 선생, 윤환이다.
“차렷! 경례!” 현성의 구령에 맞춰 조용해지는 아이들.

담임 (웃으며 손에 들린 책을 바라보다 학생들 보는) 정선우?

어리둥절한 선우. 학생들도 웬일인가 싶어 선우 본다.

담임 (웃으며) 남들 만화책 숨겨두고 볼 때 시집 숨겨보던 놈이라 뭐가 달
라도 다르구나. (문예잡지 들어보이며) 너... 언제 문예지에 투고했
냐? 이거... 윤환 선생이 그러는데, 만만한 잡지 아니라던데?

“워어-” 환호성을 울리며 선우를 바라보는 학생들.
얼굴 벌개지는 선우. 고개를 푹 숙이는.
시큰둥한 표정의 현성.

S#31. 과거. 교실 / 점심 시간

학생들 웬일로 선우 곁에 우르르 모여 있다.

서로 선우의 시를 보겠다고 문예지를 돌려보는 아이들.
그때 교실 문 밖에서 “정선우-” 선우를 부르는 윤환.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는 선우.

S#32. 과거. 복도

윤환을 따라 어디론가 가는 선우.
여학생들이 그런 선우를 흘끔거리며 “재야?” “재 시가 엄청 유명한 잡지에 실
렸다면?” 속삭인다. 선우 그런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며, 기분이 짜진다.

S#33. 과거. 상담실

선우 시가 실린 잡지를 놓고 마주 앉아 얘기 중인 윤환과 선우.

윤환 교장선생님이 너를 서울대에 학교장 추천으로 넣고 싶은가 봐. 뭐 고
3 돼봐야 알겠지만. (선우 보는)

선우 (두근대는) 지... 진짜요?

윤환 (끄덕이는) 근데 아직 이 정도 경력으로는 부족해. 너 혹시... 전국청
소년백일장에 나가볼 생각 없니? 한국문인협회에서 하는 거라 꽤 공
신력 있는 대회거든.

선우 (손사래치는) 어휴, 전 아직 그 정도 실력 안 돼요...

윤환 (거만하게) 실력은 내가 키워줄게. 내가 십 년 전에 등단한 시인이기
도 한 거... 알지?

선우 (벽찬) ...!

S#34. 과거. 선우의 집 / 거실(밤)

선우부 (전화하는) 어, 그래. ...웬일이긴. 그냥 안부전화지. 허허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진로가 확정이 돼서. (뿌듯한) ...응, 서울대.

선우 (기겁하며 선우부한테 전화 뺏으려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

선우부 (선우 밀치며) 요즘 세상 좋아졌어. 시만 잘 써도 서울대를 간다니, 허허허...!

옆에서 들고 있는 선우 미치겠는데,
선우모, 산더미 같은 과일을 깎아 들고 선우 곁으로 다가와 선우 입에 사과를 넣어준다.

선우모 거 봐라. 공부든 취미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 된다 그랬지?

선우 (사과 씹으며) 엄마가 언제 그랬어요? 고3 때까지 공부만! 하라 그랬지.

선우모 (무시하는) 선우아빠! 사과 좀 자시고 통화하세요!

선우부 전화하고 TV 소리까지 시끌벅적한 가운데,
갑자기 위층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린다. 흠칫 위를 보는 선우.
가만히 위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선우.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은 것도 들리는 것 같다.
선우 사과접시 하나를 들고 일어서는데.

S#35. 과거. 옥상(밤)

사과접시를 들고 올라오는 선우.
아직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비닐에 쌓여 있는 가구들 사이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선우 살금살금 다가간다.
미석이 가구들 사이 의자에 앉아 뭔가를 끄적이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선우 장난치듯 미석에게서 담배를 뺏어든다.
순간 화난 눈길로 선우 바라보는 미석. 머리가 짧게 잘려 있다.
선우 그 눈빛 보고 당황스러워 담배를 떨어뜨린다.

선우 어... 머리 잘랐네.

미석 (떨어진 담배 주워 들다, 결국 발로 비벼 끈다) 응...

선우 (미석 옆 의자에 앉으며) 아쉽다. ...이뻐는데.

미석 (짐짓 밝게) 뭐, 시원하고 좋지 뭐. (선우 보는) 참... 너 오늘 무슨 상 받았으며?

선우 (갑자기 신난. 미석 옆에 앉으며) 윤회이라구 문학쌤 있잖아.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 ...서울대 추천서 써줄 수도 있대!

말없이 미소 짓는 미석.
어두운 불빛에 짧게 잘린 머리. 자세히 보면 들쭉날쭉 아무렇게나 잘린 머리다.

S#36. 선우의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속 드라마.

드라마 속 여주인공,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잘리고 있다. 머리카락을 마구 잡아당기며 마구 자르는 아버지.
 짧아진 머리를 보는 여주인공.
 인서트. 다정하게 어린 여주의 긴 머리를 빗어주던 어머니.
 그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여주.
 이어폰을 끼고 그 모습을 아린 눈으로 바라보는 선우.

S#37. 과거. 상담실

책상 위에 놓인 선우의 습작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 팔짱 끼고 눈을 찌푸리고 있
 는 윤환. 그 앞에 벌 받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선우.

윤환 (한숨) 야, 이게 시냐?
선우 (기죽은) ...네?
윤환 (짜증스럽게 선우의 습작을 흔들며) 이게 소설이지 시야? 그 흔한 비
 유도 역설도 없는 게 시야?
선우 (쭈뼛쭈뼛) 전에... 멋부리지 않은 담백한 산문처럼 써오라고...
윤환 (말자르는) 야, 옛날 우리 스승 같았으면 이런 거 막 구겨서 쓰레기통
 에 처넣었어! 너 내가 학교 선생인 걸 다행인 줄 알아! 안 그랬음 벌써
 욱부터 나갔어!
선우 (미치겠다) 네에...

S#38. 과거. 선우의 방(밤)

산더미같이 쌓인 시집들. 서점의 시 코너를 거의 통째로 들여온 듯.
 두서너 권의 시집을 펴놓고 인상적인 구절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밑의 습작노트에 밑줄 친 구절들을 짜깁기 하는 선우.
 그러다 샤프펜슬로 마구 종이를 그어버리는. 종이가 부욱 찢어질 정도로.
 책상 위에 엎드려 책상을 광광 치는 선우.

S#39. 과거. 동네 골목(아침)

이어폰을 꼴고 가는 미석. 문득 옆에 나란히 가는 선우를 흘긋 본다.
 유난히 험해 보이는 선우.
 잠시 망설이던 미석. 이어폰 한쪽을 빼서 선우의 귀에 꽂아준다.
 시끄러운 헤비메탈 사운드.
 “허억-!” 화들짝 놀라는 선우.

미석 정신차리라구.
선우 너... 그동안 맨날 이런 거 들었어?
미석 그럼 내가 클래식이나 가요 같은 걸 들을 거 같았어?
선우 아니... 그건 아니지만... (고개 젓는)
미석 (다시 이어폰 꽂아주며) 다시 들어봐. 비트가 강해서 누군가 치고 싶
 은 사람 있으면 대신 쳐주는 느낌이야.

쿵쿵대는 헤비메탈. 보컬 사우팅 한다.
 선우 눈을 감고 듣다 점차 비트에 맞춰 고개를 끄덕인다.

S#40. 과거. 교실

성적표를 승전 트로피처럼 들고 환호하는 현성. 박수 치는 아이들.
 그런 현성을 꼴사납게 바라보는 선우.
 그리고 그런 선우 대신 포효해주는 헤비메탈 보컬.

답임 (박수 치며) 박수 안 치고 뭐 하나? 우리 반에서 모의고사 전국 80등이 나왔는데.

마지못해 박수 치는 선우.
 다시 한 번 헤비메탈 보컬이 샤우팅 한다.

S#41. 과거. 운동장 스탠드 + 수돗가

운동장을 반으로 나누어 남학생들은 축구를, 여학생들은 피구를 하고 있다.
 선우 스탠드 뒤쪽에 혼자 앉아 있는.
 그 앞에는 역시 스탠드에서 쉬고 있는 반 아이들.
 공을 패스 받은 현성, 빠르게 드리블하며 수비를 제치고 들어가 슛을 한다.
 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축구공. 그대로 골인한다.
 환호하는 아이들 반, 숙덕대는 아이들 반이다.

친구1 (짜증) 저 새끼 진짜 못하는 게 뭐야.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그러니까 기집애들이 환장을 하지.

친구2 (킁킁대는) 그런데 어카냐. 이미 입자 있는데.

친구1 누구? 그 새끼 누구 사겨?

친구2 누구긴 누구야. (턱짓으로 미석 가리키며) 지난 학기에 긴 머리로 전학 온 개...

심드렁하게 듣고 있다가 흠칫하며 귀를 쫓긋 세우는 선우.

친구1 아... 개? (고개를 가우똥하는) 개 정선우랑 사귀는 거 아녘어? 맨날 붙어다니잖아.

친구2 미쳤냐? 김현성 놔두고 정선우랑 사귀게?

선우 (기분 나쁜) ...내가 뭐 어떤데?!

친구2 (흠칫하며 선우 돌아보며) 어, 너 거기 있었냐. ...몰랐다. 미안. (킁킁대는)

기분 나쁜 얼굴로 수돗가로 향하는 선우.

아직 운동장에 있는 현성과 미석.

현성 뛰다가 미석과 부딪힐 뻔하자,

다정하게 미석의 팔 붙잡으며 “괜찮냐” 물어본다.

슬쩍 팔 뿌리치며 고개 끄덕이는 미석.

그렇게 나란히 선 현성과 미석이 순간 너무 잘 어울려 보여서 화가 나는 선우.

수돗가의 물을 세게 틀어 마구 세수한다.

S#42. 남직원 휴게실

아무도 없는 텅빈 휴게실에 화난 얼굴로 TV를 쏘아보는 선우.

TV 속 드라마.

남주가 아닌 다른 남자배우가 여주의 손을 확 낚아채 잡는다.
당혹스러워 하는 여주의 표정. 하지만 그렇게 싫지는 않은 표정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몰래 숨어서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주.

선우 (짜증스러운) 뭐야, 저거... 완전 막장이잖아.

S#43. 과거. 상담실

새로운 선우의 습작을 놓고 인상 찌푸린 채 말없이 앉아 있는 윤환.
그런 환의 눈치를 살피는 선우.

윤환 (떨떠름한) 그냥... 공부나 하는 건 어때?

선우 (칭찬벽력) ...에에?

윤환 (고개 저으며 한숨 쉬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린 거 같다. ...니 성적표 들고 니네 부모님 쳐들어오시면 어떡하냐.

선우 (간절한) 아, 아니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백일장까지만이라도...

윤환 (고개 저으며)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냐. 어떻게 갈수록 습작의 질이 떨어져... (하면서 일어서는데)

선우 (황급히 가방 속에서 늘 쓰던 습작노트 꺼내며) 그... 그럼 예전 꺼 중에서...! 괜찮은 거 있나 좀 봐주실래요? (애절한 눈으로 노트 윤환에게 내미는)

심드렁한 얼굴로 훌훌 노트를 넘기던 윤환 어느 순간 한 페이지에 시선 고정한다.

시를 읽는데 눈빛이 점점 변한다.
선우 그런 윤환이 보는 페이지를 본다. 28선에서 미석의 시를 베낀 것이다.
'벚꽃의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난 그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생각하네...'

선우 아, 그건 제께...

윤환 (미석의 시에 탄복한) 이거야!

선우 ...에?

윤환 그래! 이거야! (선우의 어깨 두드리며) 내가 널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아니, 내가 널 잘못 가르치고 있었나보다. 원래 이만큼 쓸 수 있는 애였는데... 미안하다! 이제부터 니 맘대로 써! 맘 편히 먹고...!

선우 순간 가슴에 뭔가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다.

S#44. 과거. 선우의 방

책상 위에 그간의 습작들과 습작노트들을 쌓아두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선우.
머릿속이 복잡하다.

S#45. 과거. 선우의 집 / 마당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선우.

그때 옥상 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린다.
뒷걸음질치며 옥상 쪽을 바라보는 선우.
등 돌리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미석과 그런 미석에게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낮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선우모. 미석 고개 숙인 뒷모습이 낯설다.
하지만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선우.

S#46. 과거. 골목(아침)

나란히 가지만 서로 딴 곳을 보고 말없이 가는 선우와 미석.
미석 무슨 말을 할지 말지 한참 망설이다 입을 떼는.

미석 그... 백일장 말야.
선우 (미석 보는)
미석 (창밖 보는) 그거 상금도 있대매?
선우 ...그렇긴 한데, 왜?
미석 (전혀 재밌지 않은) 재밌을 거 같아서. 나두 나가볼라고.

순간 선우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한다.
행여 들킬새라 다시 미석을 외면하는 선우.

선우 글썸. 남들은 목숨 걸고 나가는데.. 재미 삼아 나가서 뭐가 되겠어?
미석 (썩썩한) 그치?

선우 자기가 한 말이 부끄러워 눈을 질끈 감는다.

S#47. 프리젠테이션실

3쌍의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가운데에는 광고주로 보이는 60대의 중후한 남자가 앉아 있다.
그 앞에서 화려한 언변과 퍼포먼스로 프리젠테이션하는 선우.
3쌍의 PPT보다 세련된 화면과 전환으로 바라보는 광고주의 얼굴이 흡족하다.
맨 뒷줄에 선 경호도 벅찬 눈으로 선우의 프리젠테이션을 바라본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마지막 화면에 스태프들 이름이 뜬다.
맨 마지막 줄 'Created by 정선우, 김수진, 윤태현 등등'의 이름이 한참 지나
가고
맨 끝에 '남경호'의 이름이 보인다. 순간 굳어지는 경호의 얼굴.
불이 켜지자,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박수.
선우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고개를 드는데,
당혹스러운 경호의 얼굴과 마주친다. 외면하는 선우.

S#48. 복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광고주와 나란히 얘기하며 걸어오는 선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호.
선우 그런 경호 냉랭한 눈으로 바라본다.

경호 왜... 왜 제 이름이... 맨 마지막에...
선우 (미소 짓는) 순서가 뭐가 중요하죠?
경호 그...그래도 제가 낸 아이디어고, 초안도 다... 제가 잡았는데,
선우 그거 그대로였으면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경호 아, 물론... 팀장님 덕입니다. 그...그래도...

선우 (경호 지나치며) 알았으면 됐어요.

선우의 냉랭한 뒷모습.

그 모습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호.

S#49. 과거. 버스 안

버스에 나란히 앉은 선우와 미석.

커다란 백팩을 안고 평범하게 입은 선우와 달리

미석은 은근히 꾸뻘었다.

노란 원피스에 흰 레이스 가디건, 입술엔 열게 립글로스도 바른 듯.

골똘히 생각에 잠겨 창밖을 보는 선우. 미석, 미석답지 않게 말이 많다.

미석 일정 보니까 생각보다 일찍 끝나더라구. 거기 대학로 근처라서 주변에 재밌는 거 많거든. 혹시 스파게티... 좋아해? 아, 뭐 거긴 여러 가지 많으니까 이따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선우 (성의 없는) ...어.

미석 아, 맞다. ...우리 오늘 파고다극장도 가지 않을래? 거기서 버스로 몇 정거장만 가면 돼.

선우 (그제서야 돌아보는. 의아한) ...거길 왜 벌써 가. 파고다극장은 대학 불고 가기로 하지 않았어?

미석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혹시 알아? 오늘 안 가면 내일 갑자기 사라져버릴지?

선우 (한숨 쉬며) ...그게 무슨 소리야. 미석아, 나 이거 되게 중요해. 지금

그런 생각할 여유 없어... (고개 돌리며 다시 창밖 보는)

미석 그런 선우의 옆모습을 보며 뭔가 다시 말하려다 말고 입술을 깨문다.

서글픈 얼굴.

S#50. 과거. 대학교 교정

<전국청소년백일장>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린 어느 대학교 교정.

넒따란 잔디밭에 앉아 있는 수백명의 전국 각지의 고등학생들.

그 중간쯤 나란히 앉은 선우와 미석. 판넬에 제출지를 끼워 들고 있다.

선우 긴장이 역력한 표정. 미석은 그보단 덜하지만 역시 꽤 긴장했다.

앞쪽에 임시로 설치된 단상에서 시제가 공개된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의아한 선우. 빈 종이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진다.

흘끔 미석 쪽을 보는 선우. 역시나 단 한 줄도 못 쓰고 생각에 잠긴 미석.

선우(E)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보통은... 지금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 그 순간엔 잘 모르지... 뭐 그런 취지로 써야 할 거 같은데...

순간 선우의 뇌리에 스치는 미석의 시.

인서트. S#28. 미석의 시를 읽으며 좋아하는 선우.
‘벚꽃의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 난 그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생각하
네’

순간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젓는 선우.
시간 경과.
하나둘씩 완성된 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하지만 여전히 한 글자도 못 쓰고 있는 선우.
옆자리의 미석을 흘끔 보니 역시나 텅빈 백지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선우. 가방과 판넬을 들고 자리를 옮기려 한다.

미석 어디 가?

선우 머릿속이 복잡해서. ...난 딴 데 가서 쓰고 올게.

S#51. 과거. 동 일각

학생들과 떨어진 으스스한 벤치에서 열심히 머리를 쥐어뜯는 선우.
머릿속엔 계속 딴 생각만 떠오른다.

인서트. S#41. 운동장에서 나란히 선 현성과 미석
인서트. S#41. 스탠드에 앉아 현성과 미석의 얘기를 하는 아이들

친구2 미쳤냐? 김현성 놔두고 정선우랑 사귀게?

인서트. S#43. 미석의 시를 들고 탄복하는 윤환

윤환 그래! 이거야!

그때 단상에 진행요원이 엄숙히 선고하듯 외친다.

진행요원 이제 삼십 분 남았습니다!

인서트. S#24. 옥상. 선우의 편지를 읽고 있는 미석.

인서트. S#26. 동네 서점. 나란히 앉아 책을 놓고 토론하던 선우와 미석.

인서트. S#27. 옥상. 난간 위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던 미석의 허리를 잡는 선우.

인서트. S#28. 선우의 방. 미석의 노트를 훑린 듯 바라보는 선우.

‘벚꽃의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난 그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생각하네...’

종이에 미석의 시를 빠르게 써내려가는 선우. 귓볼이 빨갛게 상기돼 있다.

미석(E) 너두 아직 다 못 썼구나...

기겁하는 선우. 종이를 황급히 가린다. 어느새 선우 뒤로 다가온 미석.

선우 너...넌?

미석 난 이상하게... 시제를 보는 순간 갑자기 시를 쓰기 싫어졌어.

선우 그러게... 내가 넌 여기 오지 말랬잖아.

선우 제출지를 반으로 접어 단상으로 도망치듯 달음질친다.

S#52. 과거. 대학교 교문 앞

불안한 표정으로 혼자 미석을 기다리는 선우.
가벼운 표정으로 교문에서 나오는 미석.
그런데 미석의 손에 제출지가 들려 있다.
의아한 선우.

선우 너... 안 냈어?

미석 응.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선우 (불길한) ...왜?

미석 말없이 선우에게 제출지를 내민다. 펴 보는 선우.

“도둑 165325113667”

선명한 당신의 입술 자국도
반지에 새긴 우리의 맹세도 모두 거짓이다
새들아, 백야를 가로지르는 새들아
사육사를 위해 노래하지 마라
사랑을 함부로 떠드는 이들을 저주하라
가라앉은 해조차 그들을 외면하리니
날 수 없는 날개
잊을 수 없는 기억들
너는 지옥을 보았느냐 묻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딱딱해진, 내 아픔도 모르는 내 심장을

흠쳐가지 말아줘

순간 선우의 눈에 ‘도둑’ ‘거짓이다’ ‘흠쳐가지 말아줘’ 같은 단어들만 콕콕 박힌다. 한참을 미석의 시를 보고 망부석처럼 서 있는 선우.

미석 (의아한) ...?

선우 (이 악문) 너 이거 뭐야...

미석 (수줍게 웃는) ...시잖아.

선우 이게 무슨 시야! 누구 바보로 아는 거야!

미석 (조금 상기되어 피식 웃는) ...알아봤구나.

선우 (별걱) 그래! 이렇게 안 해도 니 재능이 얼마나 잘났는지 잘 알아!

미석 (놀란) 무슨 소리야? (하다 깨달은. 미소.) 아... 미안해. 나 같은 초보가 시 갖고 장난질쳐서...

선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미석의 제출지를 휙 집어던지며) 비꼬지 마!

미석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시를 보는. 무참하다. 선우를 놀랍고 슬픈 눈길로 보는) 선우야...

선우 ...그래!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좀... 당분간 너 안 보고 싶어!

더 이상 미석을 건드릴 수 없어 돌아서는 선우.

혼자 남은 미석 그런 선우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만 보는데.

S#53. 과거. 선우의 집 / 옥상 + 마당

옥상. 활짝 열린 채 베껴대는 미석의 현관문.

널부러진 낡은 가구들. 그 속에서 휘날리는 미석의 습작 노트.

마당. 부동산 중개업자와 옥신각신하는 선우모.

선우모 어디서 옥탑방 사글세도 못 내서 야반도주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요!
애비란 놈은 맨날 술에 절어 있고! 하다하다 못해 그 딸내미한테 애
기했더니 바로 튀어버려? 뭐 이딴 것들이 다 있어!

부동산 제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겠습니까? 입성도 좋구 말투도 점잖으니
까 저두 깜박 속았죠!

S#54. 과거. 선우의 방

침대에 공허한 눈빛으로 누워 있는 선우.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선우의 책상 위엔 아직 풀러보지도 않은 흰 봉투가 놓여 있고.

그 위로 전화통화 소리.

여자(E) XX고 2학년 정선우 군... 맞나요?

선우(E) ...네.

여자(E)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국청소년백일장 시부문 대상 수상하셨습니다.

선우(E)

여자(E) 정선우 군? 들으셨나요? ...정선우 군?

선우(E)

S#55. 선우의 오피스텔

불도 안 켜 원룸에서 모니터를 등진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선우.

화면에 뜬 회사 홈페이지 화면.

‘인사발령 / 크리에이티브 팀장 정선우 → 메일룸 총괄’

띠덕 울리는 휴대폰 문자 수신음.

이과장(E) (거만한) 정선우 씨,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음지에서나마 회사를 위
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아트(E) (기분 좋은) 여러분 제 승진 덕은 이번주 목요일에 쏘겠습니다! 모두모
두 참석요망...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선우.

선우(E) 꿀 좋다... 꿀랑 신입 꺼 하나 주워먹고 나가떨어지는 모양새라니.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는 선우.

그때 분위기 깨는 명랑쾌활한 휴대폰 벨소리.

선우 힘겹게 휴대폰을 다시 집어든다. “개”다.

수신 거부하고 눈 감으면 다시 울리는 벨소리. 모르는 척하는 선우.

이번엔 문자 수신음이 울린다.

선우 욕을 지껄이며 휴대폰 집어든다. 역시 “개”. 현성이다.

현성(E) 전에 얘기한 <질투는 나의 힘> 보냐?

마지막회에, 와... 눈물난다. 꼭 봐.

선우 (다시 휴대폰 집어던지며) X발! 팔자 좋게 드라마 타령은...!

시간 경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선우.
드라마에 몰입한 듯 눈물까지 글썽하다.

인서트. 드라마 화면.
떨리는 손길로 수첩을 펴 보는 남자주인공(남주).
수첩에 적힌 ‘가을 9815423’이란 시.
남주 볼펜을 꺼내어, 각 행의 9번째 음절, 8번째 음절 등 제목에 적힌 숫자에 해당하는 음절에 동그라미를 친다.
동그라미 안의 글자를 모아 보면 ‘다시는 날 찾지 마’라는 문장이 된다.
무너지듯 주저앉는 남주.

거의 공포에 질린 것 같은 눈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선우.

S#56. 선우의 옛집 / 선우의 방

선우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책장을 마구 뒤지기 시작한다.
수많은 책들을 파헤치니, <입속의 검은 잎>이 나온다.
떨리는 손으로 책이 꽂혀 있던 책장을 뒤지니, 누런 봉투가 나온다.
봉투를 여는 선우. 안에는 미석의 백일장 제출지가 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꺼내어 미석이 쓴 시의 각 행에, 숫자에 해당하는 순서의 음절에 동그라미를 치는 선우.

“도둑 165325113667

- 이미석

(선)명한 당신의 입술 자국도
반지에 새긴 (우)리의 맹세도 모두 거짓이다.
새들아, 백(야)를 가로지르는 새들아
사육(사)를 위해 노래하지 마라
사(랑)을 함부로 떠드는 이들을 저주하라
가라앉은 (해)조차 그들을 외면하리니
(날) 수 없는 날개
(잊)을 수 없는 기억들
너는 (지)옥을 보았느냐 묻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딱딱해진, 내 (아)픔도 모르는 내 심장을
훔쳐가지 말아(줘)”

선우 선...우...야...사...랑...해...날...잊...지...말...아...줘? (멍하니 눈을 들어 허공을 바라보는)

인서트. S#52.

미석 (쓸쓸한 미소) ...알아봤구나.

헉, 하며 숨을 들이키는 선우.

인서트. S#52.

미석 (선우를 놀랍고 슬픈 눈길로 보는) 선우야...

동그라미 쳐진 미석의 제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선우.

“선우아 사랑해 날 잊지 말아줘”

힘없이 제출지를 떨구는 선우.

선우(N)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인서트. 드라마. 나란히 앉아 시를 쓰는 남주와 여주.

남주가 열심히 시를 쓰는 동안, 여주는 남자를 향한 고백시를 쓴다.

선우(N)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인서트. 드라마.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시를 줍는 여주.

여주, 남주의 집 현관에 자신의 시를 접어 끼워둔다.

선우(N)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인서트. 드라마. 밤새 불 켜진 소년의 방 창문을 지켜보는 여주.

짐을 실은 트럭에 힘없이 올라타는 여주.

선우(N)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인서트. 드라마. 남주와 여주가 함께 살던 집을 시야가 벗어날 때까지 지켜보는

여주. 결국 눈물 한방울이 뚝, 떨어진다.

어두운 방, 책장을 자해하듯 주먹으로 박으며 눈물을 흘리는 선우.

선우 미안해...미안해...! 내가...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미안해... 상처줘서 미안해... 나 같은 새끼... 그래도 첫사랑이라구... 계속 기억하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미석아... 날 용서해줘... 제발... 흐으으...

S#57. 지하 메일룸

수많은 박스에서 자신의 짐을 꺼내어 정리 중인 선우.

그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경호.

선우 돌아본다. 힘없이 피식 웃는다.

선우 여긴 어떤 일이냐?

경호 (화난) ...웃지 마세요.

선우 (한숨) 이젠 니가 나한테 명령이냐?

경호 어울리지 않아요! 정팀장님은 항상 매너 있게 사람을 갈구고! 듣기 싫지만 옳은 소리 하시는 분입니다!

선우 (얼떨떨한데 뭔가 몽클하다) ...너 뭐야.

경호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USB 내미는) 이... 이거 한번만 봐주십쇼! 새 광고 시안입니다!

선우?

경호 아무리 그래도... 저희 회사에, 저희 크리에이티브팀에 필요한 사람은 정팀장님입니다! 저희가... 저희 동기들이 고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선우 (기가 찬) 야, 나 그나마 여기서도 짤리라고?

경호 (간절한)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저 사람들 결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정팀장님을 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지...!

선우 (착잡한) ...그래서 이걸 내용이 뭐야?

경호 (밝아진) 기존 90년대 컨셉 광고의 유튜브 버전입니다! 일전에 팀장님께서 90년대는 온통 서태지, 듀스뿐이냐고 하시던 게 생각나서...

선우 아...

경호 그 시대에 대중문화 말고도... 음악, 미술, 문학, 애니 등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겐 각별했던... 그런 다양한 부문들을 찾아보려고요.

선우

경호 (조심스레) 그때... 대답 안 해주셨지요? 다시 한번...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선우

경호 90년대에... 팀장님께서 뭘 좋아하셨습니까?

선우 난... (쓸쓸하게 웃는)

경호 (선우 보는)

선우 난... 시를 좋아했어. 특히 기형도를... 90년대가 오기 직전에 죽은... 시인을... (목메인) 미치도록 쓸쓸하고 적막한 그 사람의 시를...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마냥 좋아했지. ... 그 사람이 꼭... 나 같은 줄 알고.

S#58. 선우의 오피스텔

일요일, 햇살 가득한 선우의 오피스텔.
 갓 릴리즈된 경호의 유튜브 광고를 보는 선우.
 “당신의 90년대”라는 메인 카피가 지나가고 나면,
 화면에선 “당신의 90년대 #1 서태지”라는 자막이 걸린 유튜브 화면이 뜬다.

쭉 스크롤하는 선우. “당신의 90년대” 시리즈로 여러 가지가 뜬다.
 #2 X세대, #3 뽀빠 등등. 쭉 가다 보면 #9쯤에 기형도가 있다.
 클릭하여 재생하는 선우.
 몇 가지 이미지가 쭉 이어지다 미석의 시구를 인용한 카피가 뜬다.

“벚꽃의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난 그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생각하네...”

희미하게 웃는 선우.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와 벨 소리.
 인터폰을 드는 선우. 화면에 나타난 얼굴 보고 깜짝 놀란다.

선우 김...현성?

시간 경과
 편의점에서 사온 듯 맥주 몇 캔과 과자 안주가 테이블에 놓여 있고
 말없이 소파에 앉아 맥주를 들고 있는 선우와 39세의 현성.
 덩치가 크다 못해 비만에 거구인 현성. 그래도 잘생긴 이목구비는 여전히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흘쩍이고 있다.

현성 그때... 일부러 니네 좋아하는 줄 알면서 내가 소문냈다. 미석이 나랑 사귀다고...

선우 (어이없는) 그걸 왜 이제 와서...

현성 그 드라마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코 푸는) 니네가 저랬구나... 싫어서...

선우 그 얘기가 내 얘기라고... 어떻게 확신하냐?

현성 왜냐면... 내가 그 작가를 알기 때문이지.

선우 (놀란)!

현성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메모지를 꺼낸다) 드라마국 우리 아래층이다. 이미라, 이미석 맞고... (선우에게 메모지 건네며) 이거 그 여자 연락 쳐다.

선우 (멀뚱히 현성의 메모지 바라보기만 하는)

현성 안 받냐? 아... 너 여자 있냐?

선우 (씹씹하게 웃으며 고개 젓는) 그런 거... 이제 와서 무슨 필요가 있다고.

현성 ...진짜?

선우 (맥주 들이켜는) 그때... 백일장에서 대상 받은 거... 그거 미석이 시 훔쳐서 낸 거야.

현성 (놀란) 그래서 수상 거부한 거구나! 야... 난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너한테 쫓아서... 와... 그때 너 카리스마 죽였는데!

선우 (기가 막힌) ...뭐?

현성 (민망하게 웃는) ...몰랐냐? 그때 넌 미석이 사겼지, 전국 단위 백일장에서 대상 받았지... 그걸 또 거부했지! 와... 그때 내가 널 얼마나 질투했는지...

선우 놀랍고 아이러니하다. 어이없어 너털 웃으며 말없이 맥주 마시는.

S#59. 종로 거리

이제는 고시원이 돼버린 파고다극장. 보수도 하지 않아 낡고 음습하다. 거리에 서서 그 모습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는 선우. 깊게 한숨 쉰다.

시간 경과

주차 방지턱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는 선우.

‘파고다극장 / 옛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곳은 / 내 첫사랑이 승천한 곳...’

그때 한 여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린다. 선우 이상한 느낌에 멈칫한다. 천천히 고개를 드니,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인이 등을 돌리고 ‘파고다고시원’을 보고 있다.

‘설마...’ 하면서 여인의 머리카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선우.

고개를 저으며 몸을 돌리는 여인.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선우와 눈이 마주친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단번에 서로를 알아보는 그들.

미석 (곱게 눈 흘기는) ...거 봐. 내가 뭐했어. 그날 안 가면... 사라져버린다 그랬잖아! (하다가 끝내 목멘다)

선우 뭐라 말을 하고 싶은데,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 나와 말을 할 수가 없다.

미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파고다극장 앞에서 다시 만난 선우와 미석.

끝.

미운 사투리 소녀

하수정



작가 후기 최수현

처음 당선 버전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것이 '시(詩)'라는 아이템과 주인공 캐릭터들의 설득력이었다. 하지만 약점으로 지적된 아이템은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을 위한 이 단막의 정체성이기도 했으므로 최대한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필연적으로 캐릭터를 수정해야 했고, 그에 따른 플롯의 변화 때문에 매 씬, 모든 대사가 거의 다 바뀌었다. 특히 남자주인공의 경우 이름부터 성격, 초기 상황 설정까지 모든 것을 수정했다. 기존의 인물이 시니컬하고 오만했다면 수정본의 인물은 냉소를 숨긴 소심하고 주눅 든 소년이었다. 그것이 90년대 대중문화를 외면하고 기형도의 시에 빠진 소년의 모습에 가깝다는 멘토님과 여러 동료들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리고 그런 소년의 내면적 괴로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악역이 보충되었다. 악역 덕에 이야기는 더 힘있게 굴러갔으나 기존의 당선작이 가지고 있었던 밝은 느낌은 많이 사라지고 보다 통속적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로 인해 같은 공감대를 가진 소녀를 만난 소년의 기쁨과 애정이 더 잘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질투와 오해로 인해 파국을 맞는 클라이맥스의 설득력도 강화됐으리라고 믿는다. 기존 작품이 갖고 있던 (영성하지만) 유쾌하고 아련한 느낌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아쉬움을 표현한 수정본이지만, 보다 더 드라마다운 드라마를 구축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다. 누가 뭐라하든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정본이다.

작의

지방에서 서울로 오고 나면 서울말을 배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만약 서울 사람이 사투리를 배우려 한다면 어떻게 하는 착상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미운 사투리 소녀>는 통영으로 전학 온 소심한 서울 소녀 윤희가 사투리 경연대회에 나가면서 자존감을 되찾고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이 극에서 미운 오리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빛나는 순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있는 그대로 당당할 때 삶은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무농약 유기농의 시골 밥상과 같은 드라마를 쓰고 싶었다. 맵고 짠 음식들 속에서 문득 가슴 한편 그리워지는 것은 온기가 담긴 시골 밥상이 아닐까? 아울러 촌티 팍팍 나는 소녀들이 뛰어노는 푸른 바다의 청량감을 보는 이에게 선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등장인물

임윤희(여, 15세)

얼마 전 전학 온 소심한 서울 소녀. 통통하고 볼이 빨갛다.

일명 ‘촌년보다 더 촌스러운 서울년’으로 통한다.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황정심(여, 15세)

통영 토박이. 감칠맛 나는 육 실력을 자랑한다.

배포 좋고 어디서든 할 말 다하는 깡다구 있는 타입.

말 못하는 아빠가 있다.

백진주(여, 15세)

촌동네 가시나. 세련되고 싶으나 그래도 촌년.

정심이의 절친이자 미워할 수 없는 왈가닥이다.

이선애(여, 15세)

엄청난 미모의 전도유망한 반장. 딱 한 번 빼고 불박이 전교 1등.

경남청소년발레콩쿠르에 입상한 전력이 있다.

양윤희(여, 16세)

1년 유급했다. 동네 바보로 불린다.

맑고 순수한 시각과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닌 소녀.

귀요미(암컷, 2세)

스스로 목줄을 선택한 자유로운 영혼의 시골 똥개.

그 외

담임선생님 (여, 40대 초반)

생선 파는 할머니 (양윤희의 할머니, 60대 중반)

만물상 할아버지 (백진주의 할아버지, 60대 후반)

이발소 아저씨 (황정심의 아버지, 40대 초반)

아롱이 (수컷, 3세)

왕기철 (동네 날라리, 16세)

마라톤클럽 회장 김영숙 여사 (50대 후반)

소녀1, 2, 3

서울선생님 (여, 40대 초반)

동네 아이들1, 2, 3

줄거리

초여름, 서울에서 통영으로 전학 온 임윤희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자기소개를 하지 못한다. 애들은 어울리지 않게 발레리나 머리띠를 한 윤희를 보고 놀린다. 윤희는 학급에서 말 한마디 없이 일주일을 보낸다. 이를 지켜보던 정심이는 윤희에게 8월에 열리는 사투리 경연대회를 제안한다. 윤희는 우승하면 발레를 배울 수 있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서울깍쟁이의 통영 말 배우기는 정심이로 인해 시작된다. 윤희는 사투리를 짹짹 써대며 자신을 깔보는 백진주와 한판 뜨고 싶은 맘이 굴뚝 같지만 꼭 참는다. 결국 윤희는 텃세를 부리는 진주와 불꽃 튀는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동네 바보 양 윤희까지 합세해 좌충우돌 맹연습 중이던 어느 날, 학생주임인 담임선생님은 백조 역할을 우등생 선애에게 양보하라 한다. 이로 인해 윤희와 정심이, 진주와 바보 윤희는 선애를 대항마로 푹푹 뭉치게 된다.

윤희의 사투리 실력은 답보 상태에 머무른다. 정심이는 고심 끝에 삶의 현장으로 나가 봐야 한다고 제안하고, 윤희는 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를 돈다. 촌이라고 싫어했던 이 동네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윤희, 말을 배우면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된다.

윤희는 리허설을 한 후 두려움 때문에 출전을 포기하려 하고, 선애는 윤희에게 은밀히 '백조의 호수'를 제안한다. 그리고 윤희는 정심이가 고집스럽게 출전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

윤희는 사투리 연극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윤희와 정심이가 속한 '미운오리 새끼팀'과 막강 라이벌 선애가 속한 '백조팀'의 대경연이 시작된다!

S#1. 오프닝. 교실(이른 아침)

조례종이 울린다.

소란스러운 가운데 담임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 뒤를 따르는 윤희, 화사한 발레리나 머리띠를 하고 있다.

담임 서울에서 왔으니까 잘해줘야 된대이. 임윤희, 자기 소개해봐라.

윤희가 침을 꿀떡 삼킨다.

(E) 심장이 쿵광거리는 소리

윤희의 입술이 오물오물, 발가락은 움찔움찔. 뒤통수에 땀이 뺨뺨뺨 흐른다.

담임과 소녀들 목을 빼고 기다린다.

파르르 떨리는 윤희의 입술에 맞춰 벽시계도 안간힘을 쓰며 천천히 흘러간다.

정적을 깨며 소녀들 킁킁 웃는다.

소녀1 입이 막혔나?

소녀2 그라게?

담임 (눈을 흘기며) 자, 조용! 저기로 들어가라.

윤희는 창피함에 달아오른 얼굴로 교단에서 내려온다.

앞자리에 앉은 이선애, 윤희와 눈이 마주치자 빙그레 웃고, 윤희는 놀라 딸꾹질을 한다. 선애는 윤희와 똑같은 발레리나 머리띠를 하고 있다.

담임 (책상을 탁! 치며) 이번에 선애가 경남발레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았단다. 자, 박수! 선애 나오나~

반 아이들의 오- 하는 소리. (선애는 인기가 많다.)
선애, 긴 머리를 찰랑이며 앞으로 나간다.

담임 한마디 해라, 반장.

선애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멀리까지 응원 와줘서 고맙습니데이.
(또박 또박) 누구보다 우리 학교의 이름을 휘날리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애들아 모두 고마워~ 오늘 아이스크림 쏜다~

소녀들 요란하게 박수를 치는 가운데, 진주, 정심에게 쑥덕인다.

진주 (노려보며) 내는 자 딱 밥맛이다. 가증스러븐 년.

담임 (책상을 치며) 자, 국어책 피라. 오늘은 표준 발음법이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소녀들 목청껏 따라한다. 윤희는 고개를 푹 숙인다.
뒤에 앉아 있는 정심은 윤희의 뒤통수를 바라본다.

S#2. 하룻길. 항구(이른 오후)

반짝이는 푸른 바다와 선박, 주택 등이 웅기종기 모인 항구의 풍경.
윤희는 홀가분한 듯 명랑한 발걸음으로 부둣가를 걸어가고 있다.
윤희는 좌우를 둘러보고 재빨리 아라베스크 동작을 한다.
기우뚱 넘어지는 찰나, 멀리서 윤희를 바라보는 정심이와 귀요미의 뒷모습 보이고,

(E) 멀리 뱃고동 소리 이어진다.
바다 위로 타이틀 ‘미운 사투리 소녀’

S#3. 일주일 후. 당산나무 아래(오후)

초여름 아름다리 커다란 팽나무.
(E) 매미 우는 소리 들리고
어울리지 않게 한구석에 외따로 앉아 있는 개집.
나무 아래로 윤희가 걸어가면, 귀요미가 튀어나와 목청이 찢어지도록 짓는다.
팽팽한 목줄. 한 치의 양보가 없는 대치 상황.

윤희 좀 봐주면 안 될까?

귀요미 쾅쾅 (알짬 없다.)

윤희가 움직이면 똥개는 쫓아다니며 쾅쾅 짓는다.

윤희 아, 정말! 내가 내 집에 가겠다고 왜 이래!

귀요미 잠시 얄전하더니 다시 쾅쾅 짓는다.
윤희, 노려보고 풀썩 제자리에 앉아버린다.
이때 나무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정심이 나온다. 손에는 뺑튀기 봉지 들려 있다.

정심 귀요미! 조용히 해라, 마.

귀요미의 주둥이를 틀어막는다. (깨갱)

정심 시끄러바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슬쩍 윤희를 보며)
(능청) 누고? 와 이려고 있노? (귀요미를 쓰다듬는다.)
나 황정심이다. 야는 처음 보는 아한테는 길 안 비키준다.
니도 처음 보는 아한테는 말 안 부친다아이가.
머라카지 마라, 귀요미한테. 니도 그람서!

윤희가 획 쳐다보면,

정심 서울 아들은 얼굴도 하얗고 예뻐게 하고 댕기는 줄 알았더라만 다 뺑
까였나? 니 하는 모양만 깝쟁이지 때깁은 우리랑 별 다를 게 없다. 내
보기에는 앞머리도 안 어울린다. 니 오던 날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전
부터 눈에 거슬렀다. 촌스럽다.

윤희 뭐?

정심 (눈이 휘둥그레지며) 우와- 니 말할 줄 아나?

윤희, 주먹을 꽉 쥔 채 노려본다.

정심이 핵 돌아 평상에 앉아 뺑튀기를 쪄개 먹는다.

정심 니만 니가 이상한 거 모리지, 다들 니 이상한 거 눈치 챘다.

윤희 (입을 오물오물) 너 뭐야? 주제님께 참견하지 마.

정심 (씩 웃으며) 반푼이는 아닌가베.

윤희, 길을 나서고 정심이는 뒤따른다.

S#4. 시골길(오후)

윤희는 앞서 걷고, 정심과 귀요미는 뒤에 따라붙는다.

정심 (따라붙으며) 야! 니 혼자 입 짹 다물고, 평~생 말 안 할 것처럼 그리
나 잘났다고 돌아댕기니까 좋나?
니한테 말 거는 애들 왜 썩까노?
가들도 인간인데 기분 나쁘다 한다.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다.
그리 텅기는데 누가 좋아하곳노?

윤희, 걸음을 멈춘다. 획 돌아서며,

윤희 (물어뜯을 것처럼) 뭐? 때가 꼬질꼬질한 촌년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놈의 촌구석! (허공에 헛발질)

놀란 귀요미 으르렁 댄다. 정심이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정심 야. 임윤희!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그다.
너 존나 이상해. 이 미친년아, 니가 뭘데? 문디 시발 지랄하고 자빠졌
네. 개잡년이 어디다 말을 붙이고 지랄이고? 이 빙신 년.
(들으라는 듯) 이 빙-신-년-아-

윤희, 입을 짹 다물며 아무 말 안한다.

그런데 아-빙-신-년-아가 묘하게 웃긴지 픽 웃는다.

정심 (능청) 자, 따라해봐라. 이 빙-신-년-아-
윤희 (묵묵부답)
정심 나 욱 잘한다. 너는 초보자니 맛만 비준기다.
 나 황정심이다. 내 이름 들었제? 황정심!
 내가 좀 세다. 이 입을 한번 털었다 하든 욱 한 바가지가 공중을 뚫고
 간다. 올 엄마는 내가 황가라 그렇단다.
 니한테 관심 있어서 말건 거 아이다. 착각하지 마라.
 궁금해서 말건 거다. 진짜 말 못하는지 아닌지.

정심, 뽕튀기를 눈앞에 살랑살랑 흔든다.

정심 야! 이 뽕튀기라도 먹을래? 안 받고 뭐하노?

윤희는 귀요미가 켄켄 짓자 어쩔 수 없이 뽕튀기를 건네받는다.
 한입 먹고는 생각보다 맛있다는 표정의 윤희.
 둘은 나란히 그루터기에 앉아 뽕튀기를 먹는다.

정심 한 달 있다가 올 동네서 사투리 경연대회 한다. 알제? 같이하자.

윤희 ?(잘못 들었나 싶은)

정심 선생님이 학급에서 무조건 한 팀 나가야 한다는 거 들었제?

윤희는 선뜻 대답 안 한다. 다만 정심의 제안이 의외라는 듯한 표정.

정심 니 여기서 살라카른 사투리 쓸 줄 알아야 할근데?
 니 안 그래도 좀 이상한데 거기다가 서울말까지 쓰면 아그들이 영~
 싫어할근데?

정심이는 알미운 미소를 짓고, 윤희는 미간을 팍 찌푸린다.

S#5. 화상. 교실(점심시간)

(E)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한눈에도 역세 보이는 소녀1, 2, 3이 몰려와 윤희를 둘러싼다.

소녀1 (귀에 대고 크게) 야! 이임유윤희이아-

윤희, 도시락을 꺼내다 깜짝 놀라 순간 얼어붙는다. 소녀들은 키득거린다.

소녀2 야!

소녀3 니 왜 암 말 안하는데?

윤희,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한다. 소녀들이 모여 소곤거린다.

소녀1 자 귀도 막혔나?

소녀2 재 좀 이상타.

소녀13 역시로 콧대가 높아가꼬 우리랑 말 안 섞을라꼬 하는 거재.

소녀1, 윤희의 머리띠를 확 뺏고는 자기가 써본다.

소녀1 어울린다꼬 이걸 하고 있나? 선애는 잘 어울리는데.

윤희, 소녀1을 노려본다.

소녀1 꿀 먹은 벙어리가? 껏껏해 숨 넘어 가긔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주디를 이케이케 오물거리구만. (흥내내는)
야! 니 여기 왜 왔노?

윤희는 입을 오물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는다.
소녀1, 2, 3 웃는다.
윤희, 머리띠를 빼앗아 다시 쓰려 하는데 선애와 눈이 마주친다.
선애는 빙그레 웃는다. 윤희는 가방에 머리띠를 집어넣은 후 교실 밖으로 나간다.

S#6. 현재. 시골길(오후)

윤희, 정심이를 노려보며

윤희 (반감) 왜 내가 사투리를 배워야 돼? 그 촌티 팍팍 나는 거를 왜?

정심 니 알아서 해라. 니도 말해서 들을 아가 아이다.
근데 있다이가, 니도 상당히 촌시럽거든?

귀요미가 꼬리를 흔든다. 윤희, 화가 나 입술을 팍 깨문다.

정심 촌년보다 더 촌시러븐 서울년은 내도 예상 못했거든?

윤희 가던 길을 간다. 정심이 재빨리 윤희 뒤통수에 대고,

정심 그라고! 거기서 입상하면 배우고 싶은 거 배울 수 있게 읍에서 지원

해준다. 선애도 작년에 입상해서 시내에서 발레를 배웠는데~

윤희, 흠칫 멈추면,

정심 (궁시렁) 선애도 독하긴 독하재. 가도 서울서 왔됐는데...
(윤희를 보며) 내일 여기 기다리고 있을 껏다.
아무도 안 데꼬 나올 텅께 나온나!

정심이와 귀요미는 유유히 걸어간다.

윤희 흥! 누구 마음대로!!

윤희는 정심이와 반대 길로 씩씩하게 걸어간다.

윤희의 손에는 뺱튀기 봉지가 덜렁거린다.

S#7. 며칠 뒤. 당산나무 아래(이른 오후)

평상 위에 걸터앉은 윤희와 정심이.

정심 (다정하게) 그 노마 파이다~

윤희 (조그맣게) 그 노마 파이다.

정심 국어 책 읽듯이 그라지 말고, 감정을 넣어가 해야제.

윤희 (조금 크게) 그 노.마. 파이다.

정심 잘했대이. 그 노마는 그 새끼, 아니 그놈이라는 뜻이고, 파이다는 별 로이다라는 뜻이다. 알겠제?

윤희, 고개를 끄덕인다.

정심 (흡족) 자, 다음. 대파 주세요~

윤희 대파 주세요~

정심 요거는 대파를 달라는 게 아니고, 뜨사 달라는 뜻, 아니다, 데워 달라는 뜻이다. 국이나 찌개 같은 거. 알긋나?

윤희 (연습) 대파 주세요-

정심 자, 다음은 '문디 지랄하고 자빠졌네.'

(E) 핸드폰 울리는 소리

정심이 전화를 받는다.

정심 여보세요. 진주가?

문디 가시냐야 만다꼬 질질 짜면서 방구석에 그리 쳐박혀 있노? 그노
마 글빼이 갈던데 앵간히 해라. 다 컸는데 추잡스럽게 이기 머꼬? 남
사시렵게시리. 까리하고 싸끈한 아들 천지 빼까리다. 내한테 잡히바
라. 고마 쎄리 궁둥이를 주차벨라니깐.

퍼뜩 나온나!

윤희 누구야?

정심 누구야가 아니라 누꼬?

윤희 누꼬?

정심 진주.

윤희 백진주? (근심)

시간 경과.

진주, 눈이 벌건 채로 등장한다. 눌린 깃잎머리. 지워진 화장 자국.

윤희, 진주를 등지고 앉는다.

진주 (실실 웃으며) 내 심장이 찢어졌나 부다. 그 노마 땀시.

정심 꼬라지 봐라. 그놈 온 데 다 꼬시고 돌아다닌다던데, 고마 잊어빠라.

진주 다 머라 케도 내밖에 모린다! 가가 얼마나 착한 놈인데.

정심 줌!

진주 그노마 다른 년 만나면 다리를 보사버릴 꼬다.

진주는 정심이를 안고 울다가 윤희를 발견한다.

화들짝 놀란 진주는 급히 정심이를 구석으로 데려간다.

윤희는 종이비행기를 날려보고 있다.

진주 (소곤소곤) 니 자랑 뭐하노?

정심 (진주에게) 사투리 경연대회 나갈 꼬다.

진주 미쳤나? 자를 데꼬 사투리 연습을 한다는 게.

정심 자 괴롭히지 마라. (강한 눈빛으로) 내 딱 말했대이.

진주 시무룩하다.

정심 서로 인사해라.

윤희 (조그맣게) 잘 부탁해.

진주, 푹 하고 웃는다.

진주 (따라하며) 잘 부탁한다, 내도. 니 오데 사노?

윤희 산양읍 동향리.

진주 거기 소똥 고개 밑에 사나?
윤희 ?
진주 거 모리나. 소 똥 싸러 가는데.
윤희 (크게) 아하, 소 똥 싸러 가는데.
진주 (재미난 듯) 거기 한여름에는 억시로 냄새 독하다.
윤희 ... 아, 그래?
진주 (어미를 따라하며) 아, 그래?
 니 근데 그거 아냐? (키득키득 웃는다.) 니 말고 여기 윤희 또 있다.
윤희 ... ?
진주 동네 바보다. 가 이름도 윤희다. (까르르 웃는다.)

윤희, 빨강계 달아오른 얼굴로 뺨뺨이를 짹 짹 친다. [빠직!] 쪼개지는 소리.
 정심이 진주 등짝을 짹 때리고, 마침 정적을 뚫는 소나기 내린다.

정심 왜 비가 오고 지랄이고? 차가버 죽겠는데! 우산 있나?
진주 내는 없는데~

정심이 우산을 펴면 진주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간다.
 혼자 비를 맞고 있는 윤희의 뒷모습.
 정심은 윤희를 우산 안으로 확 이끈다. 못마땅해 하는 진주의 얼굴.
 빗속을 걸어가는 소녀들. 귀요미 빗속에서 킁킁 짓으며 따라간다.

S#8. 복도(오후)

다음 날.

정심과 진주 복도에서 두 손을 들고 벌을 서고 있다.
 담임선생님은 출석부로 머리를 한 대씩 때리고 지나간다.

진주 (소곤소곤) 니가 가를 왜 신경 쓰는데? 체육시간에는 운동장도 안 나오고 매번 수업 평간다. 오데 다녀오는지! 나는 가가 싫다. 가 서울에서 적응을 못해 가고 내려왔다드라.
정심 안 그래도 담임도 우리 사고 친다고 맨날 이상한 애들로 보는데, 계속 이리 살끼가? 뭐든 한번 보여줘야재!
 그래야 선애년이랑 담임 콧대 납작하게 하지! 아그들도 우리를 무시문하고!
진주 (주먹을 쥐고) 그건 글썽. 걱정마라! 내 뜻을 세우면 끝까지 간다!

담임선생님, 출석부로 머리를 또 한 대씩 때리고 지나간다.

S#9. 당산나무 아래(한낮)

윤희, 정심, 진주는 각자 대본을 들고, 신문지로 만든 고깔을 쓰고 있다.
 오리걸음을 하며 대사 연습을 한다.
 진주는 한 번씩 윤희를 흘기고, 윤희는 입이 쪽 나와 있다.

진주 (대사 연습) 아그들아 후딱 오라케도! 오데 알라구진 데 가지 말고!
정심 어무이요, 알겠습니더.
진주 아이구, 우리 첫째 예뻐. 말도 예뻐하게 하네. (돌변) 막둥이도 알아들었나?
윤희 잔디 알아 -

정심 (슬쩍) 잔디가 아니라 단디.
윤희 (강하게) 단.디. 알아들었습니다.대이.
진주 (못마땅한 얼굴로) 으이고오오. 저 몬순이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꼬?
정심 어무이, 제가 봐도 영 디디하니 반푼이 같습니다.
진주 (여전히 못마땅한) 으이고. 저것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꼬.
 들어 봐라. 요새는 못생긴 거는 용서가 돼! 헤대대하니 팍 퍼져 있는
 거는 용서가 안 돼! 요새 이쁜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걸 데꼬 다닐
 라꼬 함께 챙피하다. 때를 안 뱃기가 그렇가-

윤희 (완전 서울말) 때는 뱃겼는데요.
진주 뱃에 강세를 줘야한다. 뱃이 아니고 ‘뽏’!
윤희 (기가 죽어) 뽏.

정심, 평상에 앉는다.

정심 아고 힘들다. 좀 쉬었다 하자.
진주 연극 말고 딴 거 하든 안 되나? 뭐 사투리 노래라든가. 아니몬 품바라
 든가. (품바 흥내)
정심 와?
진주 (들으란 듯) 솔직히 사투리로 연극하는 거 어렵굿다.
 글고 이 나이에 오리 연기라니 유치하다.
 (더 크게 들으란 듯) 이 오리가 못생겼다고 농장 애들이 따돌린 것 같
 나? 나는 다 지 탓도 있다고 본다. 세상에 온갖 상처는 다 받은 것처
 럼 비련의 공주처럼 해가꼬, 뭐 지 마음만 순두분갑지?
 쳇. 그런 아는 까여도 싸다.
 (정심이에게 안기며) 내는 진짜 악착같이 노력했다. 넌 알제?
정심 잘 알제.

진주 누구만치로 뭘 말 좀 했다고 입 짝 다물고 말도 안 하고 안 했다.
 알제?
정심 안다.
진주 근데 차 뭐꼬? 아까부터 제대로 안 한다가. 차 바보가?
 니한테만 주디 나불대고, 나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쫘 머라했다고
 입은 쪽 나와가지고. 이래가꼬 어찌 같이하자꼬?
 (양갈지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든다 카지?
 윤희, 입술을 깨물더니 평상 끝에 돌아서 앉는다.

진주 뽏뽏시러븐 것.
 바보 윤희도 야보다는 말 통하굿다.
윤희 ...

(E) 양윤희 (이하 편의상 바보 윤희라 칭함)의 노랫소리 들린다.
 정심이 바보 윤희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정심 (반기며) 윤희 왔나?
윤희 응? 나 아까부터 왔는데?
 윤희의 눈에 바보 윤희가 들어온다.

진주 어찌 호랑이도 지 이름 부르면 온다카드만.
바보 윤희 (기분이 좋다.) 할머니 해가꼬 장에 가방 들고 간다.
 (채집통에서 잠자리를 꺼내 윤희에게 보여주며) 예뿌지?
윤희 (식겁하며) 징그러!

바보 윤희 (울상) 으, 오데, 가뻐다.

S#10. 시골길(한낮)

바보 윤희 날아간 잠자리를 찾아 뛰어간다.

정심, 바보 윤희를 쫓아가 바보 윤희의 열린 가방 지퍼를 채워 준다.

진주가 뒤따르면, 윤희도 하는 수 없이 멀찍이 뒤따라 걷는다.

정심 윤희야, 집에 가나?

바보 윤희 했는데 잊어 뵈는데 그레가꼬 크레파스 사갈라꼬.

정심 그렇나?

바보 윤희 있따가 할무니 있다. 모래 안에 파묻은 거 가꼬 갈끼다.

정심 그렇나?

진주 정심이 니도 참 대단타.

정심 윤희야, 빵튀기 먹을꼬가?

바보 윤희는 갑자기 까~ 고향을 지르며 내달린다.

도시락 가방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가방이 땅에 떨어지자 반찬이 알뜰없이 뒹군다.

정심이와 진주 킬킬 웃는다.

정심 우리 윤희 좋나? 이리 와 바라.

바보 윤희 (신나하며) 으흐흐, 고추잠자리랑 매미 떼 해가꼬 있따. 봤따.

바보 윤희는 빵튀기를 맛있게 먹는다.

윤희는 표정이 굳어진다.

진주 으이구, 이 덜떨어진 년. 바보 아니랄까 봐, 그리 맛있나?

바보 윤희 영.

진주 근데 정심야. 니는 야가 하는 말 먼지 아나?

정심 당근이 모리제. 반푼이가 하는 말을 우찌 알아듣곳노?

바보 윤희 찹찹거리며 먹는다.

윤희 (엇똥하게 조용히) 너네 같은 애들 잘 알아.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고.

말 못하는 병신이라고 생각하잖아.

윤희는 고깔을 벗어 바닥에 던진다.

윤희 다 때려 치워! 필요 없어!

모두 어벙벙한 순간이다.

윤희는 눈에 눈물이 고여 튀쳐 나가려는데, 바보 윤희가 윤희의 팔을 강하게 잡는다.

뿌리치자 더욱 강하게 잡는다.

바보 윤희 가지 마라. 할머니... 해가꼬. 가문 된다. 있따가...파묻은 거 가꼬가자.

윤희, 바보 윤희를 바라본다.

윤희는 마음을 돌려 먹은 듯 바보 윤희의 손을 꼭 잡는다.

윤희 백진주! 나중에 누가 옷나 보자!

바보 윤희는 나동그라진 고깔을 윤희에게 씌워준다.

바보 윤희 이빠다. 가문 된다... 해가꼬, 할무니한테 가자... 까르르.
진주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라자! 누가 옷나 보자고!

윤희와 진주는 서로를 향해서 팽팽한 눈싸움을 벌인다.

S#11. 등대 아래(밤)

총총 별이 떠 있는 부둣가 등대 아래.
독하게 강세 연습을 하는 윤희 ?때를 뱃! 겠는데요!? 무한 반복한다.
반면 연기 레벨 업을 시도하는 진주.
오리 엄마로 빙의된 듯 팔을 정열적으로 파닥거린다.
서로를 의식하는 불꽃 경쟁. 호흡을 맞춰가며 돕는 정심이.
바보 윤희는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S#12. 학교 전경(오후)

(E) 하교를 알리는 학교 종소리

학생들이 우르르 정문으로 하교하는 풍경

S#13. 교무실(방과 후)

담임이 선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담임 선애야, 이번에는 혼자 출전 말고, 애들이 연극 연습을 한다 카는데,
네가 같이 하는 거 어떨노?

선애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S#14. 학교 화장실(오후)

윤희는 거울 앞에서 발레리나 머리띠를 써본다.
이때 머리를 찰랑이며 들어오는 선애. 윤희는 황급히 머리띠를 가방에 넣는다.
윤희는 복숭아같이 하얀 선애를 힐끔힐끔 본다.

선애 너 발레 했지?
윤희 (고개를 끄덕인다.)
선애 난 알아봤지! 호호. 참, 나도 같이하기로 했어.
윤희 ?
선애 경연대회 말야. 넌 뭘 역할 하는데?
윤희 (조그맣게) 백조.
선애 백조? (빙그레 웃는다.) 아- 그렇구나. 알겠어! 내일 봐~ (짱긋)
윤희 (얼떨결에) 응, 내일 봐.

윤희는 얼떨결에 손을 흔든다.

S#15. 교실(오후)

다음 날. 방과 후.

윤희, 정심, 바보 윤희가 가방을 챙기고 있고,
진주가 엮어질 듯 자빠질 듯 뛰어 들어온다.

진주 야~ 들었나? 까~ 입상하든 농협 상품권 100만 원짜리도 준다.

정심 진짜가?

진주 그거 타든, 홍삼 사서 소 먹어야지!

드르륵, 열리는 교실문.

담임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교단 위에 서고, 선애도 따라 들어온다.

담임 백조 역할을 선애가 하기로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모두 무슨 소린가? 하는 얼굴.

선애 (공손)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담임 선애야, 너는 우리 동네의 꿈나무야.

너만이 우리 학교 이름을 휘날릴 수 있어.

선애 네, 선생님.

담임 선애 같은 애들이 커서 세상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선애 선생님이야말로 등불이 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정심 선생님- 백조 역은 윤희데요?

담임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지요. 여러분들이 양보 좀 해주세요. 선애는 전

교회장이고 앞으로 이 한국을 이끄는 리더가 될 텐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친구가 잘 돼야 나라를 이끌고 부족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애 (공손) 선생님, 저는 타이틀 그런 욕심 없습니다.

담임 (기특) 꼭 주인공을 안 하더라도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선애 윤희가 하고 있는 걸 제가 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월 두 마이 베스트. 티철.

담임 (활짝 웃으며) 이번에도 1등 해라!

입이 한 다발 나와 있던 진주 일어선다.

진주 선상님,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아닌 거 같은데요.

담임 (빠직) 뭐시?

진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담임 (오라는 손짓, 진주가 오자 이마를 툭툭 친다.) 나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튀니까. (혼잣말) 사고친 년이 꼭 말은 안 들어요.

담임, 자리를 떠난다. 침울한 표정의 윤희.

S#16. 당산나무 아래(그날 오후)

선애는 신문지 고깔모자를 들어 보고 중얼거린다. [이게 뭐람]

정심, 진주와 귀요미는 한편에 서서 반장을 찌려보고 있다.

윤희는 중간에서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다.

선애 (신문지 모자를 써보며) 어디까지 했노? 연습 시작하자.

정심 잠깐.

선애 뭘데?

정심 니, 같이하고 싶나?

선애 누가 같이하고 싶겠노? 너그들이랑 미운 오리새끼를!
나는 그냥 스펙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그다. 댕제? 연습 시작하자.

진주 잠깐.
내 니한테 물어볼 말이 있다.

선애 또 머꼬?

진주 니 기철이랑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선애 아~ 기철이. 신양중 짱? 난 개한테 관심이 없는데 혼자 좋다고 난리 더라. 뭐 난생 처음 사랑에 빠졌다나.

정심 그렇고 그런 사이가? 똑띠 말해라.

선애 기철이는 내가 샴방하고 곱상하대. 보사시하더나?
누구처럼 억세지도 않고. (진주를 힐끔) 스토키에다 집착녀가 누구 하나 있다든데 완전 질렸다든데?

진주, 충격 받은 얼굴로 주저앉는다.
바보 윤희가 옆에서 진주가 불쌍하다며 엉엉 운다.

정심 반장, 니란 아를 참말로 새로이 봤다. 밥맛인 줄은 알았는데 요로코 롬까지 대찬지는 몰랐제.

선애 (귓등으로도 안 듣고) 연습할꼬가? 말꼬가?
공부할 시간 아까브데, 이리 노닥거릴 시간 없거든!

선애를 가만히 보던 윤희,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온다.

윤희 (사투리) 너 같은 애들 썰고 썰다.

선애 뭐?

윤희 (청명한 서울말) 잘 들어.
여기서 1등 하니 네 세상이다 싶지?
너 같은 애들 서울에 아주 많아. 그건 왜 말 안해?

선애, 빠직. 어금니를 짹 깨문다.

윤희 그리고 티쳐 아니거든. 그거 완전 콩글리쉬야.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거야.

선애에게는 윤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이다.

선애 (속사포로 나오는 말에 놀라워하며) 니.. 니.. 언제 이리 툭 부러졌노?
(부르르) 너거들, 다 내가 뺨에 안 드나 본데, 좋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라. 내랑 같이 하면 완전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내는 딱 한 번 빼고 뭐든 1등 한 거 알제? 자, 여기에 내가 같이했으면 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바보 윤희만 번쩍 손을 든다.

바보 윤희 니! 내는, 해가꼬... 같이, 할꼬다!

선애 (음산하게 웃으며 다가온다.) 하고 싶나? 내랑 하고 싶나?

바보 윤희의 채집통을 낚아채어 던져 버린다.

선애 (윤희를 껴려보며) 니, 두고 봐라! 내가 일등 할 거다.

선애, 높은 콧대를 더욱 높이 들고 획 나간다.

바보 윤희와 진주 부둥켜안고 본격적으로 운다.

S#17. 몽돌 해안가(해질 무렵)

진주는 이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다. 정심이는 진주를 달랜다.

바보 윤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잡자리를 쫓아다니고, 윤희는 멀찌감치 진주를 보고 있다.

정심 마 고마 안 우나? 니가 미친년이다. 그노마 영 글빼이갈타 했잖아!

윤희 (다가서며) 울지마.

진주 (눈물 닦으며) 윤희야, 서울말 나 갈키도라.

윤희 ?

진주 내 서울깍쟁이들처럼 억시로 세련되져가꼬 그 노마한테 꼭 복수할꼬
다. 땅을 치고 피눈물 나게 할꼬다.

윤희 어렵지 않지만 -

진주 (두손을 꼭 잡으며) 꼭 난중에 그라기로 약속한 그다! 약속!

윤희와 진주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

진주 배고프다. 목을 거 음나? 밥묵고 연습해야제! 연습!

저년 이길라든 연습밖에 없따!

정심 (진주의 등을 탁 치며) 미친년. 그래 니가 엄청난 년이다.

윤희, 바보 윤희 함께 웃는다. 귀요미도 킁킁 웃는다.

S#18. 몽타주. '좌충우돌 맹연습'

바닷가, 4명의 소녀들은 구호에 맞춰 뛰며 체력 훈련을 한다.

통영대교 위, 단체로 발성 훈련을 한다. [아~~~]

당산나무 아래, 4명의 소녀들은 다함께 [때를 뱉겼는데요] 외친다.

달동네, 새벽에 단체로 발성 훈련을 하다가 어르신들의 야단으로 쫓겨 간다.

정심이가 [자, 따라해봐라] 윤희에게 시범을 보이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열연한다.

교실에서, 선애 혼자 연습을 해보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표정.

통영대교 위, 동트는 새벽, 4명은 손에 손을 얹고 파이팅을 외친다.

S#19. 당산나무 아래(오후)

어느새 짙어진 청록의 팽나무. 정심은 평상 위에서 엎어져 대분을 고쳐 쓰고 있고, 진주와 윤희는 나무 아래에서 수다를 떠다. 어느새 가까워진 두 소녀.

진주 까리하다를 서울말로 뭐라카는데?

윤희 그게 뭐야?

진주 왜 머스마들 까리하니 싸곤해가꼬 땡기는 거 몬 봤나?

알라구진 거 말고.

윤희 ?

진주 아 뭐라 케야 하지? 깔쌈하다?

윤희 ?
진주 멋지다고 아니고, 잘생겼다고 아니고, 섹시하다고 딱 아니고..
윤희 음.
진주 '와 니 오늘 쫌 까리한테~'
정심 연습 안 할 꼬가?
진주 히잉~ 알았다!
정심 (대본을 본다.) 자 요거부터 해볼까? '마 궁디를 주~ 차을까?'
윤희 응. (청량한 서울 억양) 마 궁둥이를 주차 쫌까?
정심 자, 하나씩. 마!
윤희 마!
정심 궁둥이를.
윤희 궁둥이를.
정심 주~ 차!
윤희 주~ 차!
정심 쫌까?
윤희 쫌까?
정심 이어서 '마 궁디를 주~ 차을까?'
윤희 궁둥이를 주차쫌까?

 윤희는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진주 (답답한 표정으로) 이상하네.
정심 그께. 쉬운데 왜 안될꼬?
진주 그랑께 참말로 이상네. 디테일이 없다.
정심 촌년들이 서울말 배우기 어렵다카는 줄 알았는데 서울 아가 사투리 배우는 게 어려블 줄은.

정심과 진주 머리를 맞댄다. 정심이 무릎을 탁 친다.

정심 나가 보자. 이리 해서는 안 된다.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진주 맞다! 이 대단한 년아. 내도 그리 생각한다. 나가 보자.
윤희 어디로 나가?
정심 동네! 니 여기 돌아댱겨봤나?
윤희 (강하게 손사래를 치며) 아니. 근데 난 별로 -

정심, 귀요미의 목끈을 푼다. 귀요미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선다.
 정심이 노래를 부르며 길을 나선다. 진주가 윤희를 이끌고 윤희는 떠밀려 걷는다.

S#20. 동네 길(오후)

주택 담벼락 너머 유달리 화사하게 핀 목련나무 하나가 보인다.

정심 윤희야. 저거가 미친 목련이다.
윤희 응? 미친 목련?
진주 봄 되면 저 나무만 미친 듯이 혼자 빨리 꽃핀다.
 지만 혼자서. 미친년 같대서 미친 목련이다.

윤희, 푹 웃는다.
 진주가 먼저 내달아 뛰어간다. 돌아보며-

진주 (윤희에게)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있다.

니 학교서 도대체 와 암말 안 하노?

윤희 ...

S#21. 오락실 앞(오후)

왕기철(남. 16)이 무리를 이끌고 수다를 떨며 오락실 앞을 지나간다.

기철 그렇게 전설이 완성된 기라. 그때 금마 궁디를 주차뺏거든? 마...근데

이때 기철을 발견하는 정심.

정심 야! 왕기철!

기철, 놀란다. 진주도 놀라서 윤희의 뒤에 숨는다.

기철 느그들 먼저 드가라! (따르던 무리가 먼저 간다.)

정심 야! 왕기철! 니 진주 우짚끼고?

기철 응?... 내... 내가 뭐?

윤희 뒤로 더 숨는 진주.

정심 니, 진주 어쩔끼가? 사내답게 말해봐라.

기철 내?! 내가 뭐? 그라고 내가 오빠다 아이가. 와 반말하노?

정심 오빠?! 니! 진주하고 보보했잖아!

기철 아니. 아니. 아닌데. 내 안... 안 그랬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진주.

진주 오빠. (서툰 서울말로) 오. 늘. 정.말. 까.리.하.네.요.

기철, 뒷걸음친다.

정심 궁디를 주차뺏까? 니가 사내새끼가! 응?!

기철 야 황정심! 내 한마디만 하께!

정심 뭘데?

기철 그... 답에 야그하자!

진주, 천천히 아우라를 풍기며 기철에게 다가온다.

진주 (예쁘게) 오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알죠?!

기철 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정심 야야! 니 어디 가노?

기철을 향해서 질주하는 진주.

기철 (도망치면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으아~~~

진주는 죽을 힘을 다해 기철을 쫓아간다.

윤희와 정심이 서로를 쳐다보며 못 말리겠다는 표정,

정심 쫓쫓. 마 됐다. 윤희야 고마가지!

S#22. 길 위 버스정류장(오후)

윤희와 정심이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면,
마침 바보 윤희와 윤희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린다.

바보 윤희 (서울 윤희를 가리키며) 윤희다.

정심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 정심이가? 진주도 있구만. 더버 죽겠다.

진주 오늘은 다 팔았어예?

할머니 날이 더버가 그렇가 생선을 안 사가. 안 팔려서 죽겠어.
아이고 어깨 다리 무릎 허리아.

정심 (머리에 인 다라이를 보며) 좀 들어드릴까예?

할머니 오늘은 다 팔았지! 윤희라 쟤나?

윤희 (조그맣게) 네.

할머니 우리 윤희 잘 부탁하대이.
이름이 똑같은 게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닌기라. 알겠제?

윤희 네.

할머니 손 쥐봐라. (다라이를 내려놓고 윤희 손을 잡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윤희를 만났으니. 한 가족 행복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 윤희에게 복준 거와 같이 윤희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머니 뒤적뒤적) 이거 무라.

할머니는 홍삼캔디를 쥐어준다.
바보 윤희 뛰어다니다 엎어진다.

할머니 괜찮다. 할매가 약 발라 줄게. 이제 밥 묵자이.

바보 윤희 장조림.

할머니 장조림 묵고 싶나? 할미가 해줄텐게 얼릉 가자.

윤희 윤희야, 잘 가.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윤희는 바보 윤희와 할머니가 서로 안고 지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본다.
진주는 할레벌떡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합류한다.

진주 그놈이 어디로 튀었는지 잡혀만 봐라! 궁디를 주차뿔텐게!

S#23. 만물상 앞(오후)

윤희와 진주와 정심은 홍삼캔디를 나누어 먹으며 걷는다.
멀리서 만물상이 보인다. 진주 할아버지 고물을 정리하고 있다. 진주가 뛰어 간다.

진주 (고함) 할-아-부-지-

고물상 할아버지 (깜짝 놀라서) 공부 안 하고 머하노? 이 시간에.

정심 (윤희에게) 진주 할아버지다.

진주 연골 닳는다. 고만 좀 일해라. 만날 무릎 아프다 하믄서.

고물상 할아버지 내가 안하믄 누가 일 해서 먹고 살꼬고? 잔말 말고 비키라.

진주 내가 난중에 효도한다 했잖아!

고물상 할아버지 어느 세월에? 할아버지 땅에 묻히면 그라고 나서? 효도 못했다고 장례식서 울지나 마라. 이년아.

진주 또 그 소리가?

고물상 할아버지 시끄럽다.

진주 내 폰 산다.

진주, 할아버지를 도와 물건들을 정리한다.

고물상 할아버지 공부 못하면서 힘은 황소네, 황소.

야들은 누꼬?

진주 내 친구다이가! 황정심! 지난번에도 말했다.

열 번도 넘게 말했다이가!

고물상 할아버지 몰라, 눈이 어두워가. 할아버지한테 큰소리는!

진주 자는 윤희.

고물상 할아버지 윤희?

윤희 안녕하세요.

고물상 할아버지 아, 바보 윤희가?

진주 귀도 갔나, 이 할아버지가. 서울말이잖아.

윤희 서울에서 왔어요.

고물상 할아버지 이리 와 바라.

할아버지, 재빨리 홍삼캔디를 윤희에게 준다. 윤희 머리를 쓰다듬는다.

정심 할아버지, 나는예?

고물상 할아버지 응? 머라꼬?

진주 빨리 들어가라. 할방구야.

고물상 할아버지 니가 먹여살릴라꼬?

진주 내 폰산다.

윤희는 진주와 할아버지가 궁시렁거리며 고물을 같이 정리하는 것을 본다.

두 손에 쥐어진 홍삼캔디를 바라보는 윤희.

S#24. 이발소 앞(오후)

윤희, 정심, 진주는 홍삼캔디를 먹고 팔짱을 끼며 걷고 있다.

멀리서 이발소가 보인다.

귀요미가 킁킁 짚으며 달려 나간다. 하얀 마티즈가 뛰어나와 꼬리를 흔든다.

진주 자가 귀요미 여친이다. 자도 있는데 내는 없네. (큰 한숨)

정심이 아버지 안 계시네. 윤희야, 니 정심이 아버지 아냐?

진주, 정심이 눈치를 살핀다.

정심이는 못 들은 척 하얀 마티즈를 쓰다듬는다.

(E) 멀리서 뱃고동 소리 들려온다.

정심 윤희야. 들리제? 여기에 사투리 경연대회 하는 항구 있다. 가볼래?

윤희, 고개를 수줍게 끄덕인다.

S#25. 항구로 달려가는 길(오후)

정심, 진주, 윤희는 뱃고동 소리를 향해 달려간다.

S#26. 항구(해질 무렵)

부두 너머로 파도가 넘실거린다. 그 위로 붉게 물든 노을.

윤희 심장이 땡 뚫리는 것 같다.

진주 (고함) 아!

정심 (더 크게) 야호~~

윤희 있잖아. 정심아.

정심 응.

윤희 궁디를 주차볼까?

정심 폼! 그게 뭐꼬?

윤희 나 어때?

정심이 윤희를 바라보며 웃는다.

정심 나쁘진 않네!

진주 뭐꼬. 너그들. 닭살 돋게시리! 안 된다~ 정심이는 내끄다~

정심이 반쯤 지어진 무대를 가리킨다.

정심 윤희야, 저기저등. 우리가 연극 할 곳이.

진주 리허설 함 해보까?

정심 그라자. 그동안 우리 연습 많이 했다가.

진주 윤희가 한번 해봐라.

정심 그래. 한번 해봐라. 내빼지 말고.

윤희, 정심이와 진주를 한번씩 보고는 힘을 얻어 무대 위에 올라간다.

무대 중앙에 서서 긴장된 표정이다.

진주 한번 해봐라. 해봐라카이.

정심 괜찮다. 해봐라! 해봐라!

다리가 덜덜 떨리는 윤희.

몸에 힘을 주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정심과 진주는 목을 빼고 기다린다.

쥐꼬리만 한 소리가 입에서 떨어지려는 찰나,

정적을 뚫는 [뿌우- 뿌우] 멀리서 뱃고동 소리

윤희, 이윽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고개를 푹 숙이고 흘쩍이는.

S#27. 마을 전경(저녁)

어둠이 내려오자 가까웁니다 불빛이 켜진다.

S#28. 등대 아래(밤)

등대 아래 혼자 앉아 있는 윤희,

윤희 내 주제에 무슨.. 바보.

밤바다 위 알록달록 야경의 불빛이 빛난다.

선애(E) 야! 임윤희!

멀리서 선애가 다가온다.

선애 너 나랑 같이 나가볼래?

윤희 ?

선애 백조의 호수 하려고.

윤희 !

선애 나 백조 너 흑조, 듀엣 어때? 혼자서 별로여서. 이 촌에 발레 할 줄 아는 애는 너뿐이기도 하고. 어차피 개들이랑은 1등 못해.

윤희 ... 왜 그렇게 1등에 집착하는데?

선애 나는 나만 가질 수 있는 게 좋아.

난 더 노력하잖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대사는 내가 할게. 흑조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면 돼.

어차피 너 말 못하잖아. 우승하면 발레 배울 수도 있어.

멀리서 정심이 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정심(E) 임윤희!

선애 잘 생각해봐! (빙긋 웃는다.)

정심이는 선애를 째려보고, 선애는 도도히 지나간다.

정심 (윤희에게) 3일밖에 안 남았다. 정신 바짝 차리라이.

S#29. 공연 3일 전. 당산나무 아래(오후)

평상 위에 소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정심, 진주, 바보 윤희는 노란 종이로 오리 부리 모양을 만들고 있다.

윤희, 할 말이 있는 양 멀쩡이 서 있다.

정심이는 윤희를 한번 보고는 다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진주 선애 그년이 발레 뿌러스 연극을 할 거란다.

정심 뭐시 새로운 장르를 창시하겠다 이거제. 독한 년.

진주 (손에 들며) 부리로 하면 예쁠 것 같제? (히히 웃는다.)

바보 윤희 영.

진주 그년 콧대를 꺾으려든 이 정도는 준비해야제.

윤희 (조그맣게) 못할 거 같아.

진주, 바보 윤희 [뭘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

정심 뭘 소리고?

윤희 다 망칠거야.

진주, 윤희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고,

진주 결단코 안 할 표정인데?

윤희, 가방을 챙겨 나가려 한다. 정심이 막는다.

정심 이때까지 연습한 거는?

진주 미안.

정심 그걸 말이라고 하나?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뭐시 무섭다고 그러노?
깡따구 없으면 아무 일 못한다. 대체 왜 암말 못하노?

윤희 나 빼고 해.

정심 니, 선애랑 할라는 거 다 안다.

윤희 ?

정심 선애가 다 말해줬다.

윤희 선애가 거짓말한 거야.

정심 어쨌든 니 힘들다고 내빼는 거 아이가? 잘난 년 꿈무니 쫓아가는 거
가? 아니면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가?

윤희 난 너랑 달라. 힘들어.

정심 니 그 소리 더 이상 못 들어 주겠다.

윤희 못해.

정심 평생 남 꿈무니나 쫓아다니며 그리 살아라.
그게 니가 원하는 거제? 에이 씨. 다 그만 뒤뚱라. 등신처럼 살아라.

윤희 왜 이딴 거를 하자고 했어? 다 너 때문이야. 다!

윤희가 소품을 발로 찬다.
정심이 윤희를 밀친다. 윤희도 정심을 밀치며 싸운다. 진주가 말린다.

윤희 (주저앉아) 나 겁나. 진짜 나 못해. 진짜 나는 못한다고.

소품들이 다 나동그라져 있다.

진주 공연이 내일 모런데 이게 뭐꼬?

정심 야! 임윤희! 니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씩씩거리는 가운데 슬퍼지는 정심의 표정.

S#30. 이발소 앞(밤)

서로에게 뜯겨 만신창이가 된 정심과 윤희.

이발소 앞에 다다르면, 마침 이발소 문 거칠게 드르륵 열린다.

정심이 아빠가 나와서 담배를 문다.

정심 또 싸웠나?

이발사 으으으.

정심 (수화) 또 싸웠나?

이발사 으으으(싸우고 싶어 싸운 거 아니다)

정심 (수화) 아줌마한테 친절하게 하라 그랬제? 밥상 얹었나?

이발사 으으으(그 사람이 내 성격 굵었다.)

정심 (수화) 살다가 그냥 가든 어쩔꺼데?

이발사 으으으(몰라)

정심 (수화) 내한테 엄마처럼 잘해주는 사람 아줌마밖에 없다. 알제?

이발사 으.

정심 (수화) 어서 들어가서, 미안타 케라. 알았나?

이발사 으으으(저 사람이 내 맘을 모른다.)

정심 (수화) 아빤 말을 못하잖아. 그랑께 맘을 알기 어렵제.
아빠 맘 모르겠는 아줌마는 얼마나 답답긋노?

정심이 담벼락 아래에서 꽃을 하나 꺾는다.

정심 (수화) 얼른 미안타 하래이. (꽃을 전해준다.)

이발사, 담배를 끈다. 꽃을 쥐고 들어간다.

정심 내 옛날에 말 몬하는 동생도 하나 있었거든. 여기서 살기가 영 팍팍 해서 그랬는지 하늘로 빨리 가뻗다. 사람들은 말 몬하든 속도 없는 줄 알자나. 하늘에서는 동생 말 끝까지 들어줄 친구 많을 끄다.

우리 엄마가 그랬다. 항상 당당하게 살라고.

내는 보여주고 싶다. 나 잘 살고 있다고.

정심이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다.

윤희, 정심이를 바라본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반짝한다.

정심 괜찮타. 그게 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완벽한 사람 없다.

만약에 누가 비웃잖아. 그라몬 간단하다.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그 아들 썩까면 된다.

너 존나 이상해. 이 미친년아. 니가 뭔데? 문디 씨발 지랄하고 나자빠졌네. 개잡년이 어디다 말을 붙이고 지랄이고? 이 빙신년아 -

정심이 보란 듯이 허공에 욕을 한바가지 한다.

윤희 (대뜸) 이 빙신년아.

정심 뭐라꼬?

윤희 이 빙신년.

정심 야! 누가 누구더러? 이 문디가!

윤희 이 문디 년! 문디! 바보!

윤희는 킁킁 웃고, 정심이도 푹! 하고 웃는다.

응어리가 풀린 듯 후련한 두 소녀. 먼 하늘에 별뿔별이 떨어진다.

정심이는 가방에서 발레리나 머리띠를 꺼내준다.

정심 생각보다 니 이거 잘 어울린다. 내가 샀다.

진짜 니다 이게.

윤희, 머리띠를 건네받는다.

윤희 (정심이 손을 잡으며) 나가자. 우리.

S#31. 당산 나무 아래(오후)

공연 이틀 전.

백진주, 열불이 나는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심이와 윤희는 소품을 챙기고 있다.

진주 선애 그 가시나가 불을 지른 거재? 그라몬?

이거는 내를, 아니 우리를 농락한그다.

너희들 단디 마음을 먹어라이.

야, 임윤희!! 막둥이 오리 할 수 있겠나? (눈빛 살벌)

윤희, 다소곳이 파이팅을 한다. 진주 만족한 표정을 짓는다.

(E) 우당탕 소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정심, 진주, 윤희 돌아보면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바보 윤희.

바보 윤희 예쁘다!
일동 [어떡하지?] 하는 표정.

S#32. 몽타주. 마을 전경(저녁)

공연 전 날.
항구에는 사투리 경연대회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19회 사투리 경연대회’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인다.
시골길, 진주 할아버지는 고물을 실은 자전거를 뽕뽕 몬다.
시골길, 머리에 다라이 인 바보 윤희 할머니가 진주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든다.
귀요미와 아롱이는 꼬리를 흔들며 칠레팔레 동네를 뛰어 다닌다.

S#33. 강구안 항구 전경(아침)

공연 당일.
푸른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른다.

S#34. 무대 + 객석(오후)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장윤정의 <어머나>를 떼창한다.

아이들 묻지마, 묻지마, 묻지 말라카이-
가시나 맴은 갈대래이

묻지마, 묻지마, 묻지 말라카이
또 물으면 각 쥐이 뽕데이 -

참가자들은 무대 옆 좌석에 앉아 있다.
윤희, 정심, 진주, 바보 윤희는 옷을 맞춰 입고 노란 손수건을 멋지게 목에 둘렀다. 윤희는 발레리나 머리띠를 하고 있다.
사회자 등장한다.
4명의 소녀들은 손을 얹고 작게 파이팅을 한다.

김여사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동네 사투리 경연대회’인 거 다 아시지예?
사회를 맡은 나폴리 마라톤 클럽 회장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연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 멋쟁이 로맨티스트 이발사 사장님입니다-

시간 경과
정심이 아버지 무대 위에 선다. 온 몸으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표현한다.

정심 아버지 (수화로)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여사 다 좋은데예, 여긴 사투리 대회입니다- 말을 해야합니다~

CUT TO. 시간 경과

<영웅 본색> OST PLAY
바바리코트를 입은 진주 할아버지 등장한다.
입에 성냥개비를 물었다. 뒤로 걸어 나오면서 쌍권총을 쏜다.

CUT TO. 시간 경과

김여사 자 다음 번은, 전도유망한 이선애 양입니다.

하얀 발레복을 입고, 평소보다 더 화려한 머리띠를 쓴 선애, 무대에 오른다.
객석의 윤희, 기가 짝 죽지만 한번 해보자는 눈빛.

선애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 할배 할매 이야긴데요, 동경까지 유학을 갔다 온 할배가
농사꾼 딸이었던 우리 할머니한테 사랑에 빠져가, 집에 쫓겨날 뻔했
다가 기어코 사랑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선애, 객석에서 ‘통영의 꿈나무 이선애’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엄마를 보고 외
친다.

선애 어무이! 내 일등 할 겁니다!

김여사 제목 <까리한 백조의 호수>라네예.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
윤희, 정심, 진주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은 듯 놀란다.

정심 우야지? 우리랑 같은 건데.

기철이 무대에 등장한다. 선애는 우아하게 발레를 한다.
기철은 선애를 받쳐준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
충격 받은 진주의 표정. 곧이어 선애는 엄청난 연기력을 선보인다.

소녀였던 할매를 연기하는 선애와 청년이었던 할배를 연기하는 기철.

선애 오늘은 할배가 8년 만에 동경에서 돌아온 날이라예.
(예쁘게) 신돌씨. 동경 갔다오드만 역시로 멋있어지셨습니다.

기철 누구더라?

선애 미순입니다. 기억 안 나예?

기철 엄마야, 궁디, 직이네.

선애 신돌씨 다시 오신다 카니 나흘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아, 춤다.

기철 우리 미순이, 춤나. 내는 안 춤다. 에라이. 못 참겠다!

기철이 선애를 안는다. 경악하는 진주.

기철 나는 내 운명이다이~

선애 그날로 우리 아버지가 생기게 되고 할매 할바시는 혼인을 하게 되었
답니다-

김여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객석에는 열렬한 환호. 선애 퇴장한다.

S#35. 무대 뒤 대기실(오후)

윤희, 정심, 진주는 순서를 기다리며 초초하게 서 있다.

정심 (윤희에게) 니 괜찮냐?

윤희 응.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다.)

진주 바보 윤희 어디 갔노?

돌아보니 바보 윤희가 없다. 무대 위에 사회자 안내가 들린다.

사회자(E) 이번 순서는예. 황정심 양, 백진주 양, 임윤희 양, 양윤희 양이 참여합니더. 제목은 <내 미운 오리 새끼다 머 어쩔꼬고?> 라네예.

S#36. 부둣가(오후)

정심, 윤희, 진주가 [윤희야~] 부르며 찾아 나선다.

바보 윤희는 부둣가에서 하늘을 보고 있다. 윤희가 발견하고는 달려간다.

윤희 (손목을 잡아당기며) 빨리 가자.

바보 윤희 (하늘을 가리키며) 예쁘지? (웃는다.)

윤희는 바보 윤희를 이끌고 무대 뒤편으로 간다.

S#37. 무대(늦은 오후)

정심이와 진주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윤희를 보고 반긴다.

윤희는 바보 윤희의 손을 잡고 무대 뒤편에 선다.

정심이 먼저 나와 무대 한가운데 선다.

정심 (최대한 예쁜 목소리로) 이 이야기는 미운털 박혀 썩고싱하다가 미운

털 뽑고 환골탈태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곤텐니다. 시골 억지로 때깎나는 농장에서 태어난 오리 새끼들 중에는 허발나게 크고 몬생긴 한 마리 새끼 오리가 있었습니더.

윤희와 진주, 바보 윤희 등장한다.

윤희의 눈에 수많은 관객이 보인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진주 아그들아 후딱 오라케도! 오데 알라구진 데 가지 말고!

정심 어무이요, 알겠습니더.

진주 아이구, 우리 첫째 예삐. 말도 예삐게 하네. 막둥이도 잘 알아들었나?

윤희 ...

윤희, 완전 얼어붙어 있다. 이어지는 정적.

정심 (냉큼) 단디 알아들었다고 하네예.

진주 (기침을 한번) 으이고오오. 몬생겨가지고, 저 몬순이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꼬?

정심 어무이, 제가 봐도 영 디디하니 반푼이 같습니더.

진주 (기침) 으이고오오. 저것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꼬. 못생긴 거는 용서가 돼! 헤대대하니 펍 퍼져 있는 거는 용서가 안 돼! 날개는 와 이렇노? 닭살이가? 때를 안 뱉기가 그렇가-

윤희 ...

윤희, 한참 입을 오물오물한다.

바보 윤희 저거. 닭살 해가꼬. 때 나가믄 된다. (헤벌쭙)

난처한 표정의 정심과 진주.

정심 (냉큼) 그렇게 퍽박 받은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은 길을 떠납니다.
떠돌던 미운 오리 새끼는 우연히 호수에서 깔짚한 새들을 보게
됩니다. 소문으로 듣기만 했던 백조라 카는 겁니더.

윤희가 침을 꿀떡 삼키며, 입을 오물오물거린다.

객석의 사람들도, 지나가던 갈매기도 목을 빼고 기다린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보 윤희가 성큼성큼 다가가 윤희를 톡, 친다.

윤희 (얼떨결에 입을 떼다, 조그맣게) 나도, 백조가, 되고, 싶다.
하얀, 털의, 아름답고, 우아한 새가, 되고 싶다.

S#38. 회상. 발레 교실(낮)

서울에서 있었던 일. 방과 후 발레 교실.

<오디션 백조의 호수> 플래카드 걸려 있고, 아이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어울리지 않는 발레리나 머리띠를 한 볼이 빨간 소녀 윤희, 단연 눈에 띈다.

차례가 되자 사람들 앞에 선 윤희,

윤희 (조그맣게) 이번 발표회에 백조 역을 하고 싶습니다.

윤희, 아라베스크 동작을 한다. 몸이 기우뚱.

발레복을 입은 소녀들이 키득거린다.

소녀1 어머, 저 몸으로 무슨 백조야?

소녀2 저 꼴에 무슨? 재는 안 되겠는데?

소녀3 아무나 하는 줄 아나봐. 코러스나 하지.

윤희(V.O) 나도 백조가 되고 싶은데.

하얀 털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 (심사를 보는) 왜 왔어?

윤희 ... 네?

선생님 왜 여기 나왔냐구?

윤희, 선생님의 멸시 어린 눈총을 본다.

윤희 (혼잣말) 왜?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는 윤희.

윤희(V.O) 왜?

윤희, 입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띠를 벗어 바라본다.

윤희는 창피함에 얼굴이 달아올라 오디션장을 뛰쳐나간다.

S#39. 무대 + 객석(해질 무렵)

S# 37 이어지는 현재

무대 위에서 정심이 대사를 한다.

정심 새로이 봄이 되자 미운 오리 쫄이는 더 이상 못생긴 오리가 아니었습니더.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한 겁니더. 그렇게 되고 싶던 아름다운 백조 말입니더.

윤희, 눈을 질끈 감는다.

윤희 (악을 쓰며 외친다.) 백조입니더. 하늘을 나는 백조입니더. 나는 백조입니더 -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행사장에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

윤희는 팔을 비장하게 편다. 두 팔을 크게 퍼덕거린다.

또다시 <백조의 호수> 테마곡이 나오자, 트악한 객석.

정심, 진주가 양 옆에서 팔을 뻗어 날개를 만들어준다.

바보 윤희는 부채로 꼬리를 만든다.

드라마는 순간, 윤희의 시점으로 바뀐다.

(E)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

윤희의 눈에는 멀리서 날갯짓을 하며 다가오는 커다란 백조가 보인다.

윤희의 얼굴에 백조의 그림자가 너울대는.

바보 윤희 (백조를 보며) 봐라. 예뵈제? 털이 복슬복슬 뜯겼다!

백조가 저 멀리 사라지면, 드라마는 윤희의 시점에서 현실로 돌아온다. 윤희, 속상한 듯 고개를 푹 숙인다.

윤희 (조용히) 나는 백조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 못생긴 오리 새끼입니다.

그래요. 나 촌티납니더. 나 문순입니더-

소심하고 키도 작고 패션 센스도 꺾인 오리. 못생긴 오리 새끼입니다.

약속되지 않은 대사에 놀란 표정의 정심이와 진주.

객석의 선애도 놀란다.

정심 ... (애드립) 어이쿠. 미운 오리 새끼재.

진주 ... 그렇재.

진주 ... 역시로 그렇고만.

진주 ... 이제 어짜지?

윤희, 고개를 들자 객석에 앉은 윤희 할머니, 진주 할아버지, 정심이 아버지, 기철이 눈에 들어온다.

윤희가 양 옆을 보니 정심이와 진주, 바보 윤희가 옆에서 날개와 꼬리가 되어주고 있다. 윤희, 씨익 웃는다.

윤희 (서툰 사투리로) 근데예, 완벽한 백조만 있으란 법 있으예?

좀 못난 백조도 있고, 역시로 멋진 오리도 있고,

이냥저냥 한 오리도 있고,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쁜 백조가 못 되고 백설공주가 못 되면 그게 뭐 어떻습니까?

(심호흡 후) 나 똥똥하고 못났다고 놀려댔던 아그들 들어라!

내가 모를 줄 아냐? 나 없을 때 쑥떡꺼리고 놀리고 그런 거!

니기들은 얼마나 잘났노? 다 일기장에 적어댔다!

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다시 한번 심호흡) 시발 문디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시 만날 때는 궁디를 주차뿔꼬다~~~~~
이-빙-신-년-들-아-

바보 윤희는 신나하며 윤희를 따라한다.
정심이 진주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한껏 소리 지른 윤희는 휘청한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끝내 서 있다.

윤희 할머니 (박수를 친다.) 얼씨구! 윤희야 잘한다이~

이어지는 할머니의 구성진 노래 가락.
진주 할아버지도 일어나 같이 어깨춤을 춘다.

S#40. 항구 전경(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무대 위에 오르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간다.
1등상을 받고 있는 선애와 이어지는 먼 밤바다의 풍경.

S#41. 당산나무 아래(오후)

(E) 귀뚜라미 소리 들린다.
아름드리 나무에 가을빛이 들었다.
평상에서 낮잠 자는 귀요미.
정심이 예쁜 발레리나 머리띠를 하고 평상에 앉아 있다.

정심 야는 왜 안오노?
귀요미 올 텅께 걱정마라.
정심 자는 거 아니었나?
귀요미 씨부랑거리는 소리 들린다.
정심 귀도 밝다.
귀요미 목줄 간지럽다. 이거 계속 묶고 있어야 되나?
정심 이젠 니 맘대로 해라.
귀요미 약속한 거 안 잊어뻘제?
정심 그라몬. 당근이제. 황정심이는 약속 하나는 지킨다.
귀요미 그람 아롱이랑 언제 결혼시켜줄 꼬고?
정심 가만 있어봐라. 때가 돼야지. 그게 서둔다꼬 되나?
귀요미 구라치는 거면 꼭 물어뵈다! 내 성질 알제?
정심 아이고, 무섭다.
귀요미 서울 깍쟁이 올 때마다 킁킁 짓는다고 내 목이 다 췌다.
목캔디 사주라.
정심 생색 내기는.

(E) 윤희가 부르는 소리 [정심아]

귀요미 올해는 장가보내주라! 아롱이한테!
정심 니 하는 거 봐서.
귀요미 다 췌질러버릴까 부다! 으르르릉.
정심 얼른!

귀요미, 얼른 낮잠 자세를 잡는다.

윤희 니 머꼬?(따박따박) 학교 끝나면 같이 가잔 쪽지 못 봤나?

윤희, 정심이에게 뽕튀기를 준다.

정심 못 봤는데?
(자세를 잡으며) 참. 윤희야. 이거에서 더 가르쳐주라.

윤희, 아라베스크 동작을 멋지게 보여준다.

귀요미 만족스러운 듯 킁킁 짓는다.

따라해보는 정심이.

소녀들 명랑한 발걸음으로 시골길을 걸어간다.

끝.

2017
오 펜
작 품 집

오 마이 시스터

강원영



작가 후기 **하수정**

인물들이 지닌 수더분한 매력은 살리면서, 극적 갈등을 보강하는 것은 수정하면서 가장 고민한 지점이었습니다.

초고는 캐릭터 플레이와 대사에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정은 테마를 강화하고 시각적인 언어로 치환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극의 주제와 줄거리, 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인공 '윤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여전히 대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사투리는 압축의 묘미 외에도 술술 풀면서 풍성하게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에, 이 부분을 살려 극에 어울리는 대사를 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고쳐 쓰면서 가능한 여러 선택지들을 제외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의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 물론 많이 싸우겠지만
하지만 항상 누군가 곁에 있잖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잖아.”

-트레이 파커

각자 복(腹)이 다른 삼남매. 그들의 가족 탄생에 관한 이야기다.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 사람이 모여 어쩔 수 없이 한집에 살게 된다. 처음에는 서로의 모습에 경악하고 저주를 퍼붓지만, 차츰 진정한 가족으로 화합해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한다. 그리고 여전히 ‘밖에다 내다버리고 싶은 가족’을 가진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허물을 가장 잘 포용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의 무람없는 행동도 기꺼이 참아주는 이들은 누구인지. 위기가 찾아올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손을 뻗어 당신을 구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죽도록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어쩔 도리 없이 ‘피붙이 가족’이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좀 더 보듬고 이해하며 참아보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등장인물

홍재민(남, 30세) 편집물 아트디렉터,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

타고난 섬세함과 미적 감각으로 편집물 아트디렉터로서 승승장구하던 남자. 그러나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서 그 누구의 손가락질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로 살고 싶은 것이 그의 오래된 소망이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꾸준히 여성호르몬제를 맞아왔으며, 곧 있을 성전환 수술을 위해 퇴사를 감행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의 부고와 함께 이복여동생들이 등장하면서 모든 계획이 꼬이기 시작한다.

홍재희(여, 27세) 영화연출 전공, 재민의 이복동생 NO.1

몸집도 제법 있고 성격도 털털하다 못해 티프한 편이다. 지방대 연극영화과를 나와 서울로 올라온 지 어느덧 4년 차. 기웃거리던 영화판 일을 잠시 접고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고 있다. 차리는 가게를 족족 말아먹는 철없는 엄마와 새아빠에게 돈을 보태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의 꿈은 아득하기만 하다. 그러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기회로 재민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홍재은(여, 중3) 재민의 이복동생 NO.2

태어나 따뜻한 가정이 무엇인지 느껴본 적 없는 비애의 아이콘. 절대 웃지 않는 중딩이자 자발적 왕따. 집을 나가 가출팸과도 어울려본 과감한 이력의 소유자. 하지만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금세 우등생이 되는 집념과 똑똑한 머리를 지녔다. 아빠가 죽고 위탁시설로 가진 죽기보다 싫었다. 언니와 함께 오빠 재민의 집에 들어오고 안정감을 느끼려는 찰나, 잠시 어울렸던 가출팸 아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된다.

정두호(남, 30세) 경찰, 재민의 베프

둥글둥글한 외모에 전체적으로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의 소유자. 만 2년차 경찰공무원. 재민의 베스트 프렌드로 서로의 속내를 드러내는 친구다. 최근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당황 중이지만,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착한 남자다.

김준석(남, 30대 중반) 카레가게 사장, 재민의 짝사랑 남

누가 봐도 훈남. 신의 은혜를 입은 피지컬. 일본에서 요리를 배워 와 얼마 전 재민의 동네에 카레가게를 차렸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훈훈하다.

실장(여, 40대 초반) 편집디자인회사 실장, 재민의 직장 상사

박대표(남, 50대 초중반) 영화 프로덕션, 재희의 알바 사장님

리더(남, 17세) 가출팸 리더, 재은의 양숙,
그 외 여러분.

줄거리

재민은 서른 살 생일을 기점으로 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1년 전부터 꾸준히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왔으며, 곧 있으면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이복여동생 재희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의 부고를 전하러 찾아온다. 경황 없이 찾아간 장례식장에는 생면부지의 또 다른 이복여동생 재은이 있다. 그새 이복동생을 또 하나 만들어둔 아버지가 황당하기만 한데, 더욱이 그 아이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 보육원에서는 죽어도 살기 싫다며, 애기 때 집을 나간 엄마 얼굴은 기억에도 없다는 것. 재민은 재희와 서로 “네가 말아라” 설왕설래한다. 하지만 재민은 성전환 수술을 앞둔 마당에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동생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다음 날, 성전환 수술 에이전시에서 한 통의 연락이 온다. 수술을 맡을 주치의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 이 때문에 한 달 정도 수술이 밀린다는 비보. 실망한 재민이 부정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요가 매트를 깔고 명상을 시작하려는 순간, 재희와 재은이 거대한 이민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친다. 배 짜라 식으로 바닥에 드러눕는 자매들. 재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은의 엄마를 찾을 때까지만, 아버지 보 험금이 나올 때까지만 동생들과 같이 살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그들은 과연 한 달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

배다른 삼남매의 피 튀기는 동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S#1. 사무실(낮)

편집디자인 회사답게 알록달록한 인테리어 돋보이는 회의실.

재민, 여자 실장(40대 초반)과 마주 앉아 있다.

- 재민** (USB 내밀며) 지금까지 작업한 인디디자인, PDF랑 전체 이미지예요.
실장 (서운) 정말 관둘 거야? 연봉 올려준대도 싫다, 프리랜서도 싫다, 판 데 옮기는 것도 아니다, 병 걸린 것도 아니다.
재민 (곤란한 미소) 계획이 있어서요.
실장 그니까 그게 뭐냐고? 재민 씨처럼 클라이언트 니즈를 딱딱 맞추는 아트디렉터가 어디 흔해? 한창 일할 나이에 그 재능을 왜 아낀대?
재민 죄송해요. 나중에 프리 일 생기면 꼭 불러주세요.
실장 당연하지,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하구. (하는데) 아니다. 내가 연락할게, 내가. 피하지 말고 전화 꼭 받아!
재민 (기분 좋은) 그럼요.
실장 근데, 애인 생겼어? 멀리 밀월여행이라도 가나?
재민 (알 듯 말 듯 미소)

S#2. 화장품 가게(낮)

색조라인 섹션을 구경하는 재민. 판매원이 다가서며,

- 판매원** 고객님,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재민 (화장품 병 집어들며) 요게 이번 시즌 파데 공병템 맞죠?
판매원 네, 맞습니다. 고객님.

재민 (공병템 주며) 그럼, 이거랑 아이홀에 발색 잘되는 코랄 새도, 또 21호로 데일리 컨투어링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추천 좀해주세요.

판매원 어머, 이쪽 일 하세요?

재민 (너무 나갔나? 웅얼) 아.. 아뇨. 퇴사 기념 선물로...

판매원 자상하셔라. 여자친구는 너무 좋겠어요.

재민 네? (억지 호응하며) 네.

S#3. 준석의 가게 앞(낮)

쇼핑백 여러 개 손에 쥔 재민, 멀찍이 떨어져서 카레가게를 보고 있다.
 가게 안, 준석이 손님들에게 접시를 나르며 왔다 갔다 분주하다.
 재민, 준석에게 연모의 눈빛 보내는데, 순간 준석과 눈이 딱 마주친다.
 급히 도망치는 재민, 와중에 한쪽 귀밑머리 여성스러운 손끝 살려 참하게 넘기는.

S#4. 집 전경 + 거실 + 재민의 방(밤)

인서트. 오래된 단층집 전경. (작은 마당이 있는 집)
 거실 보면, 깔끔한 실내 분위기, 곳곳에 꽃무늬 소품, 생화 꽃병 등이 보인다.
 재민의 방을 보면, 거울 보며 인조 속눈썹 붙인 눈에 새도를 바르는 누군가의 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음파파 하며 색을 고르게 펴는 누군가의 입술,
 새끼손가락에 붉은 매니큐어 바르는 누군가의 손이 보이는데,
 긴 머리 가발을 쓴 재민이다.

재민 일어서면, 몸매 훤히 드러나는 원피스에 가슴도 봉긋 솟아올랐다.
 마지막 단장. 하이힐을 신고 전신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며 흡족하게 미소 짓는다.

S#5. 재민의 집 앞(밤)

낮은 운동화를 신은 누군가가 거칠게 초인종을 누른다.
 보면, 검정 바지에 검정 후드티, 검정 모자, 흡사 좀도둑 같은 재희다.

S#6. 거실 + 집 앞(밤)

식탁에 앉아 탁상달력을 보며 허브티를 마시는 재민,
 찻잔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기분 좋게 바라본다.
 펜을 들어 '태국 출국' 표시된 날짜 밑에 '♫→우' 적어 넣는다.
 이때, 초인종 소리(E) 들리고 재민 일어난다. 화면 둘로 분할되는.

재민 (가웃) 이 시간엔? (인터폰 누르며) 누구세요?
재희 내다. 재희.
재민 누구요?
재희 (답답한) 흥재~희이, 흥재희라꼬. 그쪽 이복동생!
재민 (놀라는) 재희?
재희 퍼뜩 문 따라. 내 용건 있다.
재민 용건?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고, 헉!) 잠깐만.

재민, 할레벌떡 인조 속눈썹을 떼고 화장 지우고 옷 벗는다.

S#7. 집 앞(밤)

재민, 가쁜 숨 고르며 대문을 열고 나온다.

재희 (짜증) 와 인자 여는데? 여친이랑 그 짓이라도 하던 중이었나?
재민 (당황) 뭐? 아.. 아냐! 나 혼자 살아.
재희 다행히 이사는 안 갔뿐네. 전화번호 바꿨나?
재민 어? 작년예. 근데 어쩐 일야? 우리 안 본 지 한 10년 넘었지?
재희 한서병원 장례식장 103호.
재민 누구 돌아가셨어?
재희 아버지. 내도 오늘 알았거든. 묻저 간다. (돌아서 가는)
재민 !(충격)

S#8. 장례식장(밤)

검은 정장을 입은 재민, 장례식장에 들어서며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본다.
 하지만 떨어져 산 지 너무 오래라 무덤덤하기만 한데...
 재희 옆에 여중생으로 보이는 소녀, 재은이 상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있다.
 눈이 퉁퉁 부은 재은의 존재가 의아한 재민, 일단 아버지에게 절을 올리고.

S#9. 장례식장 / 식당(밤)

썰렁한 식당 안, 왼팔에 상주 완장을 찬 재민, 재희와 마주 앉았다.
 재민, 탁자 밑으로 손을 내리고 매니큐어 바른 손톱을 부지런히 긁어 지우며,

재민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대?
재희 낮에... 친구분들 왔따 갔는데 배 위에서 실족사라대.
 반평생 넘게 배 위서 사셨던 양반이 술 먹고 발을 헛디뎠따니,
 (미움 가득한) 참말로 끝까지 맴에 안 든다.
재민 (놀라는)!
재희 글고, 보험사 손해사정에서도 왔었거든? 사망보험금 나오긴 하는데
 아버지가 대출을 억수로 받아가 빚 갚고 나쁜 큰 기댄 말라더라.

보험금이라는 말에 슬쩍 기대되는 재민.

재민 (조심스럽게) 얼마나 남는데?
재희 내가 아나? 오빠 니가 범정상속인이라니까 알아봐라.
 글고, (눈 가늘게 뜨고) 아무리 쥐꼬리래도 앵 분의 일씩, 알지?
재민 (끄덕이며) 근데, 갠 누구야? 상복 입은 애.
재희 우리 이복동생이라 카던데...
재민 ?!(눈 커지는)
재희 그래도 갠 아버지랑 꽤나 살았나보대? 오빠가 아버지랑 4년 살고, 내
 가 한 10년 살았으니까, 개가 아버지랑 쥬 오래 산 거지.
재민 개네 엄마는?
재희 안 온 거 보면 뻘허지 모. 근데,
재민 ?

재희 (심각) 아직 연락 못 받은 자숙이 또 있는 건 아니겠지?

재민 (설마 싶다, 시선 판데로 두는)

그때, 두호가 두리번거리며 지나간다. 두호를 부르며 일어서는 재민.

재희, 핸드폰 진동이 울리자 발신자를 확인하고 난처한 표정 짓는다.

S#10. 장례식장 / 외부 휴게공간(밤)

종종거리며 통화 중인 재희.

재희 죄송해요. 알바비 받으면 썰~ 문자 드릴게요.

아줌마(F) 월세고 뭐고 지금 당장 와서 짐 싸고 방 빼!

재희 지금은 못 갑니다, 내일 아침이 아버지 발인이라서요.

아줌마(F) 어휴, 지켜워! 내가 그딴 거짓말을 한두 번 들었는줄 알아?

재희 진짚니다~ 인증샷 보낼까요?

억울한 재희, 핸드폰으로 장례식장 주변을 찍으려는데,

아줌마(F) 어우 됐어! 없는 것들이 더 염치가 없다니까,

재희 (욱!) 주인아저씨, 우두머리 미용실 원장하고 바람난 건 아세요?

아줌마(F) 뭐? 뭐야!!

재희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둘이 손잡구 모텔 드가부는 거!

아줌마(F) (돌변) 언제 봤어, 어서? 안 그래도 그 인간이 요즘 수상한데..

재희(O.L) 됐꼬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자알 생각해보세요.

아줌마(F) (다급한) 재희 학생, 얘기 좀 더 해줘봐. 응?! 내가 방..

재희(O.L) 방은 장례 끝나는대루 바로 뺄게요! (통화 끊어버리는)

재희, 씩씩거리며 돌아서면, 휴게용 벤치에 앉아 공부 중인 재은 보인다.

재은 (당돌) 주인아저씨 바람, 진짜예요? 뽕이죠?

재희 니 거서 뭐하는데?

재은 시험공부요.

재희 (헐!) 공부가 되나? 이 와중에?

재은 모레가 시험이라서요. (다시 책에 집중하는)

재희 옴마야. (재은이 흥미로운, 꼼꼼히 보는)

S#11. 장례식장 + 식당(밤)

두호, 영정을 향해 절을 하고, 옆에 서서 상주 노릇을 하는 재민.

시간 경과.

두호에게 식사 차려주는 재민, 쟁반 옆에 두고 다소곳이 앉는다.

재민 (여자 목소리, 다정한) 육개장 먹어봐. 야근조라 배고플 때잖아.

두호 (한술 뜬다) 괜찮네. 아버지 (하다가) 기분은 어때?

재민 뭐, 덤덤하네. 네 살 때 헤어지고 거의 못 봤으니까.

두호 (끄덕이는) 재민아, 너 회사 관둔 거, 진짜 후회 안 하겠냐?

재민 말했잖아. 우리 업계는 실력 있음 프리랜서도 잘 먹고산다구.

두호 (끄덕이는) 근데 다음 주에 우리 태국 가는 거 말이야.

재민 (김새가 이상한) 왜?

두호 (눈치 보며) 저기.. 재민아. 내가 말이다.
재민 (보면)
두호 같이 태국 못 가 줄 것 같다.
재민 (놀라) 어머, 왜? 비상 걸렸어?
두호 나 속도위반 했다.
재민 ?(물을 따라 마시려는데)
두호 영신이 임신했거든.

재민, 물 한 모금 먹다가 킁! 목에 걸린다.

재민 (목 아파하며) 니들 사귀지 이제 겨우 100일이잖아?!
두호 안 지는 꽤 됐잖아. 나도 지금 제정신 아냐. 갑자기 결혼 모드에,
 (근심 많은) 그보다 이제 2년찬데, 전세집도 못 얻을 것 같어.
재민 (어휴!) 그니까 더 조심을 했어야지.
두호 네가 불타는 늑대의 가슴을 알 리가 있겠냐만은, 암튼 미안하다.
 (진지) 불알친구가 너 불알 때는데 같이 못 가줘서.
재민 (질색하는) 상스럽게 좀 말하지 말아줄래?
두호 기집애, 삐졌냐?
재민 (서운) 아 몰라, 보호자 있어야 한뎃는데 어떡해?
두호 (맞다!) 야, 동생들 생겼잖아. 부탁해봐.
재민 미쳤어? 우리 엄마랑 외할머니 기억 안 나? 나 성전환 수술하는 거
 끝까지 반대했어. 제일 이해 안 해주는 게 바로 가족이라구.
 그리고 개넌, 장례식 끝나면 또 볼 사이도 아니고.

S#12. 버스 / 안 + 밖(낮)

버스 안, 재민이 아버지의 유골함을 옆 자리에 놓고 손으로 잡고 있다.
 재희와 재은, 각자 따로 떨어져 앉았는데, 지친 몰골로 무념무상의 표정들.
 재민, 문득 동생들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시선 거뒀 창밖을 바라
 본다.

인서트. 한적한 소도시를 달리는 버스, 한가롭고 평화로워 보인다.

S#13. 납골당 / 밖(낮)

상복을 입은 채 초췌한 모습의 삼남매.

재민 고생했어. 조심히들 가.
재희 오빠도 수고했따. 보험금 나오면 꼬옥 연락해라. 번호 알제?
재민 그래. (돌아서는데)
재은 저기요? 언니, 오빠.
재민/재희 (본다)
재은 저 누구랑 살아요?
재민 (응?)
재희 너거 엄마한테 가야지. 둘이 연락 안 하나?
재은 (남 얘기하듯) 저 아기 때 집 나가셨어요. 아빠랑 살던 집은 이미 빚쟁
 이들한테 넘어갔을 거고, 시설로 가진 죽기보다 싫구요.

일순 당황한 재민, 재희에게 '어쩌냐'는 눈빛 보낸다.

재희 애, 오빠네 집에 데리고 있자. 혼자 산다 안 했나? 방도 남꼬.

재민 (기막힌) 결혼이 왜 그렇게 튀어?

재희 그 집 아버지 명의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부산에서 재혼할 때, 내가 갈 때가 없어가고, 오빠야네 몇 년 없치산 거구.

재은 (경청한다)

재민 (발끈) 아버지가 니네 엄마랑 바람나서 우리 엄마한테 위자료로 준 집 이거든? 게다가 아버지가 담보 대출 왕창 받고 잠적한 바람에, 울엄마랑 나랑 그거 갚느라고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게 왜 아버지 집이야? 내 집이지! 사실 왜곡 말아줄래?!

재희 (기분 나쁜, 통명스레) 그럼 앤 우짜는데?!

재민 네가 데려 가, 그럼.

재희 내는 행편이 안 된다. 글고 애 이번에 침 봤꼬!

재민 마찬가지로 아냐?

재은 (서운하다)

재민, 지갑을 열고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서 재은의 손에 쥐어준다.

재민 한 달 안에 아버지 보험금 나온다니까 그때까지 버텨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니 엄마 연고지도 좀 찾아보고, 오케이?

재은 (입을 앙다문다)

재희 (빈정) 참말로 야박하네. 드랍게 냉정하꼬!

재민 나도 사정이 있거든?

재희 무슨 사정? 오빠, 우리 집 장남 아이가?!

재민 (헉!) 내가 왜 댁들 집안 장남인데? 원수면 모를까? (돌아선다)

S#14. 버스 정류장(낮)

재희와 재은, 버스 대기용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재희 니 참말로 갈 데가 없나?

재은 네.

재희 그럼, 내 하자는 대로 할래?

재은 ?

S#15. 재민의 방(낮)

다른 날.
침대 위, 여행용 캐리어 펼쳐져 있고 여성스러운 의상도 보인다.
재민, 짐 싸는 중이다. 이때 핸드폰 울리고 받는데,

에이전시(F) 에이스 에이전시입니다. 홍재민님이시죠?

재민 (설레는 표정, 여성스러운 말투) 네, 맞아요.

에이전시(F) 죄송한 말씀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다음 주에 태국 가지 않아요?

재민 네.

에이전시(F) 다름이 아니라 홍재민님의 성전환 수술을 집도하실 담당 선생님께서 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의사 선생님을 섭외했는데요, 한 달 정도 수술 날짜가 미뤄집니다.

재민 네? 한 달이나요? (이런, 실망이다)

S#16. 재민의 집 앞(낮)

재희와 재은, 두 사람 옆에 커다란 캐리어와 검정 이민가방이 놓여 있다.
담벼락 사이에서 작은 벽돌 하나를 빼내는 재희, 그 안에 낡은 열쇠가 보인다.

재희 앓짜! 그대로 있네. (열쇠 꺼내든다)
재은 이 집 열쇠예요?
재희 응, 예전에 큰엄마가 알키 준기다.
재은 친했나 봐요.
재희 나를 불쌍타고 생각하셨다. 홍재민과 달리. (결연하게) 준비됐지?
재은 (끄덕이는데)

S#17. 거실(낮)

명상 음악이 흐르고, 요가 매트 위에 양반다리로 앉아 있는 재민.

재민 이 부정 기운 노노~ (눈 감고 복식호흡)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

이때,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뒤통수 퍽! 맞은 듯 두 눈을 번쩍 뜨는 재민.
재희와 재은, 커다란 캐리어를 킁킁 끌고 들어와 현관 앞에 선다.

재희 (신발 벗으며 들어오는) 오빠야, 집에 있었나? 우리 왔다.
재민 (눈 휘둥그레져) 니.. 니네들 어떻게 들어왔어?
재희 (열쇠 보이며) 큰엄마가 알키 준 열쇠가 그대로 있더라꼬.
재민 (일어서며, 말문 막히는) 이.. 이렇게.. 말도 없이!

재희 (뻔뻔) 어차피 오빠는,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왔다.
재은 (눈치만 살피는)
재민 (표정 확 굳어지는) 니들 이거 주거칩입죄야! 알아?!
재은 응, 신고해라. 근데 우리들 이복남매인 거 금방 드러날 텐데?
재민 누가 남매야? 우리가?
재희 (한 명씩 손으로 가리키며) 홍재민, 홍재희, 홍재은 돌림자네.
(박수치며) 오마야, 이름마저 느므느므 남매 같다. 그자, 재은아?
재은 (고개 힘차게 끄덕) 네.
재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이때, 재희가 배가 아픈 듯 바닥에 주저앉는다.

재희 아고 배야, 오빠, 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여 좀 드러누울게,
참말로 미안하데이. (재은에게 신호 주고, 눕는)
재은 언니, 저도 배가.. 우리 점심을 잘못 먹었나 봐요. (따라 눕는)
재희 아이고, 그런가비다. 죽것다아~
재민 야! 니들 안 일어나? 내 친구 경찰이거든?! 진짜 부른다?!

S#18. 재민방 + 파출소 안(낮)

재민,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두호와 통화 중이다. 화면 둘로 갈라지고.

두호 수술 날짜도 밀렸다면? 그냥 며칠 같이 보내.
재민 (하소연) 내가 회사도 관두고 정말 여자 되려고 작정한 거 알지?
집이든 밖이든 다른 여자들처럼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근데 재들은

날 남자로 알 텐데,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

두호 사정이 딱하잖나?

재민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었어. 그러다가 눌러 앉으면 어
뜩하냐고? 난 재들 책임 못 진단 말야.

두호 나도 봐, 속도위반 책임지잖어.

재민 그건 네 애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구!

두호 핏줄 무서운 게 바로 그거야. 그냥 자식처럼 짹 멍기고 짹 붙어.
밀어내려고 해도 어쩔 도리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더라고.

재민 재넌 남이나 다름없거든?

두호 (뚜뚜- 동시통화음 들린다) 야, 우리 영신이한테 전화 온다.
(빠르게 말하며) 암튼, 막내 엄마는 내가 함 알아볼게, 끊는다.

재민 그래. (통화 끊고, 팔짱 끼고 고민하는)

S#19. 거실(낮 → 밤)

누워 있는 재희와 재은. 어느새 해가 저 거실이 어둑어둑하다.

재은 언니, 언제까지 이려고 있어요? 저 인강 들어야 하는데.

재희 내도 화장실 가고잡다. 좀만 더 버티보고,

이때, 재민의 방문이 ‘발칵’ 열리자, 배 아픈 연기에 시동 거는 재희와 재은.

재민 발연기 2인, 그만 일어들 나시지?

시간 경과.

삼남매, 소파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데, 집안을 둘러보는 재희.

여기저기 꽃무늬 소품, 특히 생화 꽃병 아래 고운 꽃무늬 천이 깔린 것을 보며,

재희 근데 혼자 사는 거 맞나? 뭘 놈의 꽃 치장이 이래 많노?

재민 (재희 짜리며) 앤 (재은 보고) 그렇다 치고 넌 왜 왔어?

재희 (염치고 뭉고) 오빠야, 88만 원 세대 알지이? 내가 거기다. 영화연출
전공했는데, 그쪽 취업이 영 애렵잖아? 그러개꼬 시나리오도 쓰고 이
런저런 알바도 하면서 앞길을 바지란히 모색하고 있따.

재민 (한심) 한마디로 백수?

재희 그런 오빠 와 평일인데 집에 있노? 직업이 뭔데?

재민 난 아주 잘~나가는 편집물 아트디렉터고, 지금은 잠깐 쉬는 중.

재희 아트디렉터 됐나? 잡지 디자인? 역시 그랬나?

재민 뭐가?

재희 오빠가 고딩 때부터 그쪽에 관심 있어가, 내가 오빠 생일 날
‘편집 디자인의 역사’인가 그 책도 선물해줬잖아, 기억 안 나나?

재민 (콧방귀) 내가 아끼던 MP3 잃어버리곤 풀랑 헌책방에서 사다준 책?

재희 (시치미) 아닐 건데? 오빠 니를 엄청 생각해서 사다준 걸긴데?

재민 (재희에게) 됐고! (재은 보며) 암튼, 넌 공부는 좀 해?

재희 (궁금한) 맞다! 애, 장례식장서도 공부하더라?

재희, 재은에게 바짝 다가앉으며 경청 자세.

재은 (새침) 그냥 장학금 받으려고 노력해요, 가난하니까.

재희 (기특한) 오마야, 아가 현실적이네, 괜찮타, 그자 오빠?

재민 (재희 말 무시하고, 재은에게) 엄마 이름, 연락처, 진짜 몰라?

재은 네, 몰라요.

재민 (한숨)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짐 가지고 나가.
재희 (투정하듯) 넘 하는 거 아이가?
재민 누가? (하다가) 내가?
재희 (불쌍 모드) 그래, 오빠 니가~ 우린 갈 테도 없고 돈도 없다.
 그라지 말구 아버지 보험금 나올 때까지 여서 좀 있음 안 되겠나?
재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재은 언니 그냥 지금 가요.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일어서려는)
재희 (재은을 끌어 앉히며, 애원) 오빠, 우리 진짜루 가야 되나?
재민 (동공 흔들리는, 괴로워 손으로 머리 감싸는)

흔들리는 재민을 보고 ‘걸려들었다는 듯’ 시선을 교환하는 재희와 재은,

재민 (젖다) 예잇, 니네 엄마 내가 찾아볼 테니까 그때까지만이야.
 둘 다 한 달 이상은 절대 안 돼, 알았어?
재희 (이겼다! 신난) 오빠야, 내는 보험금 받을 때까지만 신세 질게.
재은 (안도하는)
재희 그럼, 내는 예전에 큰엄마랑 쓰던 방 쓰면 되나?
재민 (불현듯 생각난 듯)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대로!

S#20. 작은방 안(낮)

재민, (재빠르게) 옷장 문을 열어 커다란 이불을 꺼내 바닥에 좌라락 펼친다.
 이불 위에, 행거에 걸려 있는 각종 원피스와 여성 구두 등을 급하게 던져 놓는다.
 그리고 주변에 놓친 게 있는지 사방을 살핀 후, 이불을 한 덩어리로 싣는다.

S#21. 거실(낮)

재민, 작은방에서 커다란 이불 보따리 싸들고 나오며,

재민 (재은에게) 넌 저쪽 끝 방, 창고로 써서 짐이 좀 많을 거야.

캐리어 끌고 각자 배정받은 방으로 움직이는 재희와 재은.
 그런 동생들 모습 지켜보는 재민, 잘하는 짓인지 싶어 손톱을 깨문다.

시간 경과.
 식탁 위, 짜장면, 짬뽕, 탕수육 보이고 삼남매 앉아 있다.
 재민은 메모지 읽는데,

재민 하나, 남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 식사는 각자 알아서.
 셋, 청소도 알아서 깔끔하게 한다. 그 외에, (가리키며)
 부엌 가장 왼쪽 찬장에 있는 그릇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냉장고에 각자 이름 칸 만들어놨으니까 거길 쓰면 되고.
재희 (너스레) 고시원처럼 살면 되네? 내가 또 거서 장기로 살아봤잖아.
 백퍼 노 프라블럼! (음식 보며) 면 뿐다, 먹자 먹자!

재희, 탕수육 소스 그릇을 탕수육에 부으려다가 말고, 재민과 재은을 보며,

재희 짹먹? 혹시 짹어 먹는 사람 있나?
재은 전 부먹요.
재민 돈 내가 냈거든? 싹 부어.
재희 통일! (신나게 소스 부으며) 그치 맞지, 탕수육은 부먹이지.

재은 (작은 목소리로) 아빠도 부먹이었는데...
재희/재민 맞다, 그랬따. (기억 없음, 입 삐죽)
재은 (재민에게) 저 질문이 있는데요?
재민 (괜히 긴장) 뭔데?
재은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재민 (당황) 아.. (이런 것도 공유해야 하는구나)

S#22. 몽타주. 삼남매 각자의 방(밤)

재민방. 얼굴팩 하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E)’에 예민해서 귀를 막는다.
 재희방. 바닥에 엎드려 통장 잔고 보고 한숨, 영화 작법 책 보고 한숨짓는다.
 재은방. 상 펴놓고 핸드폰 인터넷 강의 듣는데, 문자 소리(E) 들리고 내용 보면,
 ‘죽을래? 감히 토껴? 딱 기다려라!’ 재은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S#23. 거실(낮)

인서트. 재민의 동네, 푸른 기운이 도는 여명의 아침 풍경.
 방에서 나오는 재민, 잔꽃무늬 잠옷에 여성용 세면 머리띠를 하고 있다.
 등교 차림의 재은, 재민을 보고 눈을 몇 번 깜빡거리고 후 목례하고 나가는데,
 ‘왜 저래’ 싶은 재민. 이어, 겨우 눈을 뜬 재희가 방에서 나온다.

재희 (하품 하며) 와 그 꼴이고?
재민 엇? (아차, 세면 머리띠 빼며) 퍼..편해서.
재희 어제도 화장실 보니까 여성 목욕용품이... (급 의심) 혹시 게이 됐나?

재민 게이? 어머, 절대 아니거든?
재희 (눈 가늘게 뜨고) 내 물증도 있꼬, 심증도 있따.
재민 (반박) 아니라고! 남의 라이프에 신경 꺼 줄래?
재희 아님 말고, 내 먼저 화장실 쓰데이. (화장실 쪽 들어간다)
재민 (이런) 야! 나도 급하거든? 야아아~! (동거의 불편함 느끼는)

S#24. 여성복 상설매장(낮)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며 손님을 배웅하는 재희에게 친구 다가온다.

친구 오, 방세 굳었네, 잘됐다. 시나리오 공모전 준비는?
재희 (풀 죽어) 영 진도가 안 나간다. 너는?
친구 얼추. 좀 묵혔다가 교정 보고 내야지.
재희 (한숨) 부럽네, 난 이번엔 포기할란다, 시간두 없꼬 돈두 없꼬.
친구 아니,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왜 만날 돈돈 거려?
 아직도 니네 엄마가 돈 달래?

이때, 핸드폰 진동벨 울리고 받는 재희.

재희 응, 엄마. (표정 어두워지는) 얼마나? 그 정돈 없는데...

S#25. 변화가 거리 + 골목 안(낮)

재희, 커다란 동물 얼굴 탈을 쓰고 호프집 광고 전단지 알바 중이다.

시간 경과.
재희, 골목에서 인형 탈을 벗는데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열어보는 데,
‘유럽은 옳다’ 코멘트와 박대표의 유럽 여행 사진이 보인다.

재희 (뿌!) 인간이 이랄 수가 있나?!

S#26. 교실(낮)

재은, 반 접혀 있는 성적표를 보면 2등, 기쁜 표정.
이때, 핸드폰 진동벨 울리고 문자 확인하면,
‘홍재은! 전화를 또 씌어? 오늘 뒤통수 조심해라.’ 재은, 입술 깨문다.

S#27. 골목(밤)

인서트. 어둡한 골목길을 내달리는 재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
골목에 숨어 가쁜 숨을 고르는데, 재은의 발밑으로 돌맹이 하나가 굴러온다.
재은, 뒤돌아보면 가출팸 리더(이하, 리더)와 3~4명의 가출팸 아이들이 보인다.

리더 (비열한 웃음) 홍재은! 니가 튀어봤자 우리 손바닥 안이었지?
재은 (숨 몰아쉬며, 질린다는 듯) 니들 참 끈질기다.
리더 아지트 제공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감히, 토껴?
재은 우리 아빠 죽었어. 이젠 그 집에 못 산다고 했잖아!

리더 (으름장) 그니까! 이제 니네 새 집을 아지트 삼자는 거 아냐!
재은 나 이제 혼자 아니고, 진짜 가족이 생겼다고!!
리더 (비웃는) 진짜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어느 팸이냐, 동철이네?

S#28. 준석의 가게 앞 + 동네 일각(밤)

재민, 파 등이 보이는 저녁 찬거리 봉지를 든 채 준석을 또 훑쳐보고 있다.
여자 손님들이 준석에게 농담을 걸었는지 가게 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 보인다.
다. 질투의 눈빛 쏘는 재민,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을 배웅하러 나오는 준석. 허둥지둥 내뺀 재민의 귀에 “홍재은!” 소리 들리고 “응?” 멈칫, 서는데.

S#29. 골목(밤)

재민, 어느 골목 안 들여다보면, 가출팸 리더에게 머리채 잡힌 재은 보이고,

리더 시발! 이년이 누구한테 구라질이야!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재은 (양칼지게) 놔?! 이거 안 놔!
재민 (웁찐, 부드럽게 타이르듯) 거기~! 학..학생들 뭐해?
리더 (재민을 아래위 스캔 후) 비리비리 아저씨 길끼빠빠 하셔!
재민 (못 알아듣고) 뭐.. 끼..끼빠?
리더 (비웃고) 길 때 끼고 빠질 땐 빠지라구!
재민 ... (이미 낀 상황) 재은이 머리 놔줘! 빠.. 빨리!
재은 (민망, 짜증난다)
리더 (재은의 머리채 놓으며) 아는 놈이었냐?

재민 (센 척) 여..여러 명이 여자애 한 명을 괴롭히면 되겠어?!

리더 (낄낄) 이런 똥! 아저씨 애랑 뭘 사인데? 원조교제서?

재민 (재은에게) 흥재은! 빨리 일루와!!

재민, 찬거리 봉지를 어설피게 휘두르며 다가가는데 그래서 더 위협적으로 보인다.

가출팸 아이들, 당황해서 슬슬 옆으로 피하고 그 틈에 냅다 도망치는 재은.

그런 재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재민, 어느새 가출팸 아이들의 수세에도 밀리고, 결국 리더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외롭게 싸우는 재민의 모습이 이어진다.

S#30. 거리 일각(밤)

도망치는 재은, 맞은편에서 순찰 중인 경찰 두어 명을 만난다.

재민이 있는 골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호루라기를 불며 뛰어가는 경찰들.

재은, 안도 반 걱정 반으로 경찰들의 뒷모습을 본다.

S#31. 재민의 집 / 현관 + 거실(밤)

재희가 라면을 먹으며 TV 보면서 박장대소 중이다.

재민, 집안으로 들어온다. 쥐어뜯긴 머리, 이마엔 생채기가 났다.

겨우 지킨 대파 한 단을 옆구리에 끼고 멍한 눈으로 거실을 둘러보는데,

재민 재은이네?

재희 방에. (하다가 놀라) 싸웠나?

순간, 재민의 시야에 들어오는 렉서리한 라면 대접! 분노가 차오르는 눈빛.

재민 (버럭) 야! 가장 왼쪽에 있는 찬장엔 손대지 말랬지?!

얽혀사는 주제에 왜 남의 그릇에 함부로 손을 대고 그래?!

재희 아구, 깜짝이야! 한집서 쪼매 쓸 수도 있지, 뭘 썩을 그리 내노?

재민 (짜려보며) 규칙 잊었어? 쓰지 말랬잖아!

재희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서 화풀이한다더니, 오바 쨌냐!

재민 오바? 내가 지금 누구 땀.. (참는) 그게 어떤 그릇인 줄 알어?

재희 (치사한) 모린다! 다 먹었거든? 박박 닦아주면 될 거 아이가?!

재희, 툭툭거리며 조심성 없이 그릇을 들고 일어서다가 그만 그릇을 놓친다.

와장창 깨지는 그릇! 사방으로 튀는 라면 국물! 그대로 얼음 되는 재희, 참사다.

재민 (포효) 아아아악~! 니들 도대체 뭐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사태 파악을 위해 빠끔히 열고 있던 방문을 조용히 닫는 재은.

납작 엎드려 한 번만 봐달라는 간절한 눈빛과 애교 보내는 재희.

재민(E) 좀 찾아봤어?

S#32. 도로 갓길(낮)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인 경찰 복장의 두호. 이마에 밴드 붙인 재민이 졸졸 따라 간다. 각자 자기 사연만 말하는 두 사람.

재민 (징징) 두호야, 그것들 당장 내보내야 해. 나 돌아버리겠어.
두호 요즘 죽겠다. 영신이 입덧 시작했는데 신경질이.. 어후.
재민 나 스트레스 땀에 (턱 들며) 수염도 도로 찢해진 것 같고, 게다가 (거의 울먹) 머리채 잡혀서 원형탈모처럼 뜯겼어, 여기 좀 봐봐.
두호 (불법 주차 딱지 붙이며) 임신하면 원래 그런가, 되게 착했거든.
재민(O.L) 정두호! 내 말 듣고 있어? 좀 찾아봤냐구?
두호 (깜짝) 그 막내네 엄마 이름 정도는 알려줘야지. 아무리 내가 경찰이 래두 단서가 있어야 찾을 거 아냐.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뭘.
재민 그래? (속상한) 미치겠네, 정말.

S#33. 병원 진료실(낮)

다른 날.
 진료받는 재민.

의사 남성호르몬 수치가 많이 높아졌네요.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재민 (역시나 싶은) 네, 좀.
의사 수술 날짜는 다시 잡혔어요?
재민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 고환 적출 수술은 나름 큰 수술인 거 아시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컨디션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호르몬 약 처방전 찾아가시고요.
재민 네, 감사합니다.

S#34. 약국 안(낮)

약사에게 약봉지를 받아드는 재민, 이때 핸드폰 진동 울리고,

재민 (번호 확인, 불통해서 받는) 왜?
재희(F) (애원) 오빠야 저기, 아버지 보험금 백만 원만 땡기줄 수 있나?
재민 뭐?! (침침산중, 뒷골 잡는) 보험금이 얼마 나올 줄 알고?
재희(F) 내 좀 급해가 그란다. 널모레 알바비 받거든? 그때..
재민(O.L) 끊어. (전화 끊고, 씩씩대는) 이것들이 진짜!

S#35. 동네 거리(낮)

재희, 걷고 있다. 그때 하교 중인 재은을 보자 반가운,

재희 니 내랑 어데 좀 가자.
재은 어디요?

S#36. 영화 프로덕션 앞(낮)

재희, 인터폰에 말하는 중이다. 재은, 옆에 서 있다.

재희 박대표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 흥재힙니더!!
직원(E) 대표님, 안 계십니다.
재희 사무실에 있는 거 다 알고 왔거든요?! 대표님 차도 여 있잖아요!

직원(E) 자리에 안 계세요. 다음에 오십시오. (인터폰 끊기는 소리(E))
재희 (복장 터지는) 이런 호랑말코 같은, 확 죽이 벨라~!
재은 재민 오빠 부르면 어때요? 그래도 남자가 낫잖아요.

S#37. 커피숍 안(낮)

음료를 들고 심신이 지친 듯, 털썩 의자에 앉은 재민.
 호르몬 약 한 봉지 찢어 입에 털어놓고 음료를 마신다.

재민 내가 미쳤지. 하아, 이것들 어떻게 쫓아내지?

이때, 핸드폰 진동벨 울리고 받으면, 화면 둘로 갈라진다.

재민 (신경질) 왜 자꾸 전화질이야?

재희 오빠, 내가 돈을 좀 받아내야 하는데 좀 와줄 수 있나?

재민 (진짜 짜증난다) 내가 왜에?!

재희 글알바했던 프로덕션이 있는데, 몇 달치 알바비를 못 받고 있다.

여자 혼자라고 무시해서 그런 것 같거든? 오빠 니는 그냥 와서 옆에
 만 있어주면 된다. 나머진 내 알아서 하께.

재민 (단호) 싫어!

재희 돈 받으면 오빠 집에서 당장 나갈 수 있는데?

재민 싫.. 뭐? (화색 도는) 거기 어딘데?

S#38. 영화 프로덕션 앞(낮)

박대표, 회사 정문을 나오며 카 리모콘을 누른다.

‘뵙’소리(E) 나고 고급 외제차로 가면 재희, 재은이 서 있다.

재희 대표님!! 회사에 있는 거 맞았자나요?!

박대표 (핑계) 어.. 좀 전에 막 도착한 거야, 재희 알바비 땀에 그러지?
 미안해. 요즘 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 사정이 좀 그랬어.

재희 벼룩의 간을 빼먹죠. 어뜨케 하루살이 같은 제 돈을 띠먹습니까?

박대표 (달래는) 오해야, 절대 안 떼먹어. 상황 풀리면 바로 준다니까!

재희(O.L) 그렇게 말씀하신지가 벌써 5개월째라꼬요!

재은 언니, 그러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해요.

박대표 (알미운) 학생은 뭐야?

재은 제 동생요.

박대표 (괜한 으박) 어린 게 어른들 말하는데 껴들지 마, 싸가지 없이!

재은 (박대표를 노려보는)

재희 와 아한테 그럽니까? 오늘 돈을 안 받꼬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재민을 재희가 먼저 보고,

재희 (손 흔들며) 오빠야! 여기다, 여기!

재민 (다가가서, 멀뚱히 서 있는)

박대표 (재민을 위아래로 살핀다)

재희 우리 오빠니더. 친오빠요! (어떻게 좀 해보라는 표정)

재민 왜, 뭘? 그냥 서 있으라며?

재희 ?! (재민에게 재촉의 눈총 쏘는)

재민 (짜증 참고는) 저기요, 왜 일을 시키고 애한테 돈을 안 주세요?
 그것 땀에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아십니까?!
박대표 (픽 웃고) 돈이 있어야 주죠? 나도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다니깐.
재희 그런데 해외여행 간 사진을 좋다꼬 올리셨어요? 것도 유럽으로?
박대표 업무 차 간 건데 네가 뭘 상관이야?! (파리 쫓듯 손 휘저으며)
 다들 저리 비켜! 업무 방해하면 알바비고 뭐고 국물도 없어!

적반하장이다! 차에 타려는 박대표를 팔 벌려 막아 세우는 재희, 재민, 재은.
 박대표, 삼남매에게 다가가더니 두 팔로 있는 힘껏 재민을 밀어버린다.
 박대표의 집중 공략에 힘 한 번 못 쓰고 바닥에 고꾸라지는 재민.
 자매들 쓰러진 재민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사이, 박대표가 차를 타고 떠난다.
 삼남매, 부랴부랴 박대표의 차 문을 두드리며 쫓아가지만 뺨 빠져나가는.

S#39. 놀이터(낮)

벤치에 나란히 앉은 재민과 재희.

재희 (타박) 오빠 니는 뭘 남자가 그리 힘을 못 쓰고 나자빠지노?
 그라고도 남자가? 보약이라도 쫌 지아 먹어라.
재민 (자폐아처럼, 작게 중얼중얼)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재희 뭘 중얼중얼 거려 썼노?

재은이 커다란 솜사탕을 두 개 들고 온다.

재은 저쪽에 무슨 어린이 행사를 하나 봐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서. (재민에게 하나 내밀며)

재민 (마지못해 받고, 삐딱한) 누가?
재은/재희 (동시에) 아빠가요. / 아버지? (둘이 픽 웃는)
재민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은 아버지다! 빈정 상하는)
재희 솜사탕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랑 동물원 간 거 생각난다.
재은/재희 (동시에) 서울어린이동물원!!
재희 (신난) 찌찌뽕! 거서 코끼리 열차 타고 동물원 한 바퀴 쓱 돌구,
 솜사탕 먹고 햄버거랑 돈까스도 먹꼬... 그때가 참 좋았지이...
재은 (행복했던, 맛장구치는) 맞아요. 저도 딱 그 코스였는데...

“6월쯤 갔는데?”, “맞따, 내도 초여름였따” 재희와 재은 가르륵.
 재민만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질투 나고 더 열 받아 벌떡 일어선다.

재민 (히스테리 부리듯) 솜사탕에 동물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야, 흥재희 너! 돈 관리 제대로 못해? 아버지 뺏아서 그 따위로 돈 관
 리 허술했다간 평생 남한테 페나 끼치고 근근이 사는 거야!
재희 ! (뭘 그렇게까지 비약을)
재민 (재은에게) 그리고 너! 공부만 잘하면 다야? 그런 불량한 애들이랑
 엮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 잘난 아버지 인생 복습하고 싶어?
 니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어! 나 귀찮게 하지 말구, 알아들어!!

솜사탕을 바닥에 팽 던지고 자리를 뜨는 재민.
 그런 재민을 병하게 보는 재희와 재은.

S#40. 놀이터 일각(낮)

기분 별로인 채 터벅터벅 걷고 있는 재민.

재민 (알미운) 어디서 추억팔이를 하고 있어, 배려심도 없는 년들.
아버지도 그래.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똥 치울 일만 주고, 하아.

그때, 재민 발밑으로 어린이용 공이 굴러온다. 보면,
좀 떨어진 곳에서 젊은 아빠와 4~5세 정도의 아들이 서 있다.

젊은 아빠 아저씨, 거기 공 좀 던져주실래요?

재민, 부자(父子)를 물끄러미 보다가, 심술 난 듯 공을 반대 방향으로 던져준다.
황당해하는 젊은 아빠와 아이, 공을 잡으러 뛰어간다.

S#41. 재민의 동네 / 카레가게 앞(낮)

재민과 나란히 걷던 재희, 준석의 카레가게에 붙은 ‘알바 구함’ 알림판을 본다.

재희 (재민에게) 잠깐 들렀다 가자. (가게로 들어간다)

S#42. 카레가게 앞(밤)

재민, 기운 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새 준석의 카레가게 앞이다.

이때,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재희, 재민을 보자 반갑게 뛰어 나온다.

재희 흥재미니! 오빠야~

재민 왜 거서 나와?

재희 내 오늘부터 여서 알바한다. (눈치 보며) 화 좀 풀렸나?

재민 (흥! 빙긋 표정)

재희 (달래듯) 무신 남자가 그리 뒤끝이 기노? 카레나 묵고 가라.
울 사장님, 일본서 요리 배웠는데 끝내줘, 재민이도 인정했다.

재민 원래 내 단골집이었거든?

재희 맞나? 참 오픈한 지 1년 됐잖지. 암튼, 묵고 가라. 내 쏘께.

재민 돈도 없는 게 인심은.. 약속 있어.

준석, 누군가 싶어 밖을 내다본다. 재민, 또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다.
재희, “저거 와 저라노?” 하며 달아나는 재민을 보는.

S#43. 거실(밤)

집에 들어온 재민, 거실 테이블 위에 재희의 핸드폰 진동벨 울린다.

재민, 무심코 핸드폰을 드는데, 진동 멈추고 곧바로 문자 온다.

보면, ‘재희야, 돈 고맙다. 엄마가 매번 미안하다, 사랑해’라고 찍혀 있다.

재민 (재희가 돈 필요한 이유 알게 되는) 하아, 목 탄다 정말.

S#44. 호프집(밤)

생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재민, 사복 입은 두호가 마린안주를 뜯고 있다.

두호 술 마셔도 돼? 호르몬 약 땀에 안 된다더니?

재민 요즘처럼 지뢰밭 인생을 살면서 안 마실 수가 있겠니?

두호 (오징어 씹으며) 그냥 커밍아웃 해.

재민 ?

두호 네가 지금 제일 원하는 건, 그냥 혼자 살고 싶다는 거잖아.
동생들 눈치 안 보고 여장하고, 원래 네 계획처럼?

재민 응.

두호 그니까 커밍아웃 해, 싫으면 지들이 나가겠지.

재민 나갈까?

두호 나도 어릴 때, 너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다.

재민 그..랬어?

두호 넌 여자 짓해서 왕따였고, 그때 난 왕소심해서 찌따였잖아. 그래서
우리 우정은 필연적 동맹관계로 맺어지고, 그러다 절친 됐지만, 솔직
히 평범한 사람들은 네가 좀 부담되는 수가 있어, 알..지?

재민 찿. 묘하게 설득되면서 기분 별로네.

두호 받아들이는 건 상대방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알리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나도 내일 커밍아웃이다.

재민 뭘?

두호 우리 혼전 임신인 거, 영신이네 고백하러 가거든. (한숨 쉬고)

아버님이 아직 조선시대 분이시라 좀 맞을 거래, 각오하란다.

재민 (걱정되는) 어떡해?

두호 (진지한) 어딜 때리실까? 귀싸대기? 가슴? 배?

재민 우리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어.

두호 세상 쉬워 사냐? 어렵다 어렵다, 죽겠다 죽겠다 하며 사는 거지.
그래도 좋은 날도 있으니까 좀만 참자, 참아보자 하면서 사는 거고.

재민 이제껏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

두호 이제껏 참았으니까. (하다가) 에잇, 나도 몰라.

재민 (공, 다시 맥주 벌컥벌컥 마신다)

S#45. 거실(낮)

다른 날.

숙취로 아픈 머리를 잡으며 방에서 나오는 재민.

서서히 재민의 시야에 들어오는 난장판인 집안 풍경!

몽타주.

거실, 과자 봉지가 늘어져 있고, 여러 권의 책이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다.

세탁실, 세탁기에는 브래지어, 속옷 등의 빨랫감이 분수를 토하고 있다.

화장실, 하수구는 머리카락으로 막히기 일보 직전, 두루마리 휴지도 푹 떨어져
졌다.

부엌, 싱크대는 설거지가 한가득, 식탁은 흘린 김치 가닥이 말라붙어 있다.

냉장고 열어보면, 칸칸이 이름 써져 있는데 재민의 칸까지 침범해 있다.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떠는 재민.

시간 경과.

재민, 세탁기에 세제를 팍팍 넣으며,

재민 (홍분) 이 더러운 년들! 더 이상 안 참아, 못 참아, 왜 참아?!

S#46. 재민의 동네 / 전경(밤)

가로등불 하나둘 켜지는 저녁의 동네 풍경.

S#47. 재민의 방(밤)

재민, 결의에 찬 눈빛으로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여행용 캐리어를 힘차게 꺼낸다.

침대 위에 캐리어 놓고 열면, 여성스러운 옷과 신발, 화장품이 가득 차 있다.

재민, <S#4>와 같이 여성으로 변신을 시작한다!

재민(E) 홍재희, 홍재은! 좀 나와 봐.

S#48. 거실(밤)

각자의 방에서 나오는 재희와 재은, 재민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는데,

재민 (도도하게 통보) 잠깐 내 방으로 와줘.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는 재민.

재희와 재은, '이 상황 뭐지?' 싶은 표정으로 시선을 마주치며 따라 들어간다.

S#49. 재민의 방(밤)

작은 티 테이블에 둘러앉은 세 사람, 재민은 티 워머로 허브티를 만들고 있다.

재민의 방을 처음 들어와 보는 재희와 재은, 방안을 눈으로 둘러보는데, 프로방스 식의 꽃과 식물이 조화로운 인테리어, 곳곳에 꽃무늬 소품 보이는.

재민 (이하, 목소리 여성스럽게) 카모마일 티야. 마음을 안정시켜준대.

재희 (땡-) 오빠야, 이게 뭐 황당 시추에이션이고?

보자, 오늘 할로윈 데이(날짜 헤아리다가) 아니지? 아닌데?

재은 (재민에게 눈을 못 떴며 눈치만)

재민 나, 커밍아웃 할 게.

재희/재은 (어리둥절한 표정들)

재민 난 아주 오래전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어.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던 외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계속 여성호르몬을 맞아왔고, 수술비도 모았어. 조만간 태국에서 수술하려고 일도 관둔 상태구.

재희/재은 (눈 점점 커지고) !!

재민 그런데 너희가 갑자기 이 집에 들어왔고, 난 다시 남자로 오빠로 살아야했어. 하지만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긴 싫거든? 지금부터 난 여자로 살 거야. 그니까 이런 내가 이상하고 불편하고 싫다면 지금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면 돼.

잠시 어색한 침묵 흐르다가 재희가 벌떡 일어나며,

재희 일단, 나 브라자 푼다.

재민/재은 (응? / 응?)

재희 그러니까 오빠야가 걸은 남자, 속은 여자다, 이거잖아. 맞제?

재민 (의심스럽게 고개 끄덕인다)
재희 내가 집에 오면 젤 먼저 하는 게 브라자 푸는 거였다.
(브라 풀며) 근데 오빠야 땀에 안 할 수도 없고 억수로 불편했거덩?

재희, 브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다시 앉는다.

재희 (기분 좋은) 살겠다. 시원타아.
재은 (뜨악)
재민 (질색) 야! 도로 좀 차 줄래? 교양머리 없이!
재희 (그러거나 말거나) 오빠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다.
나는 좀 남자 같고, 오빠 기집애 같아서 큰엄마가 걱정 안 했다.
사실 난 오빠가 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재민 게이 아니래도.
재희 그니깐, 짝꿍 놀라볼긴 했지만, 난 오빠가 트랜스젠더도 꽤안타.
신이 글케 땀겨 거를 오빠 니가 우짜겠노?
글고 내 예술학도였자나, (윙크하며) 그쯤은 이해한다.

재민 (이 반응이 아닌데? 당황하는)
재은 (차분) 저기.. 계속 그러고 다니실 건 아니죠?

재민/재희 (보면) ??
재은 그동안 심사숙고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하심 어떨까 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사는 건 권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여장
하고 싶을 때, 지금처럼 하면 되잖아요. 수술까진 좀 그래요.

재민 ...
재희 음마야, 짝만한 기 은근 보수적이네. 현실적인가?
재은 앞으로 직업 갖기도 어려우실 테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지금처럼 남
자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요. 결혼도 쉽지 않을 거잖아요.

재민 (빱!) 난, 너희 의견을 듣자는 게 아냐. 내가 원하는 건!
재희/재은 ...
재민 (힘주어) 나 혼자, 온전한 나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재희 (당황) 에이~ 안직 아부지 보험금도 안 나왔다 아이가? 그리고, 애네
엄마 찾으려 나가기로 한 것 같은데? 혹시 찾아서 이라나?
재민 찾고 있어.
재은 ?!
재희 오빠야, 앞으로 청소 잘하께. 오빠가 만날 다 치와주는 거 내도 안다.
엄마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서 착각했다. 그리고
나는 오빠가 여장해도 저얼~ 때 색안경 안 낀다, 진짜다.
재은 전 갈 곳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꾸벅)
재희 알바 가야 하는데.. 그람, 나가도 되지? (일어선다)
재은 저도 수행평가 과제해야 돼서요. (따라 일어나는)
재민 (실패다, 괴롭다)

S#50. 편의점 앞(밤)

한쪽 눈이 퍼렇게 멎든 경찰복 차림의 두호, 편의점에서 음료를 들고 나온다.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재민에게 음료수 하나를 건넨다.
재민 옆에는 작은 캐리어 놓여 있고, 길가에는 두호의 순찰차가 세워져 있다.

두호 (의자에 앉으며) 여장한 거 밖에선 참 본다.
재민 많이 이상해?
두호 안 이상하진 않지. (하다가) 아직은...
재민 (서운하지만) 눈은 왜 그래? 범인 잡다 그랬어?

두호 아니, 영신이네 인사하러 갔잖아. 아버님한테 맞았지 뭐. 귀싸대기, 가슴, 배가 아렸어. 방심했다. (캐리어 보며) 근데, 어디 가?
재민 응. 너네 집에.

두호, 음료 마시다 책-바지에 잔뜩 흘리고 털어내며,

두호 아니 왜?
재민 네 조연대로 커밍아웃 한 결과라는 것만 알아두셔.
두호 어땠길래?
재민 애들이 나갈 기미가 1도 없더라. 그래서 나왔어, 뽀뽀해서.
두호 근데 어찌냐? 영신이 와 있어, 집에서 쫓겨났거든.
재민 그럼 난?!
두호 네가 내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너까지 책임져야 하나?
그러지 말고 며칠 여행이라도 가서 마음을 좀 추스르는 건 어때?
재민 내 집 놔두고? 태국 가려면 한 폰이라도 아껴야 된 단 말이야.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암튼 당분간 바짝 놀라매야 해.

S#51. 순찰차 안(밤)

두호, 순찰차 운전 중이고, 재민 보조석에 앉아 있다.
이때, <S#1>의 여 실장에게 전화 온다.

재민 여보세요. (앗! 여자 말투에서, 남자 말투로) 여보세요?
실장(F) (의아해하며) 홍재민 씨 번호 아닌가요?
재민 (반갑게) 실장님. 맞아요, 저.

실장(F) 맞구나? 자기 감기 걸렸어?
재민 (얼버무리며) 아, 줌.. 어쩐 일이세요?
실장(F) 지난번에 프리 일 있음 달랬잖아? 한 2주 일정인데, 가능해?
그놈의 개진상 서울전자, 재민 씨만 찾는다.
재민 (흔쾌히) 할게요! 내일 몇 시요? 아, 네! (사이) 실장님 근데요,
제가 스타일이 좀 변했는데 놀라지 마시라고요, 네. (전화 끊고)
두호 (기겁하며) 야, 홍재민! 너 설마?
재민 괜찮아. 우리 실장님, 그런 사람 아니야. 무지 오픈 마인드시구, 실력 위주로 사람 쓰셔. 일 받아서 집에서 작업하면 돼.
두호 그래도 그게 (걱정) 이번엔 그냥 남자로 가지?
재민 (고개 내저으며) 앞으로 이려고 살 거잖아. 부딪힐 일이야.

S#52. 버스 안(낮)

다음 날.
여장한 재민, 여성스러운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다.
사실 엄청 긴장한 상태. 손수건으로 손바닥 땀을 연신 닦아낸다.

S#53. 케이크 가게 입구(낮)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오는 재민,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당당하게 걷는다.

S#54. 디자인 사무실 안(낮)

일반 사무실의 오후 풍경, 7~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재민 (여성스러운 목소리, 밝게) 안녕하세요?

직원들, 재민의 남다른 포스에 누군지 궁금해하는데,
마침 미팅룸에서 나오던 실장이 재민에게 다가선다.

실장 누구 찾아오셨어요?

재민 (선글라스 벗으며) 실장님, 저예요.

실장 ... (설마) 재민 씨?!

S#55. 디자인 사무실 내 /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재민과 실장.

재민 케이크 좀 드세요. 실장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실장 내 짐작이 맞아? 성전환 수술하려고 일 관둔 거였어?

재민 네.

실장 재민 씨 여성스러운 거야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게이끼 있는 초식남인가 보다 했지, 세상에 수술까지!
(이마 한 번 짚고) 근데, 재민 씨, 내가 자기 많이 아껴서 그러는데 굳
이 수술까지 해야겠니? 그 풀이.. 지금..

재민 ... (표정 굳는)

실장,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양손을 올리며,

실장 걱정돼 그러잖아. 아니.. 그렇게 여장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사회생
활을 어떡하려고 그래?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냐? 뭐 그런 이태원
바 같은 데서 노텔 부를 것도 아니고, 회식할 때 보니까 음치더만! 술
먹으면 얼굴도 고구마처럼 빨개지구.

재민 (애써 밝게) 저 편집 디자인 되게 잘하잖아요.

실장 그건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버짓이 커서 초반 미팅이 잦을 거야.
근데 거기 홍보팀 김부장 알지? 갑 오브 갑, 폰대 오브 폰대!

재민 그럼.. 안 된다는 건가요?

실장 시비 걸기 딱 좋잖아? 그 개진상 김부장... 안 봐도 비디오다.

(한숨 쉬고) 왜 멀쩡히 잘생겨서는 여자 되려고 해?

재민 실장님.. 이게 원래.. 저예요.

실장 (응? 응? 손부채질 하며) 오늘은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 암튼, 비대면
일거리 생기면 연락 줄게. 서운해 말구, 이해하지?

재민 ... (자존감 낮아지는) 네.

S#56. 여자 화장실 안 + 밖(밤)

화장실 안에서 변기 뚜껑 내리고 앉아 있는 재민, 충격이다.

이때, 밖에서 호들갑스러운 여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직원1 완전 대박 사건! 저 완전 깜놀했잖아요!

직원2 난 재민 씨가 사온 케이크 먹기도 좀 찝찝하더라.

직원1 (격하게 호응) 그쵸?!

직원3 성의로 사온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하는데) 좀 묘하긴 했지?

직원2 그니까요. 이때까지 우리 속인 거예요? 너무 응큼하다.

재민, 화장실에서 나와 여직원들을 가로질러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기 시작한다.

여직원들 식겁한 표정으로 서둘러 나가며, “어머, 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찹찹해”, “조용히 해, 듣겠다”, “뭐야, 진짜!” 등의 말을 주고받는다.

재민 (거울 보며, 목소리 떨리는) 그럼, 이려고 남자 화장실에 가리?
... 디자인도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 (고이는 눈물 애써 참는)

S#57. 변화가 / 거리(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초저녁, 로드 숲 늘어져 있는 정도의 시내 거리.
사람들 물결처럼 흘러가는데 생각에 잠긴 재민도 그 속에 섞여 흐르듯 걷고 있다.

플래시백. <S#49>에서

재은 앞으로 직업 갖기도 어려우실 테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지금처럼 남자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요.

마주 오던 사람들, 여장한 재민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남자 아냐?” 수군거린다.

재민, 고개를 가볍게 흔들고 마음을 추슬러 상처받지 않겠다는 표정 짓는다.

S#58. 카레가게 앞(밤)

재민,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S#59. 카레가게 안(밤)

준석, 여장한 재민을 보고 조금 놀라지만 티내지 않는다.

준석 어서 오세요, 근데 저희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재민 (무안) 아.. 여기 카레가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준석 아, 그러세요? 그럼 일부러 와주신 거니까 만들어 드릴게요.
(메뉴판 주며) 일단 편하신 데 앉으세요.

재민 그냥 다음에 올게요.

준석 (서글서글) 얼마 안 걸려요. 만드는 거 똑딱입니다.

재민 (성격도 좋구나 싶어, 더 좋은)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는)

준석 저희 가게 오신 적 있죠? 낮이 익네요. 아닌가?

재민(E) (준석을 보며 미소만) 예전에 자주 왔으니까요.

그동안 안 왔던 건.. 이렇게 여자로 변해서 오고 싶었거든요.

시간 경과.

카레 한 그릇을 재민에게 가져다주는 준석.

준석 맛있게 드세요.

재민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준석 (너스레) 이상형이요? 저 소개팅 해주시게요?

재민 아니, 좀 궁금해서.
준석 예쁘면 좋죠. 특히 전 여성스러운 여자가 좋더라고요.
재민 여성스러운 여자요. (마음에 새기고, 조신하게 카레 먹는)

S#60. 재은의 방(밤)

재은, 좌식 책상에 앉아 진동벨 울리는 핸드폰을 노려보고 있다.

재은 (결국 받으며) 엮이기 싫됐잖아!
리더(F) 근데 어찌냐? 지금 안 나오면 니네 집에 불 지를 건데?
재은 미쳤어?!
리더(F) (차갑게) 기억 안 나나 보네. 내가 한다면 하는 거?
재은 (심상치 않고) 지금 어디야?

재은, 비상용 호루라기를 챙겨 나간다.

S#61. 거실(밤)

거실 소파에서 통화 중인 재희.

재희 돈이 어데 또 있노? 은제까지 밀 빠진 독에 물 붓길 해야 하는데?
 제발 좀 새아빠랑 들이 해결해봐라. (사이, 서러움 폭발하는)
 엄마가 사채 쓸까 봐. 그래가 내가 팔리갈까 봐 그동안 주긴 줬는데!
 근데 엄마 그거 아냐? (울떡거린다) 내 글 쓰고 싶어 하는 거?

남들처럼 뒷바라진 안 해줘도 내 좀 그냥 냅두면 안 되겠나?!

재은, 방에서 나오다 울고 있는 재희를 본다.
 그냥 나가려다가 재희 앞에 각티슈 놓아주고 나간다.

재희 (티슈 뽑아 눈물 닦는) 재혼 두 번씩 허고! 가게 족족 말아 묵고!
 엄마는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면서! (악을 쓰는) 내는.. 내는!
 언제쯤 내 맘대로 허고 살 수 있는데? 내 좀 내비 도라, 제발 좀!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지고 펑펑 우는 재희.

S#62. 동네 일각(밤)

준석으로 인해 한결 기분이 나아진 재민, 맞은편에서 재은이 걸어온다.

재민 (불러 세우며) 이 시간에 어디 가?
재은 (냉랭) 고시원 사는 사이끼리 뭐 상관인데요?
재민 뭐?
재은 만날 쫓아낼 궁리만 하면서 웬 관심이냐고요.
재민 (헉! 한방 먹은)

이때, 재은의 핸드폰 진동벨 울리고 받으면,

재은 (버럭) 간됐잖아? 가고 있다구!! (확 전화 끊는)
재민 누군데 전화를 그렇게 받아?

재은 (표정 차가워지는, 그냥 간다)

무안한 재민, 더는 물어보지 못하고 재은을 보내는데.

S#63. 집 앞(밤)

집 앞에 이르자 갑자기 위기감 느끼는 재민.

재민 (설마 싶은) 흑시...

플래시백. <S#29>에서
가출팜 패거리에게 둘러싸여 머리채 잡혀 있던 재은의 모습.

다시 현실.
확신이 드는 재민, 대문에서 재희가 나온다.

재민 재희야, 큰일 났어! 재은이가 위험해!
재희 (눈물 흘리며, 답답) 뭘 소리고? 좀 전에 나갔는데.
재민 지난번에 일진 같은 애들이 재은이 찾아왔는데 또 온 것 같아.
내 얼굴에 상처 나고, 네가 내 그릇 깬 날!
재희 (상황 파악되는) 맞나? 어데 있는데?
재민 이 동네 어딜 가야. 빨리 가보자.

재민과 재희 뛰어가는데, “앗!”하고 재민이 주저앉는다.

재희 (버럭) 아오! 신지도 못하믄서 지랄 엠병한다고 신꼬 나갔나?!
재민 (발목 잡고 아파하며) 사거리 제일슈퍼 골목 근처로 가봐, 빨리!
재희 아씨, 알바도 늦었는데, 내 미친다! (뛰어간다)

아픈 발목을 주무르는 재민, 일어서려고 노력한다.

S#64. 골목(밤)

어두운 골목, 가출팜 패거리들(남녀 4~5명 정도) 무리지어 있고,
재은이 다가가면, 재은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리더.

리더 (위협하며) 네 친엄마 술집 년이라며? 그래서 막살 거라며?!
근데 왜 어쭈잖게 모범생 코스프레질일까? 디지고 싶어?!
재은 (뺨 부여잡으며 노력하면) !
리더 들어올 땐 그냥 들어와도 나갈 땐 그렇게는 안 되지.
재은 (지지 않고) 원하는 게 뭐야?!
리더 ATM! 달에 50씩 조공 바쳐.
재은 (기막혀 픽 웃고) 내가 그런 큰돈을 어디서 구해?
리더 그거야 우리 알 바 아니지. 돈을 훔치든, 몸을 팔든!
재은 (대들듯이) 못 주면 어쩔 건데?!
리더 일단 쳐맞아야지, 아주 개같이. (패거리에게 눈짓한다)

재은, 비상용 호루라기를 필사적으로 분다.

S#65. 동네 일각 + 골목(밤)

재희, 어디선가 호루라기 부는 소리를 듣는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면, 어두운 골목에서 재은과 가출팸 패거리를 발견한다.

재희 (의아한) 니들 뭐꼬?!
재은 (구해달라는 눈빛)
재희 (훈계조) 야심헌 시각에 집구석서 처들 잘 것이지, 녀의 동네서 시끄럽꾸로 지랄 엠병을 허고 몰려댕기노! 재은이 당장 안 놔주나?!
리더 또 아는 사이야? 재주 좋아, 늑다리 년놈들 많이 사켰네?
재희 (옥!) 니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내 기분이 영 벨로라는 사실허고, 두 번째로는 내가 태권도 유단자라는 기대! 그라니까 지금부터 내 동생 건들면 다 뒤진다!!
리더 내 동생 좋아하네? 술집 다니는 애네 엄마도 버린 앤데 어서 개뽕을 쳐? 애 형제 없는 고아거든요, 아줌마?!
재희 (그럴 리 없다) 이기 무신, 개떡에 콩떡 볶는 소리고?!

S#66. 동네 일각 + 골목(밤)

재민, 절뚝거리며 가는데 퇴근하는 준석을 만난다.

준석 엇, 아까 오셨던 손님, (재민의 상태를 보고) 어디 다치셨어요?
재민 (당황) 아.. 네. 발목을 조금.
준석 저런, 제가 부축을 좀 해드릴게요.
재민 고맙습니다. 그보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때, 근처 골목에서 재희의 목소리가 들린다.

재희(E) 거기 안 서나?! 재은이 놔주라꼬!!

S#67. 골목(밤)

준석과 재민이 골목에 들어서면 리더와 덩치, 재희와 대치하고 있고, 더 깊은 골목으로 재은을 끌고 가는 가출팸 아이들 서너 명이 보인다. 이때, 가출팸 리더가 주머니칼을 꺼내 들고 재희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는 재민.

플래시백. <S#59>에서

준석(E) 예쁘면 좋죠. 특히 전 여성스러운 여자가 좋더라고요.

옆에 선 준석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갈등하는 재민, 그러나 동생들을 구할 절체절명 순간이다! 잠시 딜레마에 빠지는 재민. 이윽고, 자신도 모르게 굶고 우렁찬 남자 목소리로 외치는데,

재민 이런~ **(뵙~처리) 띠기럴~ 쥐방울만 한 새끼들아~~!!
동작 그만~! 내가 바로 귀신도 때려잡는 해병대 출신이거든?!
준석 !!! (재민의 굶직한 목소리에 놀라서 보는)
리더 해병대 출신의 여장 남자? (비웃고) 골 때리네. 누군데 껴들어?
재민 (우렁찬 남자 목소리로) 시스터! 재들 시스터다!!

재민,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휘 돌리며 가출팸들에게 다가간다.

가출팸 패거리들, 재민의 위세에 조금씩 뒤로 물러선다.
 준석은 112에 신고하려고 핸드폰 누르는 등 정신없다.
 실수로 핸드백을 놓치는 재민, 그 사이 핸드백을 채가려는 덩치가 보이고,
 재희가 재민의 핸드백을 되찾으려 덩치에게 달려든다.
 이때 가출팸 리더, 재희에게 다시 한 번 칼을 들고 다가가며 기회를 노린다.
 준석이 칼을 먼저 보고 “재희야! 카.. 칼 조심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치자,
 재민, 재희를 향한 칼을 보고 본능적으로 “안 돼~~!” 외치며 무작정 달려가는
 데!
 결국 재희를 대신해서 가슴에 칼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는 재민,
 점점 의식이 멀어지듯 눈을 감는다. 그 위로, 사이렌 소리(E) 들리고.

S#68. 경찰서 안(밤)

재민,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면 소란스러운 경찰서 안이다.
 참고인 조사 중인 재민, 재은, 재희 보이고, 옆줄에 가출팸 아이들 잡혀 있다.
 보호자 대기석에는 준석과 여전히 한쪽 눈이 멍든 두호도 와 있다.

경찰 (타이핑 치며) 가슴 부위에 칼을 맞자마자 그 충격으로 잠시 기절을
 했으나 현재 별다른 외상은 없다.

경찰, 책상 위에 놓인 뽕브라 세 개를 손으로 가리키며,

경찰 아무튼, 이 뽕브라가 홍재민 씨를 살렸네요.
 근데 왜 남자분께서 뽕브라를 세 겹씩이나 하셨습니까?

질문에 당황하는 재민, 가출팸 아이들이 불량하게 키득거린다.
 재희, 그런 가출팸 아이들을 째려보며 주먹 하나를 들어올린다.

경찰 홍재민 씨, 대답해주시죠?

재민 저기 그건.. (망신스럽고) 제가.. 그제..

재희 (버럭) 그만 건 와 묻는데요? 뽕을 세 개를 넣든, 삼십 개를 넣든?
 민중의 지팡이가 돼 갖고, 이러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막~ 막! 공개
 적으로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예?

재민 (더 민망해서 재희의 옷소매를 잡아당긴다)

경찰 누가 누굴 짓밟았다 그러세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죠.

넘어가서 (재은 보며) 재들하고 언제부터 아는 사이야?

재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저를 잠깐 보육원에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고, 작년에 가출했다가 한 달 정도 같이 지냈어요.

경찰 가출은 왜 했어?

재은 (망설이다가) 아빠가.. 친아빠가 아닌 외삼촌인 걸 알게 됐어요.

재민과 재희, 놀라서 동시에 재은을 본다.

경찰 (흥미 돋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데?

재은 아빠가 뺏일을 하셨는데.. 작년에 사기를 크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원양어선을 타야 했고, 절 친엄마한테 맡기려고 전화할 때 통
 화를 엿듣고 알았어요. 두 분 만나실 때.. 몰래 따라갔고요.

재민/재희 (믿을 수 없는) !!

재은 (눈 붉어지는) 근데 엄마가.. 엄마가.. 술집에 계셨고, (하는데) 저를
 책임 못 진다고 했고.. 그 충격 땀에.. 바로 집을 나왔어요.

경찰 재네 가출팸에서는 왜 나갔어?

재은 아빠가 찾아와서 (재민, 재희 보며) 언니 오빠랑 살게 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왔고 그랬는데..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앙앙- 우는)

재민과 재희, 안쓰럽고 복잡한 마음으로 재은을 본다.

S#69. 경찰서 밖(낮)

여명이 밝아오는 시각,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재민, 재희, 재은, 준석.
어딘가에서 두부를 사서 뛰어오는 두호.

준석 먼저 가보겠습니다. 새벽시장에 가야 해서요.

재민 (고개를 들지 못하고)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준석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괜찮습니다.

재희 사장님, 저도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준석 그래, 오늘은 쉬고 내일 봐. (일동 보며) 들어들 가세요.

꾸벅 인사하는 일동, 돌아서서 가는 준석을 눈으로 끝까지 쫓는 재민.
그런, 재민을 눈여겨보는 재희와 재은, 두호. 재민의 짝사랑을 눈치 챈다.

재희 오빠야, 접어라. 울 사장님, 게이다. 일본에 남친 있댄다.

재민 (충격) 뭐! 게..이?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는 재민, 휘청거리면 두호가 얼른 부축한다.

두호 (위로하듯) 야, 흥재민! 괜찮아, 세상의 반이 남자다.

재희 좋은 친구를 뒀네. (두호에게 호감) 성함이 어뜨케 되세요?

두호 정두호요. 근데 어제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여친은 임신했고요.

재희 (헐 하다가 버럭) 누가 남친 하재요? 서울 경찰들 상태 와이라노?

재민 (무표정으로 힘없이) 오늘 하루 되게 길다.

두호 이제 아침이야. 다 지나갔어. 일단 두부 먹고 정신들을 챙겨보자.
(재은에게 두부 건네며) 자, 막내부터.

재은이가 두부를 한입 베어 물다가, 이 상황이 어이없는지 히죽 웃음을 흘린다.
“왜 웃어?”, “이게 웃겨?”, “잠을 못 자 그래”하다가 하나들 웃기 시작한다.

S#70. 거실(낮)

다른 날.

발목에 파스 붙인 여성스러운 차림의 재민,
현관 앞 정리하는데 재희와 재은의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온다. 마음 쓰이는.
뒤돌아 동생들을 보면, 재희는 설거지, 재은은 거실 바닥을 걸레질 중이다.
그때, 재민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고 전화 받는다.

재민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요?

재희와 재은, 동시에 재민을 본다.

시간 경과.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세 사람. 비주얼이 돋보이는 카레라이스다.

재희 (한입 떠먹고) 얼~ 이런 재주가 있었나?
재민 나 원래 카레 좋아해, 울 엄마가 잘했거든.
재희 (혼잣말처럼) 그래가 사장님 좋아했나?
재민 박대표한테 떼인 돈, 받을 수 있을 거야. 두호가 힘써준대.
재희 (박수치며 기쁜) 진짜가? 오빠야 고맙데이~
재민 아버지 보험금도 들어왔어. 오백 정도 되던데 둘이 나눠줄게.
재희 박대표 돈 받으면 내는 쾌안타, 둘이 나눠라.
재은 저도 괜찮아요. 굳이 나누다면 공정하게 셋이 나누고요.
재민 (어이구) 가난한 년들이 어디서 사양질이니? 그냥 받아 챙겨.
재희 (손사래) 울 엄마가 인자 내한테 돈 달라 안 한됐거든? 가게 팔고 새
 아빠랑 취직두 했대, 매달 꼬매씩 내 돈도 갚아준댔다.
재민 정말? 잘됐네.
재희 그래가 내일 재은이 시설에 대따주고 내도 친구 집으로 가게.
재민 (생각난 듯) 아, 잠깐만.

재민, 방에 가서 리플릿이 든 비닐 파일을 가지고 나온다.

재민 (재은에게 건네며) 알아봤는데 여기 시설이 괜찮더라.
 학교랑도 가깝고 선생님들도 훌륭하고 좋은 대학도 많이 간대.
재은 (의외인, 재민을 보는)
재희 언제 또 이런 건 알아봤대?
재민 애긴 해났어. (재희에게) 데려다줘. 이 꼴로 난 좀 그렇잖아.
재희 (이해하는) 알았다.
재은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하다)

갑자기 어색해지는 세 사람, 조용히 밥을 먹는다.

재희 근데 오빠 니 진짜 수술할끼가? 무섭지 않나?
재민 무서워.
재은 전 아직도... 왜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민 (나직) 트랜스젠더는 되는 게 아니야.
재희/재은 (보는)
재민 나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찾아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거거든.
 한땀 나도 무지 혼란스러웠어. 가식 없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말
 투, 내 취향, 내 행동 하나하나에 모두가 수군거렸으니까.
 대체 어떡해야 되나, 잘못 태어났나, 괴물인가, 죽고도 싶었지.
재희/재은 (놀라는) ?!
재민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 같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괴물이 아니었구나. 여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그때까지 참자.. 살아남자.. 그런 생각을 한 게 고3 때였어.
재희/재은 (조금씩 공감하는)
재민 엄마랑 외할머니 때문에 실행이 꽤나 늦어진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알고 있어. 이런 나를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가족이란 걸, 너희들과 내
 가 함께 살 수 없는 이유, 그게 가장 커. 그리고.. 괜히 나 같은 사람이
 랑 살면서 남들 눈총 받을 이유 없잖아. 같이 사는 건... 결과적으로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재희 (안쓰러운, 분위기 전환) 아고~ 말 드럽게 많네. 알았따, 알았어.
 카레 남았나? (일어서는) 왜케 맛있게 해가지고 과식하게 허노?
재은 언니, 저도 더 먹을래요.
재민 (동생들의 덤덤한 반응이 고마운)

S#71. 집 앞(낮)

다음 날.

처음에 왔던 그대로 캐리어에 배낭을 하나씩 멘 재희와 재은.
재민, 동생들에게 쇼핑백 하나씩 건네준다.

- 재민** 깨끗한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대.
- 재희** 음마야, 하나 필요했는데.. 고맙데이.
- 재은** (감동) 고맙습니다.
- 재희** 암튼, 흥재민이~ 수술 잘되가 예뻐져라.
- 재은** 안녕히 계세요.
- 재민** 잘 가.

시원섭섭한 눈빛으로 떠나는 동생들을 바라보는 재민.

S#72. 거실(낮)

재민,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눕는다. 홀가분한 기분, 절로 미소.
그러나 곧이어 느껴지는 허전한 마음.

- 재민**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정말이네.

재민, 일어나 동생들의 방을 차례로 열어보고 천천히 문을 닫는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방문 앞에 선물이 놓여 있다.
선물 뜯어보면 <S#31>에서 깨진 그릇과 똑같은 그릇과 꽃무늬 원피스가 있다.

노트 찢어서 쓴 메모 보면, ‘원 놈의 그릇이 이래 비싸노? 암튼, 별나다.
원피스는 59만 원짜리인데, 우리 매장에서 95% 할인가로 샀으니 부담 갖지 마라.
그래도 원래 59만 원짜리임을 망심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다. - 재희’

또 다른 선물 봉투를 뜯어보면 꽃무늬 브래지어와 약 봉투다.
카드 열어보면, ‘브라캡 안에 뽕이 내장돼 있어요. 절대 안 빠진대요.
그리고 저번에 소독약이랑 밴드 사냈는데, 못 드렸어요.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재민 언니.’
뭉클해서 울컥하는 재민, 순간 마음 허물어지며 급하게 뛰어나간다.

S#73. 버스 정류장(낮)

멀리 버스가 오고, 재희와 재은이 버스 탈 준비를 한다.
재민, 다리를 살짝 찢둑거리며 달려온다.

- 재민** 잠깐만! 애들아, 잠깐만!!

재희와 재은, 재민을 본다.

- 재희** 와?
- 재민** (헉헉대며, 재희에게) 그릇 말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 드린 마지막 선물이었어. 늘 갖고 싶어 하셨거든. 아파서 한 번도 쓰지 못하셨지만...
- 재희** (그랬구나 싶지만) 그거 따지러 온 기가? 암튼, 사줘도 지랄이다.
- 재민** 불우한 애 옆에 불우한 애, 그 옆에 또 불우한 애.

그치만 니네가 괜찮다면.. 나도 니들 정말 괜찮거든?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살아볼래?

재희/재은 (정말일까, 쭈뼛)

재민 큰오빠는 돼줄 수 없겠지만, 큰언니로서는 니들 곁에 있어줄게.
물론 우린 엄청 많이 싸울 거야. 그래서 난 분명히 후회하겠지.
그렇더라도 우리 셋, 같이 살아볼래? 가족으로, 시스터로.

재희와 재은, 해사하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따뜻한 눈으로 자매들을 보는 재민.

성공해서 언니들한테 효도해야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요.

재민(E) 어쩔, 눈칫밥 먹이는 보람 있네.

재희(E) 낸 시나리오 쓰기 시작했따.

재민/재희(E) 오오~ / 쩡! 무슨 애긴데요?

재희(E) 우리 얘기, 제목이 고민인데..

재민(E) 이거 어때? (발음 굴리며) 오 마이 시스터?

일동, 푸하하 웃고, “괜찮은데?”, “오 마이 갓, 시스터가 낫지 않아?”, “근데 우리 얘기, 재밌을까?”, “잘 쓰면 돼죠” 등등의 얘기 나누며, 나란히 캐리어를 끈 채 즐겁게 걸어가는 세 자매(?)의 뒷모습에서 엔딩.

에필로그. 동네 일각(낮)

끝.

재민, 챙이 큰 모자에 선글라스를 끼고,

<S#72>에서 재희가 사준 원피스를 입고 당당한 자세로 캐리어를 끌고 있다.

옆 골목에서 캐리어 끌고 나오는 재희.

재희(E) 언니야, 니 진짜루 여자 되믄 젤 먼저 뭐할 끼가?

재민(E) 몸매 짝~ 붙는 원피스 입고 두호 결혼식에 가야지.

그리고 너네랑 동물원 가서 코끼리 열차 타고 솜사탕 먹을 거야.

재희(E) (으하하 웃고) 그래, 함 가자. 아버지 코스대로!

재은이가 또 다른 골목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재민(E) 나 수술할 동안, 너넨 태국서 뭐할 거니?

재은(E) 방학엔 뭐니 뭐니 해도 선행학습이죠.



작가 후기 **강원영**

‘오 마이 시스템’을 처음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어느 교양 프로그램을 본 것에서 출발했다.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아들과 이를 반대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관심을 끌었다. 이후 트랜스젠더 소재의 관련 영화들을 찾아봤다. 대부분의 영화에는 성소수자가 갖는 애환과 소외, 사회적 편견, 가족과의 불화가 어둡고 차갑게 그려졌다. 안타까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원하는 삶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트랜스젠더가 된다 해도 당연하잖아.’ 건강한 자아의 주인공을 내세워 밝고 따뜻하게 그려보고 싶었다. 해서 장르를 ‘코미디’로 잡았다.

멘토링의 가장 큰 진단은 그 도드라진 장르성을 가리앉히는 데에 있었다. 코미디이기에 자칫 트랜스젠더가 희화화되는 장면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음을 통감했다. 감독님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호모 포비아를 가진 시청자 대상의 TV드라마로서 섬세함이 불충분했다. 강력한 안티의 부재로 인한 극성 결여, 트랜스젠더가 겪는 애환의 경미함, 복(腹)이 다른 삼남매의 가족으로서의 공감대 빈약, 주인공의 가벼운 대사톤 등도 보강/수정되어야 했다.

큰 맥락에서의 즐거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있던 캐릭터를 빼고 새로운 캐릭터를 투입하는 반복과정에서 고뇌가 따랐다. 주인공이 등장인물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좀 더 실재하는 인간으로 그리고자 고민을 거듭했다.

여전히 미흡한 대본이지만 수정고의 개인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몇 번의 크고 작은 수정 과정을 통해 초고보다 등장인물들에게 애정이 생겼다는 점이다. 삼남매이자 세자매인 그들이 어딘가에서 정말 잘 살아주었으면 싶은 등 그런 마음. 이번 수정 작업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한다.

O'PEN
CJ E&M

비매품 / 무료



04680

9 791187 565239

ISBN 979-11-87565-23-9

ISBN 979-11-87565-21-5 (세트)